

시로 읽는 성보순례
무량수전

국보 제18호 부석사 무량수전
고려시대 ▶2면

현대불교

진흑 속에서도 연꽃이 피어나거늘
사람을 만남에 그 귀천을 따지지 말라.
〈대장엄론경〉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56년 단기 4345년(음력2월 29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제880호 2012년 3월 21일 수요일

조계종 종단운영 변화모색 발걸음

15~16일 종단지도자연수, 천태 · 진각종 등 방문

이웃 종단과 상호 협조 통해 부처님 가르침 구현





조계종스님들, 이웃종단 찾은 까닭은…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과 중앙종회의장 보선 스님, 교육원장 현응 스님, 포교원장 지원 스님, 호계원장 법등 스님과 전국 교구본사 주지스님, 중앙교역직 스님과 재가종무원 등 150여 명이 3월 15일 진각종 통리원과 천태종 구인사를 방문했다. 종단지도자연수 차원에서 진행된 이번 방문을 통해 연수단은 천태 · 진각종의 성장동력을 살펴보고 조계종 종책과의 접목 등을 고민했다. 연수는 16일 태화산 전통불교문화원에서 대중공사를 끝으로 회향됐다. 사진은 좌측부터 연수단의 진각종 통리원과 천태종 구인사 방문 모습. 조동섭 기자

조계종 중진스님 등 150여 명이 천태 · 진각종 등을 방문했다. 또, 원불교 현황 등을 브리핑 받고 대중공사를 가졌다.

조계종이 이웃종단을 대규모로 방문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이번 방문에는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비롯해 종회의장 보선 스님, 교육원장 현응 스님, 포교원장 지원 스님, 호계원장 법등 스님과 전국 교구본사 주지스님, 중앙종회의원, 중앙교역직 스님과 재가종무원 등이 참석했다. 스님들은 이번 방문을 통해 비교적 짧은 역사에도 꾸준히 성장해온 이들 종단의 성장동력과 노하우 등을 살펴봤다.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은 3월 15~16일 종단지도자연수를 갖고 진각종 총인원, 천태종 구인사, 태화산 전통불교문화원 등을 차례로 방문했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15일 오전 9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입재식에서 "천태종과 진각종은 비록 역사는 짧지만 수십 년간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하며 최근에는 한국 사회에서 새로운 리더로 부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스님은 "이들의 성장에 담긴 원동력을 이해해 참고하고, 이웃 종단과 상호 협조를 통해 부처님 가르침을 이 땅에서 구현하며 이를 기초로 사회와의 소통과 상생을 도모하는 자리"라며 "이번 연수가 역사와 사회에 부응하고 국민의 행복과 평화를 위한 종단운영 시스템의 질적 변화의 계기를 만드는 단초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승 스님은 "올해는 통합종단 출범 50주년으로 종단 운영의 최우선 가치로서 '국민의 행복과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정진하는 한해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 내부적으로 자성과 쇄신을 통한 한국불교 중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대외적으로 국민 · 사회로부터 신뢰받고 존경받는 종교로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입재식 후 연수단은 진각종 총인원을 찾아 탑주심인당에서 진각종 통리원장 혜정 정사로부터 진각종 현황과 종단운영시스템 등을 청취했다.

연수단은 진각종에 이어 중창 60여 년 만에 한국불교 3대종단으로 자리매김한 천태종 본산 구인사를 방문했다. 연수단은 구인사 도착 후 천태종 총무원장직무대행 무원 스님, 교무부장 유정 스님, 감사위원 용문 스님 등의 안내로 설법보전을 참배하고, 광명전 · 대조사전 · 역대조사전을 차례로 둘러봤다.

조계종 연수단은 진각종과 천태종 방문에서 ▷문화 등 분야별 예산 편성 비중 ▷승려노후복지 체계 ▷승려교육 및 수계 체계 등에 질문을 쏟아내며 각별한 관심을 보였다.

특히, 진각종에서는 중앙집권체제를 통한 종단 운영을, 천태종에서는 재가신도를 주축으로 한 사찰 운영에 연수단의 이목이 집중됐다.

연수단은 태화산 전통불교문화원으로 자리를 옮겨 원불교 현황을 청취했다. 이어 연수단은 불교사회연구소장 법안 스님의 총선 · 대선 등 선거 관련 기조발제를 듣고, 대중공사 후 행사를 회향했다. 진각종 · 천태종 방문과 달리 태화산 전통불교문화원에서의 법안 스님의 기조발제와 대중공사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한편, 이번 연수 계획 발표 후 조계종 내부에서는 반발이 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조계종)보다 역사도 짧고 규모도 작은 종단에서 무엇을 배우겠느냐." "자존심 상하는 일이다" 등 불만이 적지 않아 개최 여부가 불투명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다.

하지만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자성과 쇄신 결사를 바탕으로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반대의견을 무마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시행 전 반발과 달리, 연수 과정에서 종단스님들의 반응은 긍정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연수가 조계종 종무 운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관련기사 3면

조동섭 기자 cetana@hyunbul.com

4대 종교 한자리서 '탈핵' 선언

26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합동세미나서

4대 종교가 한자리에 모여 탈핵 · 탈원전 선언문을 발표한다.

불교생명윤리협회(공동대표 법응 · 박광서)는 '세계 핵안보 정상회의'가 열리는 3월 26일 오후 2시 불교 개신교 원불교 가톨릭 등 4대 종교 합동 '탈핵'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탈핵 · 탈원전 선언문은 이날 행사에서 발표된다.

행사에는 ▷불교 법응 스님(불교생명윤리협회 공동대표) ▷개신교 장윤재 목사(한국기독교협의회 생명윤리위원회) ▷원불교 최서연 교무(원불교외국인센터소장) ▷가톨릭 양기석 신부(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가 발제 및 토론자로 참석한다.

법응 스님은 "핵은 단 한 번의 사고로 모든 생명체는 물론 땅과 물과 공기까지 피폭시킴으로서 현재는 물론 미래에 까지 회복이 불가능한 죽음의 지구를 만든다"며 "한국종교계는 '핵'의 위험성을 널리 알려서 체르노빌과 후쿠시마와 같은 죽음의 '핵 재앙'으로부터 우리 국민과 인류와 뭇 생명을 구하고자 한다"고 행사취지를 설명했다.

조동섭 기자

불교생명윤리協, 고리원전 사고 은폐 비판

불교생명윤리협(공동대표 법응 · 박광서)는 최근 고리 원자력 발전소 전원사고 은폐와 관련해 성명서를 발표했다.

윤리협은 성명서에서 "2월 9일 고리 원전 제1호기에서 발생한 전원 중단사고에 대해 즉시 보고 및 공개치 않고 발전소장 등 간부들이 은폐를 모의했다는 사실은 국가시스템과 공직자의 안전 불감증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조동섭 기자

새 연재 정찬주의 아쇼까대왕 유적답사 13면

경허 스님 열반 100주년 행사 시작

26일 선서화전, 유적지 순례 · 학술세미나 등

한국불교 중흥조 경허 선사의 열반 100주년 기념사업이 3월 26일 선서화전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막이 오른다.

경허스님열반100주년기념사업회(추진위원장 지운 · 수덕사 주지, 이하 기념사업회)는 3월 2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나무갤러리에서 기념 선서화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21면

이와 함께 기념사업회는 美 콜롬비아대 로버트 셔먼 교수를 초청해 경허 스님 유적지를 돌아보고 사상을 되새기는 행사를 갖는다. 이를 위해 셔먼 교수는 18일 내한했다.

로버트 셔먼 교수는 방한 기간 동안 경허 스님의 유적지 순례를 중심으로 수덕사 방장 설정 스님과의 대담, 동학사 비구니스님들과의 만남 등을 가진다. 셔먼 교수의 한국 내 일정은 KBS가 다큐멘터리로 제작해 부처님오신날 특집 프로그램으로 방영할 예정이다.

경허 스님 열반100주년 기념사업은 6월 14일 조계사에서 열리는 스님 다례재로 절정에 다를 전망이다. 기념사업회는 다례재를 전후해 정본〈경허집〉발간도 앞두고 있다.

숭산 스님 제자를 중심으로 외국인스님들이 2박 3일간 한자리에 모여 수행을 통해 경허 선사의 가르침을 되새기는 행사도 6월 중 열린다. 또, 수덕사 성보박물관에서는 경허 · 한암 스님 등 유품이 전시된다. 경허 스님을 학술적으로 조명하는 학술세미나는 가을 중 열린다. 행사는 조계종 교육원이 주관해 개최한다.

조동섭 기자

법정 스님 생가(生家) 복원된다

전남 해남군(군수 박철환)은 "무소유의 삶을 실천한 법정 스님 생가를 복원키로 하고 지자체와 군의원, 사회 · 기관단체장 등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고 3월 16일 밝혔다.

해남군이 법정 스님 생가 복원을 위해 구성한 추진위는 민 · 관 관계자 및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됐다. 추진위는 정관과 규약 제정 등을 거쳐 스님의 생가 복원과 추모사업 등에 나설 예정이다.

조동섭 기자



해남군 문내면 선두리 법정 스님 생가

"국가 · 자기미래 결정하는 공정선거"

7대 종교지도자 대국민 호소문 발표

7대 종교지도자들이 4 · 11일 총선을 앞두고 국민들에게 공정한 선거문화를 만들자고 당부했다.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공동대표 의장 자승 · 조계종 총무원장, 이하 종지협)는 3월 9일 롯데호텔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능환)와 간담회를 갖고 '바르고 깨끗한 선거 실현을 위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종지협은 호소문을 통해 "국회의원선거는 국정을 견제 · 감시하는 의회의 일꾼을 뽑는 선거로 국가와 자신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는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축제의 장이 돼야 한다. 이번 국회의원선거가 국민이 희망과 꿈을 갖고 밝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역사적인 선거로 치러지길 기대한다"며 "민주정치 발전과 국민화합을 위해 바르고 깨끗한 선거 실현에 우리 모두 동참하자"고 당부했다.

조동섭 기자

880호 CONTENTS

종단 2
성철 스님 탄신100주년 기념법회

시방세계 5
제주불교포교결집대회 · 순례단 창립



학술 · 문화재 7
방영준 성신여대 교수
"자비없는 불교는 없다"

종립대학을 가다 12
금강대학교





시로 읽는 성보순례

국보 제18호 부석사 무량수전



무량수전

문인수

나는 바람이 되어 무량(無量)하다.
용의 눈을 마음에 박으니
저 한꺼번에 꿈틀대는 녹음, 잎새 잎새들이 전부 비늘이다.
어느 날은 또 바위가 되어 도적떼를 물리치고
공중에 사뿐 앉아 그대를 지키나니.

"저 이마에 흐르는 땀 봐라."

-의상대사는 마침내 이 절[浮石寺]을 마무리지었다. 무량수전(無量壽殿)에, 극락정토 한복판에 아미타여래불을 모신 일!

내 이름은 선묘, 지금도 바람이다.
화엄 아래 무량, 무량한 여자다.

〈국보사랑 시집-불멸이여 순결한 가슴이여〉 中에서

문인수 시인은… 1945년 경북 성주 출생. 1985년 〈심상〉으로 등단. 시집 〈쉬!〉 〈배꼽〉 등.

성철 스님 탄신 100주년 기념법회 봉행

조계종 前 종정이자 선지식이었던 성철 스님의 탄신 100주년을 기념하는 법회가 열렸다.

재단법인 백련불교문화재단(이사장 원택)과 성철 스님 문도회(회장 원택)는 3월 11일 조계사 대웅전 앞마당에서 '퇴옹당 성철 대종사 탄신 100주년 다례재'를 봉행했다.

행사는 법회는 명종, 개식, 삼귀의, 어장 동주 스님의 종사영반, 육성법문, 월서 대종사의 행장소개, 종정 법어, 원로회의 의장의 추모사, 헌사, 문도 기념사, 헌화 등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법회에는 스님의 삶과 가르침을 기리기 위해 선각 스님(해인사 주지), 월서 스님(조계종 원로의원), 동주 스님(한국불교전통의례전승원장), 원택 스님, 현해 스님(조계종 원로회의), 지원 스님(조계종 포교원장), 현응 스님(조계종 교육원장)을 비롯한 2000여 사부대중들이 모였다.

종정 법전 스님은 도문 스님이 대독한 법어에서 "성철 노사께서는 조선과 일제의 오백년 어둠을 털어내고자 절치부심 하셨으니 아름다운 이름은 백세(百歲)토록 삼남(三南)을 두루 적셨습니다"라며 "자금(紫金) 성인의 탄강은 억만인의 천년 영광이 되셨고 눈 푸른 선사의 선래(善來)는 백년토록 빛으로 화(化)했으니 일체중생은 타성과 구습을 멈추고서 스스로를 반조(返照)합니다"라고 말했다.

한국불교 현대화 미완일 당시
의제 · 복식 등 종단 표준 제정
청빈 · 정진 귀감된 선지식

원로회의 의장 종산 스님은 현해 스님이 대독한 추모사에서 "올해는 큰스님이 나신지 꼭 100주년이 되는 해로 스님께서는 한국불교가 미처 틀을 마련하지 못했을 때 출가수행의 인연을 통해 서릿발 같은 정진과 청빈의 삶으로 팔정도(八正道)를 실행으로 보이셨다"며 "중생의 몸으로 부처에 이르는 길을 일생의 일상적인 수행으로 솔선하셨다. 인연 있는 사부대중 모두가 성철 큰스님을 지혜와 복덕을 본받아 지혜의 눈을 뜨고 진리의 거울에 맑게 비친 각자의 본래 면목을 볼 수 있기를 갈앙(渴仰)합니다"고 말했다.



3월 11일 성철 스님 탄신 100주년 기념 법회에서 백련불교문화재단 이사장 원택 스님이 추도문을 낭독하고 있다.

스님은 이어 "큰스님께서는 '마음의 눈을 뜨고 그 실상을 바로 보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는 진언을 남기셨지만 탐심과 어리석음에 물든 중생들은 산을 산으로, 물을 물로 보지 못하고 있다"며 "그러나 스님의 진언은 수행자와 불자는 물론 국민의 진언으로 우리들의 신구의(身口意)에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다"고 말했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의 헌사를 대독한 포교원장 지원 스님은 "큰스님은 당대의 큰스님들과 함께 승가의 본분을 바로 세우는 것은 물론 의제와 복식 등 우리 종단의 현재를 이끌어낸 주역"이라며 "철저한 수행을 통해 수행자의 길을 보여주셨고 3000배와 참회 정진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몸소 체득하는 법을 가르치셨다"고 추모했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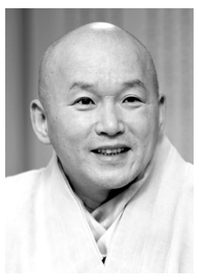
법주사 주지 현조 스님 선출

조계종 제5교구본사 법주사 차기 주지 후보에 현조 스님이 선출됐다.

법주사는 3월 12일 주지 후보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를 개최했다. 총회에는 선거인단 289명 가운데 252명이 참가해 투표 결과, 100표를 얻은 현조 스님이 당선됐다.

노현 스님은 86표, 성일 스님 66표를 얻었다. 후보스님들의 금품 수수 의혹을 검찰에 고발했던 장주 스님은 한 표도 얻지 못했다.

현조 스님은 후보선출에 대한 선거소청이 없을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19일 당선증을 교부 받을 예정이다. 이후 총무원장스님의 임명장 수여 후 現 주지 노현 스님의 임기 만료일인 4월 18일 이후 법주사 주지 소임을 맡게 된다.



현조 스님은 혜정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1986년 범어사에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95년 범어사에서 일타 스님을 계사로 구족했다. 14 · 15대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국제선센터 주지 등을 역임했다.

조동섭 기자

"승가촌 조성 승려노후복지 매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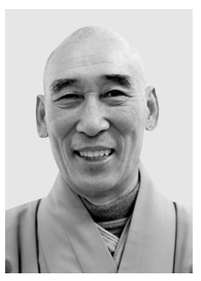
태고총림 선암사 주지 설운 스님

순천 선암사 제29대 주지로 설운 스님이 취임했다.

설운스님은 취임사에서 "선암사는 근세에 조계종과의 갈등로 인해 꽃을 피지 못해 가슴 아프다. 앞으로 시대에 발맞추어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스님은 "지금까지 선암사에서는 특이한 형태의 사찰운영이 진행됐다"며 "조계종과 대화를 중시하는 원만한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설운 스님은 선암사 중요현안에 대해 "현재 재정 확충방안과 총림활성화 방안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 성지순례 등을 유치해 재정 수입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스님은 승려노후복지시설에 큰 관심을 갖고 준비 중이다.

"사찰 아래 승가촌을 조성해 복지법인으로 만들어 노스님들을 안정적으로 모시겠습니다." 〈관련기사 8면〉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법주사 주지선출은 무효"

장주 스님, 당선무효확인 소청 제기

3월 12일 법주사 주지후보 선출 결과를 두고 선거 및 당선무효 확인 선거소청이 제기됐다.

법주사 주지후보로 출마했던 장주 스님(포항 오어사 주지)은 13일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법주사 주지후보 당선자는 운영위원스님에게 금품을 살포하고 말사 주지직을 주겠다고 매수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스님은 7일에도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 법주사 주지후보들의 금품선거 의혹을 수사해 달라며 고소장을 제기했다.

장주 스님은 중앙선관위에 제출한 문서에서 "중앙선관위가 호법부 조사를 무혐의 처리하고 선거를 강행한 것은 절차상 오류이다"라고 주장했다.

조동섭 기자

'교회에 토지임대' 수은 스님 문서견책

새문안교회와 토지 임대계약을 이면 작성해 초심에서 제적 징계를 받은 수은 스님(파주 보광사 주지)의 징계가 문서견책으로 확정됐다.

조계종 재심호계원(원장 법등)은 3월 1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제72차 심판부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재심호계원은 계약으로 파주 보광사에 재산상 손실이 없고 담당 종무원 과실도 있다고 판단해 "이후 문제 발생시 주지직을 사임하고 모든 책임을 지고, 해당 종무원을 재임용을 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제출하는 조건을 첨부했다.

이날 호계원은 불사 과정에서 횡령 등 혐의로 초심호계원에서 공권정지 3년 징계를 받은 진기 스님도 문서견책으로 징계를 경감했다.

조동섭 기자

생전예수재 및 가사불사 안내

통도사에서는 윤삼월을 맞이하여 생전예수제生前豫修齋를 봉행합니다. 생전예수재는 우리가 살아오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잘못들을 뉘우치고 참회하는 시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항상 "중생이 생사윤회의 고통을 면하고자 한다면 과거의 업은 참회하고 현재의 업을 청정히 하면 당래에 윤회에서 벗어나리라"하셨습니다. 윤달을 맞이하여 선망부모의 극락왕생을 발원하고 자신의 과거 잘못을 뉘우치고 현재를 닦아 미래를 준비하는 소중한 시간 되시길 기원합니다.

- 입 재 _ 2556년 4월 1일(음 3. 11) 오전 10시
- 회 향 _ 2556년 5월 20일(음 윤3.30) 오전 8시
- 동참금 _ 설판 100만원 | 동참 5만원 | 영가1위 1만원
- 문 의 _ (055)382-7182, (055)382-1288(화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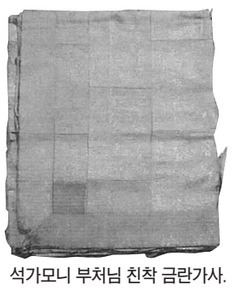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천도재 봉행



통도사는 부처님의 친착가사와 남산율종의 종조이신 자장스님의 친착가사를 모시고 있습니다. 이에 본사에서는 윤달을 맞이하여 부처님과 조사의 법을 상징하며 중생에게는 한량없는 복덕을 주는 복전의라 전해지는 가사를 지어 전국의 대덕스님들께 공양올리는 가사불사를 봉행합니다. 스님들께 올리는 공양중에 으뜸인 가사불사에 많은 불자님들이 동참하시어 무량한 공덕짓는 기회 되시기를 발원합니다.

- 입 재 _ 2556년 4월 1일(음 3.11) 오전 10시
- 회 향 _ 2556년 5월18일(음 윤3.28) 오전 10시
- 동참금 _ 스님지정(50만원), 대가사(10만원), 오조가사(5만원)

※스님을 지정하여 가사 공양을 올릴 수 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친착 금란가사.


자장율사 친착 금란가사.

■통도사 : 055)382-7182, 055)381-1288 FAX 055)382-7196
■부산 : 052)816-2241(부산포교당) ■창원 : 055)255-6359(구룡사)
■울산 : 052)211-3340(해남사) ■밀양 : 055)352-1150(표충사)
■창원 : 055)246-8393(마산포교당) ■서울 : 02)757-7766(서울구룡사)
■창녕 : 055)533-2295(창녕포교당)

불지종가영축총림 통도사 주지 원산 도명 합장
경남 양산시 하북면 통도사로 108 www.tongdosa.or.kr

불교식 창의적 체험활동 지침서 출간

조계종 포교원, 2013년 초중고생 대상…젊은 층 포교 큰 힘 기대

학교폭력 등으로 학생들의 인성교육이 중요시 되는 가운데 불교계에서 학생 여가활동을 지도하는 지침서가 출간돼 눈길을 끈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원 스님)이 2013년 초중고 학생들의 창의적 체험활동 전면 시행을 앞두고 불교식 창의적 체험활동을 위한 지침서를 제작했다.

불교적 창의적 체험활동 지침서는 ▷어린이·청소년지도자를 위한 창의적 체험활동 워크북 ▷배낭 메고 문화유산을 찾아서 ▷오감을 통한 자기 바라보기 등 3권이다.

책들은 불교의 정신적·문화적인 면을 부각시키면서도 학교 특별활동 및 교과목과 연계해 누구나 쉽게 이해·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일선 사찰의 어린이·청소년지도자나 학교교사들이 현장에서 학생 교육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집과 동영상 CD를 함께 제공한 것도 특징이다.

'창의적 체험활동 워크북'은 창의적 체험활동에 관한 이해와 설명을 비롯해 일선

특별활동·교과목 연계
자료집·동영상 CD제공

사찰에서의 적용 방법과 학년별 프로그램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 창의적 체험활동에 관한 학생과 교사, 학부모들의 설문조사 결과를 함께 수록해 그룹별 요구가 무엇이고 사찰이 어떤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도록 돕고 있다.

'배낭메고 문화유산을 찾아서'는 어린이들이 배낭을 메고 전국의 불교유산을 순례한 경험을 바탕으로 제작한 불교문화재 탐방 예시집이다. 책은 2011년 동련과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가 우리나라를 수도권·서부권·동부권으로 나눠 진행한 문화탐방프로그램을 바탕으로 학년별 탐방프로그램 운영 방법과 장소, 효과 등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오감을 통한 자기 바라보기'는 눈 귀 코 입 촉각 등 인간의 다섯 가지 감각을 활용한 어린이·청소년 명상 지도안이다. 이 책은 명상을 통해 아이들의 마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단계별 지도과정 및 방법을 제시했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일선 초중고교에서 시행해 온 창의적 재량활동과 특별활동을 통합한 교과외 활동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13년부터 초중고 전 학년을 대상으로 창의적 체험활동을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 교육과정에 따르면 학교를 대신해 사찰 등 지역 단체의 위탁 운영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이번 책 발간을 토대로 사찰에서의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킨다면 어린이·청소년 포교의 획기적인

2013년 교과부 체험활동
사찰위탁교육 가능해져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크다.

한편, 조계종 포교원은 17~18일 공주 전통불교문화원에서 400여 어린이청소년 지도자를 대상으로 제5회 불교어린이청소년 지도자 연수를 실시했다.

조동섭·이은정 기자

천태종-신도 사찰 운영, 진각종-중앙집권체제 특징

조계종 15~16일 종단지도자연수 현장

3월 15~16일 진각종, 천태종을 차례로 방문한 조계종 종단지도자연수는 이례적인 행보였다. 한국 불교의 장자를 자임하는 조계종이 이웃종단의 시스템을 배우기 위해 방문한 것을 두고 "경이롭다"는 평가도 들린다.

조계종 연수단은 15일 입재식 후 연수단은 진각종 총인원을 찾아 탑주심인당에서 진각종 통리원장 혜정 정사로부터 진각종 현황과 종단운영시스템 등을 청취했다.

혜정 정사는 진각종 성직자 등 인적구조 수행법·교육 체계, 재정·복지 등 종단 시스템을 조계종 운영시스템과 비교해 설명했다.

혜정 정사는 진각종은 통리원장 중심의 중앙집권체제를 통해 성장했지만, 모범적인 생활을 하는 수행풍토와 계행이 종도들에게 대중화됐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진각종은 육자대명왕진언을 정송하는 수행을 한다. 자성일 불사(일요법회)와 수요불사, 월초불공, 49일 불사는 어느 누구도 빠지지 않고 참석토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불사에는 모든 정사·전수의 참석을 의무화했다.

정사·전수 등 성직자는 전체 수입의 20%를, 신도들은 전체 수입의 10%를 희사(보시)한다. 희사는 단시 경시 재시로 구분해 단시와 경시는 행정 불사 등 종단운영에 사용하고, 재시는 스승들의 노후복지에 사용하고 있다.

특히 진각종은 분담금에 의존하는 조계종과 달리 심인당에서 모인 보시금 가운데 단시·재시는 50% 이상, 경시는 전액 통리원에 헌상토록 하고 있다. 특히 매 회계연도가 끝나면 각 심인당의 잔존수입은 전액 중앙으로 헌상해 유지재단으로 귀속시킨다. 또, 진각종은 종립대학인 위덕대 건립 등을 전액 지원했고, 10년간 매년 10억원씩을 지원하고 있다.

혜정 정사는 "전국 심인당의 재원이 중앙으로 모이지만 중앙에서 각 심인당의 불사 등을 지원하고 있어 특별한 문제는 없다"며 "중앙집권은 일할 때 확실한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종단 예산을 일목요연하게 수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조계종 연수단은 진각종에 이어 중창 60여 년 만에 한국불교 3대종단으로 자리매김한 천태종 본산 구인사를 방문했다.

조계종 연수단은 구인사 도착 후 천태종 총무원장직무대행 무원 스님, 교무부장 유정 스님, 감사위원 용문 스님 등의 안내로 설법보전을 참배하고, 광명전·대조사전·역대조사전을 차례로 둘러봤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구인사 대조사전 불사가 신도들의 원력으로 15년에



3월 15일 진각종 통리원 탑주시민당을 방문한 조계종 연수단이 통리원장 혜정 정사로부터 진각종 현황을 청취하고 있다.

걸쳐 이뤄졌다는 천태종 측 설명에 "10년이 걸려서라도 스스로 불사를 이뤄내는 모습은 본받아야 할 사례이다"라고 말했다.

구인사 관성당 5층에서 천태종 소개와 종단 운영 특성에 대한 브리핑은 갈웅 스님이 진행했다. 갈웅 스님은 천태종 3대 지표를 '새불교운동을 이끄는 요강'이라고 규정하고 "새불교운동은 근본을 지키되 불교를 쉽게 이해하고 바르게 실천할 수 있는 가장 현대적인 대중교화"라고 정의했다. 즉, 불교는 만고불변의 진리이지만 이를 실천하고 방법은 시대와 사회에 따라 변해야 하며, 애국·생활·대중불교가 그 방편이란 설명이다.

천태종은 자문기구로 신도회장 역임자로 구성된 참의원을 두고 있으며, 의결기구인 종의회의 의석 중 일정부분을 재가자가 맡고 있다. 특히, 사찰 운영의 상당부분을 신도회에 일임하고 있다.

천태종 총무원장대행 무원 스님은 브리핑에 앞선 환영사에서 "조계종이 하나의 종책적 목적을 갖고 천태종을 방문한 것은 일찍이 없던 일로 특별한 의미와 함께 소중한 인연으로 생각한다"면서 "여러 공통점과 다른 점이 있겠지만, 서로 같음과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가운데 한국불교 발전의 촉매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cetana@hyunbul.com

수산지종 대종사 다비, 사리 2과 출현

11일 백양사서 다비식…4월 24일 49재 봉행





다비 후 수습된 수산지종 대종사 사리 2과

3월 7일 원적에 든 조계종 고불총림 백양사 방장 수산지종 대종사의 영결식과 다비식이 3월 11일 오전 10시 장성 백양사에서 1000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됐다.

눈발이 날리는 가운데 조계종 원로회의 장으로 진행된 영결식에는 원로회의 부의장 밀운 스님을 비롯한 원로의원과 총무원장 자승 스님, 종회의장 보선 스님, 교구본사 주지 등 종단 주요 스님과 박준영 전남도지사, 이낙연 국회의원 등 정관계인사 등 1000여 사부대중이 대종사의 마지막 길을 함께 했다.

원로의장 종산 스님은 혜승 스님이 대독한 영결사에서 "큰스님의 가르침 만세에 남을 만큼 검박하고 위없어 보이나 이제 신구의로서 법체 확인할 길 없다고 생각하니 범부 중생의 눈에는 눈물이 고입니다"고 애도하며 "반선반작의 안거풍토를 '전형'으로 완성하신 수산 대종사여! 오늘 큰스님의 회상에 함께 한 후학들은 이와 같은 대종사의 지혜 그릇 본받을 수 있기를 지극한 마음으로 발원합니다."고 밝혔다.

영결식 후 백양사 연화대에서 다비식이 봉행됐다. 인로왕번을 선두로 200여 개의 만장이 호위하는 장의행렬과 함께 백양사 연화대 다비장으로 이운된 수산 대종사의 법구는 사부대중의 '나무아미타불' 염송 속에 불을 받고 한 줌 연기로 타올라 진정한 고요 속으로 떠났다.

다비식 후 하루가 지난 12일, 백양사는 연화대 밑 지하 1m 깊이에 묻었던 항아리를 수습하는 등 다비장에서 습골의식을 거행하고 사리를 수습했다고 발표했다.

한편, 수산 대종사의 49재는 4월24일 장성 백양사에서 봉행될 예정이다.

박재완 기자·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일 주 문



불레협 제7회 찬불가 율동대회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회장 도후 스님은 4월 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공연장에서 제7회 찬불율동제를 개최한다. (02)738-7860



통도사 청년회 창립 20주년 기념법회

양산 통도사 주지 원산 스님은 3월 11일 통도사 설법전에서 통도사 청년회 창립20주년 기념 법회를 봉행했다.



월정사 간경 수행학림 열어

평창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은 4월 12~15일 단기출가학교 졸업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법산 스님 초청 간경 수행학림을 개최한다. (033)339-6616



수덕사 만공 스님 탄신 기념법회

예산 수덕사 주지 지운 스님은 3월 28일 수덕사에서 만공 스님 탄신 기념 보살계 수계 법회를 개최한다. (041)330-7700



선운사 오감으로 느끼는 동백꽃축제

고창 선운사 주지 법만 스님은 4월 6~8일 선운사 일대에서 오감으로 느끼는 동백꽃축제를 개최한다. (063)561-1375



덕문 스님, 죽림정사에 500만원

경산 선본사 주지 덕문 스님은 용성 스님 탄생성지인 장수 죽림정사에 탱화 조성 기금 500만원을 보시했다.



봉은사, 도심수행환경 3년기도 7회 입재

서울 봉은사 주지 진화 스님은 3월 16일 봉은사 대웅전에서 도심 속 불교 수행환경 조성을 위한 천수다라니 독송 3년 대정진 기도의 7회에 입재했다.



효탄 스님 '금강경 강좌'

전국비구니회 기획실장 효탄 스님은 3월 19일부터 서울 마포 불교시민강원에서 매주 월요일 총 10회 조계종 표준 금강경 강의를 진행한다.



김종규 광화문문화포럼 회장

김종규 삼성출판박물관 관장 겸 문화유산국민신탁 이사장은 3월 7일 광화문문화포럼 정기총회에서 임기 2년의 제5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이용대 선수, 2012전영오픈 우승

불자 스포츠 스타 이용대 선수가 정재성 선수와 출전한 2012 전영오픈 배드민턴 슈퍼시리즈 프리미어 대회 남자복식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백만배 정진으로 개암사 중흥"

부안 개암사 주지 재안 스님



"100만배 정진을 통해 1400년 사격에 걸맞는 수행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민과 하나되고 소통하는 개암사를 만들겠습니다."

부안 개암사 재안 스님은 지난 2월 주지로 부임했다. 스님은 3월 12일부터 100만배 정진 중이다.

이에 앞선 2월 29일 출가재일부터는 2014년 11월 25일 회향까지 천일기도를 입재했다. 2월 27일부터는 3일씩 산신기도 · 나한기도 · 지장기도 등을 마쳤다. 관음기도 신중기도 등 도량기도를 회향한 3월 11일, 재안 스님은 역대 조사 등 다례재와 우주무주고혼 영가를 위한 천도재를 봉행했다.

재안 스님이 기도에 매진하는 것은 부처님과의 약속을 지키고, 부안 개암사의 중창과 지역불교 활성화를 위해서이다. 스님은 봉은사에 주석하던 10여 년 전, 판전에서 100만배 정진을 했다. 그때 부처님 전에 훗날 주지 소임을 살게 되면 다시 100만배를 올리겠노라고 서원했다.

부안 개암사의 새벽예불을 찾는 불자는 2명. 호남지역의 불교로는 이것도 대단한 일이라는 것이 한 지역불자의 귀띔이다. 이마저도 주지 재안 스님이 부임하고서 도량에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자 생긴 일이라고.

재안 스님은 "아무도 없어야 문제이지, 한 명만 와도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 두 명이면 얼마나 괄목할만한 성장이냐"고 반문했다.

스님은 조계종 포교원에서 포교국장 · 신도국장을, 총무원 직할교구 사무처장 등을 지냈다. "교역직 소임을 산 경험을 개암사에서 살려 호남불교 중흥을 이루겠습니다."

재안 스님은 기도정진 외에 개암사 중흥을 위해 당우 등 불사를 통한 도량정비와 템플스테이 사찰 지정 등을 준비 중이다.

"회주 혜오 스님(조계종 총무원 호법부장)이 前 주지 소임을 보며 개암사 가람수호를 잘해줘 지역상황이 어렵긴 하지만 가능성이 있습니다. 홈페이지 개설을 통한 사이버 소통과 템플스테이 지정 등을 통해 늘 대중 곁에 있는 개암사가 되겠습니다."

재안 스님은 "지역소외계층 등을 지속적으로 살펴 지역민들에게 인정 받는 개암사로 만들겠다"며 "100만배 기도 정진을 통한 포교 원력 실현으로 자성과 쇄신결사의 새 전범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조동섭 기자 cetana@hyunbul.com

"부처님의 고향은 네팔입니다"

붓다네팔 캠페인 펴는 시토울라 한국네팔인협회 회장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이 태어나신 곳이 네팔이란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2012년 네팔 룸비니 방문의 해를 맞아 네팔 알리기에 더욱 앞장서겠습니다."

부처님이 탄생한 룸비니가 위치한 곳이 어느 나라인지 아는 불자들이 몇 퍼센트가 될까? 2007년 조계사에서 500명을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대부분이 룸비니가 인도에 있다고 답했으며 네팔에 있다고 답한 불자는 불과 7%에 불과했다. 힌두교와 병행해 불교를 믿는 네팔인들이 한국에 와 느낀 충격은 대단했다. 이런 와중에 불교성지인 네팔을 알리고자 직접 발 벗고 나선 이가 있다. 바로 K.P. 시토울라 한국네팔인협회 회장이다.

한국네팔인협회는 3월 1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다큐 '부처님은 네팔에서 태어나셨다' 시사회를 개최했다. 이번 다큐는 한국네팔인협회가 2008년부터 진행해 온 붓다네팔 캠페인의 일환으로 네팔 정부의 2012년 룸비니 방문의 해 지정 홍보활동을 겸해 제작됐다. 시사회에는 250여 불자들이 참여해 성황이었다.

시토울라 회장은 "많은 한국인들이 부처님 고향을 네팔이 아닌 인도로 오해하고 있어 이번 영화를 통해 홍보활동을 전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국과 네팔이 교류하는데 불교는 하나의 매개체가 될 것입니다."

네팔관광청 한국사무소장도 맡고 있는 시토울라 회장은 "네팔 음식점만 몇 군데 있을 뿐 한국에 네팔어를 가르치는 곳조차 전무한 실정"이라며 "5월 초 본격 가동되는 네팔하우스는 네팔 다문화 가정 아이들 교육부터 네팔 문화 강좌 등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1992년 한국을 처음 방문한 시토울라 회장은 이후 네팔항공사 한국지부에 일하며 관광업에 관심을 갖게 됐으며 네팔대사관이 2007년 문을 열며 네팔관광청 한국사무소장 등 네팔정부일도 대행하며 한국과 네팔 교류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2008년에는 삼청동에 네팔 음식을 알리는 '옴 레스토랑'을 열기도. 이런 공로로 2009년에는 네팔인 최초로 서울명예시민이 됐다.

이런 그에게도 걱정이 하나 있다. 바로 네팔하우스의 운영비다. 사무실은 마련한 상태지만 월 1만 원 이상을 낼 수 있는 국내 네팔인이 100명도 채 되지 않는 실정이다.

이런 그에게 4월 경 예정돼있는 불자 반기문 UN사무총장이 룸비니 방문은 큰 힘이다.

시토울라 회장은 "한국 내에서도 룸비니를 비롯한 네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밝게 웃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제17회 현대불교문학상 수상자 발표

시·이홍섭, 시조·고정국, 소설·박성원, 평론·문흥술 등


이홍섭


고정국


박성원


문흥술


송준영

조계종 총무원(총무원장 자승)이 주최하고 현대불교문인협회와 계간 〈불교문예〉가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해 제정한 현대불교문학상 제17회 수상자가 발표됐다.

제17회 현대불교문학상 수상자는 시 부문에 이흥섭(시인), 시조 부문에 고정국(시조시인), 소설 부문에 박성원(소설가 · 동국대 교수), 평론 부문에 문흥술(문학평론가 · 서울여대 교수), 특별상 부문에 송준영(시인)이 선정됐다. 이번 심사는 이근배(심사위원장 · 예술원회원) 이가림(시인 · 인하대 명예교수) 최동호(문학평론가 · 고려대 교수) 홍성란(시조시인) 박수완(시인 · 현대불교문인협회장) 문혜관(시인 · 불교문학포교원장) 장영우(문학평론가 · 동국대 교수) 이숭원(문학평론가 · 서울여대 교수)가 맡았다.

현대불교문학상은 1996년 첫 회를 시작으로 국내에서 다년간 불교정신을 바탕으로 창작활동을 펼치고 있는 중견문인을 대상으로 시 · 시조 · 소설 · 평론 부문과 올해는 추가된 특별상 등 5개 부문에서 수상자를 선정 · 발표하는 상입니다.

시상식은 4월 28일 오후 3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현대불교문인협회와 계간 〈불교문예〉가 주관하는 '부처님 오신날 봉축행사'와 열린다.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상금 각 1000만원을 수여한다.

조동섭 기자

청와대 문화특보에 방귀희 씨



3월 9일 대통령문화특보로 방귀희 한국장애인문인협회장(55 · 사진)이 내정됐다. 독실한 불자인 방귀희 문화특보 내정자는 1991년 한국 유일의 장애인 문학 계간지 '솟대문학'을 창간해 지금까지 장애인 문인 400명을 배출하는 등 장애인들과 한국문화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방 내정자는 1급 지체장애인이란 신체적 한계에도 동국대 불교철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경희대 국어국문학과 강사로 강단에 서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왔다.

한 살때부터 소아마비로 두 발과 왼손을 쓸 수 없게 된 방 내정자는 오른손 만으로 1981년 동국대 불교철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하며 이름을 알렸다. 장애인 전용 방송인 KBS 3라디오 '내일은 푸른 하늘'에 첫 출연자로 섭외됐고, 이를 계기로 방송작가로 일해 왔다.

방 내정자는 2011년 불교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노덕현 기자

제3기 사찰경영전문지도자과정 입학

동국대 경영전문대학원(원장 유석천)은 3월 15일 동국대 정각원에서 '제3기 사찰경영전문지도자과정' 입학식을 개최했다.

이번 제3기 사찰경영전문지도자과정에는 성불사 주지 학명스님과 정중종 총무원장 법만 스님, 보광사 주지 행문 스님, 경국사 주지 정산 스님, 대승사 주지 귀영 스님, 백천사 주지 무구 스님 등 30여 명이 입학했다.

행사에서는 제2기 회장 골굴사 적운 스님이 환영사를, 동국대 이사 일면 스님(불암사 회주)이 '너희는 주불해라 나는 후불탱화하련다'를 주제로 사찰경영 경험 공유시간을 가졌다.

조동섭 기자

禪農敎團 宗務法人 우리불교 曹溪宗 종도모집

종 정 홍산 현불
총무원장 천 륜

입종안내

◆ 입종구비서류

○ 승려, 법사, 사암등록 신청서 1부
○ 주민증 앞 뒤 복사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 사암 사진 (안 · 밖)

○ 총본산 : 충남 청양군 남양면 온직리 611 수월사
○ 종정스님 주석 사찰 : 전북 부안군 상서면 통정리 567-1 관음사
○ 총무원 : 전화 063)583-8807 / 팩스 063-584-4153 / Mobile 010)6478-1569

종정큰스님의
법성게 친필휘호 보급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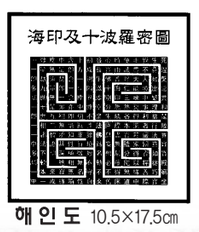
사업장이나 집안에 법성게를 걸어두고 해인도를 소지하고 있으면 일체만법이 성취되고 모든 장애가 소멸되며 일체 잡귀가 침범하지 못하는 신묘한 효력이 있습니다. 특히 큰 스님의 달마도가 들어 있는 법성게 휘호는 신묘한 氣가 있습니다.

※ 달마도도 보급합니다.

○ 보급가 10만원
○ 계좌 : 농협 351-0247-1334-03 (예금주 : 우리불교조계종)
○ H · P 010-6478-1569

〈족자〉


법성게 38×145㎝



해인도 10.5×17.5㎝

(宗)선농교단 우리불교 조계종에서는 도제양성과 포교에 함께 할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제주 관음사는 3월 11일 제주포교결집대회 및 '길따라순례단' 창단법회를 열었다. 이날 1천여 조계종 제주 불자들은 10㎞의 순례길을 걸으면서 생명과 나눔결사로 '평화의 섬 제주만들기'를 발원했다.



이호해수욕장에서 순례 마무리 행사로 열린 방생법회. 광어 치어 등 2000여 마리를 방생했다.



탑동공원에서 열린 제주불교 포교결집대회 및 길따라순례단 창단법회에는 제주지역 조계종 사찰 20여 곳이 참여했다.



"제주서 부처님 법따라 걸어요"

"미래로! 세계로! 희망제주! 길 따라 순례단! 한라산 관음사 파이팅!"

순례단의 힘찬 발원과 함께한 순례단의 행렬에 날씨는 짓궂을 만큼 차가웠다. 순례 도중 진눈깨비가 날릴 만큼 험한 3월의 날씨에도 순례단은 묵묵히 묵언 수행하며 길을 걸었다. 제주 경찰의 통제 하에 길게 장사진을 늘어선 순례단의 모습에 바삐 지나가던 제주도민들도 관심을 보이며 동참했다. 5시간 여의 긴 순례는 이호해수욕장에서의 방생법회로 마무리됐다. 순례단은 이호해수욕장에서 광어와 자리돔 등 치어 2000여 마리를 방생하며 생명결사의 길에 동참할 것을 서원했다. 이어 순례단은 4월 중순 제주 약천사가 위치한 서귀포 일대에서 2차 순례를 봉행하기로 하고 아쉬운 일정을 마무리 했다.

'산티아고 길'. 프랑스 생장피드포르에서 스페인 북서쪽 도시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까지 약 800km 거리의 성지순례 길이다. 걸어서 세계를 여행하는 도보여행가나 배낭여행족 등이 즐겨 찾는 길로 1993년 유네스코가 세계문화유산으로 선포하면서 더욱 인기를 모으고 있다. 국내 서점가에서 산티아고 여행에 관한 책을 찾기란 그리 어렵지 않다.

제주도에도 산티아고 길처럼 멋진 풍경, 그리고 사찰을 비롯한 불교성지를 찾아 걷는 순례길이 열렸다.

제주 관음사(주지 성효)는 3월 11일 제주 탑동광장에서 이호 해수욕장까지 약 10km에 걸친 제주 길따라순례단 창단 기념 첫 순례를 봉행했다.

제주 관음사 '길따라순례단' 창단, 사찰 인근 둘레길 돌며 行禪
매달 포교결집대회 겸해 정례화, '평화의 섬 제주 만들기' 한마음

'제주불교포교결집대회 및 길따라순례단 창단법회'로 열린 이날 순례행사에는 1000여 대중이 참석해 궂은 날씨와 거센 파도가 치는 해안길을 힘차게 걸었다.

길따라순례단은 관음사 주지 성효 스님이 총재를, 고우방, 최정희 씨가 단장을 맡았다. 길따라순례단은 매월 한차례씩 제주지역 사찰과 유적지, 올레길, 주요 관광지 등을 도보로 순례하며 순례뿐만 아니라 자원봉사, 108참회 등도 겸해 제주포교 역량을 하나로 결집할 예정이다.

행사에서 성효 스님은 먼저 고불총림 백양사 방장 수산 스님의 원적을 애도했다.

성효 스님은 이어 "제주도의 사찰과 연계된 올레길을 순례하며 제주불교의 발전을 다지며 순례로 제주가 평화의 섬으로 자리 하길 기원한다"고 발원했다.

증명법사로 참석한 약천사 회주 혜인 스님은 "부처님은 길에서 태어나 길에서 전법했으며 길에서 돌아가셨다"며 "길을 걷는 것은 행선으로 그 자체가 수행"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혜인 스님은 "화엄경 53선지식을 찾아간 선재동자가 문수보살의 법문을 듣고 가장 먼저 만난 선지식도 바로 바다의 지혜를 가진 해운 비구였다"며 "우리도 부처님처럼, 또 선재동자처럼 길을 걸으며 부처님처럼 살길 기원하며 한걸음씩 내딛자"며 참가자들을 독려했다.

혜인 스님이 끝으로 서산 대사의 '모름지기 그 발걸음을 어지러이 걷지말라, 오늘 걷는 나의 이 발자국은 반드시 뒷사람의이정가 될 것이리라'는 해탈시는 대중에게 하나의 화두로 내려졌다.

순례단은 이날 선언문을 통해 "순수한 목적으로 세계평화를 발원하며 제주불교, 그리고 제주도의 발전을 위해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걸어 나가겠다"고 서원했다.

이런 순례단의 서원에 불자인 우근민 제주도지사와 강창일 국회의원 등 정관계 인사들도 아낌없는 지원을 하기로 약속했다.

이날 순례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한 정인숙(51세) 씨는 "추운 날씨지만 부처님 법을 따라 걷는 다는 생각에 환희심이 절로났다"며 "불교대학에서 교리를 배우는데 매달 순례에 동참해 봉사활동도 함께 하며 불교홍포에 미약하나마 힘을 보태고 싶다"고 참가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날 법회에는 제주 약천사 회주 혜인 스님과 관음사 주지 성효 스님, 천용사 주지 향운스님, 천왕사 주지 지효 스님, 보현사 주지 함결 스님, 약천사 주지 성원 스님, 우근민 제주도지사, 강창일 국회 정각회 부회장, 김우남 국회의원, 오홍식 제주도청 반야불자회장, 붓다클럽 송원식 총회장 등 1000여 제주 불자들이 동참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순례가 가진 생명·나눔 의미 되살릴 것"

제주 관음사 주지 성효 스님



"제주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불자를 비롯한 도민들의 화합된 힘이 먼저입니다. 순례가 가진 생명과 나눔 결사의 참 의미를 살려 제주화합과 제주불교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본사 주지 부임 3개월 만에 순례단을 창설한 성효 스님(사진)은 복지, 환경을 함께 아우르는 불교 운동을 전개할 것을 밝혔다.

성효 스님은 "석달간 제주도에서도 젊은 불자들이 사라지고 이웃종교에 교세가 밀리는 것을 지켜보며 조계종 교구본사 주지로서 책임을 통감했다"며 "제주 불교의 역량을 한군데 모으고 불교 중흥을 위해 어떤 것을 해야 할지 고민했다"고 말했다.

스님은 4·3 사태 이후 제주도민과 불자들의 단합된 운동이 드물었다는 점, 관광자원화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제주도 현지사정을 고려해 성지순례 운동을 펴기로 기획했다.

성효 스님은 "대규모 제주도민이 함께 한뜻으로 운동을 펼치는 것도 최초로 알고 있다"며 "성지순례길이 국제관광도시로 발돋움 하는 제주도의 발전에 도움이 되고 또 함께 봉사활동 등도 겸하며 이웃과 소통하는 장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다"고 말했다.

스님은 "그동안 교구본사로 역할을 하지 못한 관음사가 주축이 돼 조계종 종단이 제자리에 선다는 의미도 있다"며 "제주도 조계종 사찰들을 하나로 묶어 포교활동을 체계화 하는 기회로도 삼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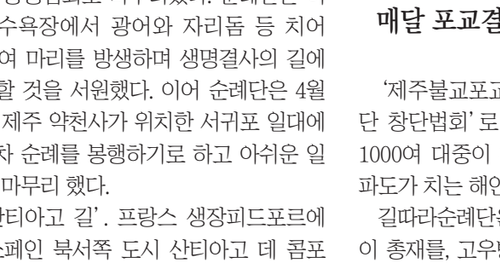
끝으로 스님은 "최근 강정마을 해군기지 문제, 총선을 앞둔 선거전으로 인해 제주 민심이 갈등을 겪고 있다. 순례를 비롯한 여러 운동을 통해 제주민심이 다시 하나로 뭉쳐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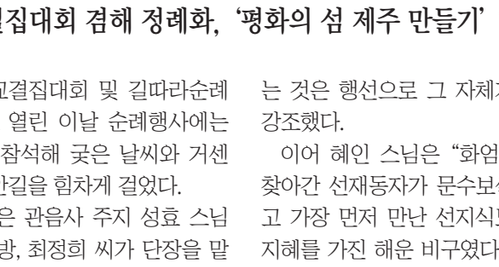
찬덕불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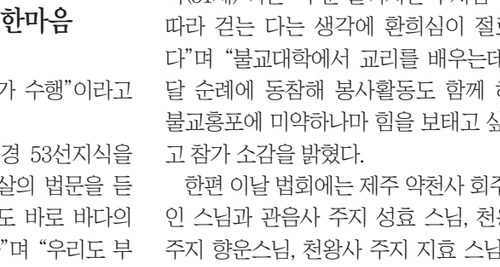
찬덕불교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책임 시공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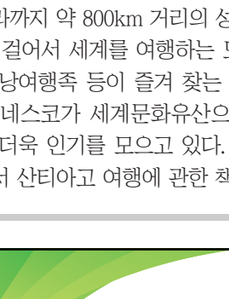
전선(케이블) _ 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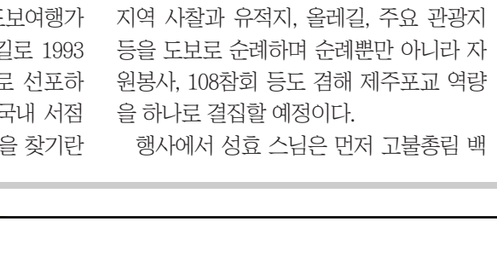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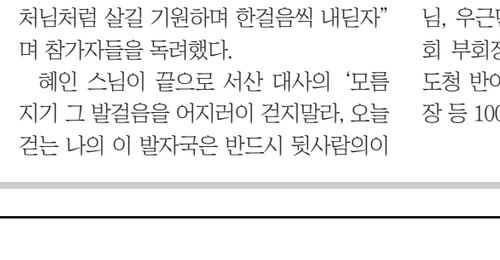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안산 월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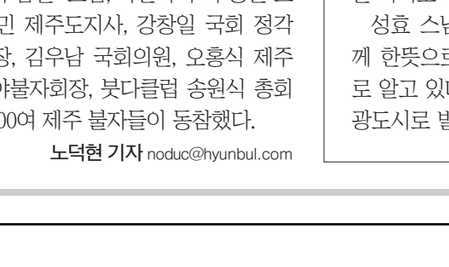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도선사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홍은사


윤장대 인등


용주사 LED 인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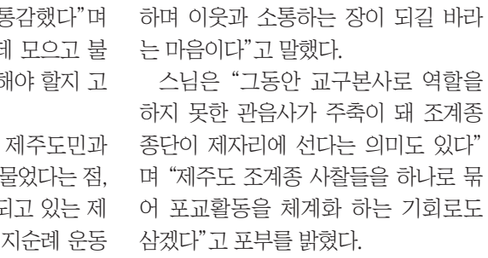

보급형 위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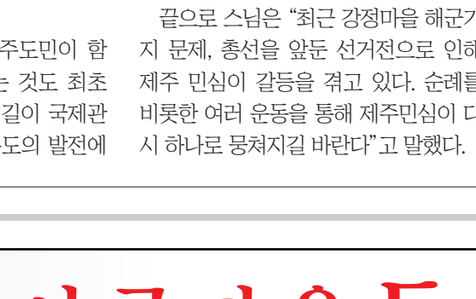

고급형 위패

찬덕불교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수양2리 261-6 /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팩스 : 031)794-6288
www.chanduk.com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 LED 전구 :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아름다운등


공 단 등 오색공단등



팔각봉축접등



만 월 등

신상품 찬덕 LED 전구



1년 365일, 하루 6시간 사용 전기요금 : 98원/1kwh

민족영산 계룡산에 1만 불자 모인다

포교원, 4월 7일 국태민안 기원 1만인 계룡산 등반대법회 봉행

환희 · 감동 포교 일환
교구중심 산악회 창립도
산행과 삼사 순례 병행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원)이 1만여 명이 운집하는 대규모 법회를 봉행한다.

포교원은 4월 7일 계룡사 동학사 제2주차장 특설 법단 및 계룡산 일대에서 2012년 포교결집대회를 겸한 '국태민안 기원 1만인 계룡산 등반대법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제6대 포교원의 슬로건인 '환희와 감동의 포교'를 만들기 위한 일환으로서, 포교단체 및 등록신도단체, 주요사찰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포교원은 2009년 10월 서울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1만여 명이 동참한 '금강경 독송'를 비롯해 2010 · 2011년에는 각 지역별로 포교결집대회를 실시했다.

이번 포교결집대회는 국민과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자성과 쇄신 결사'의 포교현장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포교결집대회는 ▷포교원 산하 포교단체의 결집 ▷포교원 등록 신도단체 및 직할교구신도회 결집 ▷마곡사 등 지역의 주요사찰의 결집 ▷수도권 동참사찰의 결집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밖에도 종단시도조직사업 확대를 위해 교구중심의 '대한불교조계종산악회'를 창립하고 거사불교활성을 도모할 방침이다. 현재 대한불교조계종산악회에는 엄홍길 산악인이 회장으로 내정돼 있으며, 산악인불자회도 창립할 예정이다. 또 마곡사를 중심으로 한 '대천충청전법단'을 출범함으로써 광역단위의 지역전법단 조직사업을 활성화 시킬 예정이다.

포교원은 이날 국민과 지역사회에 기여하고자 한국산악연맹과 연계해 국태민안 기원 및 한국 등반사 위령의식을 봉행할 예정이다. 히말라야를 등반하다 유명을 달리한 박영석 대장을 비롯해 산악인으로 살다 희생을 당한 영가들을 위로하는 의식을 진행한다.

등반법회는 오전 10시~오후5시 진행되며, 오전 10시~오후1시에는 참가자들을 위한 문화행사가 진행된다. 문화행사에는 1인당 쌀1Kg 나누기, 환경보호활동 등이 실시된다.

오전 11시~12시에는 국태민안 기원 등반 대법회가 진행되며, 이와 함께 조계종 산악회창립식, 대전충청전법단출범식, 한국등반사 위령의식 등도 함께 봉행된다. 오후 1~5시에는 동학사, 남매탑, 금잔듸고개, 갑사로 이어지는 산행과 계룡산 삼사순례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은정 기자 soej84@hyunbul.com

"2017년 각 지역 포교센터 설립할 것"

포교사단 출범 12주년 기념법회



조계종 포교사단(단장 임희웅)이 3월 11일 직지사 만덕전에서 포교사단 출범 제12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직지사 성웅 스님, 포교원 포교연구실자 법상 스님, 포교국장 남전 스님 등 포교사 1200여 명이 참석했다.

포교사들은 포교사단 출범 12주년을 맞아 포교사들의 평생 교육 체계 마련, 분야별 · 지역별 · 연령별 포교에 대해 논의했다.

임희웅 단장은 "현재 3000여 명의 포교사들이 전국 11개 지역 280여 포교팀을 구성해 활동하고 있다"며 "2017년에는 각 지역마다 지역포교센터를 마련하고 포교의 영역을 확대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법상 스님은 포교원장 지원 스님의 인사말 대독에서 "포교사들은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를 전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바른 수행을 통해 이타행을 펼치는 포교사가 되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강원지역 김선오 포교사가 총무원장상을 수상했으며, 충남지역에 송호진, 전남 임영광, 강원 전상웅 포교사가 포교원장상을 수상했다. 이어 22명의 포교사와 15개 포교팀이 총재상 · 단장상 등을 수여받았다. 이 밖에 포교원 전창훈 포교팀장이 '조계종의 이해'를 주제로 제17회 포교사고기 1차 합격자를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다.

이은정 기자

여수 세계박람회 성공 기원

108산사순례회 · 여수 흥국사와 3월 8~10일 성공기원법회

불교계가 한마음으로 2012 여수 세계박람회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법회를 봉행했다.

선묵혜자 스님과 마음으로 찾아가는 108산사순례기도회(회주 선묵혜자)와 여수 흥국사(주지 명선)는 3월 8~10일 여수 흥국사에서 2012년 여수 세계박람회 성공을 기원하는 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여수 흥국사 주지 명선 스님과 108산사순례기도회 회주 선묵 혜자 스님(도선사 주지) 등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관계자 인사와 불교신자 등 6000여 명이 참가했다.

행사에서는 선묵혜자 스님과 명선 스님이 공동으로 여수지역에 108약사여래 보시금과 108선묵장학금, 108효행상, 다문화 가정 108인연 맺기 등 행사도 봉행했다. 108산사순례기도회는 호국사찰인 여수 흥국사를 방문해 군 장병들의 간식거리인 초코파이를 인근 군부대에 전달 · 위문하기도 했다.

명선 · 선묵혜자 스님과 6000여 사부대중은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개최를 기원하는 대법회를 봉행하기에 앞서 플랭카드와 여수세계박람회 성공을 기원하는 깃발을 들고 호국성지 여수 흥국사로 들어가는 장관을 연출하기도 했다.

명선 스님은 "이번 행사는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유치와 성공개최를 위해 노력해 온 불교계의 대 사회활동의 일환이다. 앞으로 지속적인 캠페인을 통하여 불교계뿐만 아니라 전 종교계와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국민운동으로 승화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3월 8~10일 여수 흥국사에서 봉행된 여수 세계박람회 성공기원 법회에서 명선 스님(왼쪽서 두번째)과 108산사순례기도회 회주 선묵혜자 스님(왼쪽서 세번째)이 성공기원 깃발을 흔들고 있다.

경기지역 문화사업 위한 '길벗' 창립

3월 10일 창립기념식 성료

경기지역 어린이청소년 보호사업을 비롯해 사회통합을 위한 각종 문화사업을 목적으로 3월 10일 사단법인 길벗이 창립됐다.

길벗은 수원불교청년회원이 주축이 돼, 지역청년 40여 명이 100만원의 기금을 쾌척해 자본금 5000만원을 만들었다는 점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수원시 이재준 부시장, 경기도의회 김종용 의원, 우호철 화성시 문화원장을 비롯해 150여 회원들이 참석했다.

수원 용화사 주지 성주 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불교에서는 상구보리 하화중생을 이야기 하는데, 상구보리란 깨달음을 구하는 수행자의 자세를 말하고, 하화중생은 이를 실천하는 행을 의미한다. 길벗의 활동은 이 사회에 불교의 자비와 기독교의 사랑을 실천하는 장한 걸음이다. 목적한 대로 외로운 많은 사람들의 벗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춘길 길벗 대표는 "함께 손을 잡고 길을 간다면, 힘든 이들에게 미소를 줄 수 있고,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길벗을 창립하게 됐다. 많은 분들이 동참해 사회의 어두운 곳을 밝히는 길벗이 돼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앞서 길벗은 수원화성박물관에서 90여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대표에 김춘길 수원희망연대 대표를 상임이사에 안직수 불교신문사 차장을 선출했다.

조동섭 기자 cetana@hyunbul.com

1년간 유네스코 세계문화 탐방

아름다운 동행, 청소년 성장프로그램 운영

아름다운 동행(이사장 자승)은 4월부터 1년간 '우리나라 세계문화유산 탐방 & 나의유산만들기(이하 나의유산만들기)' 사업을 진행한다.

'나의유산만들기' 사업은 서울 · 경기지역 중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전국의 우리 문화유산을 돌아보며 올바른 역사관과 가치관을 심어주고자 기획됐다. 또, 다양한 직업군의 직장인과 대학생들이 5인 1조로 편성되는 모둠의 멘토가 되어 본인의 경험과 사회적 가치를 학생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원되는 '삼성그룹'의 이웃사랑성금으로 진행된다.

행사는 3월 중 대상자를 선정해 ▷4월 창덕궁 · 종묘 ▷5월 수원 화성 ▷6월 안동 하회마을 ▷7 · 8월 경주 역사유적지구, 석굴암 · 불국사 양동마을 등 ▷9월 강화 고인돌유적 ▷10월 조선 왕릉전시관 ▷11월 합천 해인사 장경판전 ▷2013년 1월 집중심리 캠프 ▷2월 수료식 등으로 진행된다. 이 가운데 집중 심리프로그램은 2박 3일간 템플스테이 형식으로 진행된다.

참가자 및 멘토 신청은 홈페이지(www.thenanum.org) 참조. (02)737-9595

조동섭 기자

진각종 개성 살린 글꼴(폰트) 개발

팔길상 문양 등 '진각종체' 4월부터 무상 배포

2000년 불교계 최초로 심볼, 전용서체, 메인컬러, 캐릭터 개발 등 이미지통합작업(C.I)를 추진했던 진각종이, 종단 개성을 담은 글꼴(폰트)를 개발했다.

진각종(통리원장 혜정)은 "개성을 담은 글꼴(폰트) '진각종체'를 개발해 4월부터 무상으로 배포한다"고 3월 12일 발표했다.

진각종 전산실은 포교불사의 일환으로 '진각종체' 글꼴(폰트)과 함께 심볼, 육자진언 범어 타입, 팔길상 문양 등을 특수문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 중이다. 이에 대해 테스트용 버전이 2월 29일부터 나와 시험 사용 중이다. 4월에는 사용을 희망하는 신교도와 일반인들에게 무상으로 배포된다.

로고 전용서체인 '진각종체'는 그간 그림파일 형식의 이미지형태로만 되어 있어서, 일반인은 다소 사용하기 어려웠다.

진각종은 "글꼴(폰트)화 개발에 성공해 누구나 쉽게 사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02)913-0753

조동섭 기자

몸·마음 치유하고 싶은 분들께 책 드립니다

백천문화재단 무료 도서보급 '북스타트' 캠페인 진행

학인스님과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해오고 있는 백천문화재단(이사장 조명하)이 무료로 도서를 보급하는 북스타트(Book Start) 캠페인을 진행한다.

백천문화재단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책을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조화로운 몸과 마음의 치유'를 소재로 한 다양한 책을 무료로 보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재단은 북스타트사업을 통해 매월 어린이와 일반인 200명을 선정해 각 100권씩 무료로 도서를 보급할 계획이다.

책을 받아 보고 싶은 개인이나 단체는 매달 말일까지 그 달의 추천도서 10권(일반인 5권, 어린이 5권) 중 하나를 골라 인터넷 홈페이지(www.bccf.or.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현재 백천문화재단이 선정한 추천도서는 〈나를 치유하는 마음여행〉〈싯다르타의 꿈〉〈붓다에게 물들다〉〈노화는 세포건조가 원인이다〉〈마음밭의 단비〉 등 11권이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대한불교조계종 부산연합회

간화선 · 임제록 · 서장 특강 안내

대한불교조계종 부산연합회는 조계종 각 교구본사의 문중을 초월하여 부산지역의 스님과 대중이 연대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변화하는 현대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특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시대 최고의 선지식을 모시고 상반기 교육으로 간화선 · 임제록, 하반기 교육으로 서장 특강을 열고자 하오니 사부대중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바랍니다.

월암 스님 강의 간화선
- 대 상 : 스님 및 신도
- 일 정 : 4월 16일(월) ~ 6월 25일(월) 매주 월요일 오후 2시 ~ 4시(매월 첫째 주 휴강)
- 수강료 : 20만원(총 8회, 1회 2시간)

무비 스님 강의 임제록
- 대 상 : 스님
- 일 정 : 6월 27일(수) ~ 29일(금) 오후 2시 ~ 4시
- 수강료 : 10만원(3일간 집중강의, 1일 2시간)

무비 스님 강의 서 장 (교육원 인준프로그램 확정)
- 대 상 : 조계종 스님
- 일 정 : 10월 15일(월) ~ 11월 19일(월) 매주 월요일 오후 2시 ~ 5시 10분(11월 첫째 주 휴강)
- 수강료 : 20만원(총 5회, 1일 3시간)

※ 대한불교조계종 부산연합회에서 간화선 · 임제록 강의를 받으신 분은 우선 접수 받습니다.

• 문의 및 접수 : 대한불교조계종 부산연합회 TEL. 051) 501-7554 FAX. 051) 501-9333 cafe.daum.net/bsbuddhism

대한불교조계종 부산연합회

“자비없는 불교는 없다”

방영준 성신여대 교수, 15일 ‘불교평론’ 열린논단서 역설

“깨달음과 자비는 일란성 쌍둥이와 같다. 깨달음에서 자비가 나오고 자비에서 깨달음이 나온다. 그런데 자비는 깨달음의 그늘 속에서 그 위대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상구보리(上求菩提)는 잘난 형님이 됐고, 하화중생(下化衆生)은 못난 동생이 됐다.”

방영준 성신여대 윤리교육과 교수는 불교평론과 경희대 비폭력연구소가 3월 15일 불교평론 세미나실에서 공동개최한 열린논단 발제문 ‘자비 실천의 윤리교육적 접근’에서 “자비 없는 불교는 없다”고 주장했다.

방 교수는 “상구보리를 통해 지극한 행복을 얻고, 하화중생을 통해 바른 정토를 만든다. 하화중생은 자비수행을 통해 얻어진다”며 “자비는 열반으로 가는 수단이면서 불교의 목적 그 자체이지만 한국불교에서는 자비보다는 깨달음에 집착해 왔다”고 말했다.

오늘날 사회에 만연한 비윤리적 사건 등에 대해 방영준 교수는 인간의 삼독(三毒)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그리고 그 해법으로 자비 구현을 꼽았다.

자비는 사랑 배려 겸양 절제 용기 등 일반적인 윤리적 덕목을 포괄하고 통합하는 덕목이다.

방영준 교수는 “추상적인 자비를 일상에서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자비를 우리 일상에서 친근하게 체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 교수는 자비 구현을 위해서는 연기법과 무아, 공의 바른 이해가 선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21세기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관심을 끌고 있는 ‘복합체계이론(complexity system theory)’를 소개했다.

복합체계이론은 카오스 이론, 양자역학, ‘자기 조직화(self organization)’ 이론 등 현대 첨단 과학으로 설명되지만 그 이론의 뼈대는 연기법이다.

깨달음과 자비는 수레 두 축이나
한국불교 깨달음 주제에 집착
체험학습 · 학문적 접근 필요



방영준 교수는 깨달음 만큼이나 자비가 중요하다고 역설한다.

‘비평형열역학’ 이론으로 노벨화학상을 받은 프리고진(Iliya Prigogine) 등 다수의 과학자들은 자신들의 이론이 불교의 사유방식과 유사하다고 고백한 바 있다.

일반인들에게 ‘자비’라는 용어는 ‘선한 동기’와 ‘자기희생’이라는 무거운 짐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선뜻 자비행을 펼치기가 어렵다.

방영준 교수는 “일반인들이 보다 자연스럽게 자비행을 하려면 자비 행위를 위한 ‘체험 학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방 교수가 말하는 체험은 타인의 입장을 이래할 수 있는 감정이입적 상상력을 계발하는 것이다. 방영준 교수는 그 예로 봉사활동을 제시했다.

방 교수는 “오늘날 자비의 실천, 즉 보살행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 중 대표적인 것이 사회봉사이다. 자비를 체험하고 자비 수행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봉사체험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말했다.

방영준 교수는 “자비 실천을 위한 동기부여를 위해서는 부처님 말씀이 중요하다”며 10게의 게송으로 구성된 〈자비경〉을 권했다.

〈자비경〉은 〈숫타니파타〉에 포함된 경전으로 안거 중인 제자들이 나무 신들에 의해 정진을 방해 받자 부처님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설한 말씀이다.

이와 함께 방 교수는 아차리야 붓다락키타 스님이 지은 〈자비관〉을 소개했다. 붓다락키타 스님은 자비를 ‘보편적’ ‘비이기적’ ‘일체를 포용하는 사랑’으로 표현했다.

방영준 교수는 “불교는 자비라는 큰그릇을 갖고 있으면서도 강물을 뜰 생각은 않고 그릇 자랑만 하고 있다. 깨달음만 강조되고 자비가 경시되는 불교는 없다”며 “자비라는 큰 그릇의 사용을 위해 자비윤리학을 정립시키고 자비 정신 확산을 위한 틀을 마련해 자비 포교의 구체적 방안을 창출해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동섭 기자 cetana@hyunbul.com

“염불 천대 받는 풍토 바꿀 터”

한국정토학회 새 회장 성운 스님



“원효 · 의상 등 큰스님들도 말년에는 염불신앙에 매진했습니다. 염불은 하근기 중생의 수행법이라는 오해 불식을 위해 학회를 이끌겠습니다.”

지난 2월 한국정토학회 제8대 회장에 취임한 성운 스님(삼천사 주지)은 이같이 말했다.

한국불교가 간화선 등 특정 수행법에만 치중하면서 깨달음만을 강조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었다.

스님은 “사찰마다 1000일 기도 등이 적힌 플랭카드를 걸면서도 정작 염불이 참선 보다 저열하다는 인식은 고치지 못하고 있다”며 “살아서는 염불 수행을 통해 행복하고, 죽어서는 극락왕생해 행복하자는 것이 염불정토신앙이다”라고 설명했다.

한국정토학회는 매년 두 차례 정기학술세미나와 두 차례 학술지 〈정토학연구〉를 발행하고 있다. 스님은 생활화된 학문을 위해 학술세미나장이 아닌 사찰에서 학술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4월에는 관음성지 양양 낙산사에서 관음신앙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조동섭 기자

“불자라면 서원에 이웃 빠져선 안돼”

최봉수 박사, ‘서원’ 조명

서원은 대승불교의 주요 덕목을 정리한 십바라밀다 가운데 하나로 등장할 정도로 중요하다.

최봉수 박사는 최근 한국정토학회(회장 성운)이 펴낸 〈정토학연구〉 제16집 기고논문 ‘대승불교 서원 의식의 초기 불교적 모습에 관한 일고찰’에서 서원을 학술적으로 고찰했다.

최 박사는 “성원은 초기불교에서는 그다지 긍정적인 덕목의 의미로 사용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무원삼매(無願三昧), 무원해탈(無願解脫)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부정해야할 존재였다는 설명이다.

단어가 아닌 서원의 의미에 초점을 맞추면 성구(聖求, ariya-pariyesana)라는 표현이 있다.

최봉수 박사는 “초기불교에 출현하는 이 단어는 강렬한 서원 의식의 시작을 알리는 표현이다. 부처님 6년간 보살행의 근본 동기가 ‘성구’라는 표현 속에 잘 드러나 있다”고 설명했다. 성스런 것을 간절히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성구이기 때문이다.

최 박사는 “초기경전에서 보면 부처님은 제자들에게도 ‘성구’할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초기불교의 결의바라밀다도 대승불교의 원바라밀다와 유사한 의미를 갖는다.

최봉수 박사는 “결의 바라밀다의 결의에는 의무 및 서약의 뜻이 들어 있다. 성스런 것을 간절하게 구하면서 아울러 반드시 이뤄야할 ‘의무’처럼 또, 반드시 지켜야할 ‘서약’처럼 결의하라는 요청은 그대로 서원의식으로 귀결된다”고 설명했다.

최 박사는 불교부처님이 반열반에 즈음해 깨달은 직후의 사건을 회고하면서, 사부대중이 똑같이 불법 수행에 전념하기를 목적으로 두시고, 전법에 나아가기를 목적으로 하신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최봉수 박사는 “불자들은 단순히 자신의 해탈 · 열반은 물론 이웃의 해탈 · 열반까지 서원해야 한다는 뜻이 성립한다”고 강조했다.

조동섭 기자

대승불교 법화신앙 원류를 찾아

24일 금강대서 국제학술대회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소장 김천학)는 3월 24일 본관 사이버강의실에서 인문한국(HK)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동아시아적 불교신앙 구축-법화경 세계의 문화적 형상화’를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모치즈키 마스미 교수(日 미노부산대)가 ‘일본에서의 법화신앙 수용과 전개-일연종을 중심으로’ ▷차차석 교수(동방대학원대)가 ‘관음신앙의 변용과 그 특징-중국 한국 티벳을 중심으로’ ▷후쿠시 지닌 교수(日 미노부산대)가 ‘일연종의 신라 · 고려불교 인식에 대해서’ ▷문무왕 교수(동국대)가 ‘중국 초기 석굴에 나타난 법화신앙적 요소’, △한지연 교수(금강대)가 ‘서역에서의 법화신앙 전개-천산남로와 양주지역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한다.

불교문화연구소 김천학 소장은 “동아시아 불교신앙의 원류는 법화신앙에서 찾을 수 있다. 법화신앙이 한국과 중국, 일본에서의 수용과 전개, 정착 되는 과정을 고찰함으로써 법화경이 대승불교의 기치를 높인 가치를 새롭게 조명해보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는 2007년 한국연구재단이 실시하는 〈인문한국(Humanities Korea)〉 지원사업에 선정돼 정부지원을 받아 불교학 연찬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번 행사는 인문한국(HK)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개최된다.

조동섭 기자

웰다잉 문화 무료 강좌
24일, 동국대 경주캠

동국대 경주캠퍼스 불교문화대학원(원장 유진)은 3월 24일 오후 2시 100주년기념관 402호에서 ‘제5기 웰다잉 전문지도사(강사) 과정’ 무료 공개강좌를 개최한다.

이번 강좌에서는 이병찬 한국죽음준비교육원장이 웰다잉의 정신, 웰다잉 교육의 목표와 필요성, 웰다잉 교육의 이론과 실제 등을 소개하고, 전문지도사(강사) 과정에 대한 안내를 진행한다.

동국대 경주캠퍼스는 2009년 국내 대학 최초로 불교문화대학원에 웰다잉 전문지도사(강사) 과정을 개설해 200여 명의 웰다잉지도사(2급)를 배출했다. 올해 5기 웰다잉 전문지도사(강사) 과정 수강생을 오는 24일까지 모집하고 있다.

(054)770-2392~3 조동섭 기자

석박사 연구자 정보
조계종 교육원서 DB화

조계종이 불교학 연구자 관련 정보를 취합해 인력풀을 만든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은 불교학 및 각 분야의 영역별 전문성을 갖춘 조계종 소속 스님과 불교 관련 분야를 전공하는 재가연구자의 인물정보를 수집해 종단 교육종책 수립 및 학술연구 활동에 활용한다.

인물정보 수집 대상은 전공과 무관하게 조계종 소속스님이거나 불교학 관련 분야 전공 재가자로서 2011 · 2012년도에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거나 박사학위 과정을 수료한 자이다.

해당자는 교육원 불학연구소로 연락 후 서식을 제공받아 작성 · 제출하면 된다. (02)2011-1818

조동섭 기자

성철 스님 탄신 100주년 기념 학술행사

동국대 종학硏 · 성철사상硏 공동 춘계학술대회

동국대 불교학술원 종학연구소(소장 종호)와 성철선사상연구원(원장 원택)는 공동으로 3월29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공연장에서 ‘돈점 사상의 역사와 의미’를 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초기불교 경전에 나타난 돈(頓)과 점(漸)(임승택 경북대 교수) ▷중국선사들의 돈점론과 그 이해(동국대 종호 스님) ▷돈오돈수와 조사선(정영식 동국대 HK연구교수) ▷돈점 논쟁 새로 읽기(박태원 울산대 교수) 등이 발표된다.

한국불교 중흥조 경허성우선사 鏡虛惺牛禪師
열반 100주년 기념 선서화전 禪書畵展

금년은 경허선사 열반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경허선사는 모든 형식과 틀, 규범이나 전통에
얽매이지 않으셨으며
일체 모든 것에서 벗어난
회적도명晦跡韜名하고 화광동진和光同塵의 삶을 사신
자유인이자 무애인이요, 대력보살이셨습니다.
경허성우대선사를 추모하기 위한 선서화전에
수희 동참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悟 • 도道 • 송頌

忽聞人語無鼻孔
頓覺三千是我家
六月燕巖山下路
野人無事太平歌

문득 콧구멍 없는 소라는 말을 듣고
삼천대천세계가 내 집임을 깨달았네
유월 연암산 아랫길에서
들사람 일없이 태평가를 부르네

기간: 2012. 3월 26(월)– 3월 31(토)
장소: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나무갤러리
개막식: 3월 26일(월) 오후 2시

주최. 주관: 대한불교 조계종 제7교구 본사 덕숭총림 수덕사,
경허선사 열반 100주년 기념사업회

경허선사 열반 100주년 기념사업회
110-858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58 두산위브파빌리온 1337호
Tel. 02 2198 5388. Fax.02 2198 5389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스님! 법당의 엠프 소리가 마음에 안드십니까?
지금 즉시 - 전화주세요... (27년간 전국 870여 사찰에 설치)

소장 : 김문화(海月) 직접설치
音響硏究家 無線設備技師

POWERED MIXER 앰프
PM-805


스테레오 앰프 300AN

• 高音質 무선마이크

DX-707 스텐드 마이크는 1개만 사용해도 법당의 소리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 DX-707 스텐드 마이크
◆특징 :
어떠한 앰프에 연결해도
뛰어난 흡음력, 음질 보장
자체에서 소리, 음질 조절
◇가격 : 250,000원
(택배비 포함)

• 법당전용 스피커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가격 : 50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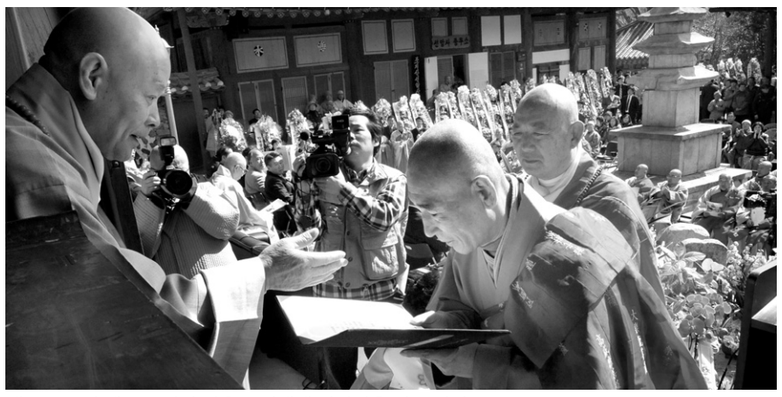
• 일반 마이크 V-606LC
◇가격 : 65,000원
(택배비 포함)

• 고성능 탁상마이크
◇가격 : 135,000원(일반형)
◇가격 : 175,000원(고급형)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 010-5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전화 (02)2697-9976 / 팩스 (02)2601-8284 홈페이지 www.yukosound.com

태고총림 선암사 제29대 주지 진산식

14일, 총림 5원장 등 임명도…혜초 종정 "총림다운 선암사 되길"


태고종 종정 혜초 스님이 설운 스님에게 임명장을 받고 있다.

태고총림 선암사는 3월 14일 대웅전 앞마당에서 제29대 주지 진산식을 봉행했다. 새 주지 설운 스님은 이날부터 4년 간의 임기를 시작했다. 행사에는 태고종 종정 혜초 스님, 총무원장 인공 스님, 원로의원을 비롯해 500여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혜초 스님은 법어를 통해 "근세 사람들은 공과 사를 구분 못하고, 지식과 지혜를 혼돈하여 사찰과 사회가 혼란스럽다. 사찰과 단체의 대표들은 이를 잘 알고 분별할 줄 알아야 하며, 맑고 깨끗하게 살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스님은 "앞으로 선암사가 환골탈퇴해 총림다운 선암사가 되어 주기를 종도 여러분들에게 당부한다"고 말했다.

총무원장 인공 스님은 격려사에서 "새날을 맞아 설운스님과 선암사 대중스님들이 화합의 정신으로 하나돼 선암사가 걸어온 길보다 더 먼 곳을 바라봐야 한다"며 "종단의 도재양성의 핵심도량이자 수행제일 도량의 모습을 더욱 견고히 하여, 전남불교계를 하나로 묶는 한국제일도량으로 성장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법어에 앞서 설운 스님은 취임사에서 "선암사는 1500여 년의 유구한 역사와 함께 수많은 선지식을 배출한 도량이다. 50여 년 갈등의 시대를 벗어나 선암사를 사부대중이 환희심 나는 도량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행사에서는 종정 혜초 스님으로부터 총림 소임자에 대한 위촉장과 임명장 수여가 같이 진행됐다.

총림 5원장 위촉에는 회주 금용 스님, 선원장 상명 스님, 강원장 설운 스님, 율원장 도월 스님, 염불원장 호산 스님이, 총림 원로위원에는 혜운 · 혜봉 · 지암 · 원명 · 금용 · 지허 · 설봉 · 성천 · 성관 · 남파 · 일호 스님이 각각 위촉됐다. 종무소 소임자는 주지 설운 스님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다. 총무에는 승범 스님, 교무에는 상종 스님, 재무에는 무안 스님, 문사에는 만허 스님, 규정에는 청각 스님, 템플스테이 담당은 진봉 스님, 하영철 신도회장이 각각 임명을 받아 소임을 시작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상무대 무각사, 초군장교 환영식

1500명 장교 · 군속에 호신불카드 등 전달

조계종 광주전남전법단(단장 대요, 이하 전법단)은 3월 11일 장성 상무대 무각사 군법당에서 1500여 초군장교와 가족들을 대상으로 환영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행사는 전법단이 군포교 활성화와 군부대 내 장교불자 양성을 목적으로 개최했다.

군종교구장 자광 스님은 법문을 통해 "상무대에서 오늘의 만남이 불교와의 좋은 인연을 통해 자신의 삶을 조화롭게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자들에게는 전법단 수익사업을 위해 마련된 호신불카드, 합장주와 점심 등 900만원 상당의 물품이 지급됐다.

한편, 초군장교는 충남 계룡대에서 장교 합동임관식을 통해 초급장교가 된 육군 소위들로 장성 상무대에서 보병 · 포병 · 기계화 · 공병 · 화생방학교 등 5개 병과별로 16주간 훈련을 받고, 각 부대에 배치된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외국인 인권 불교계가 보호한다

김해 대법륜사 "외국인에 자비 전할 것"

김해 대법륜사는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과 다문화 가정을 위한 '한국외국인 인권보호법률위원회 경남지부센터'를 개소했다.

대법륜사는 센터를 통해 외국인들에게 불심을 전하고 우리문화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예정이다. **이재진 부산지사장**

문화재급 석불입상 남원서 발견

나말여초 조성, 약사여래 혹은 미륵불 추정



남원문화원(원장 이병채)은 "석불이 마을 뒷산 기슭에 있다는 이 마을주민 제보를 바탕으로 2011년 10월부터 4차례에 걸쳐 수지면 유암리 일대를 탐사한 결과 지금까지 알려져 있지 않은 새로운 석불을 발견하고 남원시에 발견신고서를 접수했다"고 최근 밝혔다.

석불의 전체 높이는 드러난 부분만 192cm, 발 이하 부분은 땅속에 묻혀 있어 정확한 확인이 어려운 상태이나 2m이상으로 추정된다.

남원문화원 이병채 원장은 "불상의 전체적인 구성미와 조각 수법으로 보아 통일신라 후기에서 고려시대 초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석불 머리 왼쪽 일부분이 멸실됐지만 육계와 백호공이 뚜렷하다"고 설명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연등 만드는 美 조지아대 학생들 청도 운문사(회주 명성, 주지 흥륜)는 3월 13~15일 美 조지아대학 학생 17명을 대상으로 템플스테이를 진행했다. 이들의 방문은 운문사 회주 명성 스님과 조지아대 이향순 교수와의 인연으로 진행되고 있다. 운문사를 찾은 조지아대 학생들은 주 정부가 선발한 국비 장학생으로 2년마다 한국 전통사찰을 찾아 한국 및 불교문화 체험을 하고 있다.
조지아대 학생들은 운문사에서 법고 관람, 조석예불, 발우공양, 연꽃 등 만들기와 만다라 그리기 등을 통해 한국불교 문화를 체험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간화선 · '임제록' 특강 등 진행

조계종 부산聯, 2012 교육일정

조계종 부산연합회는 최근 2012년 교육일정을 발표했다. 이번 교육일정은 상반기 간화선과 〈임제록〉 특강, 하반기 명상과 선, 간화선 특강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간화선 특강은 월암 스님(한산사 용성선원장)을 강사로 4월 16일~6월 25일 오후 2시부터 시작한다. 〈임제록〉 특강은 무비 스님(동국대 前 역경원장)을 강사로 6월 27~29일 오후 2시 진행된다. **조동섭 기자**

부산 기장군불교聯, 정오 스님 회장 취임

제11대 부산 기장군불교연합회 회장이 · 취임 법회가 3월 9일 기장군청 대회의실에서 봉행됐다.

행사에는 정여 스님(부산불교연합회 회장), 오규석 기장군수, 정종복 기장군의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부산 기장군불교연합회 신임 회장 정오 스님은 1990년 범어사에서 벽파 스님을 은사로 사미계를, 1993년 범어사에서 일타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현재 조계종 중앙종회의원이며, 사회복지법인 보현도량, 미애원 등에서 이사로 활동 중이다. **이재진 부산지사장**

어르신 제2인생 불교계가 도와요

거창 · 고창 복지시설서 노인일자리사업 발대식



불교계가 수탁 운영하는 거창군삶의쉼터와 고창군노인복지회관는 최근 어르신을 위한 노인일자리사업 발대식을 개최했다.

거창군삶의쉼터(관장 도영)는 3월 9일 노인복지관 대강당에서 어르신 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2년 노인일자리사업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14일, 고창군노인복지회관(관장 도완)도 어르신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강당에서 노인일자리사업 발대식 및 소양교육을 개최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자비의 쌀' 나누기

불교계 단체에서 지역 시민단체 활동가에게 자비의 쌀을 전달해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법일)는 3월 13일 '제5회 자비의 쌀 나누기' 행사를 갖고 광주전남지역 시민사회단체 활동가에게 1560kg의 쌀을 전달했다.

자비의 쌀은 이날 금호타이어 해고자 대책위원회, 아름다운공동체 광주시민센터, 광주여성센터 등 39개 단체 실무자에게 전달됐다.

특히 이날 지원한 자비의 쌀은 광주전남지역 각 사찰 스님과 불자들이 십시일반 정성으로 모은 쌀로 이뤄져 의미를 더했다.

행사를 준비한 실무자는 "소중한 먹거리인 쌀의 의미를 되새기고, 광주전남지역에서 통일 인권 환경 노동 복지 언론 교육 이주민 사업 등 우리 이웃과 세상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에게 많은 이들의 정성이 담긴 쌀을 나누고자 한다"고 행사의 의미를 말했다.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2008년부터 4480kg의 쌀을 시민단체 활동가에게 전달해 왔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입학식

한국불교대학대관음사(회주 우학)는 3월 13일 대구큰절에서 동영상을 통해 경산도량 외 9곳 도량의 동시 입학식을 봉행했다.

이번 학기에는 2500여 신입생이 입학해 주1회에 한번 공부하게 된다.

우학 스님은 "교리를 배워야 비로소 불자가 될 수 있다. 불교 공부는 모든 불자생활의 기본이며 시작이다"라고 말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암환자를 위한 특별 메시지

천 의 선 도

대체의학 천하제일의 민중의술이란 책자를 만천하에 공개 하면서



저는 천의선도 창도자며 대체의학 연구가 삼봉 김영생 스님 입니다. 저는 13세부터 조부님 강요에 못이겨 육경신 정신수련에 입신해서 82세가 된 오늘까지도 인간은 나면서 가는날은 이미 정해졌다 하지만 사는동안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다가 잠든듯이 가는길은 없을까하는 상염중에 1977년 음력 1월 15일 육경신 정신수련중에 천신의 계시를 받고 너무나 황당무계한것 같지만 천신의 메세지이니 믿고 내 주변에 말기암 환자 몇분에게 은용해수를 육각수로 만들어 복용시켰더니 3,4개월이 지나 몸이 편안하다 하기에 병원진찰을 받아보니 암이 정상으로 회복되었다 하지 않습니까. 소문에 따라 저를 찾아온 암환자가 180여명이 넘는데 한사람도 죽지 않고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목디스크, 허리디스크 전립선, 요실금으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천의선도를 전수시키고, 일주일에 1번씩 4,5차례 기를 넣어 드렸더니 정상으로 회복된 분이 3000여명이 넘는데 재발된분이 한분도 없습니다.

나는 한국의 민중의술을 검증받기 위해 미국 오하이오주 주지사님의 초청을 받고 1998년 7월초에 미국에가서 오하이오주 주립대학 병원에가서 담당의사들의 병증세에 대한 설명을 들어가면서 환자들에게 의료봉사 활동을 5일간 했는데 휠체어에 몸을 의지하고 나온 환자가 오후에 공원 산책을 혼자서 하고 돌아왔다고 담당의사가 신화같은 기적이라고 함성을 지르며 천의선도 치료법을 전수받았습니다.

7월 14일에는 오하요주 주지사님이 한국의 민중의술이 세계에 으뜸이라고 찬사를 하시며 감사패를 주셨고, 17일에는 콜럼버스 시장님이 명예시민장도 주셨습니다. 2011년 월드코리아에서 세계속의 한국인 자랑스런 민중의술 대체의학 부문 대상도 받았습니다 만은 제 나이가 82세, 나의 의식이 흐려지는 것을 몸소 느끼면서 이세상에 전무후무한 천하제일의 천의(天醫) 하늘이 준 의술을 묻어두고 갈순없어 이 세상에 공개해서 한가정에 한사람씩 천하제일의 명의가 있다면 건강한 가정에 행복한 사회가 이루어지리라 생각되어 일반에 공개하면서 천의선도 대체의학을 전수받을 분 기다립니다. 나의 안내문에 의심이 나거든 강동구 천호2동 333-45 전화 02-568-4955 대가연 통증의원 원장 의학박사 심요택 박사님을 만나 보십시오. 심박사님은 암 환자를 대체의학의 자연요법을 체험해 보시고 신화같은 기적이라고 감탄하시며 시행하고 계신 분입니다.

일반인이 자기 가정을 돌보기 위해 천의선도 대체의학을 전수받는 분에게는 일체 전수비를 받지 않습니다.

책값 50만원에 필요하면 은용해기 35만원, 매선침 100개 내지 150개 구입하면 준비완료.

천하제일의 명의가 되는데 소요시간은 천의선도를 전수 받고 실습시간 육각수를 만드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 환신 받는데 10분, 5시간이면 넉넉하고 암환자를 치료 하려면 육경신수련 60일에 하루씩 6회 참석 수련하시면 됩니다. (오방신장의 관습을 벗어나기 위해서 입니다.) 건강을 원하거든 행복을 원하거든 천의선도를 전수받으십시요.

천의선도 태종선사
삼봉 김영생 스님 합장배래

주소 : 서울시 동대문구 답십리 5동 483-39
삼용빌딩 403호

연락전화 : 010 - 4933 - 4528

“방사선 위험도 허용치 없어…유출 즉시 악영향”

3·11 후쿠시마를 묻다

동국대 ‘프라이드 동국지성콘서트’ – 김종철 〈녹색평론〉 발행인

동국대가 ‘프라이드 동국지성콘서트’ 강좌를 3월 14일 개최했다. ‘프라이드 동국지성콘서트’는 각계각층의 명사를 초청해 진행하는 교양프로그램이다. 첫 강연은 김종철 〈녹색평론〉 발행인이 ‘3·11 후쿠시마를 묻다’를 주제로 강연했다.



김종철 〈녹색평론〉 발행인은 핵 발명은 인류 최대의 재앙이라며, 독일의 원자력 완전 폐기 결정을 학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전의 진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한지 만 1년이 됐습니다. 일본은 아직도 사고 수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습이 언제 될지도 기약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일본에 또 한 번 지진이 발생한다면 동아시아 전역은 지옥으로 변할 것입니다.

지금도 후쿠시마에서는 방사능이 계속 유출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한 방사능 유출은 한국에도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한국 정부는 일본 원전사고로 인한 방사선양 위험도가 허용치를 넘지 않아 괜찮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방사선양 위험도는 허용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방사선은 유출되는 즉시 모든 자연계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방사능이 대기 중에 유출되면 토양에 스며들게 되고, 이는 지하수를 오염시킵니다. 이런 토양에서 자란 농작물은 또 다시 방사능에 오염되고, 인간은 오염된 농작물을 섭취하게 됩니다. 방사능은 없어지지 않고 인체에 계속 쌓입니다. 인간이 죽어 시체가 되도 방사능은 끊임없이 나옵니다.

일본은 세계에서 지진이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국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4개의 원자력 발전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이 민주주의에 취약한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고도경제성장을 이룬 국가입니다. 1960년부터 매년 10%씩 경제가 성장했습니다. 국민의 소비가 활발해졌고 사회가 풍요로워 졌습니다. 사회가 점차 안정화되면서 일본 국민들은 사회운동에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유능한 인재들은 대기업에 취직하거나 공무원이 됐습니다. 점차 체제에 동화되고 자본주의로 변화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민주주의 세력은 점차 소멸됐습니다. 국민이 점점 안락한 생활을 누리게 되면 사회에 대한 성찰을 하지 못합니다. 사회에 대한 장기적 안목을 발전시키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날 일본을 불행하게 만든 원인입니다.

문제는 한국이 이런 일본을 답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젊은 인재들은 안정된 직장에만 관심 있고, 원자력을 비롯한 사회 도처에 깔려있는 문제에는 무관심합니다.

지난달 한국 고리원자력발전소 1호기에 정전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시간이 조금만 지체 됐어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같은 일이 한국에도 일어났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중대한 사실을 한 달이 지난 후에야 접할 수 있었습니다. 언론이 앞장서서 소식을 알리지 않으면 국민은 진실을 알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피해는 국민이 감내해야 합니다.

방사능이 완전히 사라지려면 최소 몇 억 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정부와 일부 학자들이 터무니없는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아무리 거짓말을 하더라도 지식인층이 도와주지 않으면 거짓을 진실처럼 혼돈할 수 있습니다.

원래 고리1호기는 설계수명이 끝나 폐기처분해야 했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2007년 고리1호기 가동을 10년이나 연장시켰습니다. 당시에도 전문가들은 고리1호기를 연장 가동시키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고리 1호기는 해운대에서 고작 2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합니다. 만약 고리 1호기에 사고가 난다면 부산 시민 350만명은 전멸하고 맙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절반 규모의 사고만 발생해도 부산은 폐허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이런 심각한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을 끊임없이 바보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자력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 심각합니다. 원자력 문제에 대해 비판하는 사람들의 말이 단 1%만 진실해도 원자력 발전소는 건립될 수 없습니다.

원자력 발전소가 안전하게 운영되더라도 근본적으로 딜레마를 안고 있습니다. 핵폐기물을 처리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는 430여 개의 원자력 발전소가 있습니다. 발전소가 운영될수록 핵폐기물은 점점 더 쌓이고 있습니다. 현재 핵폐기물 처리는 매립시키는 방법이 전부입니다. 원자력 기술은 마땅한 해결책 없이 기술만 도입됐습니다.



원전에 대한 독일

사람들은 원자력 발전소가 운영되지 않으면 바로 삶이 불편해질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 54개의 가운데 52개의 발전소 운영을 정지시켰습니다. 현재 2개의 발전소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가 운영되지 않으면 일본은 심각한 전력 부족을 겪어야 하지만 일본은 현재 어떠한 문제도 없이 전력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물론 전보다 화력발전소를 더 가동시키고 있지만, 전력 공급에는 어떠한 불편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몇몇 국가에서는 이미 원자력 발전소 운영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독일입니다. 이번 후쿠시마 사고로 인해 가장 많이 변화한 곳이 독일입니다. 독일은 일본이 고도경제성장을 이루면서 사회적 성찰에 무관심한 사이, 녹색운동을 실천하고 원자력 반대운동에 나섰습니다.

독일 정부는 2022년까지 원자력을 완전히 폐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독일에는 17개의 발전소가 있는데, 이마저도 10년 후에는 폐기됩니다. 지난 겨울 유럽에 이상한파가 불어 닥쳐 많은 사람들이 얼어 죽었습니다. 하지만 독일은 이상한파에 전혀 영향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인근의 프랑스가 전력부족으로 많은 고충을 겪었습니다. 프랑스에는 58개의 원자력 발전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는 독일에서 전기를 수입해 쓰고 있습니다.

핵 등장은 인류 최대의 재앙
독일 10년 후 ‘원전’ 완전히 폐기
고리 원전 사고나면 부산 폐허
한국은 국민 속이며 일본 답습

우리는 독일과 프랑스의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이 두 국가는 유럽의 중심국가입니다. 문화, 경제 등 모든 것이 비슷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프랑스에는 58개의 원자력 발전소가 있고, 독일은 17개에 불과합니다.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저는 이 질문에 대해 아직도 공부중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공부한 것을 토대로 살펴보면 프랑스는 제2차 세계대전의 승리자이고, 독일은 패배자입니다.

독일은 대전 후, 평화지향적인 정서를 추구했습니다. 국가는 언제라도 전쟁을 일으키고 약자들을 희생키는 괴물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역사로부터 배웠습니다. 원자력 폐기물이 핵무기 재료임을 알고 있던 독일은 패전 후 국가 재건 과정에서 원전을 덜 건설하고 발전소 운영도 중단하겠다는 방침을 내린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방사선양이 적으며 인체에 해롭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방사선양은 내부피폭이 가장 무섭습니다. 미국 보건복지부는 1980년대 말에 미국인을 대상으로 건강진단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각 지역마다 어떤 질병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지 조사한 내용이었는데, 몇 개의 특정 지역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 유방암 발생률이 2배가량 높았습니다. 미국 정부는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조사를 해봤습니다. 유방암이 많이 발생되는 지역에는 원자력발전소가 50마일 이내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는 아무 사고가 없더라도 저선량의 방사능이 계속 방출됩니다.

방사능이 완전히 소멸되고 생물이 새롭게 살 수 있는 환경이 되려면 20억 년이 필요합니다. 방사능은 생명과 절대 공존할 수 없습니다. 자연의 이치에 전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핵은 지구상에 도입되지 말아야 했습니다. 핵이 만들어 진 것은 인류 최대의 재앙입니다.

현재 핀란드는 거대한 지하 암반에 핵폐기물 저장고를 만들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핀란드 정부는 이 저장고가 10만년은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자연계가 어떻게 변화할지는 예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만일 이 폐기물이 유출된다면 지구에는 생명이 존재할 수 없게 됩니다.

한국은 아직까지도 원자력 르네상스 시대를 누리고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해 가장 이득을 보는 사람은 도시에 사는 권력자들입니다.

도시사람들의 편리한 삶을 위해 울주군 경주 영광 울진군 사람들은 방사능에 노출돼 희생당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기득권층의 삶을 위해 약자의 희생은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 운영은 약자들을 희생시키는 일입니다. 한국은 독일이 어떻게 원전 폐기를 결정했는지 그 과정을 학습해야 합니다.

제가 원자력에 대한 위험성을 사람들에게 계속 알리는 것은 우리가 사는 지구를 후손들에게 잘 물려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들은 인간이 함께 살아야할 형제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시키기 위함입니다. 생명에 대한 공감과 연민이 없으면 인간과 사회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리=이은정 기자 soej84@hyunbul.com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80기 佛教儀式(범음·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작법반 (1년)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게, 다게작법(나비춤) 등
신행과정 (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 (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2년 3월중
◆ 개강일시 : 2012년 3월 개강. 매주 (화,목) 오후 5시 ~ 6시 30분(1시 30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청동불상 조성전문

청동불상·천불·삼천불·만불·개금·탱화·금고·범종



지장 보살님 석가모니 부처님 관음 보살님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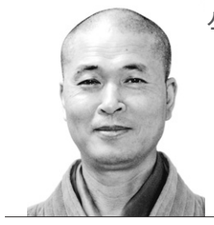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인터넷으로도 성화불교전시관의 작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성화미술원 내 전시관 : 031)591-1022
● 휴대폰 : 011-302-1022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산 5-37번지
성화미술원 공장내 불교전시관

주·야 상담 합니다

◇성화불교전시관 부처님 상호를 보시는 방법
인터넷에서 검색창에서[114도우미] 검색 →
114도우미 홈페이지에서 [성화불교전시관] 검색 →
사진첩 클릭



석우 스님의
조주록 선해

조주의 돌다리를 아는가

학승이 물었다.
"무엇이 자가(自家)의 본뜻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노승은 소 잡는 칼 따위는 쓰지 않아."

問 如何是自家本意 師云 老僧不用牛刀

자가(自家)는 자기 자신을 말한다. '본뜻'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이다. 혹은 자가의 본뜻을 불가(佛家)의 본뜻으로 볼 수도 있다. 불교의 핵심 진리이다.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은 곧 불교의 핵심이 되므로 자가본의(自家本意)는 이 두 가지에 다 통한다.

자가의 본뜻에 대해 조주 스님은 소 잡는 칼을 쓰지 않는다고 말했다. 당연한 말이다. 불교는 살생을 하지 않는 종교이므로 "우리 가(家)는 소 잡는 칼을 쓰지 않아!"하고 말한 것이므로 이것은 있는 그대로 대답한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이런 외면적 뜻보다 더 깊은 뜻이 있다. 그것은 내가 이러니저러니 하고 그것에 대해 설명하면 그것은 사람을 그르치게 하는 것과 같다는 뜻이다. 불교의 화두를 해설하는 것과 같고, 선의 중심적 사상을 말해버리는 것과 같다는 말이다. 그런데 조주 스님이 설사 해설한다고 해도 그것은 절대 도의 본질일 수 없다. 왜냐하면 도의 본질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면 벌써 어긋나 버리기 때문이다. 여기서 소는 마음을 말한다. 조주 스님이 소 잡는 칼 따위를 쓰지 않는다고 말한 것은 사람은 다치게 하는 그런 말은 할 수가 없고 말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바로 우리 가(家)의 본뜻인 것이다.

학승이 물었다.
"오랫동안 조주의 돌다리를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만 와보니 도둑질한 외나무다리만 보일 뿐입니다."
조주 스님이 말했다.
"그대는 단지 도둑질한 외나무다리만 보았을 뿐 조주의 돌다리는 아직 보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학승이 물었다.
"무엇이 조주의 돌다리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건너와! 건너와!"

또 이르되,

(앞의 문답과 같은데 다만 끝의 대답이 아래와 같다.)
조주 스님이 말했다.
"당나귀도 건네주고 말도 건네준다."

問 久嚮趙州石橋 到來只見掠彴子 師云 闍黎只見掠彴子 不見趙州石橋 云 如何是石橋 師云 過來過來 又云 度驢度馬

조주(趙州)라는 지역에 도착하려면 유명한 석교(石橋)를 하나 건너야 했다. 그 석교(石橋)의 제작자 이름이 이응(李膺)이라고 기록돼 있다고 한다. 조주 스님은 원래 종심(從?)이라는 법명을 갖고 있었다. 종심 스님이 80세 경에 조주 지역 동쪽 관음원에 기거하면서 40년을 교화하자, 사방에 유명해졌다. 사람들은 종심 스님이 조주(趙州)에 산다하여 조주 스님이라고 부르게 되었고, 조주 스님의 교화방편은 매우 뛰어나 많은 사람들을 깨닫게 하여 사람들이 올 때와 갈 때가 다르므로 사람들은 조주의 돌다리가 매우 훌륭하다고 말하기 시작했다.

하루는 한 납자가 관음원을 삥 둘러보고 나서 돌다리는 고사하고 다만 약박자(掠彴子:훔친 다리)만 보인다고 말했다. 다리는 사람을 교화하는 설법이나 방편을 말하고, 훔쳤다는 것은 다만 옛 사람의 것을 가지고 가르칠 뿐이라는 말이다. 그러자, 조주 스님은 그것은 네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일 뿐 아직 조주의 돌다리를 보지 못하고 있지 않았느냐고 핀잔을 준 것이다. 이 말에 학승은 정색하고 무엇이 조주의 돌다리냐고 물은 것이다.

조주 스님이 앞에 대답한 것은 주저 없이 이쪽, 붓다의 세계로 건너오라는 말이다. "너는 바로 부처야. 무엇을 망설이는가? 너는 달리 무엇을 바꿀 필요 없어. 부처가 되겠다고 수행할 필요도 없다. 다만 이리 건너와서 바로 부처의 길을 가라. 그대 자신을 잊어버리고 있는 붓다여! 망설이지 말고 이쪽으로 건너오라"라는 뜻이다.

두 번째 조주 스님의 대답인 당나귀도 건너가고 말도 건너간다는 것은 조주 스님의 다리는 반드시 말같이 고귀하고 똑똑한 자만 건너가는 것이 아니고, 말이 되지 못한 당나귀와 같은 자도 다 섭수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조주 스님은 사람을 가려서 제도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다 받아들이고 깨닫게 한다는 자기의 가풍을 내보인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그가 못났건 잘났건 이미 선천적으로 부처이기 때문이다. **무불선원 선원장**



주성원의
기초 교리 〈6〉

사성제-집제(集諦)

모든 괴로움의 원인 갈애가 모인 것

뚜렷한 증상도 없는데 몸에 이상이 오면 사람들은 '이유 없이 몸이 아프다'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내뱉는다. 하지만 '이유 없이'라는 말은 잘못된 표현이다. 원인을 찾기 힘들어서 알 수 없을 뿐, 몸이 아프다면 반드시 그 원인이 존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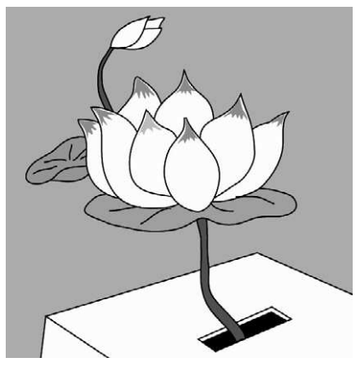
원인을 파악하기 힘든 이유는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꼬집어 말할 증상은 없지만 스트레스, 과로, 불규칙한 생활, 나쁜 식습관 등을 계속하다보면 지금까지는 건강해서 견뎌왔던 몸이 어느 순간부터 이상증세를 보이기 시작한다. 이것이 큰 병의 발단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큰 병은 몸의 작은 이상증세로부터 출발한다. 몸의 이상증세는 스트레스나 과로 등이 원인인 경우가 많은데, 스트레스는 보통 자신의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오는 경우가 많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생존 혹은 목표의 달성을 위해 과로를 하고, 그러다 보니 불규칙한 생활과 안 좋은 식습관이 생기게 된다. 여기에는 다시 여러 개의 원인이 달라붙어 작용하고 있고, 그 원인 속에는 또 다른 원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이렇듯 병을 포함한 모든 괴로움에는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있다. 이 인과의 과정을 모를수록 사람들은 잘못된 판단을 내리거나 그저 막연히 생각하며 괴로움을 더 키우는 어리석음을 저지르게 된다. 이러한 고통의 다양한 원인을 부처님은 집제(集諦)로 설명했다. 집제의 집(集)은 산스크리트어로 삼우다야(samudaya)라고 한다. 삼우다야는 결합·모임·합체 등의 의미를 갖고 있다. 즉 고통의 원인은 '모이는 것'에 의해 생긴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모여 고(苦)를 일으킬까? 〈사제경(四諦經)〉에서는 괴로움의 원인으로 '도처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구해 멈추지 않는 갈애(渴愛)'라고 기록돼 있다. 바로 이 갈애가 모여 고통을 일으키는 것이다.

갈애의 애(愛)는 '집착'을 가리킨다. 갈증과도 같은 맹목적인 욕망이기도 하다. 이 갈애는 끊임없이 자기에게 이롭고, 기쁘고, 즐거운 것을 추구하게 한다. 부와 명예를 얻음으로 갖게 되는 이로움은 현실세계에서 큰 힘을 발휘한다. 상상만 해도 자신이 안고 있는 여러 문제들이 일시에 해소될 것 같이 여겨질 것이다. 그래서 부와 명예를 얻기 위해 사막에서 물을 찾듯 집착하지만 그것을 이루지 못해 괴로워한다.

이와 같은 갈애에는 욕애(欲愛)·유애(有愛)·무유애(無有愛)의 세 종류가 있다. 먼저 욕애는 색(色; 물질)·성(聲; 소리)·향(香; 향기)·미(味; 맛)·촉(觸; 감촉)의 다섯 가지 욕구를 만족시키려는 번뇌이다. 유애는 말초적인 욕애보다는 한 차원 높은 욕망이지만 이것 역시 자기중심적인 갈애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무유애는 비존재에 대한 애착을 의미한다. 비존재란 허무(虛無)를 가리킨다. 부처님 당시의 인도에서는 죽은 후에 자신을 포함해 어떠한 것도 존재하지 않는 세계를 갈망하는 무리들이 많이 있었다. 이처럼 아무것도 없는 허무의 세계가 있기를 바라는 욕망을 무유애라고 한다. 따라서 불자들은 원하는 대상이 정신세계에 속하든 물질세계에 속하든 그로인해 결과적으로 고통이 따른다면 그것은 그저 갈애번뇌(渴愛煩惱)에 지나지 않다는 것을 알아차려야한다. **前 본지기자**



김호성 교수의
에세이 경구 ⑪



왕법은 몽둥이를 제일로 삼는다 〈붓다차리타〉

바야흐로 정치의 계절이다. 연일 언론은 선거이야기로 분주하다. 사람들마다 그들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해갈지를 지켜보고 있다. 나 역시 선거 관련 보도를 자세히 경청한다. 그들이, 아니 누군가는 내 속에 맺힌 한(恨)을 풀어주기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선거가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말 역시 그래서일지 모른다.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은 선거를 통해서 자기 뜻이 어느 정도는 구현되기를 꿈꾼다. 세상살이의 힘겨움이 어느 정도는 해소될 수 있기를 바란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평가는 그렇게 후하게 줄 수 없는 형편이다. "혹시나 싶었지만, 역시나…"라는 사실을 매번 실감하기만 했다.

왜 그럴까? 여기에 '불편한 진실'이 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 아니고, 민주주의 역시 사회제도의 꽃이 아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가 인간사의 꽃이 될 수 없는 까닭은, 왜 선거가 있게 되는지를 생각해 보면 알게 된다. "서로 내가 해야 한다"라고 굳게 믿는 사람들의 투쟁이 있다. 그러한 투쟁을 폭력에 의해서 해결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비폭력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민주주의다. 그것이 선거다.

그러므로 자기중심의 욕심이 투쟁하는 현장에서 나온 민주주의가 마냥 아름답지 못한 까닭이다. 사실 민주주의는 나의 권리를 타인에게 미뤄주는 양보주의나 그것을 내려놓는 포기주의 보다는 못한 제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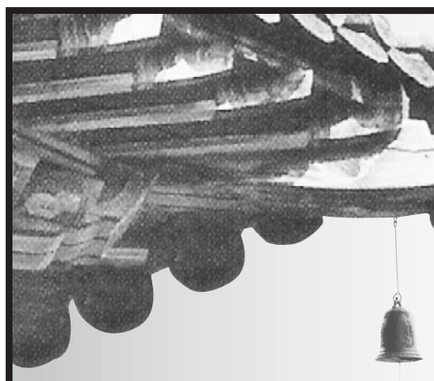
그것들이 더 좋지만, 그럴 수 없으니 어쩔 수 없이 행하는 것이 선거이다. 그것이 정치고, 그것이 민주주의다. 그런데 불교는 양보주의와 포기주의를 터부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결코 불교는 민주주의일 수는 없다.(독재주의를 지지하지 않음은 두말 할 나위없지만…) 민주주의 그 이상이다.

"해탈법은 적정을 제일로 삼는 곳에 있으며, 왕법은 몽둥이를 제일로 삼는 곳에 있다"는 고타마 싯달타 태자의 말을 〈붓다차리타〉는 전하고 있다. 놀라운 통찰력이 아닌가. 왕법(rājadharma), 즉 정치의 본질이 '몽둥이'에 있음을 그 시대의 한 청춘이 이미 눈치 채고 있었다. 몽둥이는 권력이고, 권력은 폭력이다. 왜 그럴까? 권력은 타자의 배제에 있기 때문이다. 나누는 것이 아니라 독점하는 것, 그것이 권력이다.

그렇게, 타자와 공유하기 보다는 혼자만 독식하는 것이 정치이다. 그러니 어떻게 정치와 구도(求道), 어떻게 왕법과 해탈법이 공존할 수 있겠는가라는 말이다. 그러므로 아버지시여, 저를 붙잡지 마소서. 왕위에 있으면서, 현실의 정치를 행하면서도 해탈을 얻을 수 있다고 하지는 마세요. 이런 이야기를 고타마 싯다르타 태자는 하셨던 것이다. 아니, 적어도 그렇게 하셨으리라고 〈붓다차리타〉의 시인 아쉬바고샤(馬鳴)는 생각하고 있다.

그렇게 해탈법과 왕법 사이에 택일을 요구하는 것은 부처님처럼 출가하신 스님들의 일이라 치부할 수도 있으리라. 과연 우리의 스님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해탈법만을 추구하기에는 왕법의 세계에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실까? 마음의 평화를 제일로 삼는 해탈법을 추구함으로써, 어렵게 살아가는 이웃들에게 오히려 맑음을 선물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일까? 그 문제는 스님들께 맡겨두기로 하자.

정작으로 난관은 우리 앞에 놓여있다. 세속을 살아가는 우리는, 고타마 싯다르타조차 어렵다 했던 왕법과 해탈법의 조화를 추구해야 한다. 그럴진대 어느 만큼의 깊이와 넓이로 왕법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 적절할까? 이에 대한 해답 역시 다 다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달라지는 것, 그것이 바로 정치이다. 왕법의 세계이다. 그 다름에 현기증이 나는가? 그 너머의 세계에 해탈법이 있는 이유이다.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



빙의(귀신병)·신병·퇴마 천도재 전문도량



매월 지장재일은
무보시 천도재

우울증, 공황장애, 수험생 집중력증가,
약물게임중독, 전생체험

- 교육생수시모집 -
최면술, 퇴마술, 기공술, 자극요법술

한국빙의·퇴마·최면연합회본부
한국근본불교조계종총무원 / 송림사 주지 현오 합장
서울시 은평구 녹번동 89-13번지 상담전화 02)357-4554 / 010-5656-3915
NAVER DAUM 에서 현오스님 을 검색하세요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부산시 북구 화명동 소재
◆ 화명지하철역 1분거리 ◆ 3층 50평
◆ 가액 : 전세 2천만원 월 55만원
◆ 시설비 1천만원
010-9229-3801

도심사찰마다 자연미 물씬한 경관수로 조성을

수로

수로는 한마디로 물을 처리하기 위해 낸 물길이다. 수로에는 빗물을 처리하기 위한 배수로를 포함해서 못에 물을 대기 위한 입수로와 물을 빼기 위한 출수로 수경관 감상을 위해 설치한 경관수로 등이 있다. 수로의 유형에는 명거식(明渠式)과 암거식(暗渠式)이 있는데, 어떤 유형의 수로를 설치하는가는 수로 설치위치나 기능에 따라서 달라진다. 수로를 만들기 위해 사용한 재료를 보면 바닥의 경우에는 강회다짐, 가공하거나 가공하지 않은 판석, 거친 활석이나 장대석이 많으며, 측면의 경우는 사괴석 자연석 잡석 장대석 등이 많다. 한편, 통나무나 대나무를 잘라서 만든 비구같이 특이한 형식의 수로도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조경공간에는 경관수로보다는 배수로나 입수로, 출수로 같은 기능적 수로가 많다. 이것은 담장 안으로 물을 끌어들여 흐르게 하는 인공적인 경관수로를 만들기보다는 자연 그대로의 계류를 선호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주 안압지, 구황동원지 등 신라시대에 조성된 정원에서는 입수로나 출수로를 경관수로로 활용한 흔적을 볼 수 있어 흥미롭다. 특히 안압지에는 담장 밖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여 지당으로 인수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형식의 경

수로는 물 처리하기 위한 물길
설치위치 · 기능따라 유형 달라
일본서는 경관 수로 조성 보편화
한국에는 기능수로가 더 많아


일본 모쓰지에 만들어진 야리미즈. 자연에서 볼 수 있는 계류와 같은 형식으로 만든것으로 치밀한 조성기법을 동원해 인공성이 드러나지 않도록 했다.

관수로를 연속적으로 설치했다. 그 가운데 2단 석구는 당시의 우수한 조형수준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귀한 작품이다. 조선시대에 조영된 궁궐에서도 경관수로를 볼 수 있다. 그 가운데 창경궁 통명전 옆 연지에 물을 대는 도수로가 대표적이다. 이것은 돌을 다듬어 만든 것으로 디자인이 단순하지만 군더더기가 없는 절제된 아름다움을 볼 수 있어 훌륭한 작품으로 평가된다. 이 도수로는 수원이 되는 물확의 남측 면에 만들었고, 물이 자연스럽게 흐를 수 있도록 북측 시작점은 높고 남측 끝점은 낮게 했다. 이것은 각형의 장대한 석재(330×540×4120mm) 상부를 물이 흐를 수 있도록 요철형으로 파낸 것으로 끝단은 석루조의 형태를 보인다.

일본정원에서는 경관수로 조성이 보편화돼 있다. 이 경관수로는 독특한 일본적 취향을 반영한 것으로 지당에 물을 끌어들이는 입수로를 경관적으로 즐길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 일본에서는 이 경관수로 형식을 야리미즈(遣水)라고 한다. 이와테(岩手)현 히라이즈미(平泉)의 모쓰지(毛越寺)에서 볼 수 있는 야리미즈는 사찰에 만들어진 것 가운데에서는 대표적인 사례에 속한다. 모쓰지의 야리미즈는 자연에서 볼 수 있는 계류와 같은 형식으로 만든 것으로 치밀한 조성기법을 동원해 인공성이 드러나지 않도록 했다. 야리미즈에는 이 같은 형식도 있지만 긴가쿠지(은각사)나 킨가쿠지(금각사)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수로 좌우에 돌을 연속적으로 놓아 물의 흐름을 유도하도록 만든 단면이 좁고 구불구불한 것도 있다.

순천 선암사에도 일본의 야리미즈 형식의 경관수로가 있었다. 이 수로는 해우소 옆에서 시작해 일주문 좌측에 만들어진 곡지(曲池)로 연결되도록 만들어져 있었다. 수로 형식을 보면 단면이 30~50cm 정도 되도록 했고, 전체길이는 약 23m 정도 되도록 만들었다. 또, 수로좌우에 자연석을 모양 있게 쌓아 수로를 경관적으로 아름답고 구조적으로 안정되도록 했다. 이것으로 볼 때, 선암사 경관수로는 일본사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야리미즈의 형식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

과거 일제강점기에 선암사에 일본신도가 많았다. 또, 주지스님들이 대부분 일본에서 공부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선암사의 경관수로가 일본사찰의 야리미즈로부터 영향을 받아 조성된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성보박물관을 신축하면서 이 수로가 멸실됐다. 수로에 연결된 자연형 곡지 역시 원래의 형태가 변형돼 지금에 이르고 있다. 아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전통사찰 가운데 경관수로를 조성한 사찰로는 김천 직지사를 꼽을 수 있다. 직지사의 경우에는 사역주변을 흐르는 계류로부터 물을 끌어올려 경관수로를 조성했다. 이 경관수로를 흐르는 물소리로 인해 사부대중이 청량감을 얻게 된다. 그러나 수로 형식이 한국사찰이 가진 고유한 경관적 정체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음은 물론 부분적으로는 콘크리트관을 사용함으로써 자연성을 잃었다. 향후 도심사찰의 경우 자연을 경내에 도입한다는 차원에서 경관수로의 조성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시각에서 볼 때 근년에 만들어진 서울 봉은사의 경관수로는 바람직한 사례로 꼽을 만 하다.


홍광표(동국대 조경학과 교수, 사찰조경연구소장)


안압지 입수장치는 입수로 · 출수로를 경관수로로 활용했다.


봉은사 경관수로는 자연을 경내로 들여온 효과가 있다.


사역주변을 흐르는 계류로부터 물을 끌어올려 조성한 직지사 경관수로


돌로 다듬어 심플한 미를 자랑하는 창경궁 도수로

인터넷 홈페이지 www.shcandle.com

New 신제품 흑 룡 초



임진년은 흑룡의 해 입니다
흑룡초로 소원성취 기도 하십시오

크기 ∮7.5 × 29cm

자연의 향으로 을 켜세요~ '삼환양초'가 함께합니다

강화사자밭약쑥양초



① 약쑥초 90cm ×90cm ② 약쑥초 연봉 원기둥 7.0∮×34cm ③ 약쑥초 돈타레 5.6∮×27cm
④ 약쑥초 밀대 4.7∮×25cm ⑤ 약쑥초 1호 5.9∮×18cm ⑥ 약쑥초 2호 5.9∮×14cm
⑦ 약쑥초 3호 4.7∮×13cm ⑧ 약쑥초 4호 4.7∮×10cm ⑨ 약쑥초 4호 반야심경 4.7∮×10cm
⑩ 약쑥초 3호 반야심경 4.7∮×13cm ⑪ 약쑥초 2호 반야심경 5.9∮×14cm ⑫ 약쑥초 1호 반야심경 5.9∮×18cm
⑬ 약쑥초 밀대 전사지(반야심경, 연화) ⑭ 밀납초 돈타레 전사지(반야심경,연화,호랑이,용) ⑮ 약쑥초 연봉 원기둥 전사지(반야심경,연화,금호랑이,금용)

한봉밀납양초



① 밀납초 90cm ×90cm ② 밀납초 연봉 원기둥 7.0∮×34cm ③ 밀납초 돈타레 5.6∮×27cm
④ 밀납초 밀대 4.7∮×25cm ⑤ 밀납초 1호 5.9∮×18cm ⑥ 밀납초 2호 5.9∮×14cm
⑦ 밀납초 3호 4.7∮×13cm ⑧ 밀납초 4호 4.7∮×10cm ⑨ 밀납초 4호 반야심경 4.7∮×10cm
⑩ 밀납초 3호 반야심경 4.7∮×13cm ⑪ 밀납초 2호 반야심경 5.9∮×14cm ⑫ 밀납초 1호 반야심경 5.9∮×18cm
⑬ 밀납초 밀대 전사지(반야심경, 연화) ⑭ 밀납초 돈타레 전사지(반야심경,연화,호랑이,용) ⑮ 밀납초 연봉 원기둥 전사지(반야심경,연화,금호랑이,금용)

• 파라핀 오일 : 국내산 원액 제조-삼환양초



新개념 크리스탈 받침 P.C컵 밀납초



삼성화재 생산물 화재 배상 책임보험 1억원 가입


크리스탈 연꽃 받침대


밀납양초 교체형

삼환양초에서는 법당에서 부처님께 초 공양을 쉽게 올릴 수 있도록 연꽃 모양의 크리스탈 받침대와 밀납양초로 손쉽게 양초를 교체할 수 있는 신제품을 개발하였습니다. 밀납양초는 특수PC컵을 이용하여 화재위험을 완벽하게 방지 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법당 및 야외 어디서나 안전하게 초 공양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제 모든 불자님들의 마음을 담아 법당에서 1인 1등 연꽃밀납양초로 초 장엄을 할 수 있습니다.

우창산업 SHC 삼환종합양초 전화 031)766-0242~3 / 팩스 031)766-0233 소비자 무료전화 : 080-0766-8888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35-16

작지만 강한 불교학 연구 요람…국제 교류 활발

② 개교 열돌 맞은 천태종립 금강대학교



정병조 총장은 대학 교단에서 늘 학생들에게 '도전'을 강조해 왔다. 금강대는 소수정예 교육으로 10년내 불교학의 메카가 될 것이라고 정총장은 장담했다.



계룡산 자락에 자리한 금강대 전경. 금강대는 해외 6개국 25개 대학과 자매결연을 맺고있다. 불교대학원개설, 대전 · 논산에 평생교육원을 개설할 계획이다.

불교중흥 · 인재양성 위해 개교
전교생에게 장학 수혜
불문연 80억원 HK사업 수주
지역과 소통하는 발전 도모 중

올해 개교 열돌을 맞는 금강대는 천태종립 대학이다.

한국 천태종 중창조 상월원각 조사가 1973년 8월 '불교중흥'과 '인재양성'을 위해 금강학원 설립을 지시한 것이 개교의 초석이 됐다. 천태종 제2대 종정인 대충 대종사는 상월원각 조사의 유지를 받들어 1982년 10월 천태종 종단회의에서 금강학원을 설립을 결의했다. 1997년 7월 교육부로부터 학교법인 금강불교학원 설립을 허가 받고 개교를 위한 종단 내외적인 준비를 마쳤다. 2001년 5월 논산에 금강대 건립을 위한 첫 삽을 떴다. 그 이듬해인 2002년 11월 7일 금강대는 ▷참된 인간성 함양 ▷전문적 지식의 체득 ▷창조적 능력의 발휘를 건학이념으로 개교했다. 초대 총장에는 박봉식 박사가 취임했다.

2003년 3월 금강대는 제1회 입학식을 통해 첫 학생들을 맞이했다. 2004년 3월 제2대 총장으로 김유혁 박사가 취임했고, 2005년 8월 불교 · 복지학부와 통상 · 행정학부로 학부조직을 개편했다. 2007년 제3대 총장에 성낙승 박사 취임 후 같은 해 8월 한국학술진흥재단으로부터 기초 연구과제 지원 사업으로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소장 김천학, 이하 불문연)의 '울너 필사본의 카탈로그 작성 및 DB구축 사업'이 선정됐다. 이 사업은 20세기 초 인도학자 알프레드 울너가 수집한 불교학 · 인도학 필사본인 '울너 컬렉션'을 디지털화하는 것으로 금강대는 3년간 4억5000여 만원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았다. 이는 11월 금강대 불문연의 인문한국(Humanities Korea)사업 선정으로 이어졌다.

2007년 11월, 불문연의 HK 사업 선정은 불교계를 깜짝 놀라게 한 대사건이었다. 개교 5년차인 금강대가 정부로부터 10년간 80억원을 지원 받는 대형사업을 수주했기 때문이었다.

불문연은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인문한국(Humanities Korea) 지원 사업에 '불교고전어, 고전문헌의 연구를 통해 본 문화의 형성과 변용 및 수용과정 연구'를 주제로 선정됐다. 불문연의 이 사업은 불교 고전어와 고전문헌 연구를 통해 문화 형성과 변용 및 수용과정을 이해하려는 프로젝트이다.

김천학 불교문화연구소장은 "금강대 HK사업은 국제적 수준의 연구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연구 인력과 연구시스템 및 인프라 구축을 통해 인문학 분야의 선도적인 학문공동체를 구현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사업 수주 당시 이 프로젝트 책임연구원이었던 안성두 교수(現 서울대 철학과)는 "HK 사업 선정을 계기로 수준 높은 연구자 초빙과 후속 연구자 양성이 이뤄져 금강대 불문연은 10년 내 불교학의 메카가 될 것이다"라고 장담했다.

이후 불문연은 2011년 상월원각조사 탄신 100주년을 기념한 국제학술대회 성료 등 다수의 국제학술대회의 원만한 회향과 우수 인재 전폭적 지원과 해외 학자들과의 교류 등을 통해 국내 불교학 연구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11년 2월 제4대 총장에 정병조 박사 취임 후에는 더욱 더 일신하게 됐다.

금강대의 괄목할 만한 성장은 '작지만 강한 대학' '소수정예 교육'으로 대표되는 대학운영 비전이 있기에 가능했다. 금강대는 일정 수준 이상의 기본 소양을 갖춘 소수의 신입생만을 선발한다. 수능 1~2등급의 상위권 학생만을 모집해 전공분야별로 개인지도 방식과 특성화된 전문교육을 거쳐 국제적 소양을 겸비한 세계인으로 육성하고 있다.

여기에는 천태종의 전폭적인 지원이 뒷받침됐다. 금강대는 종단 지원에 힘입어 국내 최고 수준의 장학제도를 자랑한다. 신입생 전원에게 등록금 전액이 장학금으로 지원된다. 전교 수석자 및 수능성적 우수자에게는 별도의 학업장려금을 지급한다.

금강대는 해외 6개국 25개 대학과 자매결연을 맺는 등 세계 명문대학들과 활발한 국제교류를 펼치고 있다.

금강대는 외국어교육에도 힘쓰고 있다. 재학생 외국어 능력 향상을 위해 금강대는 재학생 7~8명 당 1명의 외국인 학생을 유치하고 있다. 재학생들은 외국인학생들과 기숙사 생활을 포함해 학과수업, 동아리 활동 등을 함께 하며 국제적인 안목과 감각을 익히고 있다.

정병조 총장은 "학기 중 운영하는 '커뮤니케이션 파트너쉽 프로그램'도 학생들의 어학 실력 배양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금강대는 고급공무원 양성을 위한 고시반을 운영하고 있다. 정병조 총장은 "고시반에 들어간 학생들은 스터디룸 제공과 동영상 강의 및 학원수강을 위한 위탁교육비와 숙소경비일체, 도서구입비, 특별장학금 등을 지원받는다"고 설명했다.

금강대의 고급공무원 양성 정책은 성공궤도에 오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08년 황보란 졸업생과 2011년 백승하 졸업생이 행정고시에 합격했다.

특히, 금강대는 교육의 국제화 강화와 재학생 학습의지 고취를 위해 매년 해외 유수 명문대학원에 진학한 학생들을 선발해 장학금을 지원한다.

우수교원 확보도 금강대가 빼놓지 않고 있는 부분이다.

금강대는 개교 열돌인 올 6월 세계 유수 석학을 초정해 대규모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 대회는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개최한다는 복안도 갖고 있다.

또, 올해 중 불교대학원 개설과 대전 · 논산 지역에 평생교육원을 개설해 불교계 및 지역사회 리더를 양성하고, 지역민들과의 소통과 지역발전 기여에도 더 큰 몫을 담당한다는 계획이다.

정병조 총장은 "그동안 금강대는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왔다"며 "개교 열돌인 2012년을 기점으로 능동적인 장 · 단기 발전계획 추진을 통해 더욱 내실을 기해 대학 발전과 이미지 고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cetana@hyunbul.com

"세계에서 주목받는 대학 만들터"

취임 1주년 맞은 금강대 정병조 총장



"금강대의 지난 10년이 씨를 뿌리고 싹을 돋우던 시기였다면 앞으로 10년은 본격적인 성장의 시기가 될 것입니다."

금강대 정병조 총장(사진)은 개교 열돌인 올해, 총장 취임 1주년을 맞는다. 정병조 총장은 3월 14일 인사동 모음식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개교10주년과 취임 1주년에 따른 소회를 밝혔다.

정병조 총장은 "지난 한해 금강대 수장으로써 금강대의 발전가능성을 보고 자신감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부실대학 퇴출과 반값등록금 정책이 본격화되는 때, 전교생에 장학 수혜를 주는 등 '소수정예 교육'을 펼치는 금강대가 물을 만났다는 설명이다.

정 총장은 "금강대는 짧은 역사 속에서도 작지만 강한 명문대학으로서의 틀을 구축해 왔다"며 "대학 규모, 학생 수, 소재지 등 하드웨어적 핸디캡을 교육시스템과 학생 개별적 관리능력과 같은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의 우월성으로 극복했다"고 말했다.

"대학은 인재양성기관이면서 전인교육의 장이 돼야 한다. 미래 지식인으로서 한국문화 · 불교문화에 관한 가치관을 정립한 인재양성에 목표를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병조 총장은 재임기간 중 재학생을 1000명까지 늘리겠다는 서원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학과신설은 금강대 이미지를 더 살릴 수 있도록 인문 · 사회에 중심해 특성화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역사회에서의 책임을 다하는 대학, '세계 속의 한국, 세계대학 속의 금강대'라는 인식 하에 세계에서 주목받는 금강대가 되도록 활발발하게 움직이겠습니다. 불자들과 지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조동섭 기자

LEADER

국제 선 불교 조계종 종도모집

중생구제 인간방생으로 세계와 한국 속에 자랑스런 종단 !
12 인연법을 중시 여기며 화합과 단결과 품앗이로 서로 돕는 종단 ! 누구에게나 떳떳하게 밝힐 수 있고 소개할 수 있는 종단 !

큰 종단, 큰 절, 각 종단을 이끄는 스님들이 불교 지도자들이십니다. 그러나 비록 조그마한 암자나 토굴, 인법당을 운영하는 스님, 포교당을 운영하는 이름 없는 스님일지라도 포교일선에서 그늘진 곳, 손길을 기다리는 곳에서 땀 흘리는 불제자, 중생교화, 인간 방생을 몸소 실천하는 스님들, 재가 법사, 불자님들 또한 진정한 불교 지도자요, 중생의 지도자 입니다. 이토록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모든 것을 공양 올리고자 하는 뜻을 함께 하여 부처님 세상을 이룰 사찰 및 스님들의 종단 가입을 받습니다. 마음과 몸으로 고통받는 중생들을 위한 인간방생을 실천하는 사찰과 스님들의 가입으로 작지만 알차고 자랑스런 부처님을 감동 시키는 종단을 만들고자 합니다.

모두 동참합시다! 모입시다!

사찰등록 ! 지금 바로 하십시오.

개인의 명예나 대우받기를 원하지 않으면서 욕심없이 이유도 없고, 조건도 없는 보살행을 행하는 참 불자라면 누구나 환영합니다.
부처님을 감동시키는 부처님 세상 참다운 불교 종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국 불교 최초로 우리 종단만이 입을 수 있는 승복 및 수자보(스님가방), 장삼, 가사까지 갖추어진 종단입니다.

종교법인 국제 선 불교 조계종
목탁 혜은
대표전화번호 : 02)733-5665

정찬주의 아쇼까대왕 유적답사(1)

정법의 불빛 아쇼까에 의해 꺼지지 않고 지켜지다



깔링가 전투를 치렀던 다야강. 아쇼카왕은 깔링가 전장터에서 칼을 버리고 정법에 의한 통치를 서원했다. 아쇼까트리로 불리는 나무들이 도열해 있다.

깔링가에서 칼을 버리고 부처님 정법을 받들다

금년 1월 27일 델리국제공항 부근 호텔에서 잠자는 흉내만 내고 일행은 컴컴한 새벽에 버스에 오른다. 동인도에 위치한 도시 부바네스와르행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다. 새벽 5시 50분 비행기라고 하니 수속을 마치려면 출발 2시간 전까지는 공항에 도착해야 한다. 버스는 불빛 들이 가물가물한 공항 쪽으로 은밀히 잠입하듯 달린다. 긴 타월을 붕대처럼 머리에 두른 운전기사만 눈을 말똥말똥하게 뜨고 있다.

아쇼까왕의 유적을 찾는 첫날 일정부터 강행군에 들어간 셈이다. 답사일행 중에 몇 명은 이미 소임이 정해진 거나 다름없다. 곡성 관음사 주지 대요 스님은 원만한 답사를 위해 기도와 법문을 맡고, 경희대 양덕춘 박사와 서울예술대 윤제림 시인, 그리고 나와 아제여행사 대표 도곡거사는 변하는 상황에 따라 수시로 행선지를 점검하기로 한 것이다.

부바네스와르는 인구 4000만인 오릿사주의 주도(州都)로서 800만 명이 거주하는 도시라고 한다. 일행이 부바네스와르로 먼저 가는 까닭은 아쇼까왕이 전투를 벌인 깔링가 전장 터를 답사하기 위해서다. 아육왕(阿育王), 혹은 천애희견왕(天愛喜見王)으로 불리는 아쇼까왕이 부처님 법으로 세상을 통치하고자 맹세한 곳이 바로 깔링가 전장 터였음이다.

비행기 좌석에 파묻혀 부족한 잠을 청하지만 아쇼까왕에 대한 여러 상념들이 떠올라 자꾸만 눈이 떠진다. 할 수 없이 잠을 포기하고 카메라가방에 넣어온 호진스님이 번역한 책 〈아쇼까왕 비문(碑文)〉을 꺼내본다. 책 뒤편에 실린 세 편의 논문 중에서 스님이 쓴 글부터 먼저 읽어본다.

'기원전 2세기에 인도 마우리아왕조의 제 3대 왕으로서 인도 역사상 가장 큰 제국을 건설했던 아쇼까는 한 사람의 통치자로서 뿐만 아니라 고대인도의 종교, 사상, 문화, 역사, 사회, 경제 심지어 고고학, 언어학, 법률 분야에 이르기까지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아쇼까는 고대 인도불교와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갠지스강변의 작은 신흥종교였던 불교가 전인도뿐만 아니라 인도 바깥에까지 전해져서 세계적인 종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직간접적인 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고대 인도불교를 알기 위해서는 아쇼까 연구는 필수적인 과제라 할 수 있다.'

도입부 문장 가운데 아쇼까왕의 영향으로 인도에서 발생한 불교가 세계적인 종교가 되었다는 구절에서 눈길이 멈춘다. 거꾸로 이야기하자면 아쇼까왕이 없었다면 불교는 세계적인 종교가 되지 못한 채 인도에서 소멸했을지도 모른다는 뜻도 되기 때문이다. 아쇼까왕이 세상에 출현하지 않았더라면 부처님 정법이 사라졌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미치자 아쇼까왕의 존재가 새삼 위대하게 다가온다. 부처님이 정법을 세상에 처음으로 드러내 보여주신 분이라면, 아쇼까왕은 정법의 불빛을 꺼지지 않게 외호한 위인인 것이다.

아쇼까왕, 어린 조카 사미승에게 〈법구경〉 설법 듣고 귀의하다

기원전 329년, 알렉산더는 네팔의 국경지방인 삡팔라바나에서 찾아온 한 젊은 장수를 만났다. 마우리아족인 그는 동인도 깔링가 지역을 본거지로 해서 세력을 확장했던 난다왕국을 멸망시키겠으니 군대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난다왕국은 부처님이 살아계실 때 가장 강력했던 마가다왕국을 멸망시키고 나서 20여 년간 왕조를 유지하다가 알렉산더의 동방원정으로 국력이 극도로 쇠약해진 탓에 민심이 흉흉한 왕국이었다.

편잡과 인도서북 지역을 정복한 알렉산더는 젊은 장수의 청을 거절했다. 알렉산더는 들어줄 수 없는 형편이었다. 인도를 정복하는 동안 자신의 군대가 풍토병과 독충 등으로 큰 피해를 입었던 것이다. 알렉산더는 자신의 권위를 모욕했다는 죄목으로 오히려 젊은 장수를 감옥에 가두고 사형을 언도했다. 그러자 그는 천신만고 끝에 정글로 도망쳐 나와 목숨을 구했다. 이후 와신상담하던 젊은 장수는 뜻밖의 기회를 잡았다. 알렉산더가 인도서북 지역을 정복한 지 1년 만에 주력부대를 점령지에서 철군시킨 뒤 갑자기 죽었기 때문이었다.

이에 젊은 장수는 점령군에게 핍박을 받던 인도서북 사람들을 선동하여 인도에 남아 있던 알렉산더 군대를 격파했다. 이후 젊은 장수는 그 여세를 몰아 편잡과 인도서북 지역을 완전히 장악한 다음 파죽지세로 난다왕국을 멸망시키고 인도 전역을 정복해 갔다.

그 젊은 장수가 바로 아쇼까의 할아버지이자 마우리아왕국을 세운 짠드라굽타이다. 짠드라굽타는 마우리아왕국을 24년간 통치했다고 전해진다. 그의 군대는 인도의 어느 왕조보다 강했다. 60만의 보병과 3만의 기병, 그리고 9천의 코끼리부대를 보유했다. 알렉산더에 이어 기원전 305년에 그리스의 셀레우쿠스가 군대를 이끌고 왔지만 공격은커녕 점령한 인더스강 주변의 땅을 되돌려주고 짠드라굽타와 혼인동맹을 맺고 퇴각할 정도였다.

마우리아왕국의 제 2대왕은 짠드라굽타의 아들인 빈두사라였다. 빈두사라 역시 무력정복을 멈추지 않았다. 그의 영토는 더 넓어져 중앙인도와 데칸고원까지 내려갔다. 제국이 된 영토를 분할통치하기 위해 그는 많은 왕자를 두었다. 16명의 부인을 맞아들이어 101명의 왕자를 이용하려고 했던 것이다. 첫째 왕자인 태자는 수마나 혹은 수시마로 불렸고, 맨 마지막 왕자는 띳사였다. 띳사의 어머니는 또 한 명의 아들을 띳사보다 먼저 낳았는데 그가 바로 아쇼까였다. 아쇼까는 어린 시절에 성격이 몹시 거칠었으므로 빈두사라의 눈 밖에 나 왕궁에서 살지 못했다.

고대 인도불교 알기위해 아쇼까 연구는 필수적 과제

아쇼까는 장성해서도 빈두사라의 눈에 들지 못했다. 태자인 수마나 총독이 다스리는 편잡 지방에서 반란이 일어났을 때 빈두사라는 수마나를 왕궁으로 불러들인 뒤 아쇼까를 보냈다. 군사를 지원해 주지 않은 채 사지로 보낸 셈이었다. 그러나 아쇼까는 민심을 얻어 반란을 평정하는 공을 세웠으므로 대신들의 신뢰를 얻었다.

빈두사라가 죽자, 웃제니 지방을 다스리던 아쇼까 총독은 마우리아왕국의 수도인 빠딸리뿌뜨라로 올라가 99명의 이복형제 왕자들을 죽이고 왕위에 올랐다. 4년 동안 살육이 끊이지 않는 왕자의 난이 벌어진 것이다. 살아남은 왕자는 친동생 띳사뿐이었다. 그런데 띳사는 아쇼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출가해 버린다.

마침내 아쇼까가 왕위에 등극하는 대관식이 치러지는 날이었다. 호의호식하는 바라문들을 혐오하고 있던 아쇼까는 당당하게 길을 걸어가는 어린 사미승의 모습에 반하여 그를 왕궁으로 불러들였다. 사미승은 바로 자신의 조카 니그로다였다. 수시마 태자가 타살당할 때 임신한 태자비가 천민들이 사는 마을로 도망쳐 낳은 아들이었던 것이다. 아쇼까는 12살 니그로다 사미에게 〈법구경〉 중에서 '열반으로 가는 길과 윤회로 가는 길' 이란 설법을 듣고 그 자리에서 불법에 귀의했다. 그리하여 불교 수행자들은 아쇼까왕의 외호를 받게 되었던 것이다.

깔링가 전장 터에서 정법으로 세상을 통치하겠다고 맹세하다

지도를 펴보니 비행기는 인도 동남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부바네스와르가 인도의 시성(詩聖) 타골이 성장한 벵골주 밑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2시간 30분쯤 인도의 하늘을 날았을까. 어느새 비행기는 부바네스와르공항에 착륙하고 있다. 공항은 우리나라 광주공항만한 크기이고 한적하다. 활주로에 잡초가 자라고 있을 만큼 이착륙하는 비행기 편수가 많지 않은 것 같다. 버스 터미널처럼 허술한 공항을 빠져나온 일행은 무료하게 대기하고 있던 버스를 타고 바로 깔링가의 다울리 언덕을 향해서 달린다. 릭샤와 어슬렁거리는 소들이 뒤엉킨 부바네스와르 시가지를 벗어나 서쪽 방향으로 먼지 풀풀 날리며 시골길을 한동안 달리자 활처럼 굽은 강이 하나 보인다. 마하나디강의 지류 중 하나인 다야강이다. 전술을 모르는 나같은 문외한이 보아도 강을 사이에 두고 큰 전투가 벌어졌을 법한 지형이다. 이곳이 바로 아쇼까왕이 재위 8년에 대군을 거느리고 전투를 직접 지휘했던 곳이다.

부왕사망 왕자의 난 평정 등극 전쟁참상 목격 정법 통치 서원

불법에 귀의한 아쇼까왕은 왜 깔링가 전쟁을 치러야만 했을까? 깔링가 지역은 짠드라굽타 재위 때부터 점령하지 못한 땅이었다고 한다. 그러니까 마우리아왕조에 고분고분하지 않았던 깔링가왕조 정복은 오래 전부터 숙원사업이었고, 또 다른 이유는 마우리아왕국이 동남아 국가나 스리랑카와 해로를 통해 교류하는 데 있어서 깔링가 지역은 관문역할을 하는 요충지였던 것이다. 어쨌든 지리적으로 깔링가는 마우리아왕국의 수도 빠딸리뿌뜨라에서 너무 먼 거리에 있는 데다, 동인도 소국들 중에서 가장 강했던 왕국이었기 때문에 정복이 용의치 않았을 터이다.

아쇼까는 주력부대를 둘로 나누어 깔링가를 공격했다고 한다. 한 군대는 수도 빠딸리뿌뜨라에서 배에 군사를 실어 갠지스강을 타고 꼴까타까지 왔다가 남진을 시켰고, 또 한 군대는 육로를 이용하여 깔링가 배후를 치는 전술로 공격했다는 것이다. 그 결과 수많은 사상자로 인해 다야강 강물은 피로 물었다고 한다. 군사는 물론이고 수행자와 백성들까지 10여 만 명이 죽고, 15만여 명이나 깔링가왕국의 군사가 포로로 잡혔으며 수십 만 명이 실종되었던 것이다. 결국 깔링가 전쟁은 아쇼까의 마음을 바꾸게 한 계기가 됐다. 전쟁의 참상을 목격한 아쇼까는 다야강에 칼을 버리고 부처님 법으로 세상을 통치하겠고 결심했던 것이다.

이윽고 다울리 언덕 앞에서 내린 답사일행은 아쇼까왕이 깔링가 사람들을 위해 칙령을 새기게 한 바위 앞에 선다. 코끼리 머리가 조각된 바위 주변은 공원으로 조성되어 관광객들이 삼삼오고 드나들고 있다. 작은 고깔처럼 생긴 주황색의 빠또리아 꽃들이 주렁주렁 피어 있고, 바위 앞에는 이파리가 아쇼까의 칼처럼 생겼다고 해서 아쇼까트리라고 불리는 나무들이 도열해 있다. (계속)



글 · 정찬주 사진 · 아일선

[문화관광부 허가 제2010-9호]

사단법인 대원불교 조계종 종도모집



석가여래부촉법 제 77세
청봉 석정산 대종사







◈ 입 종 안 내 ◈

1) 입종 구비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주민등록증 앞, 뒤 사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 ◇**총본산 :** 경남 양산시 주진동 656번지 불광사 ☎ 010-3565-2462, 070-4187-4747
  ☎ 055)364-4747 / FAX 055)364-4849
  ☎ 010-2840-8207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 ◇승려증 (법사증, 포교사) ◇사찰 등록증 ◇주지 임명장 ◇추대장 및 위촉장(간부스님에 한함)
- ※ 범음범패 교육대학 9기생 모집
- ※ 계좌번호 : 농협 351-0227-1551-63 / 예금주 : (사) 대원불교 조계종

종 정 청봉 석정산 (종정실 사서실장 : 박연화연) (사무총장 : 석능각)

원로회
고 문 석홍섭
원로회장 석무공
부 회 장 석무겸 부회 장 석만월

승정원
승정원장 석원정

중앙종회
종회의장 석덕오
부 원 장 석월오

호법원
호법원장 석원명

감찰원
감찰원장 석현종

사정원
사정원장 석법경

총무원
총무원장 석혜오 부 원 장 석용암
총무부장 석윤오 교무부장 석성오
재무부장 석법담 사회부장 석혜주
정보부장 석보각 동원부장 석법원
행사부장 석지혜 의전부장 석근홍

호계원
호계원장 석지원

문화원
문화원장 석설산

감사원
감사원장 석지명
부 원 장 석보명

포교원
포교원장 석혜광

기획원
기획원장 석법상

교육원
교육원장 석보행
부 원 장 석대명
부 원 장 석운오
강원원장 석법오

교구종무원
구미종무원장 석혜광
전북종무원장 석설산
마산종무원장 석법경
전남종무원장 석법진
진주종무원장 석덕오

비구니원
원로의장 석효각
원 장 석청명 부 원 장 석광명
총무부장 석도현 교무부장 석능현
재무부장 석종률 문화부장 석법륜
포교부장 석해안 감사부장 석수진

중앙위원회
전국신도회회장 노세주
중앙행정위원장 차정호
중앙운영위원장 손연자
중앙무술위원장 엄태일
중앙정책위원장 박만석
중앙문화위원장 박무근
중앙기획위원장 조길환
중앙교육위원장 김기두(동선)

인터넷 주소 : www.dwbk.net

범패, 육효, 학인모집
(매주 토요일마다) 강의함.
문의 전화 : 055)364-4747

직지인심 견성성불을 체득하고 대승사상 지장보살행을 용으로 하며 상구보리 하화중생을 종지로 삼고 있는 **(사)대원불교 조계종 총본산 불광사**에서는 부처님의 불법을 함께 펼쳐 나갈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만약 본 총무원을 사칭하며 금품, 또는 물품 판매를 강요하는 자가 있으면 즉시 총무원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렌지카운티 사찰 순례 코스 선보여

한국·대만·티베트 불교사원 참여

1683년 뉴욕 주 최초로 설립된 12개 카운티 중에 하나인 오렌지카운티(orange county NY). 미국 역사·문화의 정수를 그대로 담고 있어 대표적인 관광지이기도 한 이곳에서 한국·대만·티베트 불교계가 '불교 알리기'에 나섰다.

타임즈 헤럴드-레코드(Times Herald-Record·www.recordonline.com)는 "관광객과 오렌지카운티 관광국 공무원, 지역 언론사 기자들이 세인트엔드류 가에 있는 다르마 씰(Dharma Seal) 사원을 방문해 불교문화 이해와 불교수행 체험 시간을 가졌다"고 3월 11일 보도했다.

이날 다르마 씰 주지 신-싱(Xin-Xing, 대만) 스님은 관광객 등에게 "공동체생활을 하면서 나와 다른 사람의 생각·주장을 받아드리는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스님은 "오렌지카운티 관광국의 '불교사원 순례 프로그램' 첫 손님을 맞이할 수 있어 감회가 남다르다. 이 프로그램은 미국사회에 뿌리 내리고 있는 불교의 참 모습을 선보이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타임즈 헤럴드-레코드는 "이 자리에는 한국의 지광 스님(원각사 주지), 티베트의 켄포 칼상 걀텐(Khenpo Kalsang Gyaltsen) 스님(테체 쿤차브 링 사원 주지), 에니 쿤가 쵸드론(Ani Kunga Chodron) 스님 등도 함께 했다"고 덧붙였다.

'불교 사원 순례 프로그램'은 수잔 호버메일(Susan Hawvermale) 오렌지카운티 관광국장의 아이디어로 시작됐다.

호버메일 국장은 브리안 메이어(Brian Maher) 웰든 시장이 테체 쿤차브 링 사원 예방시 동행했다. 그곳에서 서양 여성으로서 티베트불교의 계를 받아 출가한 에니 쿤가 쵸드론(Ani Kunga Chodron) 스님을 만나, 오렌지카운티에서 뿌리 내리고 있는 각국의 불교계와 사원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수잔 호버메일 국장은 "쵸드론 스님의 말을 듣는 순간 관광상품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았다"고 말했다.

호버메일 국장은 "미국인이라면 누구나 인터넷 등 여러 통로를 통해 불교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지만, 정작 불교사원을 찾고 그 문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며 "오렌지 카운티의 '불교 사원 순례 프로그램'은 누구에게나 성스러운 공간(사원)에서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렌지카운티 순례 프로그램은 관광국 직원의 아이디어로 시작됐다.

오렌지카운티 관광국 '불교 순례 프로그램' 협력위원회를 맡고 있는 쵸드론 스님은 "올여름까지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해 보완한 후, 가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렌지카운티에 소재 다르마 씰 사원, 원각사, 테체 쿤차브 링 사원, 블루 클리프 사원(Blue Cliff Monastery) 등과 협력해 매주 첫 번째 주 일요일마다 순례 장소로 적극 개방하는 한편 불교수행을 체험하고 불교문화를 이해하며 불교음식을 맛볼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종욱 편집위원

현대 중국불교연구 불씨 지펴

세계의 불교학자(11)

라이용하이(賴永海) 中 남경대교수



중국은 문화대혁명으로 불교학 연구가 단절됐었다. 1980년대 개혁개방 정책으로 현대불교학 연구가 재개됐고, 최근에는 민족 정통성 회복과 중화사상의 현대적 부흥을 위해 중국불교 연구가 한창이다.

1980년 중국 불교학자를 꼽으라면 라이용하이(賴永海) 교수(남경대)를 빼놓을 수 없다. 라이 교수는 '중국불성론'의 연구로 주목을 받는 학자이다.

라이용하이 교수는 불교가 성행하는 푸지엔성(福建省) 민난에서 출생했다. 지역적 환경 탓에 그는 유년기부터 깊이 불교의 훈향에 물들 수 있었다. 이런 성장 배경은 그로 하여금 불교학에 관심을 갖게 했고, 1978년 사회과학원에서 임계유(任繼愈) 선생을 지도교수로 불교학을 전공하게 됐다.

라이용하이 교수가 석사과정을 시작한 것은 1965년도로부터 10여 년 동안 진행된 '문화대혁명'이 마무리되고, 이른바 현대화로 급선회하던 시기였다. 석사과정에서 라이 교수는 승조(僧肇)의 〈조론(肇論)〉 가운데 〈부진공론(不眞空論)〉에 매료돼 점차로 불교에 유가와 도가철학이 범접할 수 없는 깊은 철학적 사유가 존재함을 깨닫게 됐다.

1982년 중국의 대학에서 최초로 박사과정이 개설됐다. 라이 교수는 박사과정에 진학해 본격적으로 불교학을 연구했다. 이때, 라이교수는 본래의 중국철학 연구에 더해 "외래종교로서 불교가 어떻게 중국에 뿌리를 내릴 수 있었는가?" "대승·소승이 동시에 전래됐는데, 유독 대승불교만이 발전하게 됐는가?", "중국의 전통사상인 유·도 양가의 사상과 불교는 어떻게 서로 융합하는가?" 등의 문제를 설정하고, 그에 대한 접근을 시도했다. 그리고 그 해답을 '중국불성론'에서 찾을 수 있다고 정리했다.

라이용하이 교수는 이같은 사유와 연구를 모아 박사학위 논문 〈중국불성론〉을 완성했다.

그 과정에 대해 라이 교수는 "당시 도서관에는 대장경이 오직 한 질만이 있어 대출이 불가능했다. 다른 전적들 역시 충분하지 못하여 몇 십 리 되는 거리를 매일 오가면서 16권의 두꺼운 노트와 수 천 장의 카드를 준비했다. 후에 그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도서관에서 특별히 대출을 허가했다"고 회고했다.

라이 교수의 〈중국불성론〉은 당시 중국의 불교학계로서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했다는 호평을 받았다. 나아가 영국 옥스퍼드 인명록에까지 등재될 정도로 일약 세계적인 학자로서 인정받는 계기가 됐다.

1980년대 개혁개방 연구 1세대
불교 중국 토착화 등 고민·연구
'중국불성론' 통해 해명 시도
중국 전통 현대적 해석에 관심

뿐만 아니라 그의 연구업적을 통해 중국의 현대불교학 연구가 활성화되는 단초가 됐다.

라이용하이 교수의 학풍은 이른바 유(儒)·불(佛)·도(道) 삼가의 상호관계 속에서 중국불교의 전개를 논한다는 데 있다. 그는 "중국불교의 전개는 바로 중국철학의 전개와 나누어질 수 없고, 서로 병행관계를 이루며 진행된다"고 말한다.

라이 교수는 "상당한 기간 동안 중국철학사 연구에 종사한 학자들은 불교를 이해할 수 없다면 중국철학에 대하여 깊이 연구할 수가 없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 중국불교를 연구하려는 사람이 만약 중국 고대철학, 특히 유·도 양가의 철학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가 알고 있는 중국불교도 한 부분일 뿐이다. 중국불교학 연구도 똑같이 깊이 들어가기가 매우 어려운 것은 물론이다."

라이 교수는 중화문화연구원장을 역임하며 중국전통문화와 불교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도 진행했다. 연구에서는 인간불교에 관한 연구 등이 진행됐다.

라이용하이 교수는 불교가 중국전통문화에 미친 영향과 근대에 진행된 태허(太虛) 법사의 '인간불교(人間佛教, '생활인의 불교')' 전통의 현대적 재해석 등에 관해 연구하기도 했다.

라이 교수의 저서로는 〈중국불성론〉 〈중국불교문화론〉 〈종교학개론〉 〈불도시선(佛道詩禪)〉 〈불교와 유학〉 〈담연(湛然)〉 〈불전집요(佛典輯要)〉 〈고승전석역(高僧傳釋譯)〉 〈중국불교략사〉 등이 있다. 국내 지인에는 동국대 불교학술원 김진무 교수 등이 있다.

조동섭 기자 cetana@hyunbul.com

부처님 정골사리 홍콩 전시

4월 25~30일, 제3회 세계불교포럼 기간 중

중국 보은사(Bao'en Temple)에 소장된 석가모니 두개골 사리가 4월 홍콩에서 전시된다.

중국일보(chinadaily. com.cn)는 "부처님 두개골 사리가 제3회 세계불교포럼 개최에 맞춰 4월 25~30일 홍콩에서 전시된다"고 3월 12일 보도했다.

두개골 사리의 이운을 책임질 츄에 쳉(Xue Cheng·중국불교연합 부대표) 스님은 "이번 전시회는 석가모니의 두개골 사리의 첫 해외전시이다. 중국과 홍콩 불교계의 노력이 이번과 같은 신기원을 이룰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 츄에 쳉 스님은 "서방에서는 중국의 경제발전만을 눈여겨 있어서 안타까웠다. 이번 전시회와 포럼을 통해 서방에서 중국의 유구한 문화도 함께 주목해주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중국 문헌에 '불정진골(佛頂眞骨)'로 표현된 석가모니 두개골 사리(중국 보은사 소장)는 2008년 중국 난징 금릉대보은사 터 지하궁전에서 발굴돼, 현존하는 유일한 두개골 사리로 평가받고 있다.


석가모니 진신 두개골 사리가 담겨 있는 금도금보탑(중국 보은사 소장)

홍콩에서는 지금까지 석가모니 치아사리만이 1999년과 2004년 두차례 전시됐다. 2010년 홍콩 인구통계에 따르면 총인구 10%에 달하는 70만여 불자들이 있고, 사찰은 600개로 추산된다.

오종욱 편집위원

日 오가츄 불교계, 핵 참사 1주년 추모공연

최근 수산물 가공공장 설립 도와

미야기현 오가츄(Ogatsu) 불교계가 동일본 대지진과 쓰나미로 원전 사고 일주년인 3월 11일 지역여성 불자로 구성된 불교합창단 추모공연 무대를 마련해 지역주민을 위로했다.

온라인 매체 에프티(www.ft.com)에 따르면 "대지진과 쓰나미 그리고 핵 참사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오가츄에서 불교계는 지금까지 주민들을 북돋으며 재건의 길을 모색해 왔다"고 보도했다. 이토(Itto) 수산물가공공장 대표는 "오가츄 어민들은 쓰나미로 양식·가공시설 뿐만 아니라 집도 잃어버렸다. 불교계의 헌신적인 노력이 없었다면 결코 오늘에 이르지 못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베트남, 쿠안 암 축제 개최

9~11일…트렘소그 린포체 법문

베트남의 대표적인 불교축제인 쿠안 암 축제(Quan The Am Festival)가 개최됐다. 온라인 매체 베트남넷(english.vietnamnet.vn)은 "3월 9일부터 11일까지 다 낭(Da Nang) 시에서 수천여 명의 사부대중이 참여한 가운데 쿠안 암 축제가 개최됐다"고 12일 보도했다.

쿠안 암 축제는 1960년 어부들의 안전과 번영을 관세음보살에게 기원하기 위해 처음 열린 이후, 매년 개최되어오다가 2000년 국가 공인 축제로 지정되면서 관광객들에게 주목받고 있다.

한편 이번 축제에는 인도 다람살라에 소재한 트렘소그(Tramthog) 린포체(남갈사원 주지)의 법문이 마련돼 축제의 의미를 더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日江스님께서 정리하신 상용의식

책을 내면서...

지금까지 갖가지 의식에 대한 절차나 예법을 기록한 책이 많이 나와 있으나 초심자가 이용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있었다. 이번에 소개하는 각종의식 집은 조예가 없는 사람이라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의식진행 순서대로 작성하였다. 아무쪼록 본 의법이 법요의식을 진정한 염불로 바르게 행하고자 하는 불자들에게 많이 활용되어 중생계에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 줄 것을 기대한다.

편집인 日江 합장

사용하기가 간편하여 스님들에게 최고인기 판매 중!



예경·권공의식집

예불에서부터 불공에 이르기 까지 목탁, 요령, 합장표시와 자세한 설명, 그리고 의식 순서대로 되어있어 초보자도 쉽고 자신있게 의식을 집행할 수 있다.

46배판 | 118쪽 | 값 15,000원



불상 점안 의식집

부처님을 모신 후 불상점안 의식은 이 책 한권으로 해결할 수 있다.

46배판 | 59쪽 | 값 9,000원



천도(49)재 의식집

천도재, 구병시식, 지장불공, 관음시식 등 재 의식을 초보자도 쉽고 자신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순서별로 되어있다.

46배판 | 123쪽 | 값 12,000원



고사의식집

가택 평안을 위하여 사용되는 고사의식 집이 알기 쉽게 편집되었다.

46배판 | 130쪽 | 값 13,000원



다비의식 집 (2010신간)

누구나 간절히 기다리던 의식집, 승가다비편과 재가다비편이 입적 후 처음으로 시신을 대하는 순서부터 화장, 매장 등 의식절차가 순서대로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정확하고 세밀한 설명으로 누구나 당황하지 않고 자신있게 의식을 집행할 수 있다.

46배판 | 158쪽 | 값 15,000원

신간

행복한 운명을 만드는 비결

운명을 지배하는 조상 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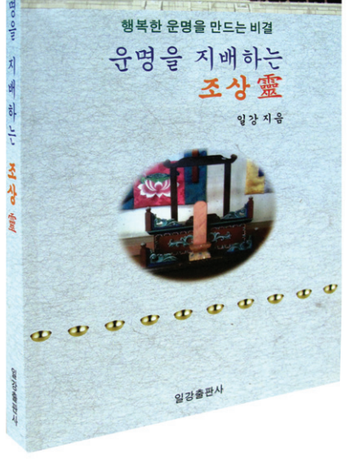
- 구입문의 : 일강 출판사 02)2237-8543
- 4권이상 구매시 택배비 무료입니다.
- 입금계좌 : 기업은행 267-017536-04-024 / 사단법인 천우종

신간

행복한 운명을 만드는 비결

운명을 지배하는 조상 靈

행복한 삶의 길을 터주는 보물열쇠!
바로 이 책 한권으로 운명을 개척할 수 있다.



- 모두가 염원하던 책! 드디어 완성 출간!
- 엄청난 영혼과 운명의 비밀이 담겨있는 책!
- 실제 있었던 체험담이 이 책 속에 들어있다.
- 이 책을 읽고 실천에 옮기면 즉시 소원성취 할 수 있다.
- 바로 조상靈을 만나보고 불가사의한 일을 체험해 보십시오!
- 누구나 한번 읽고 소장해야 할 화제의 필독서!
- 영계(靈界)의 실상을 파헤치고 소원성취의 길로 인도하는 최고의 걸작!
- 종교지도자들이 이 책을 읽고 신도들에게 권해주면 최고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책값 : 12,000원 I 사찰 다량주문 환영

구입문의 : 일강출판사 02)2233-5286, 2237-8543 / 입금계좌 : 기업은행 267-017536-04-024 사단법인 천우종

“큰스님, 법은이 망극합니다”

경허 스님 수행 일화

⑱ 곡차 동이의 법력

보은 법주사에서 진하(震河) 스님과의 일화다. 법주사에서 강백으로 이름을 크게 떨치던 진하 스님은 평소 경허 스님을 좋지 않게 평하고 있었다. 진하 스님운 학인 스님들로 하여금 경허 스님을 혼낼 작정을 하고 있었다. 이러던 중 우연히 경허 스님이 법주사를 찾았다. 벼르고 벼르던 학인스님들은 경허 스님에게 봉변을 줄 계획을 짜 놓고 있었다.

형세와 분위기를 감지해서일까. 경허 스님은 큰 방에 좌정하자마자 느닷없이 우렁찬 사자후를 토했다.

“자고로 종사(宗師)가 선사(禪師)에게 이런 법이 없다!”

경허 스님의 한마디에 진하 스님은 그만 아찔해졌다. 평소에 경허 스님의 무애행을 아주 못마땅하게 여겨 불만에 찬 비평을 늘어놓던 진하 스님은 경허 스님을 친견하자 첫 눈에 존경심이 나게 됐다.

진하 스님은 머리를 숙여 아만(我慢)을 없애고 학인들이 불량한 짓을 못하도록 자진해 막기에 바빴다. 진하 스님은 시간이 나는 대로 경허 스님을 모시고 여법하게 법을 청했다. 또, 자신이 직접 곡차를 받아 공양을 올리기도 했다.

부산 범어사에서 경산(擎山) 스님과의 일화다. 경허 스님이 어느 날 범어사에서 경산 스님과 부산진을 거쳐 해운대를 돌아보고 오게 됐다. 경산 스님은 기골이 장대하고 그 힘이 장사였으며 한때 걸승으로 유명한 스님이었다.

경산 스님은 경허 스님이 곡차를 즐겨 드신다는 말을 미리 접하고 경허 스님이 곡차를 얼마만큼 마시는지 시험하고 싶었다.

경산 스님은 경허 스님을 모시고 일부러 주점 인근을 다니며 스님이 곡차를 마음껏 드실 수 있도록 했다.

그런데 경허 스님이 곡차 잔을 쓰지도 않고 동이째로 마시는 것이 아닌가. 자신도 대작을 해야 하는데 도저히 따라 마실 수 없었다. 경산 스님은 가끔 한잔 씩 경허 스님이 권하는 것을 받아 마시다 만취하게 됐다. 경산 스님은 거리에 쓰러져 세상모를 지경이 돼 버렸다.

경허 스님이 이런 경산 스님을 말없이 한 손으로 바구니 들 듯 치켜들고 범어사 금강암까지 단숨에 올려다 놓았다고 한다.

⑲ 정 처사와의 사제인연

경허 스님이 천장암에 주석할 때의 일이다. 경허 스님의 명성을 듣고 정 처사(處士)라고 하는 선비가 경허 스님을 만나기 위해 천장암을 찾았다.

정 처사는 천장암 선당방으로 들어가서 경허 스님의 맞은편에 앉았다.

경허 스님과 정 처사는 한문 문장으로 대화를 하는 토사성문(吐辭成文)을 시작했다.

“차처해우벽지(此處海隅僻地)로 구불견룡사(久不見龍蛇)려니 금일래자(今日來者) 시룡야사야(是龍耶蛇耶)?”

“이 곳은 바닷가의 구석진 벽지로서 오랫동안 용도 뱀도 보지 못했는데, 오늘 온 것은 용인가? 뱀인가?”란 뜻이었다.

정 처사는 이 말을 듣자 자리에서 일어나 절을 올리며 답했다.

“석가불배 석가불(釋迦佛拜 釋迦佛)이요, 미륵불배 미륵불(미륵불배 미륵불)입니다.

“석가불에게 절하는 것은 석가불이요, 미륵불에게 절하는 것은 미륵불입니다.”

정 처사의 말은 경허 스님에게 절하는 자신은 경허 스님을 알만하며 경허 스님 또한 자신을 알 만 하다는 것이었다.

서로의 경지를 알아본 경허 스님과 정 처사는 무상의 법연을 맺어 스승과 제자가 됐다. 경허 스님은 정 처사를 맞아들여 정 처사는 사흘 동안을 천장암에서 묵으며 밤이 새는 줄 모르고 선(禪)에 대해 묻고 또 들었다. 서로를 알아보고 뜻이 맞는 그들 사이에 사흘은 오히려 짧은 시간이었다.



그림 · 박구원

⑳ ‘조사서래의(祖師西來意)’ 문답

‘달마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 물으니
경허 스님 말없이 주장자로 갈겼다
태평 스님도 주장자로 후려 갈기니
“사자는 사람물고 개는 흙덩이만 쫓네”

경허 스님이 천장암에 있을 때 계룡산에 태평 상인(太平 上人)이라 불리는 지혜와 덕을 겸비한 스님이 있었다. 태평 스님은 원래 판서집 자제로 어려서 출가해 수행정진에 철저했다.

또 기이한 행동을 서슴지 않았다. 태평 스님이 경허 스님의 도명(道名)을 접하고 스님을 찾아 천장암을 거쳐 다시 서산 부석사로 갔다. 경허 스님이 있는 방 앞에서 태평 스님은 방문을 활짝 열며 말했다.

“여하시(如何是) 조사서래의(祖師西來意) 이니꼬?”

달마 조사가 서쪽 인도에서 온 참 뜻이 무엇이냐는 선문답이었다. 태평 스님에게 경허 스님은 아무 대꾸 없이 주장자를 들어 냅다 후려 갈겼다.

주장자를 맞은 태평 스님이 다시 입을 열기를 “때리기는 때렸어도 조사서래의는 아닙니다”고 말했다.

이에 경허 스님은 곧 되받아 묻기를

“여하시 조사서래의 인고?” 했다.

이번에는 태평 스님이 주장자로 경허 스님을 후려 갈겼다. 얻어맞은 경허 스님이 말했다.

“사자는 사람을 물거늘(獅子咬人), 어찌 한나라 개는 흙덩이만을 쫓는고(韓盧逐槐)?”

그 소리를 듣고 태평 스님은 공손히 경허 스님에게 아뢌다.

“큰 스님, 법은(法恩)이 망극합니다.”

경허 스님은 웃으며 법당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구성=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희담석 건강용품 - 염주세트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38,000원~~ (희담석합장주, 염주,주머니) ⇨ 32,300원

· 크기 : 직경 10mm 희담석 합장주 증정! (희담석합장주 [낱개] 1만원)

* 희담석 100% 활용 방법 – 희담석(염주, 합장주 등)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능인로즈마리 · 능인라벤더

능인향당의 향은 불자의 불심로 제조된 순수 원향입니다

능인로즈마리는 항균, 살균작용이 뛰어나고 향기가 풍부해서 살충제를 겸한 방향제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꽃입니다. 특히 목욕할 때나 거실에서 로즈마리 향을 사용하면 신경을 이완시켜 편안한 기분을 느끼게 해줍니다. 능인 로즈마리는 능인향당의 순수 원향 기술을 바탕으로 로즈마리의 특징을 살린 천연향으로, 로마 요법과 방향성의 기능을 지닌 향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능인라벤더는 정신안정과 피부 개선에 효과가 있고, 그 향기가 좋아 유럽의 로마 시대부터 향수와 향료의 원료로 사용되던 꽃입니다. 라벤더의 향기에는 긴장을 완화시키고 숙면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능인 라벤더향은 능인향당의 순수 원향을 바탕으로 천연 라벤더 꽃에서 추출한 최고급 에센스를 첨가하여 그 향기가 은은하고 자연스러운 것이 특징입니다.

· 각 15,000원
· 규격 : 약 14cm (연소시간 약 35분)
· 용량 : 약 170개

구입문의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Health Food Prescription Counselor

보건식품처방사

보건식품처방사란? 국가에서 인정한 식품 원재료를 활용하여 보건식품을 개발하고 개인의 체질에 따라 식품을 맞춤 처방하는 전문가로서 보건식 품처방원을 개원할 수 있음

보건복지가족부공익법인 대한보건의료진흥회 (자격검정)

자 격 과 정	교 육 기 간
인체생리학(인체해부학), 자연치유의학, 식품영양보충학, 식의학(동양의학, 양생학, 변증), 중탕이론 및 실습(법제론), 보건식품처방론(변증학, 방제학), 약용식품학, 총 7개 과목 ※ 특강 : 자연건강법(자세교정, 기공, 양자파동), 식품위생법규, 약초기행실습, 보건식품 효소발효액	14주 과정 토요일 반

접 수 처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2가 130-1 신한은행빌딩 5층

교육일정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바랍니다.

문 의 02)3147-2020 www.kile.or.kr ▼

지 부 교 육 원

창 원 055-543-6155 호 남 063-288-5623 전북익산 063-854-1060 부 산 051-441-0111
울 산 052-260-1037 충청북부 043-263-9966 대 구 053-566-1116 해 운 대 051-757-9990
강원서부 033-252-3682 경 남 055-932-5877

교육과학기술부허가공익법인/한국평생교육기구 한국보건교육원 KOREA EDUCATION CENTER FOR HEALTH

성훈따주기 강좌

1 1박 2일 강좌(숙식제공)
- 일정 및 수강료
  ① 일 정 : 2012. 3. 31(토) 오후 1시부터 ~ 4. 1(일) 오후 4시까지
  ② 수강료 : 10만원 (교재, 침 별도)
- 모집인원 : 25명 (선착순)
- 장 소 : 대한불교조계종 백 천 사 (강의실)
- 준비물 : 편안 복장 및 개인 세면도구
- 접수 및 문의처 : ☎ 02) 313-5047 H·P 010-2031-1233

2 매주 화요일 강좌(10회 과정)
- 시 간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 수강료 : 10만원
- 장 소 : 수효사 효림원 8층 (법당)
- 접수 및 문의처 : ☎ 02)313-3060

※ 따주기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

※ 교재 : 6,000원 / 침 : 10,000원

한국전통따주기공덕회

아름다운 이별여행 준비를 위한
제9기 호스피스 수강생 모집

우리 모두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죽음의 순간에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하는지 정작 우리의 현대교육은 가르쳐 주지 않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준비교육은 절실히 필요합니다.

각 전문분야의 최고의 강사진(대학 교수, 의료진, 현장 전문가 등)을 모시고, 전문적인 소양을 갖춘 불교호스피스 봉사자를 양성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 개강일자 : 2012년 4월 3일(화요일)
- 교육기간 : 2012년 4월 3일 ~ 6월 19일 (총11회) 매주 화요일
- 시 간 : 오후 7시 ~ 9시까지
- 장 소 : 사회복지법인 수효사 효림원 6층 강의실
- 수 강 료 : 15만원
- 문의전화 : 313-3060 / 010-2031-1233 (담당 : 박미경)
- 협 찬 : BTN 불교TV

대한불교 조계종 수 효 사

나의 서원 나의 신행 〈5〉

부처님 가극으로 음악인생 갈무리 하고파

삼귀의 · 사홍서원 작곡한 최영철 불교음악가


최영철 작곡가가 작곡한 삼귀의 · 사홍서원은 전국 사찰 행사의 시작과 끝에 불리고 있다. 직접 피아노 반주를 하며 천안 성불사 합창단 지도를 하는 최 작곡가의 모습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삼귀의〉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으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오리다. 불도를 다 이루오리다."〈사홍서원〉

삼귀의(三歸依)와 사홍서원(四弘誓願)은 부처님 제자라면 누구나 똑같이 맹서(盟誓)해야 하는 발원문이다. 이는 불(佛)·법(法)·승(僧) 삼보에 돌아가 부처님을 믿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승단을 의지처로 살아가겠다는 염원이자 목표이며 불자가 지녀야할 4가지 큰 서원이다.

두 발원문은 불교계 행사나 법회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염불이자 의식 찬불가이다. 국가 행사 시작 전 부르는 '애국가'와도 같다. 때문에 드물게 사찰 행사에 참석해 본 불자라도 이 찬불가를 들어본 기억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곡을 누가 작곡했는지는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창작찬불가 가운데 의식곡으로 대표적인 삼귀의·사홍서원을 탄생시킨 주인공은 최영철 작곡가(87)이다. 최 작곡가는 1971년대에 조계종 총무원에서 개최한 찬불가 공모전에 당선되면서 세상에 삼귀의와 사홍서원을 새로 소개했다. 그가 40년 전 현직 음악교사로 재직하던 시절 공모한 곡이 지금까지 2000만 불자에게 불리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의 삶과 불교음악 이야기를 듣기위해 현재 그가 이끄는 합창단이 있는 천안 성불사를 찾았다.

이른 아침부터 최영철 작곡가는 직접 피아노 반주와 지휘를 하면서 합창단원들을 지도하고 있었다.

최영철 작곡가는 졸수(卒壽)를 앞둔 고령에도 불구하고 정정하게 충청 지역 사찰 불교합창단을 지휘하면서 서원을 이루어 나가고 있었다. 그의 서원은 음악을 통해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일이다.

최영철 작곡가는 "아직도 삼귀의, 사홍서원을 들으면 뿌듯하면서도 뭔지 모르게 뭉클한 마음이 우러나온다"며 "두 곡을 작곡한 계기로 불교음악에 평생 동안 진력하기로 마음먹었다"고 말했다. 찬불가 공모라는 우연한 계기가 불교계의 한 획을 긋는 큰 인물을 탄생시킨 것이다.

최영철 작곡가는 성불사 외에도 대전 형통사, 대전 보현불교대학 합창단, 마곡사 공주포교당 등 충청 지역 사찰 불교합창단 4개를 지도하고 있다. 최영철 작곡가는 주말·주중 할 것 없이 합창단 연습이 있는 날에는 직접 차를 운전하면서 아침부터 분주하다.

최영철 작곡가는 "교직에서 은퇴 후 불교합창단을 지도하고 불교음악을 연구하고 발표하는 등 불교음악을 위한 삶을 살고 있다"며 40여 년 불교와의 연을 소개했다.

그의 불교 인연은 20대 후반 대전 보문학원 보문고등학교 음악교사로 재직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보문고등학교 교장으로 충남불교청년회 이재복 회장이 재직 중이었다. 이재복 회장은 보문학원 초기부터 학원 설립에 참여했던 인물이다. 그는 평소 교직원들에게도 불교교리를 가르칠 정도로 신심 깊은 불자였다. 최영철 작곡가도 이재복 교장의 영향을 받아 불교를 배우며 신심을 키워나갔다.

어느 날 최영철 작곡가는 이재복 교장으로부터 한 가지 권유를 받았다. 조계종 총무원에서 주최한 찬불가 공모전에 나가 보는 것이 어떻겠냐는 제안이었다. 당시 불교음악에 관한 관심이 커지면서 조계종 총무원은 찬불가 선정위원회를 설치하고 1971년 불교연합회 주최로 찬불가를 공모하고 있었다.

불교에 입문한지 얼마 되지 않는 그에게 교장의 제안은 부담스럽기만 했다.

"교장선생님의 제의를 받았을 때는 막막하기만 했어요. 그 때는 불교에 대해 잘 알지 못했고 찬불가는 제게 생소한 분야였거든요. 교장선생님의 독려에 힘입어 용기를 내 공모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을 고민하며 살았고 영감이 떠오를 때 마다 메모하고 밤을 새우면서 보내기가 일쑤였죠. 그렇게 한 몇 달은 고생한 것 같아요."

당시 삼귀의와 사홍서원은 1970년대까지만 해도 한문가사에 염불식으로 진행됐다. 그러다 찬불가보급운동에 큰 업적을 세운 운문 스님이 작사한 삼귀의, 사홍서원 두 곡이 전국 사찰에서 불렸다. 가사의 뜻은 같아도 노랫말은 전혀 다르게 통일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산발적으로 불리고 있었다.

"찬불가 공모전 나가는게 어떻겠냐"
보문고 재직시절 이재복 교장 권유
수개월 혼신다해 삼귀의·사홍서원 탄생
전국 2000만 불자가 부르는 불교의식곡

퇴직 후 충청지역 사찰 합창단 지도
올가을 세번째 '최영철 찬불가집' 출간
찬불가 작사·작곡·부르기 모두 수행
"항상 자비심으로 노래 부르세요"

최영철 작곡가는 한 나라의 국가(國歌)를 만드는 심정과 각오로 노래 만들기에 심혈을 기울였다.

"작곡은 긴 곡 보다 짧은 곡을 만드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짧은 곡 안에 사람의 감정을 모을 수 있어야 하거든요."

삼귀의, 사홍서원은 박자와 선율의 진행이 자유롭고 단순해 대중이 쉽게 부를 수 있는 곡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두 곡이 불리기까지 최영철 작곡가의 인고의 시간이 있었다. 짧은 시에 영원히 불러도 질리지 않는 음악, 불심이 가득 담긴 곡을 만드는 데는 보통 가사에 곡을 붙이는 것보다 몇 배의 시간과 노력이 더 필요했다.

최영철 작곡가의 찬불가 작곡 과정은 마치 작가의 모든 사상과 생각을 응축해 담은 선시나 하이쿠, 또는 일생을 통해 생성된 화가의 모든 의식·무의식이 담긴 추상화와 같다. 그만큼 그는 삼귀의, 사홍서원 작곡에 혼신을 다했다.

공모에 출품 한 뒤 최영철 작곡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다. 전국에 유망한 실력자들이 많을 텐데 설마 자신이 당선이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응모 했던 사실도 이내 잊어버렸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났다. 최영철 작곡가는 교장선생님으로부터 뒤늦게 당선소식을 전해 들었다.

"당선소식을 들었을 때는 정말 뛸 듯이 기뻤습니다. 응모자 1명당 곡 하나만 선정될 수도 있는데 제가 작곡한 삼귀의, 사홍서원 두 곡이 모두 선정됐다고 하더라구요. 공모 당선은 저를 평범한 음악교사에서 불교 음악인으로 살아가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됐어요."

이후 그가 작곡한 삼귀의·사홍서원은 전국 사찰에 보급돼 오늘날 까지 각종 법회와 의식에서 불리고 있다.

최영철 작곡가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찬불가 창작활동을 시작했다. '경사로다' '당신의 미소' '좋은 날' '나무 관세음보살' 등 불자들이 많이 들어보고 불러봤음직한 노래들 가운데 웬만한 것은 모두 그가 작곡한 곡들이다. 1980년대 초 대전에서 처음으로 찬불가 합창공연도 열었다.

최영철 작곡가는 …
1925년 충남 금산에서 출생했다. 1954년 대전 보문 중·고등학교 음악교사로 출발해 40여 년을 보문학원에서 재직했다. 삼귀의, 사홍서원 작곡을 계기로 200여 곡에 이르는 찬불가를 작곡하고 대전·충남지역 사찰 불교합창단과 충남대 관현악단을 지도하는 등 지역을 대표하는 불교 음악인이다. 현재도 지역사찰 소속 4개 불교합창단을 지도하며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최영철 작곡가가 지금까지 작곡한 찬불가는 200여 곡에 달한다. 그는 자신이 작곡한 찬불가를 모아 엮어 〈최영철 찬불가집〉 두 권을 펴냈다.

최영철 작곡가는 늘 곡을 쓰면서 전통음악에 새로운 감각을 더한 찬불가를 만들려고 노력해왔다. 염불·법문도 좋지만 최 작곡가는 음악을 포용력 있게 불교에 흡수해 현대불교·생활불교가 될 수 있도록

무병장수의 꿈 마침내 현실화!!

명의(名醫), 부활하다!



익생양술대전(益生養術大全) –전통천연물의학大백과–

2012년 최신간

권혁세(한국민간요법연구회장)저/ 전3권/ 4×6배판/ 컬러판/ 양장본/ 3,600쪽/ 통케이스/
출간홍보 보급가 32만원(정가 40만원)/ 현금할부 11만원×3회/ 신용카드 가능

세상 수많은 질병에 대한 천혜의 해법, 모두 찾았다!

어쩌면 밟고 지나쳤을 작고 소박한 그러나
현대의학의 방향을 틀게 한 놀랍도록 절묘한 가치가 숨어있는
이 땅의 각종 약초들을 명쾌히 총괄 도해(圖解)화 했으며
이를 활용한 질병별 처방 및 약성에 따른 다양한 이용법 등
전통요법 5천년 정수를 총정리, 실용화를 꾀해 집대성함으로써
장구한 세월의 터득이 응축된 경탄할 치유력의 천연의술을
누구나 손쉽게 가용(家用)토록 함은 물론
한계를 넘는 또 다른 생명과학 도약의 발판이 되게 한
우리 시대 가장 가치 있는 기념비적 위업의 하나!

곁에 두는, 가장 지혜로운 주치의!
난치·불치의 벽을 혁파해온 위대한 명의!!

1권 약초 편
그 자체로 혹은 응용으로, 수많은 치료법 및 신약의 획기적 질료가 되어온 1천 종류 약초의 사진 및 생태·특징·채취취급요령·효능·성미·독성·사용량·사용부위·범위·용법 등을 총체적으로 규명 정리, 완성도 높은 본초학 도감으로 꾸몄으며 각 권과 연계 활용케 함.

2권 처방 편
각 질병의 원인·증상 설명과 함께 의료문명의 지향점에 이미 놀라우리만치 닿아있는 이상적 치료법으로 구명(究明)되며 마침내 인류의학의 희망으로 부활한 전통민간요법 질병치유사상 최고의 처방을 약재별로 제시(1천여 질병, 22,600여 처방), 택해 쓰도록 함으로써 만인을 위한 저비용 고효율의 실용성을 아울러 꾀함.

3권 조제 편
양생 및 병리 연구의 선각자들을 비롯 민가, 의가(醫家), 사찰 등에 비전되며 체험자에게 균형잡힌 건강장수를 실현시켜온 각종 주침(약술)·탕전·약차·식이 요법 등, 재료별 약리성에 근거한 정교한 생리활성 과학이었던 다양한 응용 치유법의 진수 2,600여종 조제법 및 비방 총망라.

"소중한 이에게 선물하세요. 천금으로도 살수 없는 가치를 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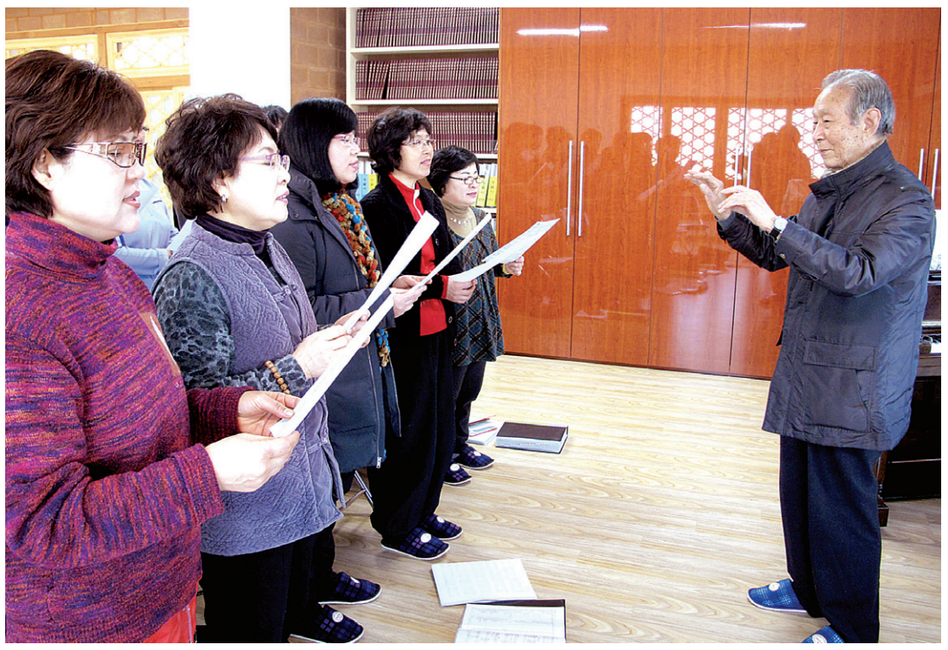
▶"현대판 동의보감 익생양술이 나왔다" –중앙일보–
▶"국내 최초의 제대로 된 방대한 본초학 교본이자 한의사들이 토종약초를 이용해 난치병 을 치료할 수 있는 귀중한 유산을 담고 있다" –한방과 건강–
▶"그의 익생양술에는 건강에 관한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다" –일간스포츠–
▶"명실상부한 전통약초요법대전으로서 민간이나 학계에서 그 활용가치가 지대할 것이다"
–장일무(전 서울대 천연물과학연구소장·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방방곡곡을 도는 끝없는 채집 기록 비교분석 검증…한 연구가의 60여년에 걸친 비범한 집념과 공력의 산물인 본 대전은 인류 숙원인 무병장수를 향한 수천 년 지혜와 연구 노력의 집약판이라 할 만 하며, 향후 또 다른 질병치료 및 신약·기능식품 등의 개발에 매우 요긴한 단초가 될 것" –김남훈(한국의약신문 발행인)–
▶"생명을 낳고 문명을 기른 자연과 전통이란 근원에서 해법 또한 찾아낸 괄목할 모범사례로서, 약용 동·식물·광물 등 주변의 천연소재에 내재된 각각의 독특한 약리성을 이용한 뛰어난 예방·치료법을 일반 가정에서도 폭넓게 공유토록한 점, 정밀한 기술적 검증이 가능해진 현대에 이르러 오히려 인류가 보완을 거듭해 도출한 최선안에 이미 선착(先着)한 점단적 의료였음이 밝혀지고 있는 전통 천연물요법들이 한 불굴의 정신에 의해 정립됨으로써 작금의 현대의학이 처한 난제(難題) 및 한계 극복을 위한 대체보완의학 연구 등에 기여도가 클 동력을 마련했다는 점에, 널리 이로울 성과물" –조호현(출판인)–
▶"고도의 면밀함을 요하는 참으로 지난했을 대역사(大役事), 아마도 이후 어떤 노작(勞作)도 이에 미치기는 힘들 것" –김형석(약초연구가)–
▶"쉽고 간단한 처방이면서도 경이로운 치유력을 보이는 천혜(天惠)의 의술, 그 소박한 그러나 위대한 생명활성 지혜들을 완전 복원해냄에 따라 건강 장수하는 이상적인 삶의 보편화를 우리 당대로 앞당기는 일대 전기가 될 것" –전통의학신문–
▶"천하의 명약이 꼭 비싸고 구하기 어려운 것은 아님을 전통민간요법은 증명하고 있다" –권혁세(저자)–

◈ 전화하시면 우송해 드리며 대금은 수령 검토 후 송금하시면 됨.('알라딘'에서도 판매 중) 문의전화 02-2618-0700, 070-8811-5775 학술편수관


大 韓 佛 敎
三歸依
사홍서원
三歸依·四弘誓願 作曲公募에
최영철씨(晉文高) 當選
「학성선원」重建계
울산新亭洞에 2

1971년 대한불교신문(現 불교신문)에 게재된 최영철 작곡가의 찬불가 공모 당선 기사



최영철 작곡가는 교직 은퇴 후 충청지역 불교합창단을 지도하고 불교음악을 연구 · 발표하는 등 불교음악을 위한 삶을 살고 있다.

대중에게 스며들 수 있도록 하고 싶어했다.

"대중적으로 많은 사람이 부를 수 있으면서도 다른 음악가들과는 다른 저만의 음악적 스타일을 고집했어요. 예를 들면 목탁소리 같은 불교를 나타내는 효과음을 넣는 식으로 말이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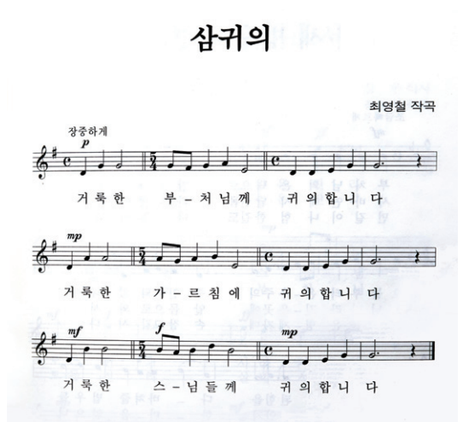
어떻게 하면 부처님 말씀을 노래에 잘 전달할 수 있을까라는 일념하나로 자신만의 색을 고집해온 그는 올 가을 세 번째 찬불가집과 음반을 펴낼 계획이다. 또 그의 대표곡을 중심으로 오케스트라 공연이 펼쳐지는 출판기념음악회도 개최한다. 이에 앞서 6월 23일에는 대전에서 열리는 불교음악회에도 참가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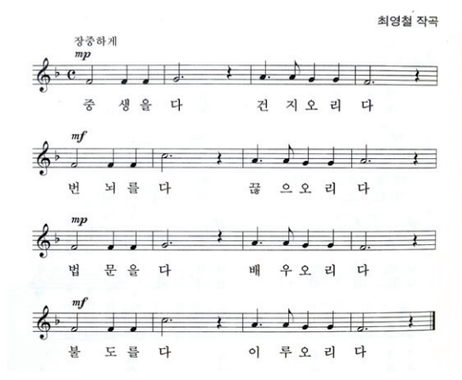
최영철 작곡가는 "작곡은 그 과정이 수행과 같다"고 말한다. 부처님 말씀을 노랫말로 지어내 열 번 스무 번 넘게 머릿속으로 되뇌면서 작곡을 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작품을 통해 찬불(讚佛)을 표현해야하기 때문에 곡을 쓸 때 수십 수백 번도 넘게 가사를 읊습니다. 곡을 쓰다가 마음에 들지 않아 찢어버린 오선지만 해도 셀 수 없이 많아요. 그만큼 창작활동은 고통이지만 곡이 하나 완성되면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최영철 작곡가는 찬불가 작곡과 작사는 물론 지역사찰에서 불교합창단 지도자로서의 활약으로 큰 공로를 세워왔다. 오로지 불교음악으로써 불자들에게 불심의 씨앗을 심겠다는 서원 하나로 오늘도 재가불자 합창단을 지도하고 있다.

천안 성불사합창단 박봉순 단장은 "최영철 선생님이 합창단을 맡은 지 10년 됐다. 여든이 넘은 나이에도 활력 있는 모습으로 단원들을 지도하신다. 선생님 덕분에 여러 합창대회에 참가해 다양한 경험을 쌓았고 최 선생님의 철저한 프로의식을 보고 배울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박 단장은 "노래 한 마디도 어느 것 하나 대충 흘려보내는 것 없이 철저하게 강약을 조절하며 부르도록 연습을 시키신다. 항상 자비심을 갖고 노래를 부르라고 강조하셔서 그 덕에 신심도 키울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박봉순 단장은 "최영철 선생님 같이 인생을 열정적으로 사시고 불교음악에 평생 매진해온 분은 없다. 이런 분에게 배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영광이다"라고 말했다.





최근 최영철 작곡가에게는 하나의 걱정이 있다.

"불교음악은 범패(梵唄)를 바탕으로 합니다. 염불과 같은 불교적 요소를 예술 · 음악적으로 찬불가에 담아야 하는데 그러면 대중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작곡 · 지휘자 대부분이 서양음악을 전공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대중이 좋아하는 곡을 만들다 보니 약 70%의 찬불가가 서양음악적인 음색을 띠고 있습니다. 불교적 감각의 작품을 써야 불교음악이 발전할 수 있을 텐데 안타깝습니다."

최영철 작곡가는 불자들이 찬불가 대중화에 힘써 노력해야 하며 무엇보다 불교계가 한마음으로 포교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일이 급선무라고 했다.

그래서 그는 작품의 대중화를 위해 불교의 주위환경을 배경으로 곡을 많이 썼다. 염불의 음향과 동양적인 선법을 중심으로 작곡 한 것이 특징이다. 최 작곡가는 찬불가 부르는 것이 수행이라고 강조한다.

"찬불가 부르기는 수행하는 것과 다름없어요. 부처님에 대한 찬탄 · 공경하는 마음 · 감정을 입으로 표현하는 거니까 말이죠. 신행활동 중에서도 가장 으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불자들이 더욱더 찬불가를 부르고 좋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최영철 작곡가는 불교계에서 진행하는 불교음악 페스티벌에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뜻도 밝혔다.

"조계종 총무원이 전국불교합창단 찬불가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아마추어들이 모여 합창 경연을 해야 하는데 전공자들이 참여를 하고 있어요. 마치 성인과 어린이가 시합하는 느낌이 듭니다. 전공자들은 빼고 순수하게 어머니, 아버지 합창단이 경연을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요? 노래를 못해도 좋으니 불자들이 좋은 마음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장(場)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찬불가가 활성화될 수 있죠."

최영철 작곡가는 40여 년을 불교음악과 함께해 왔듯이 앞으로도 줄곧 불교합창단과 창작활동을 하며 보낼 계획이다. 최 작곡가는 불교음악의 대중화 · 생활화라는 자신의 서원을 지키며 삶을 갈무리 하고 싶어했다. 특히 부처님에 대한 가극을 쓰고 싶어했다.

"40년 전 석가모니 부처님에 대한 가극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 일대기를 담고 있는 것인데요. 원고도 다 있는데 워낙 방대하고 어려운 일이어서 아직 완성을 다 못했어요. 오페레타(operetta, 오페라에 비해 작은 규모로 대사와 노래, 무용 등이 섞인 경(輕)가극) 같이 현대적이면서도 대중적 성격을 띤 작품을 만들고 싶거든요. 이 가극을 완성해 모두에게 선보이는 것 제 마지막 소망입니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현각 스님의
禪心으로 만나는 세상

첫 경험



동국대 명예교수

'첫 경험'이라고 하면 사람에 따라 엉뚱한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다. 첫 경험을 남녀간의 육체적 관계로만 한정짓는 일이 허다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지극히 관능적인 사고이다.

3월은 첫 경험의 달이라고 이름 붙이고 싶다.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입학식이 있고 모든 강좌가 열리기 때문이다. 낯선 학교와 교실 그리고 구름떼처럼 밀려오는 낯선 친구들을 만나게 된다. 예전 학교와는 달리 높은 층의 학교는 친근감 보다 두려움으로 다가오기 마련이다. 그러다가도 곧 익숙해져 주변에 우리 학교는 높이가 몇 층이나 된다느니 교실에 비치된 교재들이 새 것이라고 뽐내기도 한다. 인간은 두려움도 이내 감내하는 저력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인지도 모를 일이다.

요즘처럼 자동차가 범람하고 있는 시대에 첫 경험은 단연 자동차 핸들을 잡고 도로를 질주하는 일일 것이다. 평소 걸어서 한 시간 쯤 걸리던 거리를 몇 분 사이에 달리는 기분은 문명의 이기가 주는 기쁨이다. 그렇다면 아늑한 엄마 품에서 먹고 자라다 이유식을 시작했을 때의 괴로움과 엄마 치마폭을 벗어났을 때의 두려움은 어떠했던가. 참 가공할 일이다.

누가 뭐라 해도 인간의 첫 경험은 두려움이다. 태어났을 때 상황을 자신은 기억하지 못한다. 그러나 세상에 태어나 일성은 '응애'라고 알고 있다. 즉 첫 번째 행위가 우는 것이다. 이런 행위는 지극히 두렵기 때문이다. 아기는 자궁이라는 세상에서 아주 만족스럽게 살았다. 어떤 부족함도 없이, 욕심도 없이 살았다. 존재한다는 사실이나 성장 자체를 즐기며 살다가 세상 밖으로 내동댕이쳐졌을 때의 두려움을 어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단 말인가.

인간은 그 고요하고 안락했던 시절을 그리워하며 뭔가를 만들기 시작했다. 자궁안과 비슷한 느낌을 줄 수 있는 물침대를 개발하였고, 뜨거운 욕조에 들어가 몸을 눕히기도 한다. 목욕을 진짜 즐길 줄 아는 사람은 목욕물에 소금을 타기도 한다고 한다. 자궁의 양수(羊水)는 바닷물과 같은 농도로 짜기 때문이다.

길손이 종일 걷다가 그리워지는 곳은 집이다. 원시인들이라면 동굴일 것이다. 집에 가면 휴식공간도 있고 낯익은 가족이란 얼굴들이 주는 편안함도 있다. 가족 간에는 장황한 말없이도 통하는 소통의 언어란 단조롭기 그지없다. 원시인들의 수렵생활은 맹수에 노출된 위험상황이 도처에 있다. 그때의 두려움을 벗어나게 하는 곳은 동굴이다. 비행기도 그렇다. 자리에서 버튼을 누르면 여승무원이 곧 앞에 대기한다. 승객의 불편함이 즉시 해결되기 마련이다.

동굴과 집이 있어도 두려움은 소멸되지 않고,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날라 봐도 두려움은 가시지 않고 쌓여만 가는 것이 인간의 삶이다.

범어로 두려움을 udvejana-kara라고 한다. '흥분이나 고통을 야기 시키는 것'이란 말이다. 세분해 보면 udvejana는 '공포나 추위로 떨다'라는 말이고, kara는 '광선'이란 뜻이다.

두려움을 해소하는 길은 유형의 것에서 충족될 수 없다. 무형의 것에서 완성을 이룬다. 고대광실에 사는 사람의 삶이 그리 편안하지만은 않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의 행동이나 눈길을 보면 왠지 초점을 잃고 사는 경우를 쉬 발견할 수 있다. 그들에게서 안정을 찾아보기란 어렵다. 지니지 않은 사람의 삶, 안빈낙도의 일상에서 여유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 그에게서 두려움을 발견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인간의 마지막 경험도 두려움이다. 그런데 붓다의 열반상에서는 어떠한 두려움의 내색도 보이지 않는다. 아마 오아시스를 만난 대상(大商) 마냥 편안함이 깃들어 있다.

인도인들에게 내세는 따뜻하길 바라지 않는다. 일 년 내내 덥지만 넉 달은 살인적인 더위이

두려움 해소 물질로 충족되지 않아 체험 통한 깨달음이 두려움 없애

기 때문이다. 그들이 갠지스강을 성수라 하여 목욕재계하는 것도 더위를 극복하려는 행위일 것이다. 인생의 마지막도 갠지스강에 목욕하고 그곳에서 삶을 마감하고자 하는 발원도 더위 극복이라는 염원이 담겨 있다. 물론 갠지스강 상류에 시바신이 살고 있기 때문에 성수로 여기고 있다는 사실도 놓쳐서는 안될 일이다.

반면에 티베트인들은 내세가 선선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추운 곳에 사는 그들에게 날씨가 선선한 내세는 끔찍한 일이다. 내세가 추울 것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다. 임종하면 몸이 따뜻해 질 뿐 아니라 사시사철 따뜻한 새 세상으로 들어가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세상의 모든 종교는 각기 다른 방법으로 내세를 설정하고 있다. 모든 사회와 문화도 각기 다른 지리적 특징과 다른 역사에 근거하기 때문이다.

두려움을 통과의례쯤으로 맞는다. 중생과는 달리 붓다나 역대 조사들은 색다른 첫 경험을 하였다. 그 색다름이란 누구나 쉽게 맛 볼 수 없는 깨달음의 경지다. 깨달음은 신분의 고하, 부의 유무로 구별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다. 느끼고 맛보고 누릴 수 있는 깨달음의 첫 경험 이야말로 자신의 삶을 두려움에서 벗어나 넉넉하게 하고 이웃에게도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할 수 있는 묘약임이 분명하다.

사업장의 법구 금강 삼고저

장사흥왕과 사업번창성공 축원불공 마쳐!



부처님 제1의 비방법구

장사가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개업 선물로도 품격!

자리를 보면 중생의 지혜도 부족하지만 터도 세고 보이지 않는 잡귀의 방해로 오는 손님의 마음을 흔들어 문앞에서 방황하게 만들고, 들어왔다해도 결정을 못하게 방해하며, 일하는 사람이나 직원들은 오래 있지 못하고 첫손님이 헛손님이 되면 하루종일 헛손님으로 장사를 힘들게 잡귀가 조화를 부린다. 부처님 제1의 법구인 금강삼고저는 사업장의 화를 미리 쫓고 잡기를 물리치며 사업성공의 수호신으로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거상들이 사업장에 걸어 놓았던 금강삼고저를 국립 중앙박물관에서 유물로 볼 수 있다. 각종 식당과 점포, 각종사업장, 산재위험이 있는 사업장 등에 금강삼고저가 걸려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으며 장사흥왕 및 사업번창과 산재예방의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하는 금강삼고저는 금니로 제작되어있어 품위가 있고 가로8㎝ 세로3.5㎝에 벽에 걸게 고리와 수술이 달려있어 사업장 안에 걸어 놓으면 좋습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가격 : 85,000원 (신용카드 분할가)(사찰스님 20%할인)
전화 :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협계좌 : 032-12-193445 예금주 : 이상하

장사 성공을 축원합니다

식당, 가든, 의류점, 보석상, 부동산중개소, 이미용실, 목욕탕, 다방, 정육점, 노래방, 주점, 모텔, 여관, 병원, 각종학원, PC방, 당구장, 서점, 인쇄소, 문방구, 기원, 복권방, 각종스포츠센터, 핸드폰점, 분양사무소, 안경점, 신발매장, 전자제품매장, 미곡장, 방앗간, 공장, 주유소, 산재사고 위험 사업장 등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남성용 반지갑

여성용 장지갑

※ 고급케이스에 선물로도 품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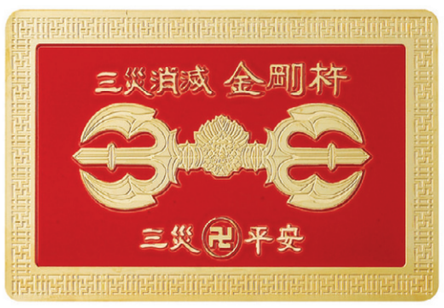
평생부자지갑 다라니 福 지갑

원하는 재물을 얻고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 불공 마쳐 !!

소중한 남편과 가족친지에게 성공의 선물
소중한 아내와 자녀에게 부와 사랑의 선물

부처님 법구에는 세상사는 동안 물질의 고통을 소멸하고 평생부자로 살게하는 대비신력(大悲神力)의 법구가 있는데도 미련한 중생이 깨닫지 못하고 법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고통속에 살아간다. 불가에서는 인연법과 물연법을 중요시 한다. 돈의 집인 지갑 역시 연이 되면 돈이 동서사방에서 들어오지만 연이 안되는 지갑은 돈은 들어오지않고 고통만 준다. 불경, 다라니의 근본은 신묘장구(神妙章句)로 글자 그대로 신통하게 묘한일이 일어나 해결된다는 뜻이다. 다라니 복지갑은 동서사방에서 복이 들어오게 하는 법구와 막혔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영험의 법구가 들어 있으며 음양의 조화로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게 왕진언이 지갑 앞면에 들어있다. 소재는 고급소가죽으로 되어 있으며 일반 지갑과는 비교될 수도 없게 내부도 잘 꾸며져 있고 사용하는 중생이 금전의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 불공을 마친 복지갑으로 선물로도 뜻깊은 선물이 될 것이다. 남성용 반지갑 65,000원, 여성용장지갑 98,000원.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 드립니다. (신용카드 분할가)
전화 :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협계좌 : 032-12-193445 예금주 : 이상하

2012년 나가는 삼재조심 쥐띠, 용띠, 원숭이띠



삼재무탈하게 축원불공마쳐
삼재화를 소멸 승리하는 비방

제일 힘든 나가는 삼재화를 미리 쫓는 영험 삼재소멸 금강저

2010년 드는 삼재 2011년 묵는 삼재 2012년 나가는 삼재 용띠, 쥐띠, 원숭이띠 중생들은 2012년 말까지 3년간 삼재기간으로 각별히 조심하고, 공덕을 쌓으며, 자중 자애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지내는 것이 좋다. 지난 소띠, 뱀띠, 닭띠 삼재기간중에 삼재화로 건강으로 고통받고 삼재관재수로 법적인 문제에 휘말리며, 삼재액운으로 사업이 어려워지고 재산을 소진하며, 가정이 파탄되고 하는 일마다 뜻대로 되는 일이 없으며 갖가지 어려운 고통속에 삼재화를 당하는 중생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아왔다.

용띠, 쥐띠, 원숭이띠 생들은 나가는 삼재가 제일 어려운 시기이므로 자만심을 버리고 비방을 하는 것이 안전하다. 불가에서는 삼재기간 중 삼재화와 삼재액란을 소멸하는 비방으로 불자들에게 부처님 제1의 법구인 금강저를 몸에 지니고 다니게 한다. 또한 삼재기간중 삼재소멸 비방을 잘하고 자중자애하며 공덕을 쌓으면 삼재기간에도 크게 성공하는 중생들도 많이 있다. 금니로 제작된 삼재소멸금강저는 삼재기간 중 무사무탈하고 승리하게 점안식과 축원불공을 마치고 전화로 신청하면 금강저를 보내 드리며 지갑 속에 평생 넣고 다니면 된다.

가 격 : 45,000원 (사찰스님 20%할인)
전 화 :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협계좌 : 032-12-193445 예금주 : 이상하

태고 보우 스님 창건…임제선 사상의 고향

태고암가(太古庵歌)의 산실 태고사

북한산성 중흥사터 위쪽에 위치
보우, 증도가 본떠 '태고 암가' 지은 곳
총본사 현 조계사에 절이름 내주기도
6·25때 소실 1968년 복원



보우 스님이 창건, '태고 암가'를 지은 중흥사 동암. 이 노래를 지은 후 스님은 자신을 '태고'라 불렀고, 스님 원적 후 후학들이 태고암이라했다. 1968년 복원된 태고사



보우 스님 부도탑 '보월 승공'

삼각산 등산코스 가운데 어려운 하나가 산성코스이다. 의상암을 지나 문수봉과 보현봉 사이의 대남문, 북쪽으로 백운대 염촉봉, 원효봉을 지나는 길이다. 봉우리가 높아 길이 험하고 그 길을 따라 성곽이 쌓여있다. 바로 북한산성이다.

돌로 쌓은 산성은 조선 숙종 때이지만 흙으로 쌓은 토성은 백제시대부터 있었다. 숙종 36년(1710) 12월 판부사 이이명 등이 북한산을 살펴보고 돌아와 축성의 일을 의논하면서 중흥사(重興寺)에 백제의 궁터가 있는데 창고를 지을 만하다고 말한 것으로 보아 그때까지 일부 남아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백제는 이 성을 통해 수도인 위례성을 지켰고, 고구려의 남진을 막았다. 북진정책의 전진기지였다. 이곳은 삼국의 입장에서 보면 반드시 점령하여야 할 곳이었다. 장수왕 때 이곳을 빼긴 백제는 수도를 공주로 옮길 정도로 치명타를 입었다. 신라의 진흥왕이 100년간 지속된 나제동맹을 깨고 이곳을 점령한 것도 너무나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였기 때문이다. 북한산성을 비롯해 한강 유역을 차지한 진흥왕은 산성 인근 비봉에 순수비를 세웠다. 그 후에도 신라는 이곳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 진평왕 25년(603) 8월 고구려 장군 고승(高勝)이 북한산성을 포위하자 진평왕 자신이 1만 군사를 이끌고 이곳을 지원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삼국통일을 이룬 태종무열왕도 재위 8년(661) 고구려와 이곳에서 혈전을 벌였다. 이 무렵 신라는 백제 부흥군과 대치하고 고구려와 전쟁 중이어서 삼국통일의 갈림길이었다. 성주 동타천(冬陀川)은 필사적으로 이 성을 방어한 공로를 인정받아 벼슬이 2단계 승급됐다.

고려시대에도 북한산성은 전략적으로 중요하게 취급됐다. 현종 1년(1010) 거란이 침입했을 때 이곳으로 태조의 재궁(梓宮)을 옮겨오기 했고, 고종 19년(1232)에는 몽고군을 맞아 이곳에서 격전을 벌였다.

조선시대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북한산성의 중요성이 대두됐다. 선조 29년(1596) 3월 임진왜란이 잠시 소강상태에 빠지자 병조판서 이덕형은 이곳을 둘러보고 주위의 형세를 그려 선조에게 올렸다. 그가 살펴본 북한산성은 사면의 산세가 높고 험절해 진실로 10여 인이 지키게 되면 적의 숫자가 수만 명이 되어도 어찌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그리고 도성 근처에 이와 같이 유리한 지세를 두고 방치한 것을 매우 애석해했다. 선조는 비변사로 하여금 의논하도록 했으나 실행되지 못했다. 성이 축성된 것은 숙종 37년(1711)이다. 서울 백성들과 삼군문(三軍門)의 군사들이 6개월이란 짧은 기간에 완성했다. 이렇게 애써 축성했지만 실제 사용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오히려 한일합병 뒤 북한산성의 전략적 가치를 알아차린 일제는 헌병대를 주둔시켰다.

이런 역사를 갖고 있는 북한산성 내에 있었던 사찰이 중흥사였다. 고려 초 창건돼 근대까지 존재했다. 조선 초 이곳은 왕실의 중요한 사찰이었다. 태조는 7년(1398) 1월 도당에 명하여 중흥사 토지에 대한 조세를 면제했다. 그리고 태종 11년(1411) 5월에는 스님들을 이곳으로 불러 금주하고 비가 내리기를 기원했던 것으로 보아 중요하게 여겼음을 알 수 있다.

중흥사는 산성 안에 있었던 관계로 전쟁 시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때에는 이곳 주지가 승군대장을 겸해 전국의 승군을 총지휘하는 지휘소가 설치되기도 하였다.

그런 중흥사였지만 숙종 37년 북한산성을 축성할 때는 사세가 기울어 30여 칸만 존속하였고, 축성과정에서 행궁터로 지목됐다. 숙종 38년(1712) 11월 병조 판서 조태채(趙泰采)가 "북한산성의 행궁 자리는 중흥사 옛터만 못하니, 행궁을 다시 이곳에 옮기어 세우도록 명하는 것이 합당합니다"라고 아뢰었다. 그래서인지 숙종 41년(1715) 136칸의 큰 절로 만들고, 팔도도총섭 겸 승대장 휘하의 승영이 설치됐다.

이처럼 산성 내 중요한 위치인 중흥사였지만 화마를 비켜가지 못했다. 1909년에 화재를 입었고, 1915년 대홍수로 남은 전각들이 유실됐다. 1916년에는 그마저 모두 불타 없어지고 한 채만 남아 헌병출장소로 사용됐다.

중흥사 터에서 위쪽으로 조금 올라가면 암자 하나가 있다. 태고사이다. 태고보우(太古普愚)가 이곳에 머물며 수행했다고 해서 태고사로 불린다. 중흥사 사격이 왕성했을 때 이곳은 동암(東庵)이라 불렀다.

1301년 홍주에서 태어나 13세에 출가해 회암사 광지(廣智)의 제자가 된 보우가 이곳에 온 것은 충혜왕 복위 2년(1341)이다. 삼각산 중흥사 주지 소임을 맡아 이곳에 온 그는 동쪽 언덕에 암자를 짓고 자신의 수도처로 삼았다. 이곳에서 5년을 지내는 동안에 중국 영가 대사의 〈증도가〉를 본떠서 장문의 '태고암가(太古庵歌)'를 지었다. 82구로 구성된 태고암가는 내용이 절절하고 정서가 깊다. 이 노래를 지은 다음 스스로 자신을 태고라 불렀다. 그가 죽자 후학들은 이곳을 태고암이라 불렀다.

태고암에서 깨달음을 얻은 보우는 자신의 견처를 확인하고 싶었다. 1346년(충목왕 2) 원나라로 건너간 그는 연경 대관사(大觀寺)에 머물면서 궁중에 들어가 〈반야경〉을 강설하며 중국 고승과의 만남을 기다렸다. 1347년 7월 호주 천호암(天湖庵)으로 가서 선승 석옥(石屋)을 만나 도를 인정받았다. 40여 일 동안 석옥의 곁에서 임제선을 탐구하던 그가 떠나려 하자 석옥은 '태고암가'의 발문을 쓰면서 이 노래는 득도의 경지라고 평했다. 그리고 깨달음의 신표로 가사를 주면서, "이 가사는 오늘의 것이지만 법은 영축산에서 흘러나와 지금에 이른 것이다. 그것을 그대에게 전하노니 잘 보호하여 끊어지지 않게 하라"고 당부했다. 석옥은 임제의 18손으로 그에게 사사한 까닭에 보우는 한국 선종의 법통에서 임제선을 계승한 중흥조로 평가받는다.

1348년에 귀국한 보우는 다시 중흥사에 머물렀다. 도를 더욱 깊이 하고자 미원의 소설산(小雪山)으로 들어가 4년 동안 농사를 지으면서 보임했다. 1356년 왕의 청으로 봉은사에서 설법했고, 그 해 4월 왕사로 책봉돼 광명사에 머물렀다.

1363년에 신돈(辛旽)이 공민왕의 총애를 받아 불법을 해치고 나라를 위태롭게 하므로, 보우는 "나라가 다스려지려면 진승(眞僧)이 그 뜻을 얻고, 나라가 위태로워지면 사승(邪僧)이 때를 만납니다. 왕께서 살피시고 그를 멀리하시면 국가의 큰 다행이겠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그러나 신돈의 횡포가 더욱 심해지자 보우는 왕사의 인장을 반납하고 전주 보광사로 내려갔다.

우왕 7년(1381) 겨울 양산사(陽山寺)로 옮기던 날 우왕은 그를 국사로 봉하였다. 자신의 입적이 임박함을 느낀 그는 1382년 다시 소설산으로 돌아왔다. 그해 12월 23일 후학들을 불러 내일 유시(酉時)에 떠날 것을 말하고, 이튿날 새벽 유시에 단정히 앉아 입적했다. 시호는 원증(圓證)이다. 중흥사 동쪽 봉우리에 탑을 세워 탑호를 보월승공(寶月昇空)이라 했다. 사리는 양산사 사나사 청송사 태고암에 분장했다. 태고사 대웅전 우측에 있는 원증국사 보우의 부도탑비는 우왕 11년(1385) 건립됐다. 비문은 이색(李穡)이 교지를 받들어 짓고, 글은 권주(權鑄)가 썼다.

그 뒤 수차례 중수를 거쳐 명맥을 이어온 태고사는 총본산이 설립되면서 사명(寺名)이 옮겨지게 됐다. 1937년 7월 시작된 총본사 건립이 1938년 11월에 준공되자 1940년 4월 북한산에 있는 태고사 사명을 옮겨온 것이다. 그리고 11월 31본사 주지들이 모여서 조선불교선교양종으로 사용하던 종명을 조선불교 조계종으로 개정하고 태고보우를 종조로 세웠다. 지금 조계사로 불리는 것은 정화과정에서 바뀐 이름이다.

사명이 총본산으로 옮겨진 삼각산 태고사는 6·25 때 완전히 부서져서 절터만 남았다. 그 후 1968년 옛 중흥사의 석재를 이용하여 대웅전과 요사채를 복구해 지금에 이르고 있다. 비록 보기엔 초라하지만 한국불교의 사상적 계승에 중요한 역할을 한 사찰임을 생각할 때 겉보기와 달리 그 의미가 깊다. 〈끝〉



김경집/진각대 교수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

경 대한민국 중요 무형문화재 50호 축
"태고종 영산재"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등재
전통 범음범패(바라작법) 과정 학인모집

■ 교 육 과 정
(1) 초 · 중급과정
◆ 조석예불 ◆ 사시불공, 각단불공, 시달림
◆ 바라춤 : 요잡(막바라), 관욕바라, 천수바라
◆ 나비춤 : 사방요신, 도량게
◆ 49재, 천도의식
(2) 상급과정 – 초 · 중급 이수자에 한함
◆ 사다라니바라, 화의재바라,
◆ 신중작법, 욕건이
◆ 다게나비춤작법, 운심게작법
◆ 가지게

■ 강주스님 : 교무국장 성우
◆ 교육시간 : 초 · 중 급 – 목요일 오전 10시 ~ 1시
상 급 – 목요일 오후 2시 ~ 6시
◆ 개강일시 : 2012년 3월 중 (수시모집가능)
◆ 수 강 료 : 입학금 10만원 (교재비 포함), 3개월 30만원
◆ 제출서류 : 수강신청서 1부 (본 교육원에서 교부), 반명함사진 1매
◆ 접수기간 : 상시모집
◆ 연 락 처 : 054)975-4339

▣ 접수처 및 강의장소
한국불교태고종 경북교구종무원 (전화접수 가능)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1123-1번지 HD빌딩 2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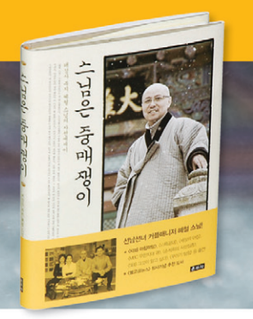
한국불교태고종 경북교구종무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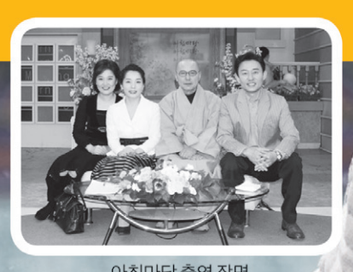
선남선녀 커플매니저 옥천 대성사 주지
혜철 스님의 자전 에세이!

스님은 중매쟁이 혜철/A5양장/198쪽/12,000원

활발한 사회활동과 800여 쌍의 선남선녀를 맺어주어 '중매쟁이 스님'으로 알려진 혜철 스님의 살아온 이야기!

스님의 아들로 살아야 했던 유년시절의 가슴앓이,
생활인으로서 치열했던 젊은 시절의 삶,
우여곡절 끝에 운명처럼 걸어야 했던 출가자의 길,
중생의 아픔을 보듬어 안고 살아가야 하는 출가자로서의 삶과 활동,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한 애틋한 그리움 등이
때로는 애잔하게, 때로는 가슴 따뜻하게 다가올 것이다.





아침마당 출연 장면

● 도서출판 운주사 · 너울북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 4가 270번지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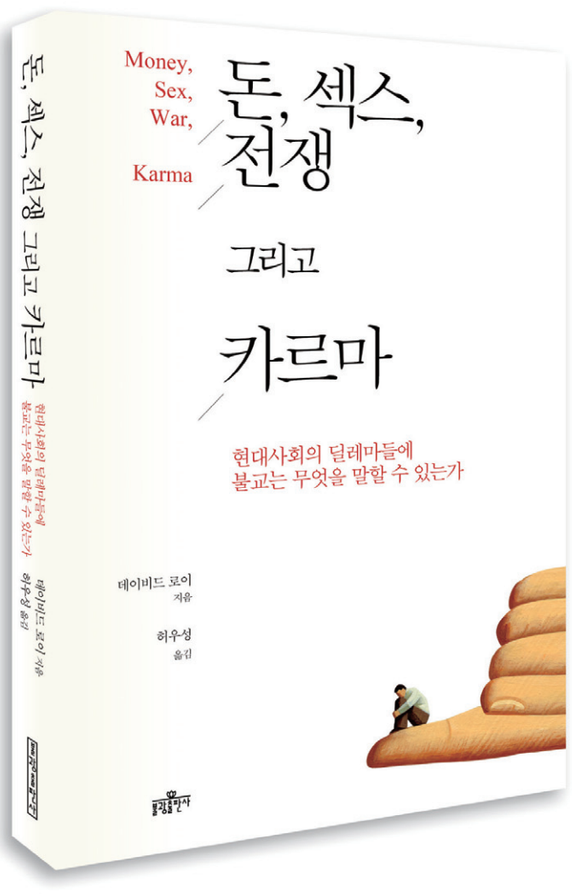


불교와 과학, 진리를 논하다

과학과 종교의 경계를 넘어서서 날카롭게 펼쳐지는 두 중견 학자의 폭넓은 논의와 토론!

세상과 인간을 바라보는 두 세계관의 만남!
과학과 종교(불교)는 대립적인가?
과학과 불교는 어떤 점에서 다르고, 어떤 점에서 서로 통하는가?
과학과 불교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사이토 나루야, 사사키 시즈카 지음, 이성동, 박정원 공역/A5/303쪽/15,000원



불교, 현대사회의 딜레마들에 답하다!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을 위한 불교 교양 강의

나는 왜 고통스러울까?
왜 늘 돈이 부족한 걸까?
왜 항상 시간에 쫓기는 걸까?
사람들은 왜 섹스에 매달릴까?
그리고
왜 세계는 전쟁을 멈추지 않는 걸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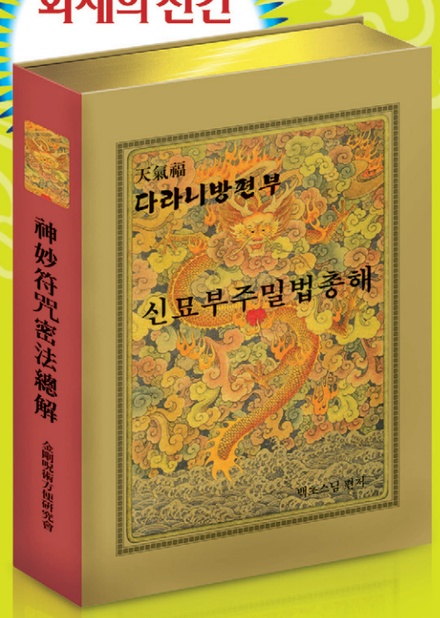
이 모든 질문들에
불교는 무엇을 말할 수 있는가?

데이비드 로이 지음
허우성 옮김
240면
값 15,000원

불광출판사 Tel. (02)420-3200 Fax. (02)420-3400 www.bulkwang.co.kr @bulkwang_c www.facebook.com / bulkwang



화제의 신간



著者 白超 백초스님
특수양장본,
타블로이드판 257×364, 536쪽
정가 380,000원

3천권 돌파
1주년 기념
50% 파격 세일
정가 380,000원
180,000원

입금계좌(예금주: 임현주) : 농협 023-02-500940

다라니방편부
신묘부주밀법총해

귀신이 붙었든, 조상이 탈이 났든, 인간에게 그 어떤 고통을 안겨주는 부정하고 사악한 기운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속히 제거해야만 뜻대로 생활할 수가 있고, 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에 누구나 그러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요즘 귀신이나 잡귀들은 예전의 방식대로 부적이나 비방법을 쓰면 잘 듣지 않습니다. 귀신도 꾀가 많아지고 약삭빨라져 간악해졌기 때문에 좀 더 강력한 신력과 벽사 방편법으로 다루어야만 확실하게 퇴치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부적책이 아닙니다!

옛날부터 구전으로만 전해지던 남이 알려주지 않는 비법이라는 방편법을 방편물과 방편을 하는 법들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찾아온 시간으로 왜 왔는지, 무슨 귀신 장난인지
상대방 마음 꿰뚫어 보는 법
집안동토탈 알아내는 법
산소탈 원인 알아내는 법

귀신뽑는 래정비법으로 복잡하지 않고 간단히 알 수 있는 비법공개!
60갑자 일진별로 한눈에 쏙쏙 알 수 있게 초사를 확실하게 설명!

정가(권당) ~~120,000원~~
권당 60,000원

㊤ 신국판/양장본/567쪽 ㊦ 신국판/양장본/712쪽

금강주술방편연구회
041) 943-6882 / 010-3813-4443

지철 스님의 **도상(圖像)을 통해 본 상징과 은유**

조선 고유의 아름다움 물씬한 글



이삼만 서 사마온공해선게 서첩

이견(異見)이 있을 수 있지만, 조선 후기의 삼대명필로 추사 김정희, 눌인 조광진(曺匡振), 창암 이삼만(李三晩)을 꼽을 수 있다. 추사는 모르는 이가 없는 당대의 명필이지만, 창암 이삼만 선생은 근래에 선양(宣揚)돼 이제는 호남 제일의 명필로 이름이 높다.

창암은 본래 전북 정읍의 부유한 집안의 자제로 태어났으나 가난을 괘의치 않고 평생을 글 쓰는 데 매달려 살았다.

창암이 세상에 알려진 것에는 몇 가지 설이 있다. 부산의 약재상이 창암에게 약재품목을 적어 달라해 중국 상인에게 보여 주었더니, 그 중국인이 깜짝 놀라며, 중국의 서성(書聖)이 동방에 태어났다고 절을 한 데서 유명해졌다는 설이 있다. 또 그 상인이 평양에 갔다가 조광진에게 창암의 글을 보이니, 과연 명필이라고 탄복했다는 설이 있다.

창암 이삼만 조선 후기의 명필가
물 흐르듯 자연스러운 서체 특징

창암은 어린 시절부터 원교(圓嶠) 이광사(李匡師)의 글씨를 연습했다. 창암은 평생 세 개의 벼루를 먹을 갈아 구멍을 내겠다는 결심으로 매일 천자(千字)가 넘는 글을 썼고, 병중(病中)이라도 반드시 일어나 앉아 글을 썼다.

20년 전 우연히 전주에 들러 고서방에서 창암의 첩장본(帖裝本) 서첩을 만져 본 적이 있었다. 그 때에는 불과 몇 만원이면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수장가들의 손에 들어가 고서적상에서는 보기가 힘들다. 가끔 경매에 나오는 물건조차 진품은 부르는 게 값이라 가난한 학승에게는 견물생심일 뿐이다.

물론 유명해진만큼, 섭취라고 부르는 위조글씨도 종종 눈에 띈다. 모조는 아무리 진품과 똑같다고 해도 진품의 고결함만은 따라가지를 못한다. 창암의 글씨는 중국의 대가들을 섭렵한 글씨들과는 다르게 질박한 조선 고유의 토착미가 물씬 풍겨 나오는데 있다.

그의 글씨체는 유수체(流水體)로 불린다. 마치 물 흐르는 듯해 자연스럽고 편안한 초서(草書)를 구사한다고 해서 붙여진 말이다. 특히 그가 뛰어난 점은 제자들을 가르칠 때 "서도(書道)는 먼저 인품을 갖춘 후에야, 그 묘경(妙境)에 들수가 있다"고 해서 수행과 서예를 일치시켰다는 점이다.

사마온공해선게는 북송의 학자 사마광(司馬光)이 수나라의 사상가인 왕통(王通)의 저술인 문중자(文中子)에 빗대어 불교를 유자(儒者)의 입장에서 평한 글이다. 사마광은 천재지변은 인간사와 관계가 있다는 천인상관설(天人相關設)로 유명한 편년체의 중국사인 〈자치통감(資治通鑑)〉의 편저자이다.

학인스님들의 필독서인 〈치문경훈(緇門警訓)〉에 나오는 이 글은 철저하게 유학자의 입장에서 불교를 비교하면서 불교의 중국화(中國化)에 치중한 느낌이 많이 드는 글이다. 두 구절을 음미하면서 창밖의 꽃샘추위를 시샘해 본다.

불같이 내는 화는 치열하기 이를 데 없고, 이익을 탐하는 마음은 작살 끝처럼 날카롭네[忿怒如烈火, 利欲如鋩鋒].

아침 내내 슬퍼함이 끝이 없으니, 이를 일컬어 아비지옥이라 할 만하네[終朝長戚戚, 是名阿鼻獄].

안자(晏子)는 거리의 누추한 집을 편안히 여기었고, 맹자는 호연지기를 키웠다네[顔回安陋巷, 孟軻養浩然].

부귀영화는 구름처럼 덧없는 것임을 알면, 곧 이를 극락세계라 이르네[富貴如浩雲, 是名極樂國].


동화사 성보박물관장

제주도서 그림으로 만난 '中道'

이왈종 화백 4월 1일까지
제주 생활 20년 담은 개인전



"제주 생활의 중도(中道)라는 단일명제로 작업해 온지도 어느덧 20년이 흘렀습니다. 새들과 풀벌레들의 노래 소리를 듣고 있노라면 이곳이 천국인지라 늘 몽환적인 꿈속에서 사는 듯 했습니다."

제주도의 이국적 정취와 아름다운 절경을 다양한 소재로 표현하는 이왈종 화백(67 · 사진)의 대규모 개인전이 갤러리현대 강남에서 4월 1일까지 열린다.

'서귀포 화가'라는 별칭에 맞게 이왈종 화백은 화사하고 밝은 색감으로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생활을 그리는 동양화가다.

이번 전시는 회화 부조 목조 도자기 향로 등 이왈종 화백이 그간 작업했던 모든 매체의 작품을 총망라해 선보이는 화백의 작품세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결정판이다.

추계예술대학 교수로 재직중이던 1984년 그는 혈관확장증 때문에 눈이 잘 보이지 않아 한동안 공백기를 맞으며 자신의 삶과 작업을 되돌아보게 됐다.

이활종 화백은 이 때 〈반야심경〉의 '색즉시공 공즉시색(色卽是空 空卽是色)'의 구절에 영향을 받았다. 눈에 보이는 물질인 색(色)의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공(空)의 세계와 같다는 가르침을 체득했다.

이후 그는 1990년 연구년을 맞아 작업을 위한 재충전으로 제주도를 찾은 계기로 다음해에 교수직을 사퇴하고 제주도에 정착했다. 평생 그리고 싶은 그림만 죽겠다는 서원을 세운 까닭이었다. 서귀포에 정착한 이 화백은 예술가는 끊임없이 무엇인가 좀 더 새로운 것을 찾아내고 변신해야 하는 창조적인 존재의 운명이란 것을 깨닫고 자신의 세계관을 확립시킨다. 바로 '중도의 세계'를 화두로 삼은 것.

"중도란 평등을 추구하는 내 자신의 평상심에서 시작됩니다. 환경에 따라서 작용하는 인간의 쾌락과 고통, 사랑과 증오, 탐욕과 이기주의, 좋고 나쁜 분별심 등 마음의 작용에 따라 끊임없이 일고 있는 양변성을 융합시켜 화합으로 승화시키는 것이죠. 주체나 객체가 없고 크고 작은 분별도 없는 절대 자유의 세계를 추구하는 것이 중도입니다."

그의 작품에는 들풀과 꽃나무가 사람, 집보다도 크게 화폭을 가득 메운다. 인간과 만물은 모두 똑 같은 생명을 가진 존재이기에 사물이 더 작을 필요도 없고 동등하다는 그의 철학을 드러낸다.

'중도'의 세계 안에 어우러진 동물과 인간군상의 모습은 지극히 평화롭다. 남편과 밥상에 마주앉아 잔소리를 늘어놓는 아내, 개에게 밥을 주는 사람, 열중하여 골프를 치는 무리, 나뭇가지마다 앉아 지저귀는 새들의 모습은 소소한 일상 그 자체다. 비현실적이고 몽환적인 여느 동양화의 이상향과는 달리 화백이 그리는 이상향은 '생활 밀착형'이라 독특하다.


제주생활의 중도, 2011, 장지 위에 혼합

올해로 22년째에 접어드는 이왈종 화백의 제주도 생활은 은둔적이기보다는 분주하다. 10년 전부터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무료 미술교실을 열어 재능을 나누고 있고 서귀포 이중섭 미술관 운영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이번 전시는 하나의 철학을 바탕으로 예술에 모든 열정을 쏟으며 해를 거듭할수록 풍성해지는 이왈종 화백의 작품세계로 삶의 여유와 제주의 정취를 느낄 수 있다.

이왈종 화백은 "존재하는 것은 꿈이요, 환상이요 물거품이며 또한 그림자와 같다는 법문이 실감난다. 몸과 마음속에서 악취 나는 것을 씻어내는 마음공부를 하면서 모든 존재는 연기(緣起)에서 이뤄지고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평등하다는 것을 하얀 종이 위에 담았다"고 말했다. (02)519-0800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내 그림 보는 이 마음 치유되길

28일부터 경인미술관서 법관 스님 선서화전

선(禪)의 세계를 붉은색과 푸른색의 강렬한 대비로 표현해 화단의 주목을 받았던 법관 스님(강릉 능가사 주지)이 3월 28일~4월 3일 경인미술관에서 '선서화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서 법관 스님은 선서(禪書), 선화(禪畵), 달마도, 다완(찻사발) 등 60여 점의 수묵채색화를 전시한다. 또 스님은 2009년 5월 23일 아침, 故 노무현 대통령 서거소식을 듣고 이를 기리며 그린 난초 그림도 전시한다.

야생난초를 비롯해 망중한(忙中閑)을 표현한 수묵화까지 스님의 작품은 보는 이로 하여금 마음을 편안케 한다.

법관 스님은 강원도 토굴에서 묵묵히 수행으로 그림을 그린다. 법(法)을 관(觀)한다는 스님의 이름처럼 아름다운 진리의 모습을 작품으로 드러내고자했다.


'망중한' (법관 스님 作)

법관 스님은 지금까지 12차례의 개인전을 비롯해 다수의 그룹전과 아트페어 등에 참가해 온 중진급 화가다. 그만의 독특한 선(禪)의 세계에 매료돼 독일에서도 초대전을 여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

법관 스님은 "사람들의 마음이 편안해지고 마음이 치유되길 바라는 마음을 항상 갖고 그림을 그린다. 이번 전시도 그런 마음에서 준비했다"고 말했다. (02)733-4448 **이나은 기자**

법정 스님 애독서 '월든' 담은 피아노 음악

콘텐츠코리아, 〈월든〉 발매



명상음반 '월든' 표지

법정 스님 입적 2주기를 기념하는 피아노 명상음반이 나왔다.

콘텐츠코리아(대표 신효철)는 법정 스님의 〈무소유〉 삶의 원천이 된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의 명저인 〈월든(Walden)〉을 담은 피아노 연주음악 '켄 펜더슨의 월든'을 국내에 발매했다.

서거 150주기를 맞는 미국의 철학자이자 문학가인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는 그의 저서 〈월든〉에서 자연 속에서 소박하고 간소한 삶의 아름다움과 행복을 예찬했다.

법정 스님은 생전 "나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인물은 바로 마하트마 간디와 소로우"라고 할 정도로 소로우의 책을 즐겨 애독했다.

이번 앨범에서 자연주의 릴랙싱 피아니스트 켄 페더슨은 〈월든〉에서 받은 영감을 피아노 연주로 풀어낸다.

앨범에는 법정 스님이 생전 즐겨 들었다는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 1번' 중 '프렐류드'를 전용한 곡 'Uncommon Hour(특별한 때)'를 비롯한 14개의 곡이 수록됐다.

이나은 기자

늘 피곤하고, 팔, 허리, 어깨가 쑤시며 깊은 잠 못자는 여러분을 위한 희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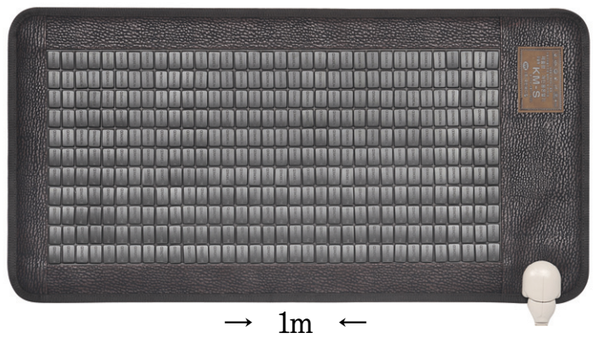
귀사문석(貴蛇紋石) 만능 미니 온열매트!

※ 귀사문석 온열매트는 근육통완화를 위한 식약청 의료용구 제조허가번호 제426호, 품목허가 제09-651호입니다

인간의 기본 체온은 36.5℃인데 1℃ 떨어지면 저체온(冷氣)이 되어 면역력이 30%↓된다. 피부속 50mm까지 침투하여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주는 생명의 빛! 원적외선이 93% 이상방출되는 방안의 숯가마로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고있는 냉기(冷氣)를 해소하자.

※ 두한족열(頭寒足熱) :
머리는 차갑게(귀사문석 베게
발은 뜻하게(귀사문석 온열매트)

※ 낮에는 의자나 쇼파에,
밤에는 침대나 요 위에 놓고
하루 24시간 찜질을!



귀사문석 374개로 구성

■ 제 조 원 : (주)국민메티컬 / 경기 양주시 율정동 115번지
■ 판 매 원 : 선재생활건강(주) / 경기 광명시 광명7동 305-50
■ 문의전화 : 02)2681-8122 선재생활건강(주) 입금계좌 : 농협 355-0014-5055-43

귀사문석(貴蛇紋石) 이란???

귀사문석은 흑녹옥이라고도 하고, 비취라고도 하는 아주 희귀한 보석이다.
귀사문석은 의학적인 면에서 볼때 다음과 같은 효능이 있다.
1. 원적외선 방사율이 아주 높다 : 귀사문석을 약 40℃의 열을 가하였을 때 원적외선이93%이상 방사 된것이 증명되었다.(한국 건자재 시험연구원, 원적외선 응용평가센터에서 테스트한 결과)
2. 귀사문석은 氣를 잘 돌게하는 역할을 하는데 기존의 옥보다 3배이상의 많은 氣가 방출되는 천연의 강력한 방사체이다. 현대생활 주택이 시멘트 구조로 되어있어 地氣를 차단하여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고 있는 바, 귀사문석은 그 대체효과가 매우 높다.
3. 귀사문석은 항곰팡이 억제력은 거의 100%이며, 항균효과는 86%에 달한다. 또한 귀사문석은 냄새 제거능력이 있는 신비한 광석이다.

온열매트의 의학적 효과

건강한 사람의 평균 체온은 섭씨 36.5℃이다. 그런데 1℃만 내려가도 면역력이 30% 떨어진다. 즉 냉증 또는 저체온이 되면, 자율신경중 교감신경이 자극을 받으면서 면역을 담당하는 림프구가 줄어 각종 질병을 일으킨다. 특히 체온이 35℃로 내려가면 암세포가 증가할 수가 있다. (우리 신체에선 매일 3천개-1만개의 암세포가 만들어지지만 면역력 덕분에 암에 걸리지 않는다) 냉증(冷症) 즉 저체온이 되면, 그 증상으로 손과 발이 저리고 무릎이 시리다. 그리고 감기도 자주 걸리고 찬 음식을 먹으면 설사로 고생도 한다. 또한 당분, 지방 등 영양소의 흡수율을 떨어뜨리고 고지혈증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우리 몸은 지구를 세바퀴나 돌 수 있는 9만km의 혈관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특히 적혈구가 엉기는 현상은 저체온에 그 원인이 있다. 그러므로 몸을 따뜻하게 해서 세포 안에 충분히 열이 전달되도록 하면 적혈구의 엉김현상은 쉽게 해결할 수 있다.실제로 원적외선을 이용해 신체 내부까지 골고루 열을 가하면 즉시 엉켜 있던 적혈구들이 원상회복 된다. 그래서 고지혈증을 예방할 수 있다.

생명의 빛 원적외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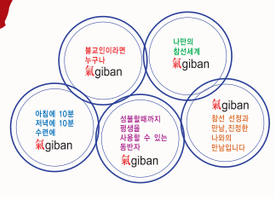
귀사문석 온열매트에서는 93%이상 방출되는 원적외선이 우리몸의 피부속으로 50mm까지 침투하여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준다. 그리고 피하심층의 온도상승, 미세혈관의 확장, 신진대사의 강화, 부인병, 신경계 질병, 노인성질환, 어깨결림, 허리통증완화, 장속의 노폐물, 중금속 배출등에 탁월한 효과가 인정되고 있다. 또한 현대생활 주택이 시멘트 구조로 되어있어 자연적으로 지기(地氣)를 차단하여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고 있으나 귀사문석은 천연의 강력한 기(氣) 방사체이므로 자연적으로 신체에 활력소가 되어준다. 귀사문석은 항균효과 86%, 항곰팡이 억제력은 거의 100%이며, 냄새 제거 능력도 탁월하다.


귀사문석 온열매트와
귀사문석 베게를 함께 드립니다.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cm × 세로 32cm × 높이(뒷면) 8cm]
■ 고급형 ~~39,000원~~ ⇨ 35,000원 [가로 45cm × 세로 32cm × 높이(뒷면) 6cm]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 · 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의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경허 · 만공 친필 최초 공개

경허 선사 열반 100주년 기념
26~31일, 조계사 나무갤러리


경허 스님의 친필이 담긴 심우도 10폭 병풍 가운데 6곡 병풍. 그림은 작가 미상

한국불교 중흥조 경허 스님의 열반 100주년을 기념해 스님과 제자 만공 스님의 친필이 첫 공개된다.

경허선사 열반100주년 기념사업회(추진위원장 지운, 수덕사 주지)는 3월 14일 수송동 모음식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불교 중흥조 경허선사 열반100주년 기념 선서화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시는 3월 26일 오후 2시 개막식을 시작으로 31일까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나무갤러리에서 열린다.

전시에는 경허 스님을 존경하는 선서화가 70여 명이 참여해 〈반야심경〉 등 경전 글씨, 달마도 등 선화, 한지그림, 연화다반, 다완 등 250여 점을 선보인다.

수덕사성보박물관장 정암 스님은 "전시회에서는 경허 · 만공 스님과 역대 총림 방장스님 등 고승의 친필, 종정예하 휘호, 선서화승의 친필과 선화, 재가불자선서화가의 글씨와 선화, 재가불자의 도예 · 목공예 · 불상 등 분야 영역을 가리지 않고 출품된다"고 말했다.

최초로 공개되는 경허 스님의 친필은 심우도 10폭 병풍 가운데, 스님이 직접 글을 쓴 6곡 작품이다. 그림을 그린 작가는 알 수 없다. 또, 무이당 당호를 적은 편액도 있다.

만공 스님의 친필은 경허성우선사법문 10곡을 병풍에 담은 작품이다.

경봉 · 탄허 · 구하 · 석주 · 숭산 스님 등 고승과 서옹 스님(고불총림 방장), 월하 스님(영축총림 방장), 원담 스님(덕숭총림 방장) 등 역대총림 방장스님의 친필도 전시된다.

전시에서는 경허 스님의 법손인 조계종 새 종정 진제법원 대종사의 친필휘호도 만날 수 있다.

현존 한국 최고의 불화장이자 선화가인 석정 스님과 경허 · 만공 · 원담 스님의 법을 이은 선승이자 선필인 現 덕숭총림 방장 설정 스님의 작품 총 40여 점이 선보이는 특별전도 마련됐다.

이와 함께 혜인 · 지안 · 기현 · 종림 · 성각 · 원학 · 현고 · 법관 · 원진 · 귀일 · 상봉 · 범주 · 금강 · 선진 · 영담 · 희상 스님 등이 출품해 경허 스님을 기린다.

효당 최범술 · 김지하 · 김양수 · 김영택 · 박정희 · 한창교 · 강종원 · 변관식 · 우재길 · 소공거사 · 심응섭 · 함윤희 · 차수진 · 전연호 · 안우섭 · 능인향당 등 재가자도 대거 출품했다.

기념사업회추진위원장 지운 스님은 "경허 선사는 승에도 속에도 얽매이지 않으며, 어떤 지식에도 자유로웠다. 일체 모든 것에서 벗어난 자유인 · 무애인 · 대력보살이었다"라며 "경허선사 열반100주년 기념사업회에서 준비하는 제반의 추모사업 가운데 처음으로 장을 여는 선서화전에 사부대중의 수희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cetana@hyunbul.com

불화佛畵에 나타난 복을 비는 마음

국립중앙博, '삼성각의 불화' 8월 26일까지

본래 불교는 스스로 수행 정진하고 이를 통해 깨달음의 경지에 오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반면에 넓은 포용력으로 각종 토착 신앙을 받아들여 불교의 세계를 넓히고, 받아들이는 사람의 상태와 사정에 맞게 가르침을 설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겼다.

우리나라 각지 사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삼성각과 그 안에 모셔진 칠성도(七星圖), 독성도(獨聖圖), 산신도(山神圖)는 불교가 우리나라에서 토착화되면서 민간 신앙을 반영한 대표적인 예다.

이들은 주로 절 뒤편에 작은 전각을 마련해 나누어 봉안할 경우 칠성각, 독성각, 산신각 등으로, 모두를 봉안할 경우 삼성각(三聖閣)으로 부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국립중앙박물관(관장 김영나)은 '복을 비는 마음-삼성각三聖閣의 불화'라는 주제로 8월 26일까지 전시회를 연다.

이번 교체전시에서는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가운데 칠성도, 독성도, 산신도를 중심으로 해 삼성각의 불화와 그 의미에 대해 소개했다.

전시는 북극성을 상징하는 치성광여래와 북두칠성을 상징하는 칠성여래 등 불교와 별자리 신앙의 결합을 보여주는 칠성도로 시작한다.

또한 신통력이 크고 소원을 신속히 성취해준다고 믿어져 중요한 기복의 대상이 된 불교 성자 가운데 하나인 독성도 5점이 전시된다. 이 밖에 산신 신앙이 불교와 결합해 그려진 산신도가 소개된다. 산신도는 신령한 노인이 호랑이를 거느린, 민간신앙적인 산신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다. 이번 전시에 소개되는 작품들 역시 해학적인 분위기를 가진 민화풍의 호랑이와 시중드는 동자를 거느린 산신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 (02)2077-9000 이나은 기자


산신도 山神圖(19-20세기), 견본채색, 109.5 x 81.0cm, 국립중앙박물관

박재완 기자의 불교사진이야기 나에게



마음은 깊은 곳에 있었으면 좋겠고, 마음 깊은 곳에 내가 있었으면 좋겠다. 눈빛은 늘 아침 같았으면 좋겠고, 시선은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공부는 많이 안 됐어도 게으르지만 않았으면 좋겠고, 할 수 없이 내는 말은 흙이 내는 풀잎 같았으면 좋겠다. 생각은 등불 같았으면 좋겠고, 오늘 생각이 어제 생각보단 밝았으면 좋겠다. 어쩌다 흐르는 눈물은 그 무엇보다 뜨거웠으면 좋겠고, 어쩌다 품은 용기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었으면 좋겠다. 날이 저물어도 급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아침이 와도 당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늘 독백으로 가슴이 뛰었으면 좋겠고, 힘든 고백 뒤엔 부처님이 있었으면 좋겠다. 사는 게 힘들어도 '나'는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고, '나'는 힘들어도 나의 '자리'는 변함없었으면 좋겠다. 잠든 모습은 절 마당 같았으면 좋겠고, 지나간 하루는 절 마당을 지나간 나무 그림자 같았으면 좋겠다.


편집국 사진부 차장

한국의 선시감상 조선 상월새봉 선사의 '생각을 씀 [書懷]'

내가 어리석어 경계에 끄달리네

道無私我我常私 (도무사아아상사) 도는 내게 사사로움이 없는데 내가 늘 사사롭고
境不痴人人自痴 (경불치인인자치) 경계는 사람을 미혹시키지 않는데 사람이 스스로 어리석네.
冥合八風俱靜處 (명합팔풍구정처) 팔풍이 모두 고요한 곳에 깊이 부합해야 사
可爲三界獨尊師 (가위삼계독존사) 가히 삼계의 독존사라 할 수 있으리.

1200여 문도가 모여들 정도의 화엄강회(華嚴講會)를 열기도 했던 조선 상월새봉(霜月璽篈; 1687~1767)스님이 평소 품었던 생각을 시로 풀어 놓았다.

도라는 것은 나라서, 너라서, 잘나서, 못나서라는 사사로움이 없다. 저 〈신심명〉에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다. 오직 간택을 꺼려할 뿐"이라고 한 간택하는 것이 바로 사사로운 것이다.

친소를 분별하고 우열을 가리는 모든 것은 내 위주로 생각하는, 나의 사사로움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경계도 마찬가지다. 경계가 우리들에게 무슨 영향을 미치겠는가마는 내가 어리석고 미혹하여 경계에 끄달리고 환경에 지배받는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의미 없는, 무의미한 몸짓에 지나지 않았지만 내가 그의 존재에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 그는 나에게 와서 의미 있는 꽃이 되었다는 표현이 바로 스님이 말하고자 하는 도리에 다름 아니다.

이 경계들 가운데 스님은 특히 팔풍(八風), 즉 이(利), 쇠(衰), 훼(毁), 예(譽), 칭(稱), 기(譏), 고(苦), 락(樂)을 들었다. 이로움과 손해, 헐뜯음과 명성, 칭찬과 비난, 괴로움과 즐거움은 우리를 둘러 싼, 우리 마음이 가장 쉽게 흔들리는 양쪽의 경계들이다. 이 팔풍이 다 쉬어진 자리, 어떠한 경계에도 매몰되거나 흔들리지 않는 경지이다.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셔서 유아독존(唯我獨尊)이라 한 의미이며 부처님이라 부르는 이유다.

수많은 경계에 수없이 많이도 흔들려 울고 웃는 지금의 나는 사사로움과 욕심으로 가려진 어리석음이 있기 때문임을 이 시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된다.


원법 스님(운문사 중강 · 조계종 교수아사리)

탱화 청동불상 전문 [1,000불 3,000불 10,000불]




신중탱화

四 代 傳 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효 → 보응당 문성 → 회응당 상균 → 원만당 석윤
해동불교미술원
010-3219-7180 / 010-3743-5167

사찰 연등 및 전선(법당용 외곽용)
초심의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기업입니다.




소원성취 인등 및 사리함



SMD LED전구(국산정품) AC 220V


크리스탈 인등

A/S 법당 전선 10년 외곽 전선 5년
불제세원기업
구입문의 (031) 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H.P 011-630-7092
http://www.bulje.co.kr 본사·공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석모리 281-1

전선 간격
22cm,25cm,28cm,30cm, 40cm,50cm,1M,2M,3M,5M, 8M,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SMD LED전구(정품) 220V용
▶고추전구, 방수전구(정품) (범당용, 외곽용)
▶ 반도체로 되어 화재와 전기소모가 거의 없고 반영구적이다.
공단연등(고리용)



▶연등규격 : 4", 6", 7", 8", 10.5", 13", 20", 30"
건전지 초(행사용) 탑돌이 방생



▶방생, 탑돌이, 각종 행사용에 적합
사찰, 법당, 외곽, 연등용 (정품) 전 선 시 공

예술이 된 '금강경'

'금강경' 사랑한 석호 스님의 100편의 노래



시집간 금강경
석호 응송
도서출판 연화
1만5000원



〈금강경〉은 32분 5149자로 이뤄져 있다. 경전은 부처님과 장로 수보리와의 대화로 구성돼 있다. 그 가운데 부처님 교설의 핵심을 노래한 것이 사구게이다.

사구게는 슬로카(sloka)라는 인도 시(詩) 형식으로 8음절을 1구로 해 4구 즉, 32음절로 된 게송을 말한다. 게송은 범어 가타(gatha)의 음역으로 부처님 공덕이나 교리를 찬탄 요약한 것을 말한다. 대개 네 구절로 돼 있기 때문에 사구게라고 말한다.

이런 가운데, 〈금강경〉 모두를 시로 읊은 책이 출간돼 눈길을 끈다.

대구 앞산 시방사에서 전법활동 중인 석호 스님은 최근 〈시집간 금강경〉을 펴냈다. 책은 〈금강경〉 32분에 대한 감응을 100편의 현대시 형태로 노래한 작품이다. 책은 〈금강경〉의 난해함을 시적 언어와 현대적 소재를 통해 쉽게 풀고 있다.

저자는 책에서 꽃수를 놓듯 한 땀 한 땀 〈금강경〉을 시로 읊고 있다. 시 속에는 철물점 아저씨, 화가 이중섭, 그리스 신화의 시지프스 등이 등장해 〈금강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저자는 "필자는 단지 부처님 말씀을 따르는 수행자의 한 사람으로서 〈금강경〉이 보다 다양한 계층으로 확산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글을 썼다"고 말한다.

저자는 소명태자(501~531)의 한역본을 바탕으로 책을 쉽게 쓰는데 가장 큰 공을 기울였다. 수보리가 보살의 지위였다는 사실에서 범부인 독자들을 배려했다는 것이 저자의 설명이다.

또, 세친의 〈금강경〉 주석서인 27단의설을 축으로 삼아 내용을 펼쳐 나가고 있다. 27단의설은 경전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부처님 설법 사이사이에 일으키는 27가지 의심을 말한다.

특히 책은 〈금강경〉 해설서임에도 〈금강경〉 원문을 수록하지 않고 있다.

저자는 "글을 전개하면서 표현 방식이 다를 뿐 원문 내용을 빠뜨리지 않고 있어 원문을 따로 실지 않았다"라고 말한다. 또, "독자가 너무 분석적인 시각으로 접근하다 보면 도리어 난해함에 부딪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기도 하다"고 말한다.

저자는 책을 송차(松茶)에 빗댄다.

"지리산 토굴에 사는 한 도반스님이 손수 담근 거라면 보내온 송차를 마시다보니 어느새 취했다. 차로 알고 마셨으니 차가 맞는 것 같은데, 마시고 난 뒤 취했으니 술인 것도 같다. 송차인가? 송주(松酒)인가?"

저자는 "책에 담긴 글들이 번안물인지 창작물인지 모르겠다"고 말한다.

부처님 말씀인 경을 보고 썼으니 '번안'이라 해야 맞는 것 같고, 차를 마시고 취한 것처럼 경을 보고 난 감응을 노래했으니 '창작'이라해야 옳은 것도 같다는 설명이다.

책이 번안인지 창작인지, 책을 보고 판단해 보자.

조동섭 기자

사랑하는 동물 잃은 슬픔과의 조우

애니멀 커뮤니케이터의 동물 영혼 메시지



살아있는 동물만이 아니라 세상을 떠난 동물들과 대화가 가능한 세계적인 애니멀 커뮤니케이터 로렌 맥콜.

〈영원한 선물〉은 동물들이 경험하는 삶과 죽음, 윤회 등에 관해 동물들의 말을 그대로 들여주는 책이다. 책은 세상을 떠나는 과정에 있는 사랑하는 동물 때문에 고통스럽거나 사랑하는 동물을 잃고 애통해 하는 사람들에게 영혼의 자유로움과 생과 사,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사랑의 영속성을 느끼게 해주며 큰 위안을 준다.

영원한 선물 | 로렌 맥콜 | 이정아 옮김 | 서현사 | 1만원

조동섭 기자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자"

한국은 OECD 국가 가운데 자살율 1위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매일 42.6명이 자살하고 있다는 대한민국이 우리가 사는 사회이다.

〈구하지 않는 삶, 그 완전한 자유〉를 펴낸 적천 윤기붕 선생도 한때 스스로를 정죄하는 극심한 고통과 절망 속에서 수없는 자살에 대한 생각과 눈물로 자신을 한탄하고 쥐어뜯던 과거가 있었다.

당시 저자는 매일 같이 자살을 꿈꾸면서도 죽지 못하는 자신을 또 뜯으며 4개월을 보냈고, 어느 날 문득, "이 모든 것이 '생각' 하나가 짓고 있다"는 각성이 일어났다.

시련이라고 하는 것도 생각, 그러면서 자신이 추악하다는 것 역시 생각, 그것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발버둥조차도 생각이라는 각성…. 오직 그냥 생각일 뿐이라는 '생각'에 다다르자 고통이 사라졌다고 회고한다. 그리고 그 생각의 속성을 깨닫고 자유를 얻어 그 행복을 독자들과 나누고자 책을 쓰게 됐다고 말한다.

저자는 "우리의 마음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다"고 설명한다.

허공과 같이 모든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질 수 있는 바탕인 텅 빈 마음과 그 위에 인연 따라 생겨 떠도는 일희일비(一喜一悲) 하는 분별하는 마음이 그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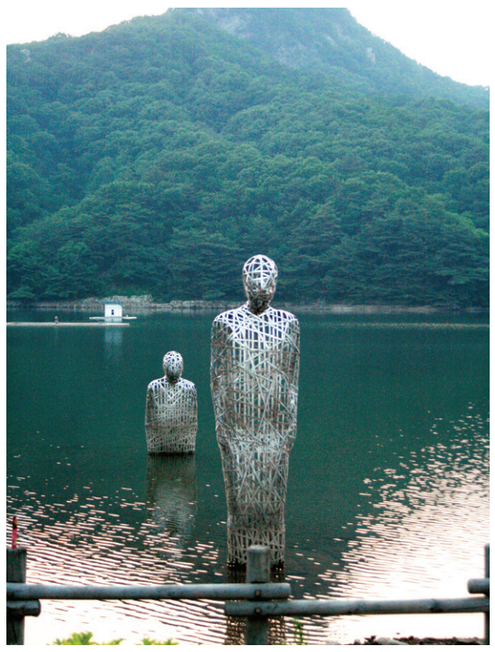
분별하는 마음은 우리 감각기관과 대상과의 인연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허상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이 허상인 것을 모르고 진짜라고 착각한다. 그것에 속아 울고 웃는다.

저자는 "우리가 고통스러운 것은 이 마음 때문이다. 우리가 즐거운 것도 이 마음 때문이다"라고 말한다.

그리고 "일체를 분별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일 때 진정한 자유와 평화, 깨달음의 삶이 펼쳐진다"고 강조한다.

저자는 "참된 양식은 자신으로부터 나와야 한다. 아니, 자신에게 이미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말한다. 그토록 못나고 부족하고 보잘 것 없어 보였던 자신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로 가득 차 있었음을 스스로 알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래야 고된 인생 여행을 멈출 수 있고 노예의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사람은 누구나 인연에 의해 죽을 때까지 산다. 죽을 때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죽지 않는다. 죽을 인연이 돼야 죽는다. 그것이 자살이라고 해도…."



'오직 생각일 뿐' 깨닫자 고통 사라져
인연따라 떠도는 분별심에 속아 울고 웃어
매일 자살 꿈꾸다 행복 · 자유 찾은 체험기

저자는 지혜로운 자는 인연을 받아들이며 살아간다고 말한다. 그래서 지혜로운 이에게는 아무 번뇌가 없단다.

달마 조사도 "사람들은 사물을 따르지 않고 마음을 따르기 때문에 번뇌와 고통이 온다"고 말했다.

저자는 "사람을 따른다는 것은 인연을 따른다는 것이고, 마음을 따른다는 것은 자신의 욕심을 따른다는 것이다"라고 설명한다.

욕심을 아무리 내어도 세상은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그곳은 우리는 인연의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사는 것이 아니라, 인연에 의해 살아지는 것.

저자는 말한다.

"악다구니처럼 애를 쓰고 악을 쓰면서 살려고 하지 마라. 무엇이 그렇게 두려운가? 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죽을 때까지 살아간다. 한 생각만 바꾸면 아주 행복하고 즐겁다."





저자는 강조한다. "이 책을 읽고 영원히 마르지 않는 자신의 우물을 발견한 독자들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라고.

놓아라.
구하지 마라.
분별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라.
지금 있는 그대로가 바로 깨달은 모습이다.
진정한 자유와 평화란 있는 그대로의 삶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정말로 자신이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살게 되면 겸손해진다.
그리고 삶이 자유로워진다. 사랑이 생긴다.
그 외, 너무나 많은 아름다운 것들이 생겨난다.
먼저 자신이 완전하지 못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여라.
-본문 중에서

구하지 않는 삶, 그 완전한 자유 | 적천 윤기붕 지음 | 비움과 소통 | 1만4000원

조동섭 기자 cetana@hyunbul.com

말하면 이뤄지는 원리를 담다



〈소리와 음악의 신비〉는 '하즈랏 이나야트 칸의 수피 메시지' 시리즈 제2권의 개정 증보판이다. 책에는 음악 소리 언어 말의 힘에 관한 수피의 통찰력이 담겨 있다. 역자들이 책을 번역함에 있어 다양한 상황에서 구술했던 저자의 생동감을 최대한 살리려 애쓴 것도 돋보인다.

책을 읽다보면 말과 말의 반복의 가치와 힘에 대해 배우게 된다. 수피의 가르침에서 불자들은 독경이나 다라니 수행이 어떤 구조로 영험이 따르는지 알 수 있게 된다.

저자는 말한다.

"반복의 또 다른 효과는, 말에는 우주의 영이 반영돼 있고 그 뒤에는 우주적인 메커니즘이 그 말을 자동적으로 반복하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말을 반복하면, 그 뒤에 신이 그것을 반복하기 시작한다. 그것이 모든 존재계 안에서 실현되고 하나의 실재가 될 때까지."

소리와 음악의 신비 | 하즈랏 이나야트 칸 지음 | 황정선 · 이정은 옮김 | 슈리 크리슈나다스 아쉬람 | 1만5000원

조동섭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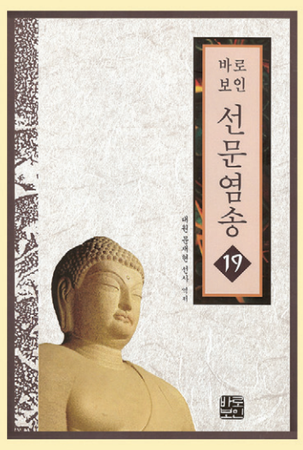
3/7~3/13

순위	도서명	저 자	출판사
1	깨달음	법륜	정토출판
2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혜민	쌤앤파커스
3	기도 (내려놓기)	법륜	정토출판
4	마음수업	이광정	휴
5	불교와 과학 진리를 논하다	사이토 나루야 외	운주사
6	백일법문(상)	성철	장경각
7	무문관 참구	장휘옥, 김사업	민족사
8	인생을 낭비한 죄	박원자	뜰
9	돈, 섹스, 전쟁 그리고 카르마	데이비드 로이	불광출판사
10	젊은 날의 깨달음	혜민	클리어마인드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www.buddhabook.co.kr
운주사 (02) 3672-7181


조계종 전강 대선사님 인가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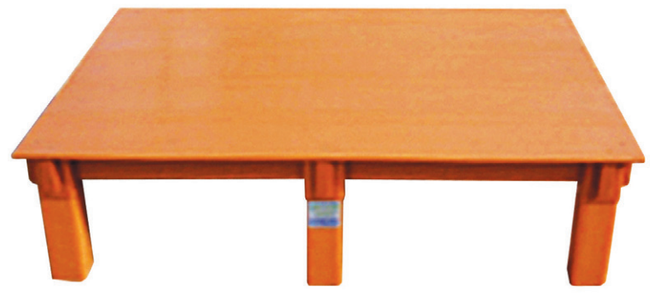

신간! 선문염송 19권
세계 최대의 공안집.
전 30권중 19권 출간!
홍화선사, 관계선사, 설봉선사의 공안이 실려 있다.
선문 사상 최초로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한 칙도 빠짐없이 평하고 송하여 공안참구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실증(實證)의 법문 실증설
본연을 꽃피우는 일상의 함
방거사어록
031-534-3373 www.zenparadise.com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슬라브, 창고, 공장, 일반가정집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서울 · 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9190-3350
전라도 : 011-248-6298
현 대 칼 라 지 붕 공 사


◆3칸겹집 목조건물 : 9500×7000×4500㎜ / 가격 : 평당 150만원
다그라스목재기둥 180×180×2470 / 다그라스목재도리 170×170
다그라스목재서까래 100×100 / 목재판재 120×18 전통강판기와
주춧돌 300×300×300 ※황토흙 ALC블럭 내화벽돌 판넬 자유 선택
원하는 평수 가능 토목공사 부가세별도


◆눈비를 맞아도 썩지않는 조립식 평상 : 1800×1030×400㎜
~~가격 29만원~~ → 할인가 19만원
부가세 별도 운송비
폴리프로필렌 자재 기둥 110×90×400 / 도리 80×35 / 중간대 80×35 / 마루판 210×12
연결이동 사용할 수 있으며 보관 설치가 간단한 평상
지 구 산 업
www.bangaro.com / 방갈로.com
TEL 063)323-3011~2 / FAX 063)323-3010

"간화선은 친절해야 합니다"

신앙 · 수행 · 생활이 하나되는 선입문서



친절한 간화선
글 · 월암
담앤북스
2만원

친절(親切)은 '대하는 태도가 매우 정겹고 고분고분함. 또는 그런 태도'를 말한다. 그러나 선사들은 이보다 앞서 친절을 자기 수행에 간절히 사무친다는 뜻으로 사용해 왔음을 아는 이는 많지 않다.

한산사 용성선원장 월암 스님은 "친(親)은 친히 직접, 스스로, 절(切)은 간절하게라는 뜻으로 조사들이 말씀하신 것이 〈벽암록〉 등에서 보인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친절은 내적으로는 화두와 본분사에 사무치는 것이요, 외적으로는 일체 중생을 모두 부처로 섬기는 것을 말한다"고 설명한다.

월암 스님은 최근 간화선 수행 지침서 〈친절한 간화선〉을 펴냈다. 〈간화정로〉와 〈돈오선〉에 이은 저작이다. 책은 스님이 대중들로부터 쉽고 친절한 참선 지침서 한 권을 펴내 줄 것을 요청 받은 지 수 년 만에 그들과 약속을 지키고자 펴낸 것이다.

저자는 3월 13일 출판 기념 간담회에서 "동안거 기간 결심하고 망상을 피워 원고를 정리했다"고 말했다.

책은 신앙 · 수행 · 생활이 하나 되는 생활선 입문서이다. 또, 초심자 눈높이에 맞춘 간화선 수행의 지침서이다. 간화선 수행의 점차적 단계를 설정했고, 선오후수(先悟後修)로써 선수증의 체계를 세우고 있다. 수행자의 자세와 참선수행의 요체를 밝히고 있고, 간화선 대중화와 세계화의 이론적 정초를 마련하고 있다.

저자는 "신앙을 떠난 수행, 수행이 없는 생활, 생활이 결여된 신앙은 정법에 어긋난다"며 "철저한 신앙심이 바탕이 되지 못하고, 지금 여기의 현실적 삶에 뿌리를 두지 않는 참선수행은 메마른 건혜지(乾慧智)만 남게 돼 자신과 세상을 구하지 못한다"고 말한다.

신심과 원력이 없는 수행은 공허해 모양(相)만 키우게 되고, 수행이 없는 생활은 무명에 쌓여 업(業)만 쌓게 되며, 현실적 삶에 바탕하지 않는 신앙은 맹신에 빠져 무지(無知)만 키우게 된다는 설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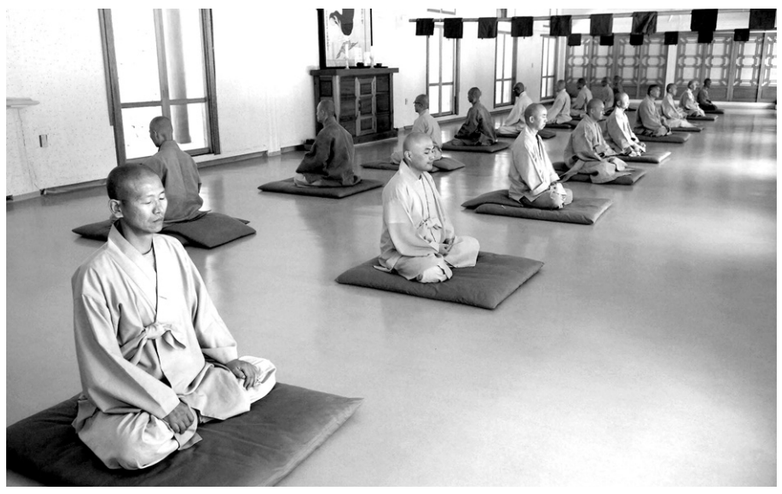
저자는 책을 통해 선수행의 단계를 ①신귀지(信歸地) ②발심지(發心地) ③습인지(習忍地) ④정견지(正見地) ⑤경안지(輕安地: 解悟) ⑥안상지(安祥地) ⑦가행지(加行地) ⑧견성지(見性地)…구경불지(究竟佛地) 등으로 분류 · 설명해 선수행자들에게 방향설정을 유도하고 있다.

저자는 "화두 타파는 번뇌망념 타파를 의미한다"며 "화두를 통해 망념 바라보기- 망념의 멈춤 - 생각 이전 자리의 직면 - 본래심(부처)의 깨달음에 이르게 된다"고 설명한다.

저자는 "간화선 수행이 형식주의 · 선정주의의 함정으로부터 탈피해 망념이 그대로 정념임을 통찰하는 반야의 눈이며, 깨어 있고 열려 있는 일상의 삶 자체이기 위해서는 철저히 불이중도 실상을 체득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리고 "간화선 수행이 시대 대중의 아픔을 치유하고 전 삶의 영역에서 해탈의 기쁨을 주기 위해서는 화두참구 일념 가운데 육도만행(육바라밀)이 뚜렷하게 드러나야 한다"고 주장한다.

책은 선수행을 정신 · 실천의 두가지로 나누어 화두선의 올바른 사상적 토대와 수행의 모범을 찾고 있다.

제1장 발심(發心)에서는 제1절 귀의와 신심, 제2절 발보리심, 제3절 출가 등에 천착했다. 저자는 신심 · 발심이 전제되지 않은 선수행은 구두선에 그치기 쉬우며, 출 · 재가자를 막론하고 생사를 벗어나겠다는 출가 정신이 결여되면 올바른 수행을 할 수 없다는 생각에서 출가에 대해 적고 있다.



간화선 수행이 대중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육바라밀이 뚜렷이 드러나야한다고 〈친절한 간화선〉 저자 월암 스님은 강조한다.

화두에 간절히 사무치고
일체중생 부처로 섬겨야
지금 여기 삶에 뿌리 두고 닦자
신심 · 원력 없는 수행은 공허

제2장 습인(習忍)에서는 수행을 익히고 체득해 가는 여러 이론 · 실천을 통해 상호 융회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 장에서는 제1절 참회, 제2절 좌선, 제3절 선교겸수, 제4절 삼학 등지의 차례로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제3장 정견(正見)에서는 선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바탕이 되는 정견에 대해 논술하고 있다. 제1절에서는 중도정관(中道正觀)에 대해 살펴보고, 제2절에서는 선지식의 지도에 대해 기술했다.

저자는 "불교 수행의 기본은 정견 확립에 있다. 정견은 중도의 바른관을 수행함으로써 확립될 수 있다. 선지식의 참문을 통해 정견과 수증의 방편에 대한 지도를 받음으로써 한결 용이하게 깨달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고 말한다.

제4장 수증(修證)에서는 저자가 나름대로 수립한 선수행의 수증체계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제1절은 먼저 깨닫고 나중에 닦는 '선오후수'를, 제2절에서는 견성성불에 대한 선사들의 논지를 살폈다.

제5장 간화선(看話禪)에서는 간화선 수증방법을 천착하고 있다. 제1절에서는 정념과 화두를 통해 위빠사나와 화두수행을 비교하고 있다. 제2절에서는 화두 참구 자세로 간절한 마음, 결정심을 갖춤, 순일한 마음을 가질 것에 대해 말하고 있다. 제3절에서는 간화선 입문자를 위해 화두 결택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제4절에서는 화두참구 방편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제6장 회향(廻向)에서는 회향의 의미와 함께 선수행과 실천회향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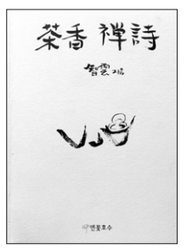
덕숭총림 방장 설정 스님은 책에 대해 "월암 선사가 이번에 〈친절한 간화선〉이라는 저술을 통해 시대적 책임과 사명을 다하지 못하는 사부대중에게 경종을 울리는 한편, 출가 · 재가 수행자에게 있어서 과연 어떤 것이 올바른 정진이며 무엇이 구경을 향한 수증인지를 세세하고도 분명하게, 경전과 어록의 가르침에 의거해 심도 있게 분석하고 체계적으로 논술했다"라고 추천했다.

조동섭 기자

차와 시로 만나는 禪

지운 스님의 '다선시 명상'





저자 지운 스님은 자비선명상센터 수행지도법사이다. 한국차명상협회 이사장이기도 하다.

책 〈차향 선시〉는 선과 차를 지도하는 저자가 선향과 차향을 한데 어울려 읊은 시를 모은 시집이다.

책 속의 시들은 여느 시가 아니다. 수행에 도움이 된다. 저자는 "시편을 통해 명상하는 것이 다선시 명상이다"라고 말한다. 책을 읽을 때는 먼저 시를 소리 내어 읽고, 본인의 귀에 소리가 들림을 알아차리면 된다. 읽고 들으며 내용이 파악되면 읽는 것은 절로 잊어진다. 그리고 뜻이 드러난다.

뜻이 파악되면 내용이 잊혀지면서 그 뜻에 들어가게 된다. 뜻에 들어가면 뜻은 번뇌망상을 소멸시키므로 뜻마저 절로 잊혀진다. 이 때가 저자가 말하는 다선일미(茶禪一味)를 체험하는 순간이다.

저자는 이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시를 읽으며 수행할 수 있다고 말한다. 책은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에게 향기를 준다.

차향 선시 | 지운 지음 | 연꽃호수 | 1만2000원

조동섭 기자

용수에게 듣는 도덕적 삶



〈친구에게 보내는 편지: 용수 보살의 권계왕송〉은 대승불교의 아버지로 불리는 용수(150~250)가 인도의 패자(覇者)이자 자신의 친구인 왕에게 도덕적 생활, 계율에 따른 일상생활을 강조하며 보낸 편지글이다.

영어권에도 널리 알려진 이 책은 원문인 범본은 소실됐지만 3종의 한역본이 전한다. 티벳불교에서는 20여 종의 주석서가 집필됐을 만큼 대승불교의 이해에 있어 중요한 저작이다.

책은 다른 한글 해석본과 달리 티벳전통 목차인 쌉쩨에 따라 원문을 체계적으로 배열하고 123개 각 게송에 대한 문법해제와 용어를 풀이한 것이 특징이다.

친구에게 보내는 편지: 용수 보살의 권계왕송 | 용수 지음 | 신상환 옮김 | 도서출판b | 1만2000원

조동섭 기자

중국 선종사 연구의 고전



〈중국선종사〉는 중국선종사 연구에 있어서 가장 권위 있는 저술 가운데 하나로 손꼽힌다.

책은 수행과 교학을 철저히 겸비해 대만 근대불교의 아버지로 불리는 인순(印順) 대사가 자신의 수행과 교학을 바탕으로 중국선종 역사를 그 뿌리로부터 깊이 있게 천착한 보기 드문 노작이다.

또한 책은 근현대 중국선종사 연구의 중심인물들인 호적(胡適), 영목대졸(鈴木大拙), 유전성산(柳田聖山) 등의 연구를 종합적으로 계승하면서도 저자의 독창성이 두드러져 중국어권 및 서구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널리 읽혀져 온 선종사 연구의 고전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저자는 서문에서 인도의 선관(禪觀)이 중국선으로 전개한 그 과정의 천명에 역점을 주고 쓰여졌다고 말한다. 또한 인도 전래의 달마선은 달마로부터 혜능에 이르기까지 지도법에 있어서는 끊임없이 변화가 보이지만 그 실질은 일관해 '여래선'이었다고 강조한다. 혜능의 문하는 강남에서 면복(面目)을 일신(一新)해 중국선을 형성했지만, 그것은 우두선 즉 노장화의 영향이었고 중국선종사에 있어서 우두선은 경시할 수가 없는 특수한 의의를 짊어진 것이라고 평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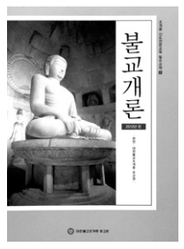
역자 유진 스님(동국대 교수)은 "그간 한국 불교학계의 중국선종사 연구는 대부분 일본학계에 의지한 경우가 많았다. 책을 통해 한국 불교학계의 선종사 연구에 새로운 관점과 기풍을 제공하게 됐다"고 말했다.

중국선종사 | 인순 저 | 이부키 아츠시 일역 | 유진 한역 | 운주사 | 5만원

조동섭 기자

불교 전반 흐름 내용 체계적 정리

조계종 신도 전문교육 필수교재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원)은 최근 〈불교개론〉을 발간했다.

책은 재가신도의 눈높이에 맞게 불교개론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책에는 불교는 어떤 종교인가, 부처님의 가르침, 불교사의 전개과정에 따른 부파불교와 대승불교의 역사, 그와 관련한 경전, 조계종 주 수행법인 간화선, 현재를 살아가는 불자들의 마음자세와 실천방향 등을 적고 있다.

책은 사상적 깊이를 지닌 용어를 소개하더라도 그것이 무엇을 지향하고 있고,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쉽고 상세하게 설명했다. 즉, 어렵고 딱딱한 느낌을 지우는데 중점을 뒀다.

특히, 각각의 교리에 따른 기본개념을 잘 풀어내 설득력 있게 안내해 주고 있어 신도들이 부담없이 쉽게 읽을 수 있다.

포교원장 지원 스님은 "책에서는 타 종교와 다른 불교만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는 동시에 불교의 지향점과 신행관을 분명하게 제시해 주고 있다. 때문에 불자로서 불교에 대한 가치관 정립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계종 포교원 인가를 받은 전국 100곳 불교대학 7000여 불자의 교육교재로 사용된다. 포교원은 2012~2013년 2년간 포교원 인가 불교대학에 한해 책을 무상 보급한다.

불교개론 |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편찬 |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 비매품

조동섭 기자

정확도 효과성 제일

아래 각 활용서 및 CD프로그램에는 작사귀 / 병귀 / 부정빌미 / 산소탈 및 해소방법을 정확하고 효과 크게 적시함

◆ 육임 학습서 ◆
· 효사육임강론 2011개정증보 제8판본 상(학습용) · 하(임상용) 권 45만원
· 효사육임사주감정법 2011개정 제2판본 1권(기존사주초월) 5만원
· 효사육임요지 2011최신판 1권 (간추린 육임 형이상법) 5만원

◆ 육임 활용서 ◆
· 도사에게 물어봐 2011정련 제5판본 1권 5만원
· 육임래정비법 2011개정증보 제6판본 1권 좌정용 35만원
· 육임래정비법 2011개정증보 3판본 순별6권 휴대용 35만원
· 육임풍수 2011개정증보 제2판본 1권 좌정용 25만원
· 육임풍수 2011개정증보 제2판본 순별6권 휴대용 25만원
· 오행수법제례의식집 2011개정 제5판본 1권 5만원
· 출산길일길시선택비법 2011 제3판정련본 1권 5만원
· 육임1년신수비결 2011개정증보 제2판본 1권 15만원

◆ 육임 및 각 오행술 분개 CD프로그램 ◆
· 효사활인천역집2011완결최종판 정가350만원
종합CD프로그램(무인증장착) 120만원
· 효사육임산책 2011최신판 순별 전6권 수록 90만원
· 효사래정비법 혁신판 수정보완본 월장별 전12권 수록 (대계전서) 70만원
· 도사에게물어봐 2011정련 제5판본 1권 수록 20만원

· 효사일상생활감정법 2011정련 제5판본 1권수록 20만원
· 효사출산길일길시선택비법 2011정련 제3판본 1권수록 30만원
· 효사육임1년신수비결 2011개정증보 제2판본 순별6권 수록 30만원
· 매화역수 2011정련판 수록 20만원
· 월영도 2011정련판 수록 20만원
· 성명학 2011정련판 수록 20만원
· 정통부적보감 2011정련판 수록 5만원
· 토정비결수록 5만원
· 꿈해몽 5만원

◆ 기 타 ◆
· 효사도정기 2011최신판 5만원
· 불가법요집 2011최신판 5만원

◆ 본사 직접판매 고가 육임활용서 및 활용 CD프로그램 목록 ◆
· 고귀명수 통1권 / 순별6권, B4 / A4, 미색모조 / 백색모조 중 선택 정가350만원
· 육임복변집 좌정용 전6권 정가250만원
· 육임산책 휴대용 전6권 정가250만원
· 효사비결 CD 프로그램 육임일생사/당면판단사완성 (각띠별 확정) 정가650만원
· 군자수첩 육임정수모음 · 저렴한 가격대 정가103만원

[주문전화] 02)738-8680 / 070-7514-8680
[입금계좌] 우리은행 1005-301-778137/ 농 협 301-0071-8027-01/ 육임나라㈜
www.taotemple.net / 입금 후 다음날 수취가능
육임컨텐츠개발전문 - 육임나라 (주)

암자 부지 안내



자아를 찾고 불타이념을 홍포하시던
스님들의 노후 무료 쉼터를 마련 하고자
마복산 아래 청정 암자 부지를 양도 합니다

위치 : 전남 고흥군 포두면 차동리 산58
임양 9800평, 바다인접, 면소재지 근접
☞ 항공사진으로 살펴보세요 ☜

사) 대한불교 일월조계종
종 도 모 집

개인 사암은 개인자산으로
인정하기에 사암 주지 권한으로
운영합니다

총 무 원 : 전북 익산시 황등면 죽촌 1길 9-5
총무원장 : 011-677-8525

특 강 안 내

수정기공 Soojung Touch Therapy
대한민국 인증대상(기공부문)
신지식 서비스기업 대상



교 재 : 75,000원 특가 68,000원
강 의 : 매월 첫주 시작 4회 완성
장 소 : 수원시 성균관대학역 주변
모집인원 : 매회 8명이내
연 락 처 : 010-3463-7806
홈페이지 : soojung99.pe.kr

수정기공 창시자 김문기 원장 직강
온라인번호 : 농협 207176-51-204175



삼국유사 인문학 유행(遊行)

미륵과 화랑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미륵사상이 삼한통일을 이루다



신라의 국왕은 국선을 현실적인 미륵으로 받들었다. 사진은 경남 합천군 치인리에 소재한 보물 제222호 마애불입상

1. 미륵과 원화

불교사상사에 등장하는 미륵은 크게 셋으로 변별된다. 첫째는 붓다 당시의 수행자 미륵 청년이다. 둘째는 대승 아비달마인 유가행 유식학을 정초한 미륵논사이다. 셋째는 인도 바라나국의 바라문 집에 태어나 석존의 교화를 받고 미래에 성불하리라는 수기를 받아 도솔천에 올라가 있으면서 천인들을 교화하는 자씨(慈氏)보살이다. 여기서 다루는 미륵은 석존 입멸 후 56억 7천만년을 지나 다시 이 사바세계에 출현하여 화림원(華林園) 안의 용화수 아래서 성도하여 3회의 설법으로써 석존의 교화에 빠진 모든 중생을 제도하는 붓다이다. 그는 석존의 업적을 돕는다는 뜻에서 보처(補處)의 미륵이라고 하며, 비바시불-시기불-비사부불을 잇는 구류손불-구나함모니불-가섭불-석가모니불의 뒤를 잇는 현겁(賢劫) 천불의 제5불이다. 그가 주관하는 법회는 용화삼회(龍華三會)라고 한다.

이 미륵보살은 현재 도솔천에 머무르고 있다가 미래에 이 땅에 하생하여 성불한 뒤에 석가불이 제도하지 못한 인연 있는 중생을 제도한다고 알려져 있다. 미륵이 하생할 때는 이 땅(閻浮提)의 토지는 넓고 평탄하며, 그 나라 사람들은 모두 온화하고 순수하여 말씨가 공손하고, 화목하고 서로 사랑하여 다툴 송사(訟事)와 싸움(鬪爭)이 없으며, 비와 바람이 순조로워 재난이 없으며, 곡량(穀糧)이 풍성하여 집의 문을 닫지 않고 산다. 이때는 모든 것이 정화되어 지상의 가장 지극한 이상향으로서 아무런 고통이 없다. 오직 먹는 것과 편리(便利)보는 것과 늙는 것의 세 가지 병만이 있다.

요즘같이 먹는 것[食]과 누는 것[便]과 늙는 것[老]이 아니라, 밥의 쌀도 향기가 더할 수 없으며, 수고로움[勞苦]도 매우 적게 들여 식생활이 해결되며, 편리(便利) 때에는 땅이 갈라져서 마친 뒤에 다시 땅이 합해지고 거기서 연꽃이 솟아나 더러운 기운이 없어진다. 또 늙어서 죽음이 가까워 오면 스스로 걸어서 시신을 쌓아두는 숲속으로 가서 고통 없이 죽는다고 한다. 그리고 이때는 금은의 칠보가 길바닥에 버려져 흡사 돌과 사금파리처럼 밟혀 있으며, 당시 사람들은 그것을 가리켜 '이것을 옛날 사람들은 가장 귀중한 보배라 여겨 아끼고 욕심을 내어 서로 죽이고 싸웠다' 고 하면서 서로 돌아보며 웃는다고 한다.

진흥왕은 즉위 이후 법흥왕의 뜻을 이어 일심으로 붓다를 받들었다. 그는 불사를 널리 일으켜 나라 사람들로 하여금 승니(僧尼)가 되게 하였다. 왕은 나라에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고 훌륭한 인물을 등용하기 위하여 아름다운 낭자를 뽑아 원화(源花)로 삼았다. 그는 이들 원화를 중심으로 무리를 모아 그들을 가르치고 인재를 가려서 등용하고자 하였다. 이것 또한 '나라를 다스리는데 크게 요긴한 일' 이었기 때문이다. 이때 뽑힌 남모랑(南毛娘)과 교(준)정랑[姣(俊)貞娘] 두 낭자 주위에 300여 명이 모였다. 그런데 어느 날 교정이 남모를 시샘하여 살해하였다. 이 일이 탄로가 나서 교정이 죽임을 당하자 이 원화제는 폐지되었다.

2. 풍월도의 설치

진흥왕은 교육으로 나라를 흥성시키려면 청소년 수양단체인 풍월도(風月道)를 반드시 먼저 일으켜야 된다고 결심하였다. 왕명을 내려 양가(良家)의 자제 중에 덕행이 있고 준수한 자를 가려 뽑아서 화랑으로 삼게 하고 처음으로 설원랑(薛原郎)을 받들어 국선(國仙)으로 삼았다. 이 풍월도의 공능에 대해서는 〈삼국사기〉의 「신라본기」진흥왕 37년조에 "김대문의 〈화랑세기〉에는 '어진 재상과 충성스러운 신하가 여기에서 나왔고, 훌륭한 장수와 용감한 병사가 여기에서 생겼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라는 구절과,「열전」 '김흠운(金歆運)전' 에도 김대문이 '어진 재상과 충성스러운 신하가 여기에서 나왔고, 훌륭한 장수와 용감한 병사가 여기에서 생겼다' 고 한 말이 바로 이를 가리킨 것이다. '3대의 화랑이 무려 200여 명이나 되었는데, 그들의 꽃다운 이름과 아름다운 사적은 전기(傳記)에 기재된 바와 같다라는 대목이 있다' 는 구절에서도 확인된다. 풍월도는 국선과 화랑 및 낭도(승려낭도과 일반낭도)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들 젊은 화랑들을 이끌었던 대표적인 승려낭도로는 진흥왕과 진지왕대의 진자(眞慈), 진평왕대의 혜숙(惠宿), 진덕왕 때의 전밀(轉密), 효소왕 때의 안상(安常), 경덕왕 때의 월명(月明), 헌안왕 때의 범교(範敎) 등이 있었다. 진흥왕의 왕자이름인 동륜(銅輪)과 금륜(金輪; 舍輪)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풍월도는 진흥왕의 미륵신앙과 전륜성왕사상에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때문에 화랑의 단체를 용화향도(龍華香徒) 또는 미륵신도(彌勒信徒)라고도 하였다. 그리고 14~15세에서 17~18세의 소년들로 이루어진 화랑(花郎)과 그 우두머리인 국선(國仙)에게는 각기 200~300여 명의 무리들이 있었다. 또 이들 중에는 장년의 승려낭도 1인이 참여하여 국선을 보살폈다.

국선은 화랑 중의 최고의 상수(上手)화랑이었다. 현재 국왕이 받드는 국가적인 현재 이름을 알 수 있는 화랑들의 숫자는 약 30여 안팎이다. 김대문의 〈화랑세기〉에는 화랑의 기원, 역대 화랑의 지도자인 풍월주(風月主) 32명의 계보 및 행적 등과 향가(鄕歌)를 함께 수록하고 있다. 이들 화랑이 거느리는 무리들[徒]은 나라의 위급할 때에 현장에 투입시키면 일개 사단 병력에 육박하게 된다. 이것은 관창 등이 계백의 오천 결사대와 벌인 황산벌 전투에서 증명해 주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신라에서는 미륵을 상징하여 화랑이라 하고 그 최고 우두머리를 국선이라 했다는 지점이다. 미륵불을 상징하는 국선은 신라의 미래부처 혹은 나라의 미륵부처로 받들렸다. '화랑' 이 곱게 단장하거나 장식했던 것 역시 이 미륵사상 사상에 연유한 것이다.

풍월도 안에는 화랑과 국선과 낭도가 있었고, 한 화랑 밑에는 무리가 있었다. 때문에 화랑의 무리들은 '근랑지도' (近郎之徒), '호세랑도' (好世郎徒), '삼화지도' (三花之徒), '유화랑 문도지문' (遊花郎文努之門) 등과 같이 '누구의 무리', '누구의 문도' 라고 불렀다. 경덕왕 때에 일식(日蝕, 日怪)의 기양(祈禳)을 위한 산화공덕의 개단작법(開壇作法)에 연승(緣僧)으로 초청된 월명(月明)이 왕에게 자신을 '국선의 무리' 라고 아뢰었다. 그렇다면 한 화랑이 낭도를 거느리듯 그는 화랑의 우두머리인 '국선을 따르는 낭도' 임에 틀림없다. 반면 김유신을 따르는 무리들을 특별히 용화향도라고 했다. 〈삼국사기〉 '김유신전' 에 의하면 "공의 나이 15세에 화랑이 되니 당시 사람들이 흔연히 따랐으며 (그를 따르는 이들을) 용화향도라 하였다"고 한다. 그렇다면 왜 김유신을 따르는 무리만을 유독 용화향도라고 했을까?

3. 용화향도

용화향도는 '용화' 와 '향도' 를 합친 말이다. 용화는 미륵을 가리킨다. 〈미륵하생경〉과 〈미륵래시경〉에 의하면 용화는 뿜나가(Pumnaga, 奔那伽) 나무에서 유래되었다. 이 나무의 가지는 마치 보배 용[寶龍]이 백 가지의 보배 꽃을 토해내는 것 같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도솔천에서 인간세에 하생하여 성장한 미륵이 출가하여 이 나무 밑에 앉아서 성불하게 되며, 이 나무 아래에서 설법하여 많은 사람들을 교화하므로 용화보리수(龍華菩提樹)라고 부른다고 한다. 때문에 미륵불의 설법대회를 용화회상이라고 하며 미륵불이 출현하는 미래의 세계를 용화세계라고 한다. 해서 '용화' 는 미륵불을 일컫는 말로 쓰이게 되었다.

향도는 부처님께 향을 사르고 절을 하는 무리[禮佛香火之徒; 禮香之道]를 가리킨다. 〈삼국유사〉 '원종흥법 염촉멸신' 조와 '포산이성' 조에는 '향을 사르고 부처님께 예를 드리는 무리' [禮佛之香徒]인 향도의 용례가 보인다. 이것은 미륵불에게 향을 사르고 예를 드리며 믿고 따르는 무리를 가리킨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풍월도를 이끌어 가는 최고 우두머리인 국선은 미륵불의 상징이다. 때문에 신라의 국왕 역시 국선을 신라의 현실적인 미륵불로 받들었다. 그리고 국선을 받드는 화랑과 그 무리들은 자연히 미륵신봉자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김유신(金庾信, 595~673)을 따르는 무리들만 용화향도라고 부른 까닭은 그가 미륵신앙을 강조하였거나 아니면 분명 어떠한 계기가 있어 그리했을 것이다.

진평왕 건복 28년(611) 신미년에 17세였던 김유신은 당시 고구려와 백제 및 말갈이 신라를 침범하는 것을 보고 구적(寇賊)을 평정하겠다는 뜻을 품고 중악(中嶽, 斷石山; 月生山)의 석굴(石崛) 들어갔다. 그는 그것에서 목욕재계하고 하늘을 향해 기원하며 맹세하였다. "적국이 무도하여 맹수처럼 우리나라를 쳐들어오니 편한 날이 없습니다. 제가 한낱 어린 몸으로 아무 힘이 없사오나 나라의 화란(禍亂)을 맑히고자 뜻하오니 하늘께오서는 살피시어 저에게 힘을 주시옵소서"라고 발원하였다. 나흘째 되던 날에 갈의(褐衣)를 입은 한 노인이 곁으로 다가와 말하기를 "이곳은 독충과 맹수가 많아서 매우 무서운 곳인데 귀한 소년이 홀로 와서 무엇을 하는가?"라고 하였다. 이에 유신이 "어르신께서는 어디에서 오신 누구신지요?"라고 물었다. 노인은 "나는 일정한 주거가 없이 인연에 따라 오갈 뿐이며 이름은 난승(難勝)이라 한다"고 하였다.

자신의 뜻을 거듭 밝힌 그는 이웃나라의 침범을 물리치기 위해 비방(秘方)의 술법(術法)을 가르쳐달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일곱 번을 계속해서 간절히 청하였다. 그러자 노인은 "그대는 나이가 어리면서도 삼국을 통합할 마음을 가졌으니 어찌 장하다 하지 않겠는가?"라고 말하고는 비법을 전해주었다. 그 때 노인은 "(이 술법을) 신중히 해서 함부로 망녕되이 전하지 말라. 만일 의롭지 못하게 쓰게 되면 도리어 그 재앙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말을 남기고 그곳을 떠나갔다. 그는 미륵의 사자(使者)인 도솔천왕 난승이었다. 〈삼국유사〉 '태종 춘추공' 조는 김유신이 33천(天)의 한 아들로서 신라에 강생했다고 적고 있다. 33천은 욕계 제2천인 도리천(忉利天)이며 이 하늘의 주재자는 제석천(帝釋天)이다, 제석은 여러 하늘의 무리들을 거느리고 불법을 수호하는 호법(護法), 권선(勸善), 호세(護世, 國土)의 천신이다. 난승으로부터 비법을 전해 받은 김유신은 다음해인 18세에 이르러 국선이 되어 용화향도를 이끌었다. 이후 그는 미륵불에 대한 신행의 힘으로 삼한일통을 이루어 통일의 주역이 되었다.



고영섭 교수(동국대 불교학과)

미륵은 청년 · 논사 · 자씨보살로 분류
미륵이 땅에 하생하면 세상이 화목해져

풍월도 진흥왕의 미륵신앙 영향 받아
화랑은 용화향도 · 미륵신도로 불려

풍월도 이끄는 국선은 미륵불을 상징
김유신은 18세 국선에 올라

사단법인 한국불교 연화조계종
종도모집
(법인 설립허가 제 2010-17호)

(사) 한국불교 연화조계종 법우들의 모임인 금강회에서는 석가존자 전법 77대 법손인 운허당 연화대종사님을 종정스님으로 모시고 총무원장 보월 큰 스님의 뜻을 받들어 종단 발전을 위해 함께 정진 탁마 할 뜻 있는 스님들의 입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입종스님들은 불교전통의식 및 영남 범패의식을 함께 배울 수 있습니다. 많은 입종 바랍니다. (입종비는 없습니다)

◆ 총무원 : 경북 포항시 북구 죽장면 입암리 구운사(九雲寺)
전화 054)231-3101 / FAX 054)242-9301

(사)한국불교 연화조계종 금강회
회 장 혜 인 합장 010-3329-5478
총 무 정 인 합장 010-9455-9060

안양과학대학 평생교육원
명리학 초,중고급과정 육임 실전과정반
오천년의 문화유산 동양역학을 습득하여 지혜로운 삶을 영위하고자
지난해에 이어 사주명리학 초,중고급 과정 및 신규 육임실전반을 개설하였습니다.

< 모집안내 >
명리학 초 급 과정 20명 학기당 30만원
명리학 중고급 과정 15명 학기당 30만원
육임학 실전반 과정 20명 학기당 30만원

문의처 031)441-1090
www.ianyang.ac.kr
안양시 만안구 안양3동 922-1 (평생 교육원)
명리담당자 h 010-9804-8801(이종인)
명리담당자 h 011-791-8222(윤석정)
육임담당자 h 010-4471-6410(공 념)

기치유란?
기치유사의 치유 에너지를 환자에게 넣어주어 병을 치유하는 기법이다.
1. 원인을 알 수 없는 증상 : 병원에서 멀쩡하다고 하지만 몸이 아프다. 2. 상기증 : 얼굴이 벌개지고 기가 위로 뜬다. 불면, 숨을 쉬기 힘들다. 답답하다. 3. 산후풍 : 무릎 어깨 허리 골반이 시림. 땀과다. 무기력, 춥고 시리다. 4. 구안와사 : 어느날 갑자기 물을 먹는데 물이 샌다? 얼굴 한쪽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다.
5. 척추 측만과 디스크 : 척추가 틀어졌다. 허리가 아프다.
6. 직업특성상 사기, 탁기가 몸에 들어와서 몸이 항상 피로하고 무겁다.
그외 일반적인 증상들은 더 빠른 회복을 보실 수 있습니다.
* 본 연구회에서는 몸을 주무르거나 누르는 등의 편법적인 방법이 아닌 정통 기치유만을 전수 시키고 있습니다.
기치유 수련은 이런 병증들을 치유할 수 있는
* 능력을 배우고 발전시키는 수련입니다.
* 당신도 치유 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 치유 능력이 있다면 한단계 높일 수 있는 기회입니다.
60기 기치유 양성반 개강!
개강일자 2012년 3월 27일(화) 오후 7 : 00 ~ 9 : 20
기간/장소 8주 과정(주1회)/서울 교대역 기치유 수련원
수련지도 윤한흥 저서 : 기치유와 기공수련 / 기치유학/진실과 거짓 전)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외래교수/(주)명상신문 논설위원
문 의 교대역 4번 출구(서초동 단우빌딩 3층 윤기치유명상수련원)
기치유센터 서울 교대(본원) : 02-3482-5032, 5065
대구 : 053-652-2202 / 구미 : 010-3233-4994
한국 기치유 연구회 Energy Healing Center 홈페이지: gihealing.com 다음카페: cafe.daum.net/Gichiu

제1회 한국불교 홍익범패단 학인모집 (서울범패)
소승은 한국불교 범음범패 및 불교무용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10여년을 연구하고 공부해 온 염불승으로서 한국불교 홍익범패단 창단을 꿈꾸고 있습니다. 뜻있는 분들께서는 직접 오셔서 일차로 청강하시고 뜻을 함께 하실분은 연락바랍니다.
강의내용
1. 기초 : 삼귀의, 사홍서원, 거불, 도량석, 종송, 조석예불, 사시불공, 요령, 목탁, 태징,북 등 사물 다루는 법.
2. 중급 : 시련, 대령, 관욕, 신중청, 상용영반, 관음시식, 고혼소, 봉청(짓소리), 39위, 복청게, 고혼청, 현좌게, 진령게, 칠언사구성, 가영, 향화청, 고아일심귀명정례, 긴소리, 짧은소리
범패 – 요잡바라,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화의재바라, 도량게, 다게, 법고춤, 호적
3. 상급 : 시다림, 다비, 일반장례, 산신제, 용왕제, 방생, 생전예수재, 수륙재, 종사이운, 괘불이운, 종사영반 화청, 공덕게
■ 개강일시 : 2012년 3월 27일(화요일) 오후2시 ~ 6시까지
■ 접수기간 : 수시모집
■ 회 비 : 월10만원, 6개월 50만원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 반명함판 사진 2장
■ 장 소 : 김해사암연합회 불교문화원 3층 법당
■ 주 소 : 김해시 홍동 7-5번지
■ 전 화 : 055)322-0088 / 055)332-1675
■ 강 주 : 민지효 010-4466-3575

생 활 안 내

▷ 문 의 : 02) 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empal.com
▷ 가 격 : 1Box (4.6×4.6) 4만원, 1Box (9.2×4.6) 8만원, 상단 Box 12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어리석은 자의 재주와 힘은 전혀 이익이 되지 않고
오히려 독이 되어 자신의 복과 지혜마저 파괴하고 만다

– 법구경 –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금정사 대명 합장(부산)

역학계 최초!

40년 지도경험 총정리
물상 비법전수
숨어있는 조상영가의 비밀전수
(수강즉시 상담가능, 책임지도)
– 사주, 궁합, 작명, 이사, 택일
– 영가지도, 퇴마, 빙의
(보경사 주지스님 직강)
(부산) 010-3591-5277

불교전통(범음,범패)

불공 해드립니다
49재, 천도재,
점안, 예수재, 수륙재,
각종불공(바라, 작법)
010-2200-8176

역학·빙의퇴마

개인지도,직접상담
1.역학 : 사주,궁합,택일,성명학
2.최면,전생요법,귀신들린병 퇴마
3.빙의(신병)출장 퇴마해 드립니다
4.빙의,전생,우울,공포증,상담
011-772-4606
031)842-8023
의정부 비룡정사 제행스님

초혼 재혼 인연찾기

불자 독신 남녀 , 결혼, 친구
연인 인연 지어드립니다.
성실하고 진실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전화상담 환영
원갑사 인연찾기
02)365-1345
010-9114-4345

국제불교지도자협회

종단가입 및 봉사단
회원 모집
일불 제자의 기치로 사찰 운영 및
모든 행사에 품앗이 정신으로
함께하고자 합니다
종단을 불문, 불교인이면 누구나 환영
전화 02)733-5665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49재회향·바라무·
점안식·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1-850-0176

49재 천도재 전문

사찰행사, 각종불공, 산신재
점안, 바라무, 나비무,
회심곡, 구병시식,
산사음악회 뒷풀이
010-8676-6132

능엄신주, 영가천도

우울증, 지방간, 스트레스,
학교폭력
가정방문 회사방문
상담 기도해 드림
꿈바위불교교육원
010-6789-5008

쉼 터

석정수 스님의
기적의 비법
대체의학
약사여래 가피로 만병을 환부
손으로 직접 뽑아 버리는 신비의 약손
치유, 빙의, 정신병, 신경통, 위장병, 요통,
중풍, 갑상선, 우울증 등 잡신의 병.
•사업성취 업장소멸 여러가지 상담을 기다립니다.
* 노숙자 식사제공, 스님 건강 보살펴 드림
양주시 장흥면 부곡리 약사선원
010-2766-7677

연말정산 발급 사찰로 등록

사암, 신행단체
신규 등록 접수
단체명은 한학선원(사)로
등록됨
041)544-4441
도평 스님

동영상 기문성명학

평생운을 볼 수 있는 한글성명학
용신, 실전사주. 고급-일진내정법
(명반법,낙화법), 육효, 기문둔갑
누구나쉽게단기간에배울수 있음.
범 천 명 리 강 의 실
02)389-6597
www.beumchun.com

백발 백중 정확한 비방술을 출판하였다

*일반서적에는 공급하지 않습니다
정가 25만원
농협 : 352-0284-3938-73 하영옥
010-4735-3232
범 송

영남범음범패

학인수시모집
사다라니바라. 천수바라.
나비무 (2개월 완성)
* 천도재 해드립니다.
010-9370-4043
경북 경산 금박산 불교 교육원

우주기(氣)천도재

재물을 차리지 않고 특별한 우주기(氣)천도재?
1.시공을 초월한 천도재법?
2.목탁,염불을 하지않는 새로운 천도재법
3.빙의치료,퇴마,천도재 전문
4.조상,빙의영가와 직접대화를 통한 천도재
※ 질병, 액운, 우환이 많은분 상담
일광사 011-586-6091
031)321-9555

영통철학 1개월 완성

비급전수로 1개월 만에
▷ 바로 상담가능
▷ 방문지도 가능
(동국대학교 대학원 졸업 석사)
정광 합장
010-2586-7938

역학 기문둔갑 (명리)

상담 비법전수
– 영업하고자 하시는 분
(수강즉시 바로상담 책임지도)
– 역학 : 명리, 기문둔갑으로
영가지도. 병방론 지도.
사주,신수,궁합,성명학
우울증,공포,빙의퇴마(직접상담)
묘불사 주지 직강
051)557-5075
010-2507-1042

웰강 .황토.상황. 氣토굴.쑥 뜸방

특허받은 훈증침대
누워서 허리 뜸, 배에는 단전 뜸
앉아서 좌훈 뜸, 편안히 무릎 뜸
잃어버린 건강, 사고 후유증
편안히 꼭 건강 찾아 장수하세요.
훈증 침대 특허번호 제10-2011-011722호
www.wellgang.co.kr
가맹점 모집 011-573-4438

역학 개인지도

1. 사주,궁합,택일,조상,성명학
2. 가장 알기쉽고 정확하게
3. 음양오행의 근거로 강의합니다
4. 단기간 완성
5. 개인 및 그룹지도
6. 출장강의도 환영함 (사찰포함)
010-4237-9088

수험생 • 고시생

하숙 : 4명으로 한정
속가와 떨어진 고요한 환경
경남 사천시 용현면 용치리
(와룡산 선덕사)
016-849-3858

(재)대한불교제일조계종

종도모집
승려증, 사찰등록증,
주지임명장 발급
사찰 행사시 적극후원
총 무 원 061)755-5544
팩스 753-5577
총무원장 010-8315-2100

신심있는 비구니 (30~40대) 스님 모십니다

(삼척 대덕사)
011-9416-7743

전통의약 비법전수(포교활동)

• 전수내용 : 악성골수염,악성무좀, 악성피부염 ,악성축농증, 악성피부종양,버거씨병 등으로 병원에서 완치 어려운 분에게 해당됩니다.
• 전수희망자 : 포교하실 스님(유료)
• 무료치료 : 아픈스님께 무료보시합니다.
010-3028-6579

영통호흡기도

• 영과 통할 수 있게 하는 호흡기도법을 스님에게 일러드립니다.
☎ 032)664-0048 / 011-741-0867

무형문화재 범음범패

전통불교조계종 총본산
제 9호 부산영산재 연수원(바라, 작법) 3개월과정 학인모집
◆ 무형문화재 제9호 영산재 천수바라 작법무 ◆ 사물 ◆ 불교의식
특전 1. 본교(졸업) 우수한 자는 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 추천
특전 2. 부산시 문화재 행사 출연 실무
사찰 행사전문 (부전스님, 사찰소개 문의, 사주명리 영가 찾는법)
◀ 전통불교조계종 입종안내 ▶ 010-2563-5550
(사)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전통불교조계종 총무원

천도재. 49재 의식 배우며 기도하실 행자, 기도스님 모십니다

(대전, 60세 이상도 가능)
018-220-0566

전통불교의식 무료수강

의식을 배우고자 하는 비구,
비구니 스님 모집
출가행자 수시모집, 모든 의식
출장 집전해 드립니다
스님 달마 저렴하게 드립니다.
임진년 윤달 묘지 탈붕 회향 문의바람.
055)323-3569
010-2553-8827

비구니 기도스님

(서울 도심 포교당)
011-229-6061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남 합천, 60세 전후)
010-9506-5706

불영TV

불영TV는 인터넷방송으로 영상 뉴스 다큐 법문 행사사찰순례,산사음악회]등 의 영상사업전반 에 걸쳐 토탈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를 지향하고 영상포교의 선구자가 되고자 합니다.

■ 원통스님 관세음보문품 CD27장	190,000
■ 예불대참회문 DVD 52장	290,000
■ 원순스님 신심명 12장	120,000
■ 능엄주(도민스님)DVD동영상+오디오CD	15,000

www.bytv.kr 영상제작 및 구입문의
02)2236-7209,010-8519-9279 〈 법보시 상담환영 〉

전통 범음범패 (바라,작법) 과정 학 인 모 집

삼귀의 ,사홍서원, 거불
1. 교육과목 :
기초 –도량석, 아침종송, 사시마지, 저녁예불, 각단예불, 목탁, 요령, 북, 태징, 동광쇠, 타법
기본 –천도재의식 : 1. 시련,대령,관욕,39위.
2. 봉청짓소리,대령소(고혼소)복천게, 향화청(짓소리),고아일심귀명정례, 긴소리,짧은소리
3. 상단, 관음시식, 상용영반
4. 천수바라,사다라니바라, 요잡바라, 화의재바라
5. 나비춤(도량게,다게)
고급 – 생전예수제,수륙재,방생,시다림. 종사영반 , 다비식, 종사이운, 괘불이운
2. 개강일시 : 2012년 3월 31일 개강
3. 교육시간 : 매주토요일 오후2시 – 오후 6시
4. 수 강 료 : 입학금 10만원 (교재비 별도)
5. 접수처 및 강의장소 : 한국불교태고종 부산서부종무원사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3동 1162–1서강빌딩5층호)
6. 제출서류 : 수강신청서 1부 (본종무원에서 교부) 반명함판사진1매
7. 접수기간 : 상시
8. 연 락 처 : 051)442-1818 / FAX : (051)442-1817
010- 2554-5582 (총무국장)
한 국 불 교 태 교 종 부 산 서 부 종 무 원

양 도 공 고

(법원 등기된 종무법인 임)
법인 불교단체양도
법인 종단 양도
011-412-8040 법광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기, 비구니 사찰)
011-9491-9227

서울 경기지역

문중 절, 시골집, 가든, 법당
무상임대나 저렴가격 관리
맡기거나 불사에
도움 주실분 찾습니다
010-3131-0772

3년 동안 숙성한 진짜 100% 효소 145가지의 약초가 들어간 백초 효소

백초효소는 불가에서 승려나 수도자들이 오랜기간 토굴에서 참선하면서 위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머리를 맑게 하기위해 먹던 약초입니다.
< 백초효소를 권장하고 싶은 사람 >
– 목과 어깨가 빠근함, 일어설 때 느끼는 현기증, 만성피로, 두통, 불면증, 비만, 변비, 요통, 식욕감퇴, 불임, 생리불순 등 자율신경 실조를 인한 제반증상과 갱년기 장애 등
– 각종 암, 당뇨병 등 만성병을 근본적으로 개선을 위한 자연요법을 실시할 경우 최고의 자연식품.
시중시세 절반 스님들에게
보급가액 1병 5만원
(2병이상 주문 시 택배비 무료)
* 보급처 신도불이 영농조합
cafe.daum.net/jijangsw.8899
근 경상북도 군위군 고로면 화북리 458-1번지 부처골 지장선원 ☎ 054) 383-8553 , 011-9585-4908
입금계좌 : 농협 703088-51-013554 예금주 : 지장선원

한국불교대학 신입생모집

대구큰절,경산,칠곡,구미,포항,서울동대문, 감포, 영천, 미국 뉴욕, 중국 칭다오, 호주 시드니
3월 동시모집
'저거는 맨날 고기묵고' 저자 우학스님 직강!
■ 화요일 저녁반, 목 · 금요일 오전반 , 토 · 일요일 특별반 / 주1회 공부
■ 실참(기도, 참선)하는 불교대학 – 누구든 입학가능!
■ "기도의 힘"책과 가방을 선물로 드립니다.
※ 입학문의 ☎ 053) 474-8228 – 다음카페 : 불교인드라망 – 홈페이지 : 한국불교대학
행자(예비스님) 모집 ☎ 010-9562-8228
<대구도심사찰 최초! 납골당 운영>

생활역학강의 : 전문교육처 (주간반) (야간반)

1)초급 4개월 : 중급 4개월 : 연구 4개월 : 실증철학 고자강 이석영 고단원 이병렬 선생의 정통학문
2)정규야간반신설. 월요일 오후 7시 ~ 10시. 수시접수
3)특강 사주통변실전반 : 수요일 오전 9 ~12시. 수시접수 역학은 배웠으나 통변이 어려우신 분들의 특강반 핵심적인 용신법을 바로 알아낼 수 있는 비법전수한 눈에 오행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전수
4)작명학 연구반 : 실증성명학전서 : 수시접수 본명사주의 격국법 조후법 통관법 병약법 억부법 오행균형법 부족된 원형이정의 수리법 자원보충법 음령법 호성법의 체계적인 이론과 사상체질법 등 정통작명 비법을 전수 합니다
5) 종합 개인지도 : 수시모집 명리정통 정규반 + 작명 + 관상 + 수상 + 타로
단 원 역 리 학 회 동대문구 T : 2243-9598. H.P : 018-470-6314
지현역리학연구원 http://kr.blog.yahoo.com/han10305

행자(비구니) 구합니다

1. 신체조건에 관계없음
2. 학력 관계없음
3. 나이 관계없음
4. 불법을 구하고 수행정진에 전념할 수 있는 사람
011-858-0306

관 광 버 스

대우차, 2003년식, BH120,
6기통, 43인승,
노래방, TV양호, 타이어양호,
엔진양호, 무사고, 전체도색(빨강)
가격 : 1천 9백 7십만원
010-8675-3384

탈 종 공 고

• 사찰명 : 광명사
• 주 지 : 정조 (장삼례)
• 주 소 : 충북 음성군 음성읍 삼생리 893번지

상기 본인(사찰)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21일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 법하

365 좋은인연

사찰대출안내

32년의 역사와 자산770억원을 자랑하는 형산새마을금고는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불교은행**입니다.
새로운 **불사**나 **사찰매매**와 관련하여 자금이 필요하시거나 **사찰이라는 이유만으로 아직도 비싼 이자**를 물고 계신다면 주저하지마시고 전화주시면 좋은 인연이 될 것 입니다.

형산새마을금고의 사찰대출은 이런점이 좋습니다~
❶ 1억원 대출시 월이자가 60만원으로 저렴합니다 !
❷ 위약금없이 형편에 따라 조금씩 갚으실 수 있습니다 !
❸ 대출기간은 5년이며 만기시 연기가 가능합니다 !
❹ 단체명의사찰과 종단 소속사찰도 대출가능합니다 !
❺ 강원도 부터 제주도 까지 전국 어디든 가능합니다 !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365 친절상담
상무 이 강 욱
☎ 010-9842-4200
과장 김 상 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사찰화재보험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 가입시 필요자료
· 사찰등록증
· 각 전각의 건축(증, 개축)년도 면적
보험사 현장 실사후 보험가입 함
사 찰 화 재 보 험
서일석(圓明) 합장
010-7344-1881
서울 중구 초동 21-9
동부화재빌딩 1704-1
※ 원거리일 경우 소정의 출장료가 있습니다.



해 명 공 고

현대불교신문 제879호(3/14일자)에 25면에 게재된 **'무안 약사사에 관한 탈종공고'**의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주지스님으로 임명된 원진스님을 비롯하여 신도회에서 정상화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탈종공고 하단에 기재된 비상대책위원장 및 신도회장은 무안 약사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2년 3월 21일

대한불교법상종 약사사
주지 원진. 신도회장 합장

불 자 정 보 26 | 880호 | 전면광고

2012년 3월 21일 수요일 / 불기 2556년

▷ 마 감 : 매주 월 ~ 수요일
▷ 문 의 : 02) 2004-8215 / FAX 02)737-0696 / e-mail : jabi82@naver.com
▷ 가 격 : 기본규격 50,000 / 가로 7cm 70,000 / 가로 10cm 100,000 (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 법당 : 30평
- 요사 : 120평
- 부지 : 1,500평
- 가액 : 18억

※ 9억 지불후 잔여금 후불 가능. 조절 불가임

- 위치 : 부산
- 법당 : 30(목조)
- 요사 : 70평
- 부지 : 150평
- 가액 : 6억 8천

- 위치 : 경남
- 법당 : 15평
- 요사 : 36평
- 부지 : 1600평
- 가액 : 6억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사 찰 안 내

- 한번 가보고싶은 사찰
- 지리산 천왕봉 아래 위치 최고(목조건물)
- 아주 완벽한 전통사찰
- 대웅전 27평(토굴) 황토, 요사채 55평
- 법륜전 70평 6개 각방 욕실완벽
- 등산로 끝까지 도로 포장되어 있음
- 현공풍수학으로 (최고좌향)
- 가액 8억

010-4586-4525

명당사찰터

경주 남산 풍수와 환경 완벽함
뒤산에는 큰소나무가 병풍처럼
둘러있고 건축허가 토목공사
돌담장까지 완성
등기면적 623평 실제사용 850평됨
평당 63만원

010-5014-1456

사 찰 안 내

- 물좋고 공기좋은 경북 왜간사찰
- 부지 2천 5백평
- 법당, 삼성각, 용왕당, 공양간
- 영천에 임야 2만 2천평
- 대출 1억 6천포함
- 총포함 4억 9천만원

010-7246-0100

포교원안내

- 대구 북구 읍내동 2층 50평
- 최고시설
- 법당1, 방3, 공양간 1, 창고방1, 화장실1
- 보증금 1천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답사 후 결정

010-9199-7897

광진 사찰 안내

- 위치 : 서울
- 부지 : 90평
- 법당 : 30평
- 요사 : 40평
- 가액 : 6억2천

- 위치 : 서울
- 부지 : 300평
- 법당 : 20평
- 요사 : 30평
- 가액 : 12억

※ 오랜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전국 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운영, 구하는 사찰 있습니다.
※사찰양도양수전문, 고불, 석불, 골동품, 탱화, 상담받습니다.
전국 사찰 암자 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사 찰 및 토 굴 안 내

창 원

- 대지: 200평(국유지 500평)
- 법당 20평, 원통전10평, 지장전 20평
- 용왕당 6평, 삼성각 6평, 요사방 3칸
- 전통한옥으로 전각 다수
- 가액: 6억 (은행 2억 포함)

토굴(부산 지하철 10분)

- 대지: 150평(국유지 70평 포함)
- 법당 (용왕당 물 철철) 17평,요사채, 방3칸
- 뒷산 공원 접, 주택 밀집지역
- 정남향, 사찰역사 38년
- 총가액 : 2억

부산 사찰 전문 연산공인중개소

※공양주 구함 (수수료 없음)

직011)560-8522,051)863-6622

포교원안내

- 위치 : 경남 김해
- 3층 53평 전체
- 법당, 아미타불, 관음소불 50
- 후불탱화, 신중탱화, 영가단
- 주방, 큰방3, 큰 대기실, 해우소
- 보증금 2천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답사 후 결정, 몸만 오시면 됨
- 스님 건강 관계로 급양도

010-4323-0087

포교원(급)안내

- 위치: 대구 동구 신암동
- 3층건물중 2층(45평)
- 삼존불,산신, 각탱화, 소불270,지장관음
- 친견실,방1,공양간,창고, 수세식화장실,세면실
- 에어컨,집기일체완비
- 몸만오시면즉시법회가능
- 보증금500만원 월45만원
- 시설비 3000만원(조정가능)

010-2224-8967

토 굴 안 내

- 위치: 충남 금산 남이면 소재
- 총 680평 중 대지 280평
- 건평 40평 요사채2동
- 1동-방3,거실겸주방, 목욕탕,화장실2
- 1동 - 방1, 거실1, 목욕탕, 화장실1
- 현, 임시 법당으로 사용
- 법당, 불사자재 다량보유, 토목공사 완료
- 가액: 1억 7천만원

010-5114-0172

사 찰 안 내

- 위치: 울산 북구 시내
- 약 500평
- 산신각1, 용왕당1, 법당1, 요사채1
- 주차시설완비
- 가액: 3억 3천만원
- 스님 건강상 급 양도(조절가능)

011-595-1522
011-874-1593

토굴(급)안내

- 위치 : 경북 청도군, 대구 20분거리
- 대지 240평, 건평 57평(한옥)
- 2억 3천되는 토굴을 1억 500만원에 급 양도
- 대출 5500만원 별도
- 꼭 필요하신분만 연락주세요

010-4366-7950

사 찰 안 내

- 사찰,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 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 은행 · 일반융자 좋은 조건으로 알선해 드립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암자, 기도원, 연수원, 명당터 확보함

포교원안내

- 위치 : 부산 기장군 기장읍 천광리
- 천수천안관세음, 신중탱화,
- 후불탱화, 소불
- 방3, 공양간, 탈의실 별도
- 시설비 1800만원
- 전세 1000만원, 월 50만원

051)721-8350
010-9243-8350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도심속 조용한 산밑
- 남향 , 지하수 사용
- 대지 186평, 법당 건평 목조 25평
- 요사 26평, 주차 10대가능
- 가액: 4억 9천만원

010-6554-6198

포교원안내

- 위치: 경남 밀양시
- 평수 70평,
- 보증금 500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2000만원
- 즉시 법회 가능
- 몸만 오시면 됨

010-8390-6654
010-7154-6654

사 찰 안 내

- 충남 공주시 유구읍 연종리 21-6번지 세종시에서 40분거리
- 임야 840평, 대지 종교용지 683평, 전 150평 - 계 1673평
- 대웅전,목조 , 외5포, 내7포, 설선당, 삼성각,석굴암,기타참고,해우소등
- 2006년 신축 경관 화려
- 가액: 6억 5천

041)551-8672
011-9413-8040

토굴(급)안내

- 위치 : 경북 청도군, 대구 20분거리
- 대지 240평, 건평 57평(한옥)
- 2억 3천되는 토굴을 1억 500만원에 급 양도
- 대출 5500만원 별도
- 꼭 필요하신분만 연락주세요

010-4366-7950

〈 다음카페 : 이박사 공인중개사 〉

♣ 사찰안내는 사찰부동산전문 이박사에게♣

- 전국에 도량을 구하시거나 매도 하실때는 이박사에게
- 전국에 수백건의 사찰매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참되고 좋은 인연을 찾아드립니다. (방문접수.비밀보장)

■사찰, 암자, 토굴 포교당, 사찰부지 매매,임대 전문중개사

직통: 010-7347-1010 <이박사(이규철)드림>

■ 사찰,암자,토굴,포교원 양도 급히 구함!!!

사찰(급)안내

- 위치: 경기 포천시 송우리 근교
- 1층 50평, 위패단
- 2층 법당 35평
- 요사채, 공양실20평, 선방 6개
- 산신각, 휴게실 20평
- 가액: 14억(상담 후 절충)

010-7130-7246

사 찰 안 내

- 위치 : 진주에서 7분거리
- 등기 실평수 553평, 기타 평수 있음
- 대웅전, 천불전, 요사채, 방 35개
- 산신각, 종각, 용왕당
- 주차 40대가능
- 가액: 6억 5천만원

(현지 답사 수 조절가능)

010-9889-3188

포교원안내

- 위치: 원주 도심포교원
- 구옥 -안채, 법당, 스님방 1, 거실, 화장실, 보일러실, 마당,
- 주위에 주차공간 넓음,
- 구옥별채 - 산신각, 화장실, 방1, 주방, 창고
- 보증금 200 월55만, 시설비 1,100만원

010-4028-3622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남 논산시 가야곡 야촌리
- 대지 125평 조경완벽
- 법당 20평, 산신각 5평, 요사채 10평, 공양간 15평, 연못
- 석물- 5층석탑, 해태 1쌍
- 가액: 1억 3천만원

011-9004-1492

사 찰 안 내

- 위치 : 청남 논산시 가야곡 야촌리
- 대지 125평 조경완벽
- 법당 20평, 산신각 5평, 요사채 10평, 공양간 15평, 연못
- 석물- 5층석탑, 해태 1쌍
- 가액: 1억 3천만원

011-9004-1492

사찰 및 부전스님안내

- 사찰 또는 포교당 양도, 운영하실분
- 부전스님이 필요한 사찰
- 부전 생활이 필요한 스님
- 사찰만을 전문으로 안내하며 부전스님 안내드립니다.

♣ 부전생활에 필요한 덕목 및 사시예불. 목탁. 전문의식 단기교육

도심 속의 산중사찰

- 부산 동구 범일동
- 총대지 98평
- 건물 1층 70평 (법당 35평, 공양간등 8방)
- 2층 35평(법당35평, 방2)
- 가액: 3억 5천만원(전세 절충)

010-5511-7000 / 070-4128-8975

(부산푸른부동산) 혜화.보현 합장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대전 중구 대흥동
- 도심 포교원 최적입지
- 대전역 도보 7분, 중앙시장 4분
- 건평 70평. 3층
- 법당 25평, 방사 4, 차실
- 제반시설완벽
- 전세보증금 1천만원, 월 42만원
- 시설비 3500만원

011-622-9672

암 자 터 안 내

- 구례 토지 문수리 908-1
- 관리지역 , 논 400평
- 가액: 4천 3백만원
- 대출 3000만원
- 연곡사와 화엄사 중간 문수골
- 정남향

010-9393-4965

도심포교원안내

- 위치: 경남 창원 도계동
- 3층 대형 상가건물 내
- 2층 45평, 큰법당에 시설 완벽
- 가액: 시설비 포함 1억 8천만원

010-4668-6550

암 자 안 내

- 위치 : 충북 보은군
- 임야 전답 총 15000평
- 법당 25평
- 요사채 10평
- 가액 1억 9천만원

010-9967-9832

사 찰 안 내

- 위치 : 청주 상당구 시내 중심가
- 대지 95평, 건평 100평
- 법당 35평, 방4, 거실, 화장실
- 미륵부처님 1분, 삼층석탑 1 삼존불, 108후불
- 산신각, 산업용전기보일러
- 가액: 답사후 전화 상담
- 현재운영중

010-8121-3334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남 나주시 인근
- 총평수 637평, 전건축물 목조
- 대웅전 30평, 요사채 20평, 공양간 10평, 해우소3평반
- 청돌암반지하수 130mm, 물수량 100톤 일급수 cc카메라시설
- 사찰경내지 계곡물흐름 잔디 및 조경완벽
- 무안-광주간IC 5분거리 1호선 국도 8분거리
- 개인사찰, 꼭 하실분만 전화요망
- 가액: 5억 5천만원 (조정가능)

010-6375-0108

사 찰 부 지 안 내

- 위치 : 삼천포 남해안 바닷가
- 전망최고, 위치 최고의 부지
- 토목공사완료, 즉시건축가능
- 4차선국도인접 , 진주에서 15~20분 거리
- 1천평에서 2천평
- 가액: 전화상담

010-6776-3308

포교원안내

- 위치: 부산 동구 구봉산 사찰
- 내용: 전망 좋은 도심 산자락
- 80년된 청정기도 도량
- 대지 50평, 국유.사유지 50평
- 1층 요사채 50평 (방4, 공양간1, 관음전)
- 2층 법당 35평 옥탑, 해수관음입상
- 공원이 조성되어 주변 환경이 좋으며, 공영주차장 100여대 완비되어 있음
- 2억 8천만원(대출1억 가능)

010-8660-5810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 영천시 고경면
- 대지 250평
- 법당 25평(삼존불) 종무소 10평,
- 전체조립식건물,요사채방5개
- 난방시설(전기,기름,화목)겸용
- 집기일체완비 인계
- 큰길에서 5분거리
- 몸만들어오시면 즉시법회가능
- 가액 : 1억 5천만원

016-290-6699

사 찰 안 내

- 부산시 금정구 지하철 10분 이내 거리
- 1층 요사채(화장실 2개, 방4개, 거실), 2층 법당
- 신축개조, 법당, 단청일체
- 삼존불 은행목불, 원목불단, 108소불 있음
- 1층 약사불, 포대화상
- 2층 산신, 용왕, 독성 별도
- 위치좋고 옆 공원 산세 좋음
- 스님 건강 관계로 9억

010-2503-0776

사 찰 안 내

- 위치 : 청주 상당구 시내 중심가
- 대지 95평, 건평 100평
- 법당 35평, 방4, 거실, 화장실
- 미륵부처님 1분, 삼층석탑 1 삼존불, 108후불
- 산신각, 산업용전기보일러
- 가액: 답사후 전화 상담
- 현재운영중

010-8121-3334

경 남 진 주 암 자 안 내

- 동진주문산 IC에서 5분거리 시내에서 10분거리
- 법당-20평 조립식(아미타삼존불, 지장소불200불)집기일체드립니다
- 상담실8평, 공양실11평, 요사채 35평(적벽돌 철근슬라브) , 삼성각8평, 창고 20평, 대지 200평
- 밭. 남의 땅이지만 여유로운 200평 무상보시 사용가능
- 가액: 2억1천7백만원(대출 8000만원가능)
- 연락이 안될 경우 문자 남겨주세요

010-2326-1257

임 자 및 절 터 안 내

위치 : 통영군 사량도 하도

- 토굴(암자) 양도
- 임야 210평 , 대지 40평
- 불구(불상,종,탱화등)
- 건물 등기 필
- 가액 1억

- 답 420평 (절터,산장,빌라 지을 수 있음)
- 임야 1,000평
- 가액 2억

055) 649-8219 / 016-483-1459
010-6569-7027 고법 등심 합장

포교원안내

- 위치: 대전 시내 포교요지
- 선원, 철학원, 살림집도 가능
- 대전역 중구청간 도보 10분거리
- 3층, 법당1, 방2, 넓은 홀 약 50평
- 실내화장실2, 다락1, 시설깔끔
- 보증금 500만원 월 30만원
- 시설비 1150만원

016-606-5658
010-6223-8297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 청도군 금천면
- 대지 154평
- 법당 15평,산신각, 2평
- 시설: 주방10평, 방 5개
- 주변경관은 산세수려함
- 가액: 1억 5천만원

010-8585-1383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 청도군 금천면
- 대지 154평
- 법당 15평,산신각, 2평
- 시설: 주방10평, 방 5개
- 주변경관은 산세수려함
- 가액: 1억 5천만원

010-8585-1383

포교원안내

- 위치 : 서울 강동구 명일동 방주 빌딩 2층
- 법당 : 삼존불, 후불, 칠성, 신중
- 방3개,주방,해우소1개
- 평수 : 45평
- 보증금 2천5백만원, 월100만원 가액절충
- 현재 법회중

010-5362-3370

포교원안내

- 위치 : 대구 달서구 송현동
- 4층건물에 4층, 전체 80평
- 법당: 삼존불 모셔져있음, 방2, 창고방1
- 보증금 2000만원 월 60만원
- 관리비 10만원
- 시설비 답사후 결정

010-4436-3447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남 나주시 인근
- 총평수 637평, 전건축물 목조
- 대웅전 30평, 요사채 20평, 공양간 10평, 해우소3평반
- 청돌암반지하수 130mm, 물수량 100톤 일급수 cc카메라시설
- 사찰경내지 계곡물흐름 잔디 및 조경완벽
- 무안-광주간IC 5분거리 1호선 국도 8분거리
- 개인사찰, 꼭 하실분만 전화요망
- 가액: 5억 5천만원 (조정가능)

010-6375-0108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남 논산시 가야곡 야촌리
- 대지 125평 조경완벽
- 법당 20평, 산신각 5평, 요사채 10평, 공양간 15평, 연못
- 석물- 5층석탑, 해태 1쌍
- 가액: 1억 3천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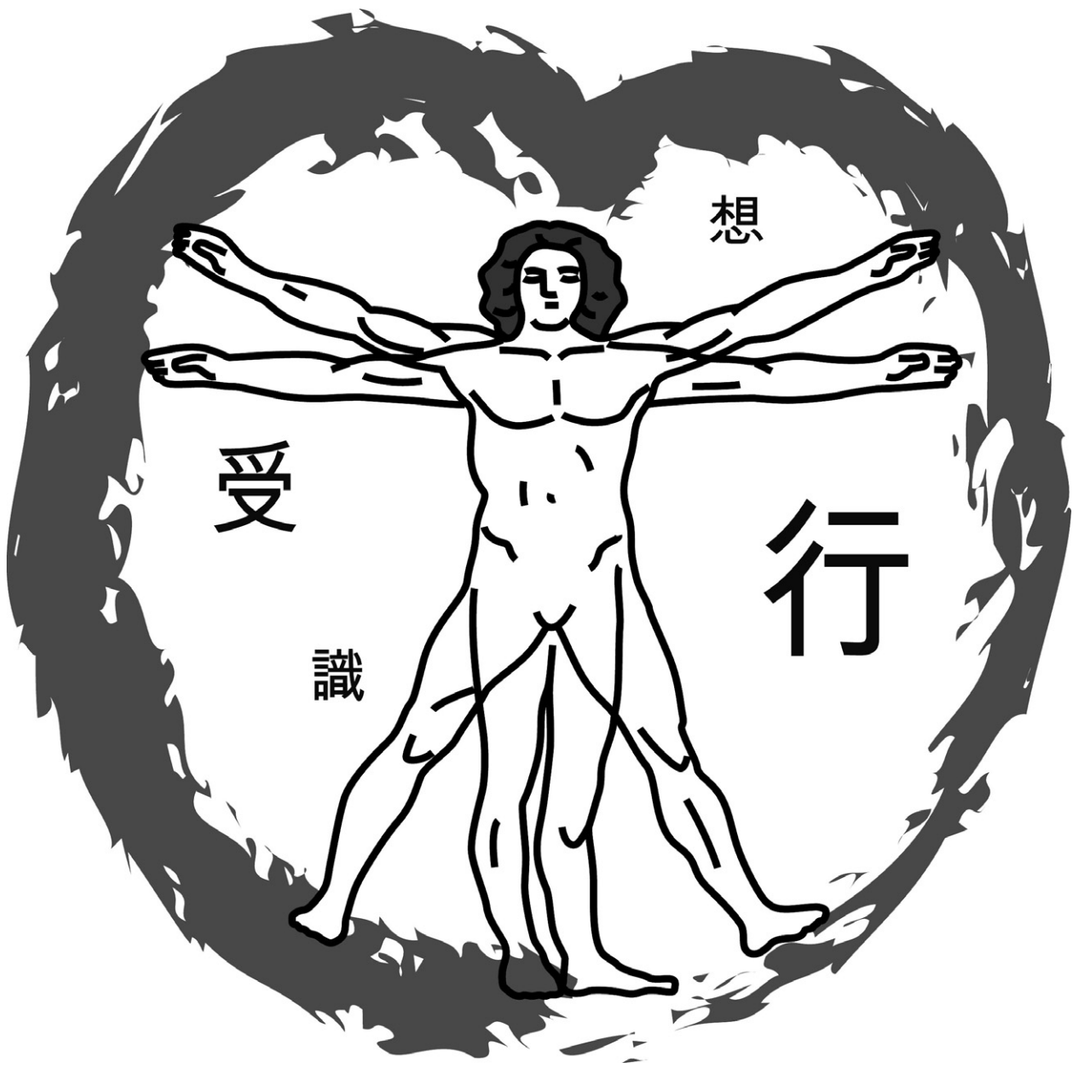
011-9004-1492

마음, 과연 무엇인가 - 불교의 심리학적 측면

베야닷시 스님 (스리랑카)

〈3〉 존재는 오온의 결합체
(사람)

존재는 항상 변화하는 정신 · 물리적 힘 일뿐



끊임없이 변하는 다섯무더기(오온)

자,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고성제를 위시한 사성제를 알자면, 인간을 구성하는 오온에 대해 분명한 관념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이 분명해졌습니다. 일상적 말로 우리는 흔히 '존재' 운운하지만, 궁극적 의미에서는 그와 같은 '존재'는 있지 않으며, 항상 변화하고 있는 정신 · 물리적(psycho-physical) 힘 또는 에너지의 발로가 있을 뿐입니다. 이들 힘, 또는 에너지는 무더기(蘊)를 이루고 있으며, 우리가 존재라고 부르는 것은 이들 끊임없이 변하고 있는 다섯 무더기의 결합체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면 다섯 무더기란 어떤 것들인가요?

불교에 의하면 사람이라는 존재는 마음과 몸의 '정신 · 물리적 결합체(名色)'입니다. 먼저 '마음'은 그 구성 요소를 네 개 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으니 첫째, 느낌인 '수(受)', 둘째, 감각적 인상(sense-impression), 심상 내지 관념, 그리고 개념을 말하는 '상(想)'과 셋째, 정신적 형성, 또는 행동 지향적 관념과 그에 따르는 부수적 요소들을 말하는 '행(行)', 그리고 마지막으로 '식(識)'입니다. 사람에게 있는 비물리적 요소들인 이들 네 개의 정신적 그룹들을 한데 모아 마음(名)이라 합니다. 여기에 물리적 요소인 몸(色)을 합한 오온(五蘊)은 소위 하나의 개체를 이루어 사람이라는 존재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불교도이건 아니건 간에 불교 심리학을 연구하다 보면 마음과 두뇌가 서로 별개의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마음과 두뇌 간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신활동은 뇌 전하(腦 電荷)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조작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화학적 실험에 맡길 수도, 오관으로 판별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물리적 세계의 영역을 벗어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의 성격과 구조와 작용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두뇌의 경우는 다릅니다. 우리는 그것의 위치와 구조와 작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마음은 외부의 영향을 전혀 안 받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요소들의 지배하에 있지는 않으며, 오히려 그들의 주인입니다. 사람이 진리를 추구하고 사물의 내적인 의미를 파악해서 그들의 비밀과 의의(意義)를 알 수 있는 것도 바로 마음이 사물의 주인이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 강연의 주제가 '불교의 심리학적 측면'이므로 이 자리에서는 몸, 즉 색온에 대한 자세한 논급은 피하겠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물질에는 사대(四大)가 있으며 사람의 몸은 이 사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사대는 견고성, 유동성, 열 또는 온도 그리고 운동 또는 진동으로 풀이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사대는 통례적으로 말하는 단순한 지(地), 수(水), 화(火), 풍(風)만은 아닙니다. 불교사상에서 특히 아비담마의 가르침에서, 사대는 그 이상의 것입니다. 아주 간략하게 말해 지(pathavi), 즉 견고성은 팽창의 요소이며, 수(āpo), 즉 유동성은 응집의 요소입니다. 화(tejo)는 열 또는 온기의 요소입니다. 풍(vāyo)은 운동, 움직임의 요소입니다. 대상에 따라 이 네 요소 간의 우열의 기복은 있지만 우리가 대하는 모든 물질적 대상들은 이들 사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네 가지 비물질적 요소들, 사람의 모든 정신과 정서의 전개 과정은 마음이라는 말 속에 포함됩니다. 불교를 공부하는 분들은 마노(mano), 찌따(citta), 윈냐나(viññāna)라는 빨리어에 친숙해져 있을 것입니다.

이들 단어들은 때때로 이런 저런 맥락에서 마음(mind)으로 번역되고 있지만, 좀 더 예민한 분들은 이 중 '윈냐나'를 식(識 consciousness) 또는 인지식(認知識 cognitive consciousness)으로 번역할 것입니다. 영어의 '마인드'란 단어는 윈냐나(識) 뿐 아니라 마노(意)나 찌따(心)란 빨리어 단어의 의미 역시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떻든 이들 세 단어가 유의어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 문맥에 따라서 이 단어들은 제각각 뚜렷하고도 특별한 용도를 가지고 있으며, 이렇듯 다양한 의미상의 차이야말로 심리학으로서의 불교의 면모를 과시하는 한 예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윈냐나'라는 용어는 불교 심리학에서는 한층 깊은 함축을 지닌 중요한 말입니다.

우선 서양에서는 마음을 어떻게 파악하는지 잠깐 훑어보고 다시 이야기를 계속하도록 합시다. 서양 심리학에서 마음(mind)은 "의식적, 무의식적 및 내재 심리적인 심리 구조와 과정의 유기적 총체, 여기서 내재 심리적이란, 심리학적이라기보다는 철학적인 면에서 이들 구조와 과정의 기반을 이루는 어떤 실재 또는 기체(基體:substratum)입니다.

다시 철학에서는 "마음은 주로 두 가지 뜻에서 쓰입니다. 1) 개별적 마음은 지각하고, 기억하고, 상상하고, 느끼고, 착상하고, 추론하고, 의도하는 등의 자아 또는 주체이며 개인의 신체적 유기체와 기능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2) 총칭적으로 생각할 경우 마음은 모든 개별 마음에 편재하며, 물체 또는 물질적 실체와 대조되는 형이상학적 실체입니다."

마음을 구성하는 네가지 무더기

이제 우리는 마음이라는 정신적 부분을 구성하는 네 가지 무더기, 즉 수(受), 상(想), 행(行), 식(識)을 하나하나 검토해 보기로 합시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마음과 몸 합한 오온
受+想+行+識=마음[名]
지수화풍 사대요소=몸[色]

마음은 화학적 실험
오관 판별 할 수 없으나
두뇌는 위치 · 구조
작용 등 설명가능

먼저 수(受)는 인상과 관념에 수반되는 느낌을 통틀어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즐거운 것, 즐겁지 않은 것, 무덤덤한 것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느낌들은 접촉에 의해 생겨납니다. 형상 또는 가시적 대상을 보거나, 소리를 듣거나, 냄새를 맡거나, 맛을 보거나, 만져지는 것에 닿거나, 정신적 대상(관념 또는 생각)을 인식함으로 인해(緣) 사람은 느낌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여섯 가지 느낌은 각기 눈, 귀, 코, 혀, 몸 그리고 마음을 통해 경험됩니다(불교심리학에서는 감관으로서의 마음은 의근(意根)으로서 제6의 감관으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눈, 형상, 그리고 보는 식(眼識)이 모이게 되면 이들의 만남을 촉(觸)이라 부릅니다.

촉은 감각기관, 감각대상, 그리고 감각식(識)의 결합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이들이 모두 함께 있을 때 느낌이 일어나게 되는 것은 필연적이며, 어떤 힘으로도 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다음은 상온(想蘊)입니다. 불교 심리학에서 상(想)의 기능은 물질이든 정신이든 간에 '대상을 지각'하는 것입니다. 상도 수와 같이 여섯 가지입니다. 형상, 소리, 냄새, 맛, 신체적 접촉 그리고 정신적 대상에 대한 지각입니다. 불교에서 쓰이는 지각은 베이컨 데카르트 스피노자 라이프니츠 등 서양의 철학자들이 사용한 지각과는 뜻이 다르며, 단순한 감각적 지각을 말합니다. 텔레파시나 천리안과 같은 초감각적 형태의 지각 역시 상온에 포함됩니다.

식의 기능인 알아차림(awareness: vijānana)과 상의 기능인 알아봄(recognition: sañjānana) 사이에는 일종의 유연관계(類緣關係)가 있습니다. 식이 어떤 대상을 알아차리게 되면 거의 동시에 상은 그 대상의 특징적 표지를 찾아내어 그들을 다른 대상들과 구별해 내는 것입니다. 이 남다른 표지는 우리가 어떤 대상을 두 번째, 세 번째 아니 실지로는 매번 알아차릴 때마다 그 대상을 알아보는 데 대단히 유용한 도구가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억을 만드는 것이 역시 상(想)임을 알 수 있습니다.

상, 즉 지각이 때로 우리를 속이기도 한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의 상을 우리는 착각 또는 상전도(想顚倒)라 부릅니다. 우리 견해가 흐려지게 되는 것은 사물의 진정한 본성을 올바로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선입견, 집착과 혐오, '좋아하고 싫어함' 때문에 우리는 감각 기관과 감각 대상을 있는 그대로의 객관적 성질로 보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신기루와 허상을 좇게 되는 것입니다. 감각 기관은 우리를 기만하고 오도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사물을 적절한 관점에서 올바른 모습대로 보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사물을 보는 방식이 비뚤어지게[顚倒見] 되는 것입니다. 올바른 이해[正見]만이 이런 환상을 제거하고 모든 드러난 모습의 밑바탕에 깔려있는 진정한 본성을 인지하게끔 인간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환각과 전도의 구름을 벗어날 때 인간은 검은 구름을 벗어나 밝게 빛나는 보름달같이 참 지혜로 빛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글은 "법륜시리즈 7"(고요한 소리刊)의 내용입니다.

불자정보 880호

TEL 02) 2004-8215(直)
FAX 02) 737-0696

포교원(급)안내
• 위치: 울산• 3층건물중 3층
• 총평수 60평(베란다포함)
• 법당(삼존불,각단탱화 등) 산신각,용왕당
• 시설완비,몸만오시면 즉시 법회가능
• 주차장시설완비
• 보증금 1천만원,월46만원
• 시설비 3천5백만원
016-614-8730

사 찰 안 내
• 충북 청원군 이원면 운암리
• 대지 220평,
• 요사채 60평
• 법당 25평, 전체 1142평
• 해수관음보살 모셔져 있음
• 가액: 3억 5천만원
010-8801-3837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남 부여군 외산면
• 부지 1100평, 요사채 45평
• 대웅전 18평, 산신각 5평
• 가액: 2억 4천만원
• 즉시법회가능
010-4629-1879

사찰(급)안내
• 위치: 경북 의성군 소재
• 부지: 약 5000평, 종교용지 300평
• 법당: 약 70평(대적광전, 관음, 지장전)
• 요사채 약 100평 (방9, 주방, 창고)
• 요양원, 고시원, 종단본사 등 다용도
• 대작불사 가능한 동남향 야산사찰임
• 꼭 매입 할 분만 방문 후 상담요망
• 가액: 5억원 (가격절충가능)
010-9217-4911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서울 마포구
• 석가 삼존불, 지장, 칠성, 신중, 산왕, 소불 120, 인등
• 방2, 주방, 거실, 다락방
• 실평수 35평 , • 법당 20평
• 보증금 1천 5백만원 월 95만원
• 시설비 4500만원
• 몸만 오시면 됨
010-7178-5892

포교원안내
• 위치 : 경남 진주시(진주성부근)
• 평수 50평, 3층 건물중 2층
• 구조: 삼존불 모셔있고 방2개
• 주방, 남녀화장실 별도
• 보증금 1천만원 월 50만원
• 시설비(답사후 결정) 최고시설
010-4668-7380

사 찰 안 내
• 위치 : 울산광역시 두서면
• 대웅전 20평, 목조, 기와
• 명부전, 산신각, 용왕당
• 요사채, 공양간
• 대지: 1500평, 국유지 4만평 이용가
• 포장도로, 1급수 계곡을 길게 접함
• 가액: 4억(약간절충)
010-5346-4138

별 장 안 내
• 위치 : 경주시 산내
• 면적: 500평, 건물 100평
• 특징: 천혜의 자연경관, 계곡접
• 전원속의 포교원 갤러리
• 예술인의 집 최적임
• 가액: 8억
010-8676-2778

명당 절터, 포교원,
명당 사찰 양도합니다.
수도권과 대구 등 여러곳
나이가 많이 저렴하게
양도하려고 합니다
010-9145-4984

포 교 원 안 내
• 위치: 부산 동래
• 2층 삼존불 2층 산신각
• 보증금 500만원, 월 20만원
• 시설비 700만원 답사후결정
• 부득이한 사정으로 양도
010-3070-8100

포교원안내
• 위치: 부산시내
• 지하철 2호선 3분거리, 교통좋음
• 평수: 대지 62평, 주택 2층법당 15평
• 삼존불, 후불, 신중탱화, 108불, 인등
• 1층요사채 18평
• (20평 전세 6500안고) 1억 7천 5백만원
018-564-3390
019-581-3081

사 찰 안 내
• 위치: 광주 나주 중간 도심근교
• 토지 400평
• 법당, 요사채
• 가액: 1억 5천만원
• 꼭 필요하신 분 연락주세요
011-9602-2293

사 찰 안 내
• 위치 : 강원도 강릉시
• 부지 500평, 임법당30평, 요사40평,
• 산신각, 좌청룡 우백호 뚜렸한 포란형(남향), 도량기운 좋음
• 가액 : 3억5천만원
011-452-8374
010-7164-7134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 분당인접 5분
• 대지 약 900평, 건물 50평 2동
• 등산로 접, 전망터 최고 정남향
• 숲속 요양 집으로 적격
• 지역 거래가에 절반 가격
• 공시가로 양도함
• 융자 70%가능 /주인직
011-726-4711

미국이민 관계로
저렴하게 드리겠습니다

▣ 위치 :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 소재
▣ 평수 : 2080평 (현싯가 40万~45万원)
▣ 법당, 삼성각, 석불 (지장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 산신님)
▣ 마당 : 29년된 포대화상과 미륵부처님입상 (12자), 5층석탑
▣ 요사채 방4개, 욕실 및 화장실 2개
▣ 23년된 일본법당도 인연이 되시는 분께 같이 드리고져 합니다
▣ 야외뷔페식당겸. 주차장 완비
▣ 박정희대통령 내외분 사당 25년째 모심
▣ 현재 실버타운(1200평)허가보류중
▣ 대출: 2억 5천 ~ 3억 가능
▣ 양도가액 : 7억 (경치 및 풍수지리상 1등 도량입니다)

연락처 011-252-7281

'현우경' 이야기 (12)

계를 지켜 부자가 된 사람

공양을 올리면 귀신들도 도와 주네

라자그리하에 한 바라문이 살았다. 그는 몹시 가난해 항상 먹을 것이 부족했다. 바라문에게는 편안이라는 아내가 있었다. 부부는 어떻게 하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생각했다. 이웃에 사는 한 사람이 부부의 고민을 듣고 말했다.

"자네는 아직도 그 사실을 모르는가?"

"무엇을 말인가?"

"지금 이 세상에는 부처님이 나오셔서 중생을 구제해 주신다고 하네. 부처님에게는 4명의 큰 제자가 있는데, 이 분들에게 공양을 올리면 자네의 소원이 이루어 질 걸세."

부부는 이 말을 듣고 마을을 돌아다니며 온갖 궂은일을 해 돈을 모으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음식을 장만해 부처님 제자들을 모시고 공양을 올렸다. 제자들은 편안에게 8가지 재계법을 일러주며 말했다.

"이 계를 잘 지킨다면 귀신이 와도 너를 지켜줄 것이다."

같은 날, 빔비사라왕이 숲에서 산책을 하다 성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그때 우연히 죄를 짓고 나무에 결박돼 있는 죄인을 발견했다. 죄인은 왕에게 간청했다.

"지금 배가 너무 고프니 먹을 것을 조금만 주십시오."

왕은 죄인의 모습을 보고 가엽게 여겨 곧 먹을 것을 가져다주겠다고 약속했다. 성으로 돌아온 왕은 이 일을 깜박 잊고 있다가 해가 지고 나서야 문득 생각이 났다. 왕은 급히 신하들을 불러 죄인에게 음식을 가져다주라고 명했다. 하지만 선뜻 나서는 신하가 한명도 없었다. 왕이 물었다.

"어째서 길을 나서는 이가 한 명도 없는 것이냐!" "사형장 입구로 가는 숲길에는 사람을 해치는 귀신이 나타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곳에 가면 절대 살아 돌아오지 못할 겁니다. 그곳에 보내시겠다면 차라리



삽화 · 강병호

이 자리에서 죽여 주시옵소서."

왕은 이 말을 듣고 고민에 빠졌다. 왕은 누구든 숲에 가는 이에게 금 1000냥을 상금으로 주겠다고 말했다. 이 소식을 듣게 된 편안은 생각했다.

'8가지 계를 잘 지키면 귀신도 나를 해치지 못한다고 했다. 나는 지금까지 계를 잘 지켰으니 누구도 나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편안은 그 길로 성에 가 자신이 숲에 다녀오겠다고 자원했다. 왕은 편안의 청을 허락했다. 편안은 왕이 정성스레 싸준 밥을 들고 숲으로 향했다. 얼마 쯤 시간이 지나자 편안 앞에 몹시 굶주린 나찰이란 귀신이 나타났다. 나찰은 금방이라도 편안을 잡아먹을 태세였다. 하지만 계를 잘 지킨 편안은 조금도 겁먹지 않았다. 편안이 말했다.

"나한테 음식이 있으니 이것을 조금 나눠 주겠습니다. 이 음식이라도 드시겠습니까?"

나찰은 편안이 건네 준 음식을 먹었다. 나찰이 편안에게 물었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는 중입니까?"

"나는 사형장 입구에 묶여 있는 죄인에게 음식을 전해주러 가는 길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니 돌아갈 때 내게 들러 금 한 돈을 가져가시오. 그리고 사형장 입구 쪽에는 아람바라는 내 여동생이 살고 있습니다. 내 소식을 궁금해 할 터이니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편안은 길을 가다 아람바 귀신을 만났다. 아람바를 만난 편안은 당황하지 않고 언니인 나찰의 소식을 전해주었다. 아람바는 편안에게 말했다.

"언니의 소식을 알려줘서 고맙습니다. 지금 내가 사는 곳에 금 한 돈이 있습니다. 잊지 말고 돌아갈 때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길을 가다보면 내 동생 분나기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두 누이의 안부를 꼭 전해 주십시오."

편안은 또 길을 떠났다. 편안은 사형장 입구 길목에서 분나기 귀신을 만났다. 분나기를 만난 편안은 두 누이의 소식을 들려줬다. 분나기가 말했다.

"우리 누이들의 소식을 전해줘서 고맙습니다. 그 대가로 금 한 돈을 드리겠습니다. 돌아갈 때 꼭 가져가십시오."

편안은 무사히 사형수를 만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금 세 돈을 가져갔다. 그리고 성으로 돌아가 왕에게 금 1000냥을 상금으로 받았다. 편안은 결국 나라의 부자가 됐다. 부자가 된 편안은 그 후로도 부처님과 스님들을 자주 초청해 공양을 올렸다.

구성=이은정 기자 soej84@hyunbul.com



디자인특허등록 2010-0039035
황금위패
亡嚴父 남양后人 행孝 伏爲 홍길동 靈駕
고급 밤나무 재질
옻칠 마감
음각으로 각인 후 금칠
수작업 개금
하나하나 정성을 다한 수조각
顯考學生府君 神位
• 규 격
大 / 中 / 小 의 다양한 규격
• 흑단제사용위패(가정용)
위패전문기업 (주) 대 양
대표전화 : 02-966-9650
휴대전화 : 010-8238-1511
팩 스 : 02-921-9650
홈페이지 : www.dya.xo.st

놓아라! 구하지 마라!
있는 그대로를 수용하라!

인생공부의 필독서!
《구하지 않는 삶 그 완전한 자유》
_윤기붕 지음
신국판 | 칼라 | 416쪽 | 14,000원
※ 전국 서점과 인터넷서점에서 판매!
목마르지 않는 자는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 완전한 자유를 누린다
삶속에서 자유와 행복을 얻은 한 구도자의 체험기
극도의 우울증으로 수없이 자살을 생각했던 저자는 치열한 고민과 구도(求道)의 과정에서 그러한 생각의 허망한 속성을 깨닫고 마침내 자유를 얻어, 그 행복을 독자들과 나누고자 한다.
비움과소통 02-2632-8739, buddhapia5@daum.net

금강경이 시집갔다?

깨 · 달 · 음
냇가에 돌멩이
하나 둘 셋……
무덤가에 개망초꽃
하나 둘 셋……
과부살이 반평생
울 엄니 한(恨)처럼
널브러져서 흐드러져서
참 헤이기 힘들지만
그보다 흔해빠져
예나 지금이나
없는 곳이 없어
지천에 깔린
깨
달
음
어째서
얻는 이도 있고
얻지 못하는 이도
있사옵니까?
응 송: 석 호 스님
신국판 359쪽
값: 15,000원
도서출판 연 화 刊
'어! 금강경에 시천 게 있나?' 의심이 난다면 방금 나온 따끈따끈한 이 책을 펼쳐보라. (작업 5년 만에 시집을 갑니다.)
위 詩는 금강경 제14분 '이상적멸분' 말미에 '보살이 마음을 법에 머물지 않고 보시하면 눈밝은 사람이 햇빛 아래서 여러 가지 물건을 보는 것과 같느니라.'는 부처님의 말씀이 있게 만든 수보리의 숨은 질문에 해당한다. (존재여행기 '작은 기적'도 봐 주세요.)
도서출판 연화 053)253-1923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25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자죽염 125g 40,000원
가 루 자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 자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 자죽염 230g 78,500원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주문 및 상담 : 016-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대행 스님

그저 죽든지 살든지 착 놓아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림 · 최주현

(지난 호에 이어서)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만약에 여러분한테 "무슨 죄가 있으니까 기도드려라. 또 업이 많으니까 뭐가 안된다. 그러니까 부처님 앞에 3일, 1주일, 100일 기도를 드려라, 정성을 들여라, 얼마를 가져와서 천도를 해라." 이렇게 말을 해 준다면 여러분은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겁니다. 그냥 "알았다"라는 말대답 한마디로 족한 겁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시되 그것은 당신들하고 나하고 둘이 아닌 까닭에 그런 말대답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도 그런 의식 자체를 다 놔 버리고 즉결로 들어가서 즉행을 할 수 있다면 내가 목마를 때 즉시 맛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은 물컵이 있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집어들고 마셔서 진짜 맛을 봐라. 그러면 쓴지 단지 알 수가 있다. 쓰고 달고를 알아야 내가 마음을 내서 움죽거릴 수가 있다 이거죠. 만약에 맛을 모르고 움죽거린다면 그냥 헛바퀴 돌아가는 거다 이거죠.

맷돌에 물건도 넣지 않고서 맷돌질을 한다면 그냥 빈 맷돌만 돌아서 아무 소용이 없죠? 또 축이 없어도 안 돌아가고요. 그러니 우리가 불법의 진의를 생활 속에서 꿰뚫어서 알고 맛을 보세요. 안되는 일도 되는 일이고 되는 일도 되는 일입니다. 진짜로 믿으신다면, 진짜로 맛을 아시는 분은 안되는 일이 없어요. 여기에도 맛보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맛을 보셨다면 우리가 말로 설법…, 설법이라는 이름조차도 붙이지 맙시다. 이 말 자체가 마음에서 스스로 우러나와서 여러분과 같이 마음을 함께 하면서 그 에너지가 오고 가는 사이 없이 서로 오고 갈 수 있는 그 두터운 한마음, 그게 자비거든요. 자비라는 건 애정이나 사랑이나 이런 걸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죄가 있든 없든 못났든 잘났든, 거지든 부자든 병자든 병자가 아니든, 또 벌레든 짐승이든 사람이든 소든 말이든 개든, 이런 걸 따지지 않는 게 자비죠.

예전에도 이런 예가 있었어요. 이것은 강원도 어디에서 실제 있었던 얘깁니다. 어떤 사람이 이웃에서 살았습니다. 부처님한테 다니긴 해도 그 뜻은 잘 모르고 다녔답니다. 그런데 시아버님이 자주 나가시진 않으셔도 불도를 숭상하시면서 마음으로 연구를 잘하셨답니다. 그러면서 "얘야! 궁합은 봐 뭘 하니? 저희들끼리 좋다면 결혼시켜라. 서로 봐서 합의한다면 그게 궁합이니라." "얘야! 이사를 하되 일요일같이 사람들이 많은 날, 비 안 오는 날 이런 날 하면 그것이 바로 좋은 날, 부처님이 돌보시는 날이란다." 이렇게 아주 유하게 가르치시던 분이 고만 아들을 앞세우고 말았어요.

그러니 고만고만한 손자들하며 며느리하고 살다 보니까, 좀 살긴 했지만 농사를 짓는데 도저히 며느리 혼자 짓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죽고 얼마 안 가서 고만 그 시아버지마저 가셨습니다. 며느리는 며느리대로 참,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허망하니 어떠니 하기 이전에, 올망졸망한 오 남매를 두고서 두 분이 다 가셨으니 나는 어떻게 살라느냐고 통곡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가 말입니다, 죽을 때에 '내가 이렇게 가서 그 농사일을, 애들 기르는 걸 돌봐주지 못해서 어떡하나.' 하는 생각을 하시고서 '결국은 너희 집의 소로 와야 내가 너희 집의 일을 도와주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의 소가 새끼를 낳는데 시아버지가 소에게 뛰어들어서 다시 태어난 거죠. 그건 알고 뛰어들었으니까 누구의 길을 인도받고 안 받고가 없어요. 그래, 소에게 뛰어들었으니까 소로 그려 가지고 나왔겠죠? 그분은 붓대를 쥐어도 아주 뛰어난 화공이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자기가 자유스럽게 소가 되려면 소가 될 수 있었으니까요. 그 마음이 염원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것도 바깥으로 끄달리면서 바깥으로 '나 좀 그렇게 해 주시오.' 라고 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부처님이 세상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자기 자성신한테다가 '야! 젊은 며느리 혼자 저 손자들을 기르고 살아나가는데 어찌하겠나. 주인공! 내가 소로 그려 가지고 나와야겠어. 그래서 일을 봐 줘야겠어. 그리고 쟤네들 다 자라면 내가 또다시 원점으로 가지.' 그렇게 안으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소로 태어나서 점점점점 잘 자라요. 그래서 중소로 딱 자라니까, 이 며느리가 큰 소까지 둘 수는 없거든요. 큰 소를 갖다 파니까 그 시아버지 송아지가 중소가 되어서도, 어머니 소가 가니까 참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울거든요. 내가 소 허물을 쓰고 나와서 소가 됐다 하더라도 어머니는 어머니요, 그리운 건 그리운 거요, 보고 싶은 건 보고 싶은 거요, 또 과거생의 어머니, 인연되어 모여 살던 전생의 어머니도 그때는 그때대로 또 어머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머니 아닌 게 없죠. 그래서 이 소가 눈물을 주루룩 흘리면서 사는데, 점점 자라나는 애들이 집 안을 오고 가는 것을 봐도 그 소는 눈물이 주루룩 흐르는 거라. 결국은 손자들이죠. 며느리가 들어와서 소죽을 쑤어서 퍼서 주어도, 그 소죽을 얼른 덤벼서 먹으려고 안 하고 며느리를 그 큰 눈으로, 속눈썹이 길다란 그 큰 눈으로 말이죠, 꿈벅꿈벅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며느리가 오고 가는 것만 쳐다보고 있거든요. 아휴, 빨리 먹으라고 며느리가 그러면 그때서야 딴전 피우고 있다가 먹는 것처럼 먹고 그러거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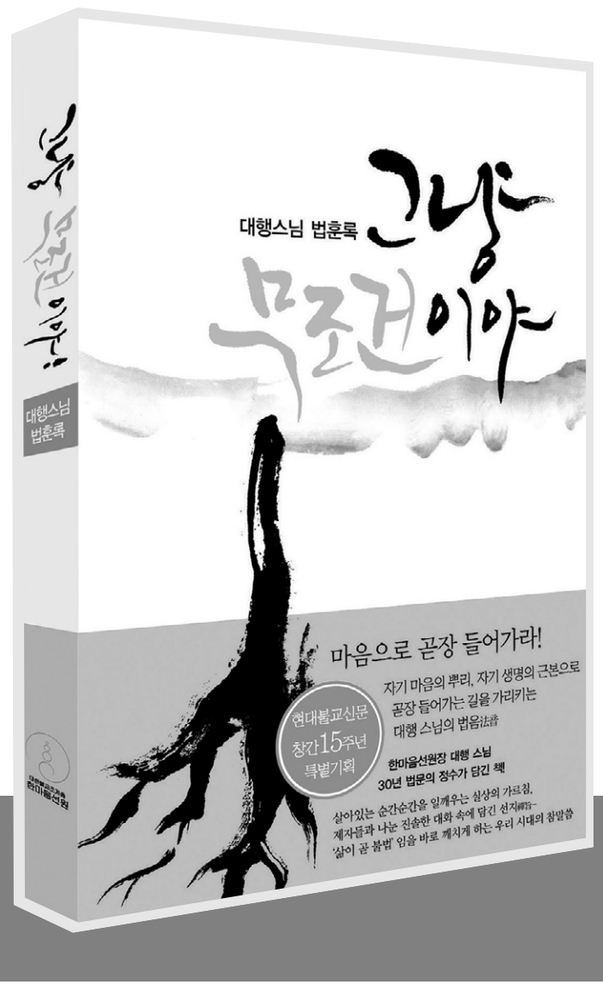
그렇게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애들이 끌고 갈 때는 그저 자기 며느리 태우려고 네 무릎을 땅에 착 대고서 흔드는 거예요. 시아버지가 며느리 위하는 마음과 그 아픔을 어디다 다 말을 하겠소. 여북하면 소의 모습을 가지고 나왔겠소. 그래서 그렇게 하기를 수없이 하면서 나날을 지내다 보니까, 애들은 다 자라서 서울로 가서 공부를 하게 됐고 지금은 교수로다가 지내고 다 이렇게 지냅니다만…. 그러니 며느리도 늙었단 말입니다. 소도 인제 늙었지요?

그러니까 어느 날 꿈에 그 소가, 시아버지가 됐다가 소가 됐다가 하더니 그 소 속에서 시아버지가 나오는 거예요. 시아버지가 나오더니 "얘야! 앉아 봐라. 내가 지금 저 아무 데 암자에 살고 있느니라. 그런데 거기서도 살지만 네가 자식을 데리고 그렇게 고생할 걸 생각을 하고, 내가 이 모습을 가지고 또 나왔느니라. 나는 거기서 살면서도 여기 또 나왔느니라. 인제는 네 자식도 다 길렀고 그러니 나를 좇아서 내가 가는 길로 가지 않으련?" 하거든요. 꿈에 시아버지가 그러니까 "아버님, 저도 가겠습니다. 저는 지금 자식을 길러서 장가를 들여 놓으니까, 혼자서 농사지을 수도 없거니와 이제는 도저히 힘들고 외로워서 못 살겠습니다. 아버님을 좇아가겠습니다." 하고 울었거든요.

아니, 그렇게 되기 전에 말입니다, 빼먹고 했지 뭡니까. 하하하. 저번에도 빼먹은 게 많았어요. 금방 말하다가 이리로 가고 금방 말하다가 저리로 가고 자꾸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길도 고정된 게 없더군요.

어느 날은 며느리가 나무나 하려고 밭에 나갔다가 고만 뱀에 물려서 발목이 부었거든요. 걸음을 못 걸으니 방에 누워서 끙끙 앓으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라. 그 애들, 졸망졸망한 오 남매를 놔두고 남편이 죽자 시아버지도 죽고, 그런 거 생각할 사이도 없이 허우적거리면서 바쁘게 돌아쳤는데 '세상에 이렇게, 오늘날 혼자 이렇게 살다니….' 하고선 우는 거라. 그렇게 울고 있

☞ 30면으로 계속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한마음 선원장 대행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현대불교 현불샵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www.hyunbulshop.com

삶의 보람을 느끼면서 진짜배기 인생살이를 사세요

☞ 29면에서 계속

는데 마루를 뭘로 치는 소리가 자꾸 들리는 거라. 누워 있다가는 뭔가 그러고 엉금엉금 기어서 문을 여니까, 소가 외양간에서 어떻게 풀고 나왔는지 나와서 꼬리로 마루를 치고 있는 거라. 꼬리를 마루 쪽으로 두고 네 다리를 꿇어앉아서 타라고 그 꼬리를 흔들거든요.

그런데 평소에도 그렇게 말을 잘 듣고 또 태워 주고 그랬으니까 '어, 나 타라고?' 하고선 목을 띠로다가 매서는 그걸 붙들고 고삐를 쥐고 탔겠다. 타니까 어슬렁어슬렁 산골로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산골로 얼마를 들어갔는데 샘물이 쫄쫄쫄쫄 흐르는데, 물이 줄줄줄 흘러 내려가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서 쫙 엎드리듯이 앉는 거예요. 그래서 내렸어요. 내렸더니 소가 아무 소리 없이 물 있는 데로 가서 한 발을 들여놨다 내놨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하! 발을 들여놨다 내놨다 하는 거 보니까 내 발을 거기다 넣으라나 보다.' 하고 물에다 담궜어요. 그랬는데 얼마 안 가서 부기가 쑥 빠지고 발 딛기가 좋은 거예요. 그렇게 이 소가 사흘을 태워 줘서 그렇게 담갔어요.

그러다가 그날 저녁에 그 꿈을 꾼 거예요. 울다가 꿈을 딱 깨고 나서 소를 찾으러 맨발로 그냥 뛰어나가서 보니까 소는 이미 죽었어요. 그래서 며느리가 시아버지가 산다고 하는 절에 가 보니까 한 20세 좀 넘은 젊은 스님이 거기서 살고 있더라 이거죠. 시아버지를 꼭 닮았어요. 점 있는 것까지 닮았어요. 거기서 이 며느리가 그만 탄복을 한 거예요.

그때는 내가 치악산에 있을 때인데 절에 와서 그 얘기를 하면서 "저는 그걸로 인해서 인생이 어떤 건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 건지 짐작은 했습니다. 그러나 짐작했다고 어떻게 하겠습니까마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묘하고 불가사의한 일이 있다는 거, 내가 이런 말 해도 누구도 믿지 않습니다." 이래요. 그러니 여러분이 지금도,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아까도 얘기했듯이 부모 조상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일체 만물만생 다, 조상이든 자식이든 부처든 어느 이름을 막론해 놓고 이 소용돌이 속에, 바로 나라고 세울 게 없는 공한 이 소용돌이 속에 모든 것을 착, 그저 죽든지 살든지 놓아 버릴 수 있어야죠.

놓으세요. 놓고 가세요. 맡겨 놓고 가세요. 잘된 거는 감사하게 맡겨 놓고 또, 안되는 것은 '응, 안되는 것은 주인공만이 해결할 수 있다.' 그러고 믿고 놓으세요. 그 두 가지만 철저하게 할 수 있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절대 없을 겁니다. 오늘 이만 하겠습니다마는 여러분이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질문하시죠.

질문자1(남): 맡기는 거요, 두 가지만 하면 괜찮다고 그랬는데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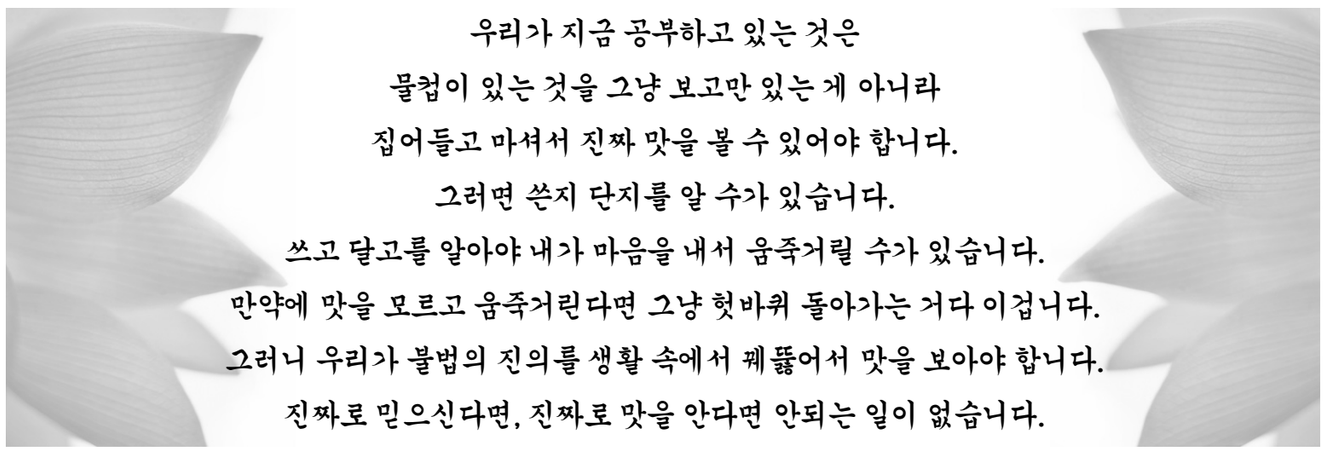
큰스님: 허허, 두 가지만 있는 거는 아닙니다. 도둑질을 하고도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니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죠. 인간이라면 계율, 질서, 교양, 충성, 효도 이런 거는 다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건 아주 전제하고 들어가죠. 그리고 불심도 돈독하고요. 그렇다면 도둑질도 못할 거고 강도질도 못할 겁니다. 돈 주고 하래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렇다는 것을 믿고 전제하고 들어가죠.

그런데 그렇게 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언제나 모든 것을 맡길 줄 아셔야 합니다. 안되는 거는 한번 쓱 뒤집으세요. '아하! 주인공밖엔 해결을 못하지.' 그러고 믿고, 믿고 거기다 맡겨 놓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 걱정이 없어요. 안 되는 것도 되는 거니까 걱정이 없다니까요. 안 되면 여러분은 방황하죠? 그런데 그 안되는 것도 고정되지 않았거든요. 되는 것도 고정되지 않고 안되는 것도 고정되지 않아요. 그러니 안 된다고 하더라도 되는 거죠. 금방 돌아올 테니까요. 그러니 운전수 노릇을 잘해야 돼요. 또 모든 것을 거기다 맡겨 놓고 갈 때 참 감사하죠. 그게 됐을 때 참 감사하죠. '참 감사하다.' 하고 또 감사하게 놓고요.

그런데 고집멸도(苦集滅道) 사제법에 이런 게 있죠. 고라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살림살이하는 데에 모두가 고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고가 아닙니다. 인간은 부처가 될 수 있게끔 고등 동물로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그 과정을 거쳐야 벗어나죠. 그래 '사람 되기 어렵고 정법 만나기 어렵고 부처 되기 어렵더라.' 이런 게 있죠. 그러니 사람이 됐으면 우리가 '그 모든 것은 내 주인공이 나를 성숙하게끔 둥글게 이끌어 주는 과정이로구나.' 하는 걸 믿고 놓을 때 감사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때는 집도 없고 멸도 없고 도도 없을 겁니다. 고에서 그냥 타파를 해 버렸기 때문에요. 고라는 이름에 끄달리지 마세요. 우리가 고라는 이름을 잘 요리를 해서 맛을 볼 수 있다면 그거는 아주 맛이 좋은 겁니다. 감사하고 말입니다.

지금 그냥 누구한테 맞아서 기어서 가도, 밥을 굶고 지금 기어간대도 '아이고! 참 감사하구나. 이렇게 감사할 수가 있나.' 하고 아마 눈물을 흘릴 겁니다. 그러니 '고가 고가 아니다.' 이겁니다. 업보가 많으니 죄가 많으니 이러고 난설하지 마세요. 어떤 안되는 일이 있어도 '아! 이거는 주인공밖에 해결 못하는구나.' 하고 믿고 놓으세요. 안돼도 '이것도 되는 거지, 뭐.' 하고 그냥 편안하게 놓으시란 말입니다. 그러면 쓱 한 찰나에 돌면서 그게 슬금슬금 돌아가지 않습니까?

질문자1(남): 다른 게 지금은 거의 다 잘 되는데요, 잡념 같은 것을 어떻게 합니까?



큰스님: 그 잡념도 누가 내는 겁니까? 만약에 그런 잡념이 아니었더라면 부처님이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성장할 수가 없지요. 그 잡념이 있기 때문에 부처가 될 수 있다고요. 그걸 잡념이라고 또 거기 걸리지 말라고요. 잡념은 바로 성숙되는 과정이에요.

질문자1(남): 이 잡념은 밖에서 들어오는 겁니까, 아니면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까?

큰스님: 바깥에서 오는 것도 안에서 나는 것도, 보고 들었으니까 오관을 통해서 들이지 않겠소? 잡념도 나한테 들어오죠? 또 안에서 나는 것도 있고, 보고 잡념이 오는 것도 있고 내 생활 과정에서 오는 것도 있고. 모든 것을요, 그것도 그놈이 하는 거니까 그놈한테다가 그냥, 이열치열 아시죠? 그냥 거기다 맡겨 놔 버려요. '네놈 알아서 해라.' 하고 맡겨 놔요.

질문자1(남): 알아서 하라고 맡겨 놓으면 또 잡념이 일어나거든요.

큰스님: 맡겨 놔도 잡념이 난다는 것조차도 놓으세요. 그리고 '빨리 하겠다. 빨리 공부하겠다. 왜 이렇게 더뎌? 내가 왜 이렇게 안되지?' 그런 생각이 나도 그것조차도 놓으세요. 나는 이날까지 부처 되려고 애를 써 보지 않았어요. 또 중생이다 부처다 이런 것도 없어요.

여러분한테 내가 항상 말하지만 유마힐 거사가 부처님 당시에 같은 연배로서 같이 나셨어요. 그러니까 머리 깎았다고 부처가 되고 머리 안 깎은 사람은 부처가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일깨워 주기 위해서 부처님도 나셨고 유마힐 거사도 나셨어요. 병을 앓으시던 유마힐 거사가 병문안을 온 사람더러 "중생들이 나아야 내가 낫지 않나." 이랬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몸뚱이 속에 지금 수십억 마리의 중생들을 끼고 다니니 그 중생들이 나아야 내가 낫지, 안 그런감? 세포를 타고 지금 중생들이 얼마나 돌아다니는데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한생각은 선장이에요. 여러분의 선장이라고요. 선장이 그렇게 한마음으로 놓고 가질 않는다면 어떻게 한마음으로 회전을 해 줘요? 안에서 한마음으로 되어야 내 몸도 건강할 거고 바깥의 경계도 한마음으로 돌아가서, 둘이 아니게 나투어 오고 감이 없이 에너지가 오고 가니 광력이나 전력이나 자력이 충만하게 항상 들고 나더라 이거죠. 그러니 안되는 게 있겠어요?

그리고 이 마음공부 하는 데, 물론 사는 데도 오밀조밀하게 깨끗하게 치워놓고 살고 또 사랑하면서….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진짜 사랑을 알아라 이거죠. 육으로만 왔다 갔다 한다고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진짜배기 인생살이를 알아라 이거죠. 삶의 고달픔보다도 삶의 보람을 말입니다. 그래도 지금 이해가 안 가요?

질문자1(남): 됐습니다.

질문자2(여):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스님, 다름이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형제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종교도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각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다가, 예를 들어서 상을 당해서 초상을 치를 때 그 절차를 각자 자기 종교 의식대로 하기를 원하거든요, 형제간에요. 불교 믿는 사람은 불교식으로 하자, 또 성당에 다니는 분들은 성당식으로 하자, 교회 다니시는 분은 교회식으로 하자, 이런 문제가 일어났을 때 스님께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럴 때요, 사실 문제가 있거든요.

큰스님: 이거 봐요. 아이고 참, 저이들은 왜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까? 형제가 오 형제든 팔 형제든 상관이 없어요. 이 사람은 기독교를 믿고 이 사람은 가톨릭교를 믿고 이 사람은 불교를 믿는다 하더라도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나는 여기 다니니까 여기 식으로다가 하자, 또 나는 여기 다니니까 여기 식으로 하자 하고 세 사람이 나누고 싸웠어요. 그럴 때 나는 이렇게 말을 해 주었지요. "누가 제일 큰형이냐?" 그러니까 불교 믿는 사람이 제일 큰형이래요. 그런데 어떤 형제들은 기독교 믿는 사람, 또 천주교 믿는 사람이 큰형이라고 그럴 때도 있겠죠. 그러면 "큰형이 불교를 믿으니까 불교 의식을 따라라. 따르되 이건 이름에 불과하고 형식에 불과한 건데 당신네들, 이 지구가 독이라면 독 안에 같이 들어서 오물오물하면서 왜 이렇게 따지길 좋아해?" 내가 그랬지요. 그렇잖아요?

기독교다 불교다 이건 이름이에요. 진리는, 평등 진리는 하나고 마음먹기에 달렸다고요. 거기에 마음이 걸리면 손해를 보고 걸리지 않으면 아주 이익을 보고 그래요. 그리고 남 편안하게 해 주고, 남 편안하면 나도 편안한 거예요. 남을 편안치 않게 해 주면 나까지 편안치 않아요. 나는 내가 편안하기 위해서 여러분한테 그렇게 말하기 싫어요, 귀찮으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인식들을 그렇게 갖는다면 끝간 데 없이 그렇게, 자식들까지 그렇게 내려갈 테니까 그게 난 싫다구요.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뜻대로 사는 것뿐이죠.

큰형이 가톨릭교라면 가톨릭교 의식으로 따라라 이거죠. 또 큰형이 아니고 동생이 바둥바둥 우기고 온통 그냥 고집을 세우는 경우가 있지요? 그러면 동생 따라 줘요. 하하하…. 기독교든 불교든 가톨릭교든 상관이 없어요. 부모도 그렇고 자식도 그렇고 형제도 그렇고, 그네들 마음 편안하게 해 주면 내 마음도 편안하고, 그것이 둘이던가, 네? 둘이에요? 하나지. 그 하나마저도 없어요. 그런데 왜들 그렇게 붉히고 그냥 그렇게 해야 돼요? 부모 제삿날 형제들이 네가 더 냈느니 내가 더 냈느니, 이렇게 하느니 저렇게 하느니 그러고 싸워 봐요. 생시에 부모 앉혀 놓고 상 차려다 놓고 싸우는 거나 똑같애요. 그럼 그 밥맛 나겠어요? 좀 넓게 생각하라고요.

※위 법문은 1988년 3월 4일 국내지원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열침의효능 헬스밸트
금강약돌 온열복대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식약청의료용구 개인용온열뜸기 : A83060호
식약청 의료용 전자기 발생기 : A85020호
전기용품 안정인증 : HH07236-5004A호
전자파 장애실험필, 전자파 환경인증
LIG화재 배상보험 가입
특허청 실용신안 출원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원적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볼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산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앓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 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차신분 *오십견, 고관절, 당뇨, 전립선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쑥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쑥뜸(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거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 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053-12-125418 강환영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대리점 및 딜러모집 (조합자극건강매트, 오십견조끼, 요추베개등 자매품다양)


NEW 친환경 삼베타올선물 SET
소중한 분께 마음을 전하세요~
삼베타올은 강원도에서 재배한 마의 속줄기를 삼베틀로 만들어 선조들의 지혜와 멋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곰팡이를 억제하는 항균성과 항독성이 있는 순수 천연 삼베(햄프)사와 죽사(대나무에 추출한 원사)를 합사하여 제조된 순식물성 제품입니다. 수분을 빨리 흡수, 배출하고 자외선을 차단해주어 피부 자극이 없으며 피부의 노폐물 제거와 혈액순환 촉진으로 곱고 탄력 있는 피부로 바꾸어 드리는 환경친화적 제품입니다.
샤워타올, 세안타올, 수세미 - 3종 세트 ₩ 27,000원 (무료배송)
현대불교 현불샵 T. 02)2004-8216 / F. 02)737-0696
[농협 053-01-269062 | 국민은행 343601-04-046766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불자 세상보기

이어도를 아십니까



황 진 수
위덕대 석좌교수

중국을 큰 뱀에 비교하곤 한다. 큰 뱀은 개구리나 작은 물고기도 먹지만 토끼, 쥐 등도 먹어치운다. 중국은 영토확장을 위해 내몽골도 먹었고, 티베트도 점령했다.

오늘 날 중국은 전설적인 삼황오제(三皇五帝)로부터 송조(宋朝), 원조(元朝), 명조(明朝), 청조(清朝), 중화인민공화국을 거쳐 오면서 많은 전쟁과 부침을 거쳐 현재의 국토를 유지하고 있다.

그 동안 중국은 직접적, 간접적으로 한반도에 영향을 미쳤고, 한 때는 우리나라를 정치적, 군사적으로 지배하기도 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중국이라는 나라의 영향력 아래서 2천년을 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중국의 영향력이나 통제가 거의 없었던 시절이 있었다. 그것은 청일전쟁(清日戰爭)(1894.6~1895.4) 이후로 중국은 한국에 대하여는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100여년을 우리는 중국의 간섭을 받지 않았다. 이 기간 동안 일본에게 주도권을 빼앗기고 외세에 나라의 정체성마저 잃어버린 100년의 중국의 수모가 우리의 국가적 자존심이 존재하는 시기와 일치한다. 다만 북한에 대하여는 1950년 북한 김일성을 지원하여 한국전쟁에 함께 하였고, 오늘 날에도 북한과의 정치적, 군사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의 경제력이 이제 세계 초강국으로 등장했다. 경제력은 군사력을 동반하는 것이고 그 힘을 바탕으로 하여 신장 위구르 자치주를 비롯한 27개 소수민족의 역사와 영토주권을 왜곡하는 사업. 즉 서북공정을 진행 중이며, 이와 같은 차원에서 고구려사 및 한국의 고대사를 왜곡하여 한반도를 자기중심적 사고로 만드는 작업. 즉 동북공정을 하고 있다.

최근 중국은 다른 나라와 영토분쟁을 하고 있는데 중국 남해의 남사군도 서사군도 지역, 중국동해의 다오위다오(鳥魚台), 일본명 센카쿠열도 를 비롯한 바다를 중심으로 한 지역과 중국 서장남부와 서남부의 장남지역, 중국 흑룡강성 우수리강의 홍개호 호수수면 면적분쟁, 신강과 내몽골 지역의 영토 미확정지역 등 육지지역 등이다.

중국은 대국굴기(大國崛起)정책으로 스스로 강대국을 지향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간 영토분쟁이라는 것이 쉽게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잘못하면 자국의 민족주의를 촉발시켜서 국가 간의 미묘한 관계까지 진전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최근 이어도 문제가 화제가 되고 있다.

정부는 "이어도는 영토로부터 12해리까지 인정되는 영해와 달리 EEZ 내에서는 연안국선박의 자유로운 항해가 허용되기 때문에 중국항공모함이나 관공선이 지나가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석유시추, 해양조사, 사격훈련 등은 규제를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다. 아마도 중국과 이어도 관련 협상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나라가 이미 이어도에 해양과학기지를 설치하였고, 이어도는 해면 4~5m 아래에 위치해 있어 영토로 보기는 어렵지만 중국과 수역이 겹치는 구간을 조정하면 우리에게 유리한 판단이 올 것으로 보인다.

중국정부도 "이어도가 위치한 곳은 중국과 한국의 EEZ 중첩지역"이라며 "이어도 귀속문제는 쌍방이 담판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깨진 유리창' 이라는 것이 있다. 이것은 미국 하버드대 교수였던 제임스 윌슨의 이론으로 깨진 유리창을 방치할 경우 행인들이 관리를 포기한 건물인 줄 알고 나머지 유리창마저 깨뜨리고 더 큰 파괴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한국의 독도를 일본이 자기네 영토라고 주장하니까 이제는 이어도도 중국이 넘나보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국가안보정책이나 외교정책에서 뭔가 '깨어진 부분' 이 외국인에게 보이는 것이 아닌가 모르겠다.

'저승길이 오락가락 이어도 사나 이어도 사나' 해녀들의 노랫말 처럼 이어도는 제주도 해녀들의 이상향 같은 섬이다.

우리는 엉뚱한 외교적 실수로 이어도를 뺏겨선 안 될 것이다.

사부대중 칼럼

WFB와 육환장을 든 노스님



양 범 수
前 불교신문 편집국장

세계불교도우의회(WFB) 제26차 대회가 오는 6월 여수에서 개최되고 많은 불교지도자들이 참석한다고 해서 이슈가 되고 있다. 90년도에 한국에서 열렸던 제17차 대회가 매우 성공적이어서 이번의 대회도 많은 기대가 쏠리고 있다.

이 대회는 2년마다 열리는 세계 불교도들의 만남이요, 불교가 갖고 있는 독특한 우의(友誼)를 다지는 잔치의 한 마당이다. 먼저 이번 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호남불교의 노고에 깊은 사의를 드린다. 막대하게 소요되는 비용도 비용이지만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대회를 진행하려는 의도로 준비하는 조직위의 고군분투는 90년도 대회 때 경험했던 필자로써 그 고충을 알고도 남음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호남불교의 의욕이 충만하기 때문에 앞서 있었던 스물다섯 차례의 어느 대회보다 성공을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년 전 11월, 제25차 대회가 열리는 스리랑카를 제26차 대회를 유치하러 가는 대표단들과 동행을 한 필자는 야릇한 기분이 들었다. 88년도 미국 LA에서 열린 16차 대회 때 제17차(90년도)대회 유치를 했을 때도 갔고 96년도 20차 대회를 열겠다고 유치 작전을 펼 때 제19차(94년도) 방콕 대회에도 참석했었는데 또 대회를 유치하고자 하는 자리에 동석하게 되는 사실에 나도 모르게 실소를 하고 있었다. 94년 방콕 대회에서 제20차 대회를 한국이 유치를 해 대회 마지막 날 한국 대표단들이 단상에 올라가서 본부 총재로부터 건네받은 5색 깃발(佛旗)을 흔들며 의기양양한 때와, 여러 사정으로 제20차 한국 대회를 치루지 못하고 5색 기를 반납하러 태국 본부에 갔던 일들이 떠올라 실소를 했던 것이다. 그런데 또 대회 유치를 위해 스리랑카를 향하고 있다는 생각이 겹쳐 실없이 나를 웃게 하고 있었다. 아무튼 제20차 대회는 96년도에 치루지 못하고 98년도에 대만 불광산사의 도움으로 호주에서 열렸다.

WFB의 근본 핵은 가운데 약자 'F' 즉 Fellowship에 있다. 동료애와 유대감, 목표와 사상을 공유하는 단체로서 교우(教友)의 정분(情分)이 함께하는 우의(友誼)가 WFB의 정신인 것이다. 그러하기에 20차 대회를 실패한 한국 대표단의 과거에 연연치 않고 많은 나라의 대표들의 호응 속에 또 한국에서 대회를 열게 되는 것이다.

불교의 우의 사상은 무한하다. 94년 방콕 대회에서 다음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 한국의 여러 지부 가운데 한 단체가 주도적으로 심혈을 기울였는데 그 단체가 한국의 고명한 D스님의 지원을 받기로 돼 있었다. 그래서 그 단체는 D스님을 모시고 방콕 대회에 참석했다. 그 단체 대표들은 도착하자마자 D스님이 연설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해 로비를 하느라고 동분서주했다. 그러나 대회본부는 냉담했다. 완벽하게 짜여 진 대회 일정 속에 단 1초의 여유도 허락지 않았던 것이다. 3일간에 걸쳐 본부 측에 읍소했으나 빈틈을 열지 못하고 있었다. 나는 당시 청년(WFBY) 대표였기에 그 팀들의 피 마르는 로비를 직접 돕지를 못했다. 보다 못해 조언을 했다. 이 대회 학술회의에서 논문을 발표하는 L박사의 시간을 얻어 보라고.

D스님의 참모들은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에 다음날 새벽에 도착한 L박사의 방문을 노크했고 애로사항을 털어 놓았다. 그러나 L박사의 반응은 싸늘했다.

얼마간 시간이 흐른 뒤에 나를 비롯해서 몇몇이 인사를 드리려 L박사를 찾아 갔다. 인사드리고 담소를 나눈 뒤 헤어지려는데 L박사님께서 "내일 내 발표 끝날 무렵 D스님을 모시고 회의장으로 와." 이런 경우를 '한 방의 브루스' 라 하지 않던가.

다음날 L박사는 논문 발표 후에 다음과 같이 말씀했다. "핵심 부분은 모두 발표를 했고 나머지 해설은 유인물로 대처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남는 시간은 한국에서 오신 고승 한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한 논문을 증명해 주시기 위해서 한국에서 고승 한분을 모시고 왔습니다. 나오시지요." 우리들은 L박사께서 이처럼 융숭히 D스님을 등장시키실 줄은 몰랐었다. 참으로 감동적 이었다. 불교의 자애로움이 뭉클하게 풍기는 순간이었다.

D스님은 위풍당당하게 육환장을 한번 내리 치시고 게송을 읊고 설법을 했다. 모 교수가 통역을 했는데 대중들의 열열 한 박수갈채를 받았다. 우리 불교만이 보여 줄 수 있는 아름다운 풍경이고 참된 우의를 다지는 자리였다.

감동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폐회식에서 그동안 회의의 여러 장면들이 담긴 영상이 스크린에 비치기 시작했다. 첫머리에 육환장을 들고 회의장으로 들어서는 D스님의 모습과 설법하는 모습이 압도했다. 대승의 화두를 단칼에 해치우는 노덕(老德)들의 번뜩임을 우리는 보았고 그래서 불교의 정신 줄을 놓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여수 세계불교도우의회에서도 또 한번 한국불교의 진면목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社說

조계종 스님들의 새 발걸음

3월 15~16일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비롯해 중진 스님 150여 명이 함께 천태 · 진각종 등을 방문했다.

종단지도자연수 차원에서 진행된 이번 방문을 통해 스님들은 단기간에 성장을 거듭하고 사회 리더로 발돋움한 이들 종단의 성장동력 등을 진단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입재식에서 "이번 연수가 역사와 사회에 부응하고 국민의 행복과 평화를 위한 종단운영 시스템의 질적 변화의 계기를 만드는 단초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계종이 방문 상대로 천태종과 진각종을 택한 것은 나름의 이유가 있다.

천태종은 사찰 운영을 재가신도가 주축이 돼 참여하고 있다. 진각종은 중앙집권체제로 그 특징이 요약된다.

줄어드는 출가자 수로 스님들의 사찰 관리 부담이 늘고 있는 조계종으로서는 신도들이 사찰을 관리하는 천태종 시스템에 관심이 갈 만하다. 특히, 교구본사와 분담금 조정 갈등을 빚거나, 문중 · 계파 등으로 권력이 분화돼 역량 결집을 저해 받는 조계종으로서는 진각종의 중앙집권체제가 매력적일지 모른다.

인류는 새로운 문물 · 제도를 두고 수없이 대립해 왔다. 보수와 진보로 대변되는 이 갈등이 종단지도자연수 후에 조계종 내에서 두드러지게 재현될지 모른다. 분명한 것은 변화를 꾀하는 쪽이나, 전통을 고수하는 쪽이나 모두 불교를 아끼고 사랑한다는 점이다. 그 점만 잊지 않으면 된다. 변화의 움직임에 변하지 않은 것도 변한 것과 진배 없다.

어찌됐건 이번 종단지도자연수가 조계종의 체질 강화에 분명한 도움이 될 것이라 믿는다.

자비라는 큰 그릇 활용하자

대승불교의 요체는 상구보리(上求菩提) 하화중생(下化衆生)이다. 이는 자신도 이롭게 하면서 타인도 이롭게 해야 한다는 공동체적 정신을 표현한 말이다. 대승불교에서는 상구보리와 하화중생이 일치될 때 진정한 깨달음이 성취된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한국불교에서는 상구보리를 통해 얻어지는 깨달음만이 강조된 측면이 없지 않다. 선방수좌 대단한 줄은 알아도 발 벗고 포교현장에서 뛰는 스님이 큰스님인줄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런 가운데 방영준 성신여대 교수는 3월 15일 계간 〈불교평론〉 열린논단에서 "자비 없으면 불교가 아니다"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방 교수는 "깨달음에서 자비가 나오고 자비에서 깨달음이 나온다"며 상구보리는 잘난 형님이 됐고, 하화중생은 못난 동생이 된 것이 한국불교의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부처님이 깨달으신 것은 연기(緣起)이다. 인연법으로 뭇생명이 공생한다는 것이다. 나 홀로 깨달음에 집착만 해서는 이 땅이, 이 사회가 불국정토일 수 없는 까닭이다.

대승(大乘)의 수레는 혼자 타는 것이 아니고 같이 타는 것이다. 그래서 큰 수레임을 잊지 말자. 깨달음은 수레의 공간을 넓히지만, 자비는 수레를 함께 탈 동반자를 만든다.

자비라는 큰 그릇을 자랑만 하지 말고 사용 방법을 모색하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 · 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 ·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전북지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주지국 : (054)634-3429
부산지사 : (051)632-0064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명)
글쓴이 : 혜천법사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화제의 신간
궁합 사주명리학

「天地陰陽의 兩氣는
春夏秋冬에 降하여 그 時에
生을 주어 有用한 것은 吉이 되고,
無用한 것은 凶이 된다!」
진짜 궁합 내 인생을 바꾼다.



하늘은 이미 사람을 만들고, 사람은 各各 命을 지니고 있다.
天理에 의하여 生하였으니 天理에서 벗어날 수 없다.
人事 뿐 아니라, 萬物은 모두
天地의 氣에 의하여 生生化育되는 것이다.

■ 眞性 임동균 著 / 신국판 / 양장본 / 656쪽 / 정가 45,000원

전국 서점 판매중!
《지금 바로 이 책을 펼쳐보십시오.》

육임이 보인다
功念 지음/ 4×6배판/양장본/70,000원

新사주학 핵심비결
신국판/양장본/송월스님 지음/50,000원

한국인의 별점 자미두수 비법
4×6배판/高山 엄창용 지음/양장본/45,000원

子平眞詮精解
우명 서상덕 역 · 저/신국판/4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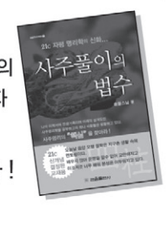
그림 당사주 대전
4×6배판/이선암,전호일 공저/양장본/25,000원

四柱命理 韓方處方學
徐昇煥 지음/4×6배판/양장본 I 권 880쪽 II권 680쪽/각 권 50,000원

풍수 양택통론
신국판/양장본/신평 지음/26,000원

21c 자평 명리학의 신화...
四柱 사주풀이의 법수

자평 명리학의 신화...
나의 이력서며 전생기록이며 미래의 설계도인 사주명리학을 공부하고자 하나 사람들은 방황하고 있다.
사주명리의 "핵심"을 찾아라!
지금 바로 이 책을 펼쳐보십시오.



송월스님의 제2탄 드디어 출간!
■ 송월스님 지음 / 신국판 / 양장본 / 616쪽 / 정가 75,000원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지금 절실히 당신이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시험을 치르고 주택을 사고 주식을 사고 팔려고 하는 등 중대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당신은 어떻게 결단을 내리겠습니까?



《지금 바로 이 책을 펼쳐보십시오.》
■ 김백만 편저 / 신국판 / 양장본 / 정가 50,000원

홈페이지: www.gubook.co.kr • E - mail: gubooks@naver.com
관음출판사 Tel. (02)921-8434 Fax. (02)929-3470 입금계좌 : 110-012-066080 신한은행 예금주(소광호)

옻가네 농업법인 (주)옻가네

피를 맑게, 아침을 생기있게…"참옻 덕 봤죠"

옻은 만성설사 · 변비 · 소화불량 · 위무력증 · 위하수증세 · 위염 · 위궤양 · 위암 · 수족냉증 · 자궁근종 · 생리불순 · 당뇨병 · 관절염 · 신경통 · 만성피로 해소와 정력 강화, 어혈제거, 혈액순환 등의 효과가 있다. 최근 연구결과를 보면 옻의 산 성분이 강한 항암 · 항산화 및 항균활성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됐고, 아토피와 당뇨에도 좋다고 조사됐다. 다슬기는 칼륨 · 나트륨 · 아연 · 망간 등 성분이 들어 있어 간에 좋은 작용을 한다. 조상들은 예부터 시름시름 기운을 못차리면 다슬기를 달여 간의 조직 원료가 되는 청색소를 공급해줘 간기능을 회복시켰다.



토종 참옻을 이용해
국내 최초로
상품화에 성공한
지용우 옻가네 대표

피로 회복 · 혈액 순환에 좋은 참옻
옻가네, 식품의약안전청 승인 받아
믿고 먹는 현대인의 건강 지킴이

옻추출물은 류머티즘관절염 치료뿐만 아니라 피를 맑게 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경희대 척추관절센터팀은 어혈과 염증을 풀어주며 피를 맑게 하는 옻나무 추출물을 이용한 류머티즘관절염 예방 및 치료에 대한 옻의 효능을 SCI급 국제학술지에 발표했다. 경희대 한방병원은 "한방치료는 순환기능을 개선해 어혈을 제거한다"며 "어혈과 염증을 풀어주며 피를 맑게 하는 옻나무 추출물을 이용해 치료한다"고 설명했다. 여성에게 많은 류머티즘관절염도 옻을 이용하면 어혈 제거를 통해서 염증이 자연스레 소멸된다.

· 참옻다슬기진액

옻가네에서는 옻이 오르는 것을 극복하여 옻오름 염려가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먹을 수 있는 참옻제품을 선보였다. 국내에서 옻오르는 성분을 제거하고 옻의 유효성분만 그대로 유지되도록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옻가네가 유일하다.

몸에 좋은 참옻과 다슬기의 영양을 더한 옻가네의 '참옻다슬기진액'은 해독작용, 간기능 회복, 피로회복, 혈액순환, 노폐물 제거 등 다양한 기능으로 피로에 지친 현대인들을 더욱 활기차고 건강하게 만들어준다.

옻가네에서는 옻나무 농장에서 직접 재배한 순수 국내산 참옻만을 사용하여 '참옻 발효진액' 등을 판매하고 있다.

· 참옻발효진액

옻나무는 세계적으로 600여 종 존재하는데 이중 한국 · 중국 · 일본 등 아시아에서 자라는 나무들만이 약재로 사용된다.

한국의 옻나무 수액은 우루시올 함량이 60%로 다른 나라에서 자라는 옻나무에 비해 함량이 10%정도 많고 약효도 뛰어나다. 특히 강원도에서 나는 옻이 유명하다.

· 홍삼참옻 위간보

옻의 효능을 업그레이드한 제품이 바로 옻가네의 홍삼참옻 위간보다. 위간보는 만성적인 속병을 다스리는데 효험이 뛰어난 참옻진액에 발기부전 치료효과가 있는 마카 성분과 유황오리를 함께 달여낸 고농축액으로 휴대용으로 간편한 파우치 포장제품으로 만들었다.

위간보의 주성분 옻은 만성 속병(만성설사 · 변비 · 소화불량 · 위염 · 위궤양 · 위암) · 수족냉증 · 부인병(자궁근종 · 생리통 · 냉증) · 당뇨병 · 관절염 · 신경통 · 만성피로에 좋고 정력강화와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된다.

그래서 속이 아프거나 숙취가 심한 경우, 멍이 잘 들고 뼈속이 시리다고 느끼는 경우. 입냄새, 생리불순, 생리통이 심한 사람. 소변량이 적고 잔뇨감이 있는 사람이 먹으면 더욱 좋다.

옻 산성분이 항암 · 항산화 · 항균활성이 있다는 최근 연구결과도 있다. 옻나무의 수피 및 목질부에 있는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암세포의 증식 및 전이를 억제하고 정상 세포로의 분화를 유도한다. 아토피 치료, 당뇨수치를 낮추는데도 효과가 좋다.

또 옻은 노폐물, 나쁜 피를 삭히는 살균작용으로 혈액 · 체액 순환을 돕고, 몸 안팎의 상처 · 염증이나 장부 · 혈관의 만성 질병을 낫게 한다. 여성 갱년기 증상 자궁건강에 좋고, 어혈을 풀고 강장효과가 있어 임산부들의 산후 관절시림 증상을 치료하는데도 많은 효과를 보았다.

· 식품의약청에서도 인정한 옻가네

옻가네 제품은 특허청의 특허와 식품의약품안전청(KFDA), 미국 FDA의 승인은 물론 최근에는 옻 안타는 참옻개발로 농림수산식품 과학기술대상 대통령포장을 수상했기에 믿을 수 있다. 휴대용으로도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파우치 제품으로 출시돼 더욱 편리해졌다.

한국과학기술원은 우르시올에서 추출한 MU2성분이 혈액암과 폐암, 위암 세포 등에 강한 억제효과를 나타낸다는 연구결과를 최근 발표하기도 했다. MU2성분은 항산화 기능도 있어 치매 예방과 치료에도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한국산 옻나무에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는 후라보노이드 성분은 혈관 형성을 억제함으로써 암세포의 증식이나 전이를 방지하는 효과를 내기도 한다. 옻은 어혈을 제거하고 피를 맑게 하는 효능이 있고, 만성위염과 지방간 등에도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농업법인 옻가네는 참옻을 이용해 옻닭 조리용, 한의원 치료용, 건강식품을 개발하는 농업법인이다. 대부분의 제품을 식약청 안전성 인증을 받았고 지적재산권 9건을 확보했다.

· 옻 먹을 때 주의해야 할 점

우루시올(옻의 주성분)은 대부분 옻나무껍질 주변에서 생성된다. 따라서 옻의 효능을 제대로 보려면 반드시 수피를 함께 사용해야 한다.

또한 일부 제품은 물이 아닌 고형분 함량이 낮은 경우도 있다. 옻 제품을 구입할 때는 고형분 함량이 높은 지, 수피가 얼마나 포함돼 있는지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

참옻진액 제품을 선택하기 전에는 안전성이 검증된 것인지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한다. 옻을 타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무분별하게 자주 먹는 것도 위험하다. 간에 무리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독성을 제거한 옻의 경우는 간에도 좋은 약이 된다. FDA승인을 통해 안전성을 검증받은 옻가네의 제품은 독을 제거하면서도 약효는 그대로 지니고 있어 제품을 선택하는데 있어 불안해하지 않아도 된다.



국내산 토종 참옻나무

소비자들이 옻가네 참옻제품을 신뢰하는 이유



농림수산식품 과학기술대상
2011년 10월 13일

옻이 안타는 토종참옻 개발로
최고의 영예 대통령포장 수상했습니다

2011년 10월13일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분야 유공자에 대한 시상식에서 최고 대상(산업포장)은 농업법인옻가네 지용우 대표가 영예를 받았습니다. 옻가네는 옻안타는 참옻을 국내최초로 상품화 하였으며 발효공법을 이용한 새로운 제품개발로 국민 건강은 물론 농촌소득증대에도 크게 기여한 공로로 영예의 대상인 산업포장을 수상하였습니다.

옻가네 토종참옻, 15년 역사 이래 꾸준히 국민의 사랑과 신뢰로 최고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신지식인 대상 수상 | 사단법인 한국대학발명협회 하이브리드기업 확인서 | 2010 대한민국식품대전 최우수상 수상 · 식약청장상 수상



2010 서울국제발명전시회 금상 · 은상 수상 | ISO 9001 인증서 | 미국식품의약국안전청 FDA 인증서

국내에서는 식약청 (KFDA)에서 안전성을 인증받았으며,
미국식품의약국안전청(FDA)에서 안전성을 검증받았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 미국식품안전청 FCS/SID제조업체등록, 공정과정등록 | 특허청

- KBS 아침마당 냉증, 가볍게 보지 마라 김달래 경희대 한의과 교수 2011.7.14
- MBC PD수첩 ○기적의 암○○제인가? 2011.6.7
-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내몸을 바꾸는 건강법- 체온건강법 2011.1.7
- MBC이재용 홍은희의 기분 좋은 날 2010.11.17
- KBS 6시 내고향 2010.2.16
- SBS 출발 모닝와이드 2009.10.27
- KBS 동의보감, 그 의학적 진실은? 2009.8.6
-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잘쓰면 약이 되는 옻 건강법" 2006.6.19 2)"옻으로 건강을 다스린다" 2007.4.20
- KBS 환경 스페셜 악이 되는 독 2006.11.22
- KBS 무한지대 큐 돈이 되고 약이 되는 팔방미인 옻나무 2006.10.31
- KBS 싱싱 일요일 계절의 보석 2006.8.20
- 중앙일보 다양한 옻의 개선 효과 2010.9.9
- 동아일보 옻은 어혈제거, 만성간염, 간기능 개선 2008.10.27
- 한국경제 (작지만 강한기업) 10년 묵은 체증 녹이는 참옻

폐경 10년만에 생리가 다시 시작 박○○ 1949년생 1월생 61세

저는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살고있는 61세 여성 입니다. 2010년 초에 지인으로부터 옻가네 참옻진액을 소개받아 참옻진액 제품을 구입하여 복용하게 됐습니다. 저는 원래 소화기능이 약해서 잘 체하고 고기나 밀가루음식과 찬음식도 잘먹지 못하고 손발과 아랫배도 차거워 변비가 심했고 신경이 예민해서 깊은잠을 이루지 못하여 신경외과에서 수면제를 처방받아 약 10년동안 약을먹고 잠을 잤은 점으로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3일정도 복용 했을때 아랫배가 빵빵해 지더니 2일째 부터 변이 정상적으로 많은양이 나오더니 속이 후련한 점으로 몸이 가벼워지고 소화도 잘되고 속이 아주 편안해지고 일주일정도 복용하고 나니까 뱃속에 항상 체했던 증상이 서서히 사라지고 3일정도 복용 했을때 폐경된지 10년만에 생리를 5일동안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60평은 다먹고 나니까 10년동안 꺽인 수면제도 먹지않고 깊은잠을 잘수있고 이제는 고기나 밀가루 음식을 아무데로 가리지 않고 먹을수 있고 소화도 잘되고 변도 매일 잘볼수 있고 피로도 확 줄어서 몸이 아주 가벼워 진것 같습니다. 또다시 60평을 구입해서 복용하고 있는중입니다. 여러 좋은제품은 만나게되어 모든 건강이 다 좋아져서 정말 진심으로 옻가네 사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전신에 어혈이 돌아 무척 고생했었으나 김○○ 55세/주부

저는 동네이장님에서 어혈이 잘 풀린다는 옻가네 참옻진액을 소개받아 2010년 8월 7일부터 먹기 시작했습니다. 7년전 대형교통사고와 4년전. 11년전 심하게 넘어져 왼쪽 옆구리 갈비뼈와 엉치에 큰 타박상을 입어 전신에 어혈이 돌아 고생을 많이 하였습니다. 옻가네 참옻제품을 먹으면서 운동이 서서히게 몸이 돌고 서서히 쑤시고 저리고 아파서 병원에 가게서 진통주사까지 맞았지만 효과가 없었는데 꾸준히 한달을 복용한 결과 거짓말처럼 나았읍니다.

아직 정액에 있어 좋은 정액이 튀어 나왔고 심장도이 소심하게 여려 였었는데 10일 정도 복용하면서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필요하시면 궁금한 분들에게 직접 확인해 드릴수 있읍니다.

국내 최초 참옻 상품화 성공
옻가네, 대통령 산업포장 수상

농업법인 옻가네는 지난 11월13일 제 14회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분야 유공자 시상식에서 대상인 산업포장을 받았다.

지용우 대표는 옻 안타는 참옻을 국내최초로 상품화했으며 발효공법을 이용한 새로운 제품개발 및 옻을 이용한 옻된장, 옻고추장 등의 개발과 옻순채취, 옻나무 재배보급으로 농촌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영예의 대상인 산업포장을 수상했다.

옻나무추출물은 어혈과 염증을 풀어주며 피를 맑게해주는데 탁월한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옻나무 추출물을 이용한 류마티스관절염 예방 및 치료 등에 효능을 밝힌 연구논문이 발표된 바 있다.

특히 여성에게 많은 류마티스관절염 등의 염증성질환에 옻을 이용하면 어혈제거를 통해서 염증도 자연스레 소멸된다. 이밖에 농업법인옻가네는 지난해 대한민국 신지식인 대상을 수상하며 2010년 제천국제한방바이오 엑스포 공식지정 상품으로 선정되었다.

콩을 발효시켜서 청국장 이나 된장으로 먹으면 훨씬 더 몸에 좋듯이 토종 참옻도 발효시키면 몸에 훨씬 더 이롭다. 옻을 식품에 첨가하면 독특한 효과가 있다.

고기 특유의 누린내를 없애주고, 육질을 부드럽게 하며 지방을 녹여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동시에 고기맛을 더욱 좋게 한다.

국내에서는 식약청(KFDA)에서 안전성을 인정한 검증받은 제품을 창업전문컨설팅 회사와 손을 잡아 전 제품을 무점포 50곳(중 · 소형 마트, 편의점, 건강식품판매점, 음식점 등)에 오픈하여 사업주 분들은 부담없는 금액으로 많은 시간의 투자없이 부업 및 투잡으로 최고의 사업으로 각광 받고 있다.

독성만 빼고 몸에 이로운 것만 담았습니다.

참옻식품의 **원조** 미국식품의약국안전청(FDA)에서 인증받은 절대 **옻 안타는** 제품입니다.

무색소
무방부제 / 무과당
100% 국내산



(삼계탕은 1.5리터 한병으로 8마리 이상 가능합니다)
참옻발효진액 (1.5ℓ ×12병)
168,000원



참옻진액(일반형)
참옻진액 : 2박스(80㎖×60포)
2개월분 198,000원



참옻진액(고급형)
참옻진액 : 2박스(80㎖×60포)
2개월분 260,000원



참옻다슬기진액(고급형)
참옻다슬기진액 : 2박스(80㎖×60포)
2개월분 298,000원

고급형구입시 선착순500분 사은품 증정

16 16th Anniversary 옻가네16주년기념

참옻, 민들레, 인진쑥이 듬뿍! 신제품 토종참옻환 옻가네 16주년 기념 파격 사은품 증정



토종환 별도구입시 3개월분 69,800원

몸에 좋은 참옻과 민들레 거기에 인진쑥을 더해
가족의 건강을 간편하게 지킬 수 있는
토종참옻환을 사은품으로 드립니다.

토종참옻환은 온가족이 간편하게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토종참옻에 신진대사 활성화, 면역에 도움을 주는 민들레에 항균 작용이 뛰어나 민간요법에 다양하게 활용되는 인진쑥을 더해 만들어진 토종참옻환을 옻가네 16주년 기념 사은품으로 하루 선착순 500분에 한하여 드립니다.

옻가네 농업법인 (주)옻가네 옻오르지 않는 참옻의 명가 제 2010-서울영등포-0212호

상담전화 : 080-810-8100
• 주문하시면 2~3일내로 안전하게 보내드립니다.